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 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차 례

1.	국가개요	1
2.	경제동향 및 전망/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3
3.	한국과의 무역관계/한국과의 관계	5
4.	한국과의 투자관계	8
5.	수입규제사례/일본의 수입규제 관련 제도 현황	11
6.	수입규제사례/주요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13
7.	출입국/비자	16
8.	환전	18
9.	기후	21
10.	공휴일	22
11.	호텔	23
12.	식당	25
13.	교통/통신	27
14.	유용한 연락처	32
15.	여행시 유의사항	36
16.	관광명소/큐슈의 관광명소	40
17.	관광명소	42

18.	유용한 현지어 표현	44
19.	국토	46
20.	국민	47
21.	역사	49
22.	국가조직	52
23.	정치제도	53
24.	정치사회동향/고이즈미 국내 개혁 추진	55
25.	국가원수	55
26.	주요인사	56
27.	행정구역/행정구역(1都 1道 2府, 43縣 總 47 區域)	56
28.	대외관계	58
29.	국가경쟁력/IMD발표 국가경쟁력 순위	62
30.	도량형	62
31.	관공서 관행	62
32.	국제공항 및 항구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33.	국제공항 및 항구/주요국제공항	62
34.	국제공항 및 항구/주요항구	70
35.	국제공항 및 항구/주요항구	71
36.	매스미디어	71

37.	주한 주재 국기관	72
38.	현지 화제 유머 속담/현지 화제 및 유머/속담 (1)	73
39.	물가 정보	74
40.	경제 발전사	75
41.	경제 정책/고이즈미 경제 정책	79
42.	금융 통화 제도	82
43.	주요 산업 동향/일렉트로닉스 산업	82
44.	주요 산업 동향/자동차 산업	89
45.	주요 산업 동향/철강 산업	94
46.	주요 산업 동향/통신 산업	100
47.	주요 산업 동향/정보 서비스 산업	104
48.	지적 재산권	107
49.	소비자 보호	111
50.	수입 관리 제도	116
51.	관세 제도	117
52.	통관 절차/통관	122
53.	유통 구조	124
54.	국제 입찰 제도	124
55.	외환 관리 제도/외환법	126

56.	시장 특성/시장 규모 및 특성	130
57.	상거래 시유의 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133
58.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135
59.	투자유치정책	140
60.	외국인투자제한	142
61.	투자진출절차	143
62.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145
63.	공장설립	155
64.	산업단지/주요 산업단지 리스트 1	158
65.	자유무역지대	164
66.	조세제도	166
67.	사회간접자본	167
68.	노동여건	169
69.	사회보장제도	174
70.	현지 생활여건	175
71.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176
72.	자녀 교육여건	178
73.	진출기업/도쿄지역 한국진출기업 리스트	180
74.	진출기업/오사카지역 한국진출기업 리스트	193

75.	진출기업/후쿠오카지역 한국진출기업 리스트	199
76.	진출기업/나고야지역 진출 한국기업 리스트	200
77.	주요 경제지표	202
78.	대외거래지표/일본의 대외거래 지표	202
79.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주요교역현황(2004년도)	204
80.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주요품목별 수출입동향	206
81.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동향	207
82.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우리나라의 대일 수입 동향	207
83.	대외 투자진출 통계/대외직접투자실적추이	208
84.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외국인 투자유치통계(국별)	208
85.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대일투자 동향 (요점)	209
86.	물가금융 지표	209
87.	노동통계/노동지표	210
88.	지방자치구역동향/일본 주요기관 현황	210

1. 국가개요

국명	일본(JAPAN)
위치	북위 45도 33분에서 20도25분 사이에 위치, 4개의 주요섬으로 구성
면적	377,829S/M (한반도 면적의 1.7배)
기후	4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기후. 남-북 길이가 3,300km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함
수도	도쿄(東京)/TOKYO
인구	1억2,768만명, (후생노동성 '2004. 10월 1일 현재, 가장 최근 통계)
주요도시	동경(8,026천명), 요코하마(3,434만명), 오사카(2,484만명) 후쿠오카(567만명), 교토(264만명), 후쿠오카(504만명), 히로시마(287만명)
인종	몽고족(大和族:야마토족) 99%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언어	일본어
종교	신도 49.4%, 불교 44.7%, 기독교 0.8%
건국기념일	2월 11일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천황 (明人:아키히토)
수상	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純一郎) - 취임일 : 2001. 4. (2003년 11월 수상 2기 취임)

경제지표

명목 GDP	505.2조엔(2004년도)
실질경제성장률	2.0%(2003년도 실적 기준, GDP성장율), 2.1%(2004년도 실적치 기준)
1인당GDP	33,748 달러(2003년), 36,608달러(2004년 명목GDP기준)
실업율	4.4%(2004년 12월), 4.4%(2005년도 4월)
물가상승율	(도매) : 1.4%(2004년), (소매) : - 0.2%(2004년)
화폐단위	Japan Yen (¥)
환율	US\$ 1= 110.57엔(2004년), 106.77엔(2005.6.8일 기준)
외채	692兆7,619億円(2004. 3월말 기준)
외환보유고	8,405.6억달러(2005년 2월)
산업구조	1차산업 1.7%, 2차산업 32.6%, 3차산업 65.6%
교역규모	1,021,594백만달러

* 연도/년도는 회계연도(일본은 4.1-3.31) 기준을 의미

<2003년 교역실적>

- 수출 : 471,912백만달러(13.1 %)
- 수입 : 383,361백만달러(13.4 %)
- 수지 : 88,551백만달러(11.8 %)

<2004년 교역실적>

- 수 출 : 566,302 백만달러(20.0 %)
- 수 입 : 455,292백만달러(18.8 %)
- 수 지 : 111,010 백만달러(25.4 %)

(자료원: WTA 통계 2005. 6.9 현재)

< 주요 교역물품 >

- 수출 :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전자부품, 전기.전자제품등(디지털카메라, 평면TV, DVD기기 등의 디지털관련 기기 등)
- 수입 : 기계류, 석유, 전자제품, 식품류, 의류, 잡화 등
- 체결협정 : 기본관계조약(1965.12월), 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협정, 항공협정, 대륙붕공동개발협정, 과학기술협정, 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는2005년 6월9일 현재 7차 협상까지진행, 한일 FTA는 포괄경제협정(EPA)형태로 추진, 그러나 역사문제 등으로 6월초 현재 교섭 보류 상황

<교역규모 >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 출	수 입	수 지
1999	420,116	311,794	108,322
2000	479,074	379,544	99,530
2001	403,247	349,235	54,012
2002	417,165	337,957	79,208
2003	471,912(13.1)	383,361(13.4)	88,551(11.8)
2004	566,302(20.0)	455,292(18.8)	111,010(25.4)
2005.1-4월	195,130(6.9)	163,290(13.0)	31,840(-16.1)

자료원 : WTA 통계 2005.6.9일 현재 발표기준

교역물품 :

- 수 출 : 전자부품, 유류, 섬유, 철강,
- 수 입 : 전자부품, 기계, 철강, 화학제품등

<일본의 대한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불)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962년-2004년 누계
건 수	591	474	495	552	8,274
금 액	772	1,404	1541	2,249	15,509

* 교민현황 : 613,791명 (2004년기준, 법무성 입국관리국 발표)

-일본내 전체 외국인거주자 인구의 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2위는 중국, 3위는

브라질순)

-한국.북한적 교포는 특별영주자수의 감소로 1991년말의 693,050명을 피크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2. 경제동향 및 전망/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1. 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

1) 최근 동향

- 일본경제는 '02년 1월부터 상승국면 진입 이래 플러스 성장세 지속중
-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 상승국면 진입의 바탕
- 2003년 중반이후 수출.설비투자, 제조업.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지속
 - 다만 2004년 2/4분기이후 GDP성장율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일시 조정국면(踊り場局面)에 처해 있는 기미
- 2/4분기이후 수출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 둔화와 더불어 異常暖冬으로 인해 개인소비가 기대수준을 하회
 - 그러나 기업생산이 재차 상승 조짐을 보이고 개인소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국면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양상
- IT부문의 재고조정 진전으로 인한 생산 회복세 시현이 주된 요인
- 1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102.1로 2개월만에 상승세 시현, 04년 5월의 피크를 넘어 약 4년만의 고수준 기록
- 세대당 소비지출은 1월에 평균 303,266엔으로 실질기준 0.5% 증가로 5개월만에 플러스 증가세 시현

<최근 일본의 GDP성장율 추이>

구 분	2003				2004			
	1/4	2/4	3/4	4/4	1/4	2/4	3/4	4/4
GDP성장율(%)	-0.4	0.7	0.5	1.4	1.5	-0.3	-0.3	0.1

자료 : 내각부

- 한편 실업율은 지난해 3월이후 4%대로 하락, 물가는 기업물가가 고유가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는 기조상으로 하락세

< 최근의 실업율.물가상승율 추이(단위 : %) >

구분	2004년					
	3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업율	4.7	4.6	4.6	4.7	4.5	4.4
실질임금	-2.7	-2.2	-0.6	-1.1	0.8	-0.7
기업물가	-0.1	-0.1	0.0	-0.1	-0.2	-0.2
소비자물가	0.2	1.5	1.8	2.0	2.0	1.8

자료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발표 자료(2005.6)

2) 향후 전망

- 금년도 일본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IT경기 조정, 미중 경기 감속, 기업의 인건비 억제 지속과 더불어
 -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원료.소재난) 등의 영향이 주된 요인
- 이에따라 일본정부는 1%대 중반, 민간기관은 1%대 초반 성장률을 예상
- 다만 IT부문의 조정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반이후에는 조정국면에서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주요 민간연구기관의 GDP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실질	명목	실질	명목
골드만삭스증권	1.7	0.6	2.1	1.5
BNP파리바증권	1.7	0.6	2.0	1.3
미즈호종합연구소	1.5	0.7	1.5	0.9
제일생명경제연구소	1.5	0.4	1.4	0.8
닛코시티그룹증권	1.5	0.4	1.4	0.8
일본종합연구소	1.5	0.6	1.2	1.0
메이지야스다생명	1.5	0.5	1.2	0.9
신칸쥬오금고	1.6	0.6	1.1	0.8
미츠비시종합연구소	1.6	0.5	1.1	0.8
스미토모생명종합연구소	1.7	0.5	0.9	0.5
일본경제연구센터	1.6	0.5	0.8	-0.0
UFJ종합연구소	1.6	0.5	0.6	-0.4
미츠비시증권	1.6	0.6	0.4	-0.3
13개기관평균	1.6	0.5	1.2	0.7
일본 정부	2.1	0.8	1.6	1.3

자료 : 상동

2. 일본경제 주요 현안 및 이슈점검

1) 디플레이션 극복

-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종합디플레이션대책을 마련(2002년 10월)
 - 은행 부실채권의 정리 등 일부 분야에서 구조개혁의 성과
 - 경기회복과정에서 물가 하락세가 낮아지고 디플레이션갭도 축소
- 그러나 여전히 금년도에도 디플레이션 기조 탈피는 어려울 전망
 - 일본정부는 2006년도에 디플레이션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최근들어 경제가 조정국면(일본식으로는 오도리바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하락세가 지속

2) 금융구조조정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2002년 10월 금융재생프로그램을 마련

- 동 프로그램하에서 정부,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수익성도 개선
- 그러나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부실채권비율이 여전히 8%를 상회
- 한편 은행의 수익력도 본업인 대출이 자금수요 부진 등으로 장기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취약한 수익력 노정
- 이러한 가운데 금융재편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
 - UFJ그룹과 미츠비시도쿄금융그룹의 합병이 예정
 - 미츠이스미토모은행과 다이와증권간에 경영통합 논의
- 일본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지속
 - 예방적 차원의 공적자금 투입 근거 제도로 금융기능강화 특별조치법 (2004.6.10)을 마련
- 한편 일본정부는 2004년 12월 종전의 금융재생프로그램에 대체, 금년부터 2년간 적용될 새로운 금융행정지침인 금융개혁프로그램을 발표

3) 적대적 M&A 방어책

- 최근들어 일본에서는 적대적 매수에 대한 우려가 대두
 - 라이브도어의 닛뽀방송 주식 인수가 직접적인 계기
- 법무성, 경제산업성, 금융청 등을 중심으로 회사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정비 등 일본기업의 적대적 M&A방어책을 적극 강구중
-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9월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가치연구회"를 결성
 - 기업이 적대적 매수에 대한 방어책을 도입할 경우에 있어서의 법적인 운영범위 등을 검토
 - 일본정부가 적대적 매수에의 방어책을 서둘러 강구하고 있는 이면에는 외국계자본에 의한 일본기업 매수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

4) 양적완화정책의 향배

- 일본은행은 2001년 3월 제로금리하에서 민간에 대한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른 바 양적 완화정책을 도입
- 이와같은 금융완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에는 기여하여 왔으나
 - 금융기관간 콜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 시중 자금공급을 통한 실물경제에의 파급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시장에서는 그동안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물가의 하락폭도 축소되어 옴에 따라 양적완화정책으로부터 금리정책으로의 전환 시기 등에 대해 주목해 왔음
-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3. 한국과의 무역관계/한국과의 관계

일본은 우리나라와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종종 미묘한 대립관계를 보여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민간레벨의 협력은 긴밀하게 이루어져오는 등 양면성을 내포한 국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교역측면에서는 대일무역역조문제가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을 해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와의 교역규모 자체가 클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부품·소재 등의 대일의존도도 덩달아 높아지는 현상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최근의 한일관계를 요약하면 '99.7월부터 기존의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전면철폐와 더불어 1998년 김대중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간다는데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 이래 2004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 조치로 구체화 되어오고 있다.

일본도 오부치총리의 방한('99.3.20)시 투자보장협정, 이종과세 방지협정,규격의 상호인정 등 한/일교류 확대를 적극 표명하고 있고, 나아가 양국간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FTA교섭에 앞서 양국은 2000년 5월, 9월에 21세기 한.일경제관계 긴밀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서울과 동경에서 교대로 개최하여 양국의 FTA(Free Trade Agreement)추진에 관한 기본 입장을 JETRO 아시아 경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 한일양국FTA의 출발이 되었다.

아울러,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5일간)까지 KOTRA, NHK, 아사히 신문이 공동으로 도쿄 BIG SIGHT국제전시장에서 한일문화교류제인 "코리아 수퍼 EXP0"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2001년 5월 오사카, 2002년 도쿄 마큐하리 멧세에서 "코리아 수퍼EXP0를 개최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에 맞추어 경제분야의 박이벤트를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JETRO가 COEX 전시장에서 2001년 2월 16일부터 25일까지(10일간) 일본 문화및 최신기술·상품을 소개하는 "한-일 교류제(KOREA-JAPAN FESTIVAL)"를 개최한바 있다.

2002년에는 세계인의 축구제전인 FIFA2002 월드컵 공동 주최를 통하여 지구촌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분위기를 한차원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한편, 월드컵 당시에는 개막식행사에 고이즈미 수상이 한국 방문하였으며, 폐막행사에는 김대중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 노무현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2004년중에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연속 개최하고 한일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한편 2003년부터 NHK위성방송으로 방영된 겨울연가가 불을 일으키면서 2004년도이후는 한류가 일본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힘입어 한국 드라마가 일본 지상파방송에서 방영되고 출연배우들도 일본을 속속 방문하면서 한류불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한일양국은 양국 국교정상화이래 40년이 되는 2005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정하고 관광·문화·이벤트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프로젝트를 연중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한일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정부는 이 같은 교류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아이치만박이 개최되는 기간중에 비자를 일시 면제하고 이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항구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한일 정상 2002년 월드컵 개·폐막식 교차 참석 - 고이즈미 총리는 5월 31일 서울

개회식 참석 - 김대중 대통령은 6.30 요코하마 폐회식 참석

- 월드컵 세부협력 강화 - 월드컵기간 한시적 비자면제(5.15-6.30) - 2002. 4월부터 한일 항공편 1주 90-140편 증편 - 월드컵 기간 김포-하네다 전세기 10편 운항 - 월드컵 기간 사전입국심사제 실시등
- 한일 협력관계 강화 - 고이즈미 수상의 대통령 취임식(2.25) 참가 - 가와구치 외장관의 차기 대통령과 면담 - 차관보급 이상 고위 정책협의회 활성화 - 항구적 비자면제 문제 적극협의 - 워킹 홀리데이 비자발급 확대, -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강화
- 한일 경제.통상협력 - 투자협정 서명 및 조기 발효-자유무역협정(FTA)정부간 교섭 6차 회의 개최(2005.6월 현재) - 도하개발어젠다(DDA) 논의 적극협력 -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 - 한국산 돼지고기 2004. 10월 중 수출재개(제주도산에 한해 수입금지조치 해제)
- 대북정책 조율 강화 -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해, - 한국과 공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주장 - 주변 6개국과의 공동협의 주장, '03년부터 개시된 북핵 6자회담 실현, 이후 6자회담 지속 개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 지속 전개
- 한일 정상회담 (1차 2003.6.6-9 도쿄, 2차 2004년 6월, 11월 제주도/가고시마)
 - 1차 2003.6.6-9,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 고이즈미 수상과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간 대책, 2005년부터 양국간 비자면제, FTA협의를 양국간 상호 우호증진 강화를 위한 회담개최
 - 2004. 12. 17-18, 노무현 대통령이 가고시마를 방문, 고이즈미수상과 정상회담실시,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일교류(한일 우정의 해 2005), 한일 FTA, 세관협력 등 양국간 실무협력, 북핵 문제, 동아시아지역과의 협력, 이라크지원문제 등에 대해 회담 실시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양국합의 사항 >

-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2차 정부간 교섭회의 개최(2004.3)에 이어 6차회의개최(2005.6월 현재), 한일 FTA는 포괄경제협정(EPA)형태로 추진키로 양국이 합의
- 이에 앞서 한일간에는 FTA 준비회의 성격의 산관학 공동연구회의를 개최
 - 제1차 회의를 2002.7. 9-10일 서울에서 개최 이후 03년 12월까지 7차에 걸쳐 한일 공동, 산관학 FTA 공동연구회 개최.
 - 2005년 2월 현재 7차에 걸친 한일 FTA 정부간 교섭회의 속개중

한편 전술한대로 200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한일 우정의 해)로 한일 양국간에는 각종 기념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가운데 특히 관광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이 친선대사를 선정, 본격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다만 2005년들어 불거진 교과서문제, 독도문제 등 역사문제가 돌출함으로써 이 같은 우호협력 분위기가 상당부분 악화되어오고 있어 양국정부 등 관계당국에서는 이 같은 국면의 타개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1999	15,862(29.6)	24,142(43.3)	-8,280
2000	20,466(29.0)	31,828(31.8)	-11,361
2001	16,506(-19.4)	26,633(-16.3)	-10,127
2002	15,143(-8.3)	29,856(12.1)	-14,713
2003	17,276(14.1)	36,313(21.6)	-19,037
2004	21,701(25.6)	46,144(27.1)	-24,443
2005.1-4월	7,636(8.9)	15,783(3.4)	-8,147

자료 : KOTIS무역통계(2005.6.9일 현재 발표기준)

4. 한국과의 투자관계

1. 일본의 해외투자 동향

□ 일본기업의 최근 해외투자 증가 추세

- 일본의 최근 해외투자는 01년을 바닥으로 0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97년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음
 - 일본의 해외투자 : △34.5%('01년)→13.6%('02)→24.5%('03.상)

< 일본의 해외투자직접 동향 >

(단위 : 백만불, %)

구분	97	98	99	00	01	02	03.1-6월
금액	53,977	40,941	66,975	48,728	31,905	36,239	21,266
증감률	12.4	△24.2	144.2	△27.2	△34.5	13.6	24.5

자료 : 재무성 대내외 투자통계(2004년)

주 :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달러베이스 통계 발표를 지양, 엔화 베이스의 통계만 발표기로 결정(달러베이스 통계는 JETRO에서 부분적으로 발표하는 관계로 통계소스상의 불일치 등의 요인이 발생)

□ 對중국 투자 관심 증가로 대한투자 위축 우려

- 최근 일본의 對중국 투자는 금액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한투자 비중은 크게 감소
 - 對中투자비중 : 4.6%('01) → 6.2%('03.1-6)
 - 對韓투자비중 : 1.8%('01) → 0.8%('03.1-6)

< 일본의 주요국별 해외투자 동향 >

(단위:백만불,%)

구분	2001년			2002년			03년 1-6월		
	구분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미국	208	6,401	20.1	229	8,366	23.1	111	7,358	34.6
영국	48	3,966	12.4	30	4,359	12.0	16	1,409	6.6
프랑스	12	309	0.1	17	3,574	9.9	8	1,232	5.8
네덜란드	629	4,506	14.1	886	2,986	8.2	679	4,419	20.8
중국	189	1,445	4.5	263	1,766	4.9	155	1,320	6.2
한국	47	563	1.8	44	626	1.7	19	167	0.8
기타	635	14,715	46.1	675	14,562	40.2	283	5,361	25.2
합계	1,768	31,905	100.0	2,144	36,239	100.0	1,271	21,266	100.0

자료 : 재무성 대내외투자통계(2004년)

주 : 신고기준, 구성비 : 금액기준

□ 일본의 해외투자는 1인당 국민소득과 밀접한 관계

-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GNI)과 대내외 직접투자간의 연관성은 해외의 대일 직접투자 보다는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와 보다 밀접
 - 대외직접투자가 수출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 일본의 1인당국민소득과 대내외직접투자와의 관계 >

연도	1인당GNI(불)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억불)	해외의 대일 직접투자(억불)
1984	10,562(1만불대돌파)	101.5	4.9
1987	20,182(2만불대돌파)	333.6	22.1
1992	30,801(3만불대돌파)	341.4	40.8
1995	42,559(4만불대돌파)	513.9	38.3
1998	31,788	362.4	104.7

* 자료 : 일본 재무성

2. 일본의 대한투자(대일투자유치) 동향

□ 개황 : 대일투자유치는 금액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2위

- 일본의 대한투자실적은 62년부터 2004년까지 총 8,274건, 155억 9백만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의 대한투자국임

- 최근 동향을 보면 97년 한국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정부의 강력한 투자 유치 정책과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대한진출에 의해 대한투자가 급증했으나, 장기 불황에 의해 악화된 일본 기업의 수익력이 01년 IT불황에 의해 더욱 악화되며 설비 투자 여력이 축소되어 대한투자 도 전년비 68.5% 감소함
- 02년 NEC의 휴대폰부품공장 투자 등 대형투자로 인해 증가했던 대한투자는 03년 중국 및 아세안 등 동남아에 비해 메리트가 감소되며 다시 전년대비 61.4% 감소함
- 04년의 경우 03년 1월1일부터 발효중인 한일투자협정과 03년 12월부터 본격화된 한일 FTA협상 (05년까지 체결 목표로 추진중)이 일본기업들에게 대한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필립스의 LCD관련 대형설비투자에 따라 관련 일본 부품 소재업체들의 한국진출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힘입어 315.7%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음

< 대일투자유치현황 >

(단위 : 건, 백만불, %)

연 도	투자유치(전체)			對日투자유치			
	건수	금액	증감률	건수	금액	증감률	비중
2000	4,141	15,697	1.0	615	2,448	39.9	15.6
2001	3,340	11,870	△24.4	591	772	△68.5	6.5
2002	2,435	9,101	△23.3	474	1,403	81.7	15.4
2003	2,561	6,468	△28.9	495	541	△61.4	8.4
2004	3,104	12,770	97.4	552	2,249	315.7	17.6

자료원 : 산업자원부(2005년 6월일 현재)

□ 특징 : LCD관련 부품소재 및 문화콘텐츠 분야 진출 확대

- 삼성전자의 제7세대 LCD패널 공장 설비투자 및 LG필립스의 제6세대 공장 설립 (파주에 제7세대 공장 계획중)과 관련 일본 부품.소재업체의 한국 진출이 급증하고 있음
 - LCD용 유리기판, 포토마스크, 타겟재, 편광필름 등
- 04. 1.1부로 일본문화가 사실상 완전개방되며, 일본 문화콘텐츠 관련 업계의 한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방송콘텐츠(위성디지털방송), 교육문화사업, 출판사업 등
- 대형 자동차회사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판매법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차론 등 파이낸싱업체의 진출도 증가
 - 혼다, 오릭스, 도요타파이낸스 등. 끝

5. 수입규제사례/일본의 수입규제 관련 제도 현황

가. 일본은 외환법, 관세정율법, 관세법, 기타국내법, 조약 및 국제협정에 의해 수입무역을 규제

① 외환법상의 규제

- 승인을 요하는 화물
 - 수입공표 제1호(수입할당품목) : 비자유화품목(일부 농수산물 등)과 국제협정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품목
 - 수입공표 제2호 : 특정원산지 및 선적지로부터의 특정 화물 (한국산 견사 등), 워싱턴조약 등에 의한 규제품목
- 확인을 요하는 화물(수입공표 제3호)
 - 사전확인품목 : 한국 등을 원산지로 하는 견사 등
 - 통관시확인품목 : 양귀비씨, 대마씨 등, 한국 및 대만산 견직물 등

② 관세정율법에 의한 규제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 위조통화, 권총, 마약 등의 수입 규제

③ 관세법에 의한 규제

- 관세납부등을 포함한 수입통관수속상의 규제
- 일본의 관세제도
 - 일반관세
 - 특혜관세
 - 관세할당
 - 간이세율제도
 - 특수관세 : 반덤핑과 보조금에 의한 수출과 같이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예상하여 부과, 수입급증 등에 대해 할증관세 부과 (발동 조건과 절차는(WTO)에서 정함)

④ 기타 국내법에 의한 규제

- 일부 품목의 수입금지 : 대마거래법, 식물방역법
- 수입검역 :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수입 허가 및 등록제 : 약사법, 비료거래법
- 일별 검역할당제 : 야채류등 세관별 검역목표 설정

⑤ 조약과 국제협정에 의한 관리

-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인정한 수입규제 방식에 의한 규제
- 워싱턴조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조약(특정유해폐기물), 화학병기금지조약, 대인지뢰 금지조약 등

나. 일본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 도입 동향

- ☐ 최근 일본의 농수산물 관련 수입규제조치는 일본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것 이라기 보다는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집권여당(자민당 등)의 선거(참의원 선거 등)를 겨냥한 유권자 잡기라는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농산물 3개품목에 대한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

- 파, 생표고버섯, 이구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일본정부가 최초로 발동한 조치로 동 조치 발동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한 상황임)

· 찬성 : 피해받으면 발동 당연하며 발동을 예상해 조기수입한 제품에도 잠정관세 적용 주장

· 반대 : 발동후 최대 피해국인 중국의 보복조치를 의식하여 협의를 요청한 점(WTO가 금지하는 수입자유규제라는 회색조치에 해당될 가능성 큼),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시장원리에 반하는 조치, 비효율적 생산자 보호로 효율적 생산자(해외직접생산 및 위탁생산등 경영합리화 기업)에게 피해를 전가함으로써 산업재건과 합리화에 역행한 점 등을 들어 반대

- 농산물 3품목중 파의 경우 일본국내시장점유율이 8.2%에 불과한 점을 볼 경우, 찬성여론에 대한 타당성 부여는 다소 무리가있는 상황이며, 전체적으로 중국의 보복조치 등에 대한 우려등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

- 동건에 대해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철회하는 것으로 양국간합의(중국의 일본 자동차, 에어컨, 휴대전화등에 대한 보복관세 철회와 일본측의 농산물 3개품목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철회)

- 반대여론의 핵심은 조치발동의 불합리성을 감안시 이번 조치는 지방에서 우세한 자민당의 지역구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조치라는 견해

○ 세관의 1일 검역검사건수 상한제 도입(2001. 4.1)

- 일본농림수산성이 4월부터 각 항에 1일 검사 건수를 정해 검역을 실시하는 검역개선책을 시행함에 따라 통관이 적기에 이루어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이 이에 대한 개선 요구서한을 발송

- 동 조치 역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야채수입 증가로 인한 검역량이 늘어 난데다 세관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철저한 검역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선거 등을 겨냥,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 조치로 보임

○ 경제적상황관련 주요 사례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보수집모니터링체제 강화(2000.2))

· 일본 농림수산부가 세이프가드조치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수집하기 위해 특정 농수산물을 감시대상품목과 급감시대 상품목으로 정해 운영

· 감시 대상 품목은 마늘, 가지, 합판, 마른 표고버섯, 미역, 장어(조제품 포함), 가다랭이이며, 긴급감시대상품목은 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제제품 및 집성품)임

· 파, 생표고버섯, 이구사 3품목도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

(관세할당 제도)

· 피혁3품목(염착색된 소와 말 가죽, 염착색된 것 이외의 소와 말가죽, 염착색된 양과 염소가죽, 혁화(혁제 및 가죽을 사용한 신발(스포츠용 및 슬리퍼외), 에틸알코올(주류제조용) 등 5개품목에 대해 2단계 관세율(할당범위내 저관세, 범위 초과 고관세)을 적용하는 제도로 경제산업부 장관 명의로 매년 2회에 걸쳐 할당 수량을 발표

- 일본 국내의 관련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함

(반덤핑관세)

-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 국산 반도체(하이닉스)에 대한 반덤핑 과세 신청('04년 6월)
- 국산 타이어보강재(타이어코드용 폴리에스테르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과세신청 검토
(일본화섬협회 주관, '04년 6월중)
- *대만.중국제 자전거에 대해서도 발동 검토(현재는 해제)

다. 기타(외교적 상황 등) 규제

- 몬트리올 의정서에 정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수입규제(88.7)
- 워싱턴조약동식물 및 그 파생
- 물에 대한 수입규제
- 이라크로부터의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규제
-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칙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특정물질 및 제1종 지정물질에 대한 수입규제(95.2)
- 테러 위험도 높은 국가로부터의 수출입에 대한 규제(2001. 12)

라. 규제역에 따른 잠정 수입금지

- 2002년 4월부터 한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하기로하였으나, 돈코레라 발생 지역으로 수입 잠정 중단되고있음

마.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규제

-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이 5%를 초과하는경우 수입을 금지조치함. 이는 중국산 냉동 시금치에서 계속 농약이 검출되어 잔류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 수입금지 법안을 마련

6. 수입규제사례/주요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1. 최근의 대한민국 수입규제 품목 및 규제 현황

1) 대한 수입규제 일반 동향

- FTA 강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 수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 추세에 있으나 ①지적재산권관련(특히 전기전자분야), ②식품위생관련 (농림수산물, 축산물 등)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정식으로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은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관세),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금지 등이 있음
- 한편 지적재산권, 정부보조금 문제 등을 배경으로 한 한국업체 제소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삼성 PDP 피소, 후지츠와 화해로 일단락
- 하이닉스 DRAM 반도체, 엘피타사가 2004.6.16일부로 상계관세 부과 신청, 재무성 수리, 상계관세 부과여부 결정을 위해 조사 추진중
- 타이어보강재(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 직물)에 반덤핑 부과 신청검토 (04.6.18일부, 일본화섬협회 주도)

2) 대한 수입규제 세부 내역

□ 질병 등에 의한 수입금지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금지

- 구제역발생관련 소고기(및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03년 8월1일부 개시, 이후 지속
- 구제역발생관련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4월12일 일시 해제 조치후 재차 수입금지 조치. '04년 5.15일부로 제주도산에 한해 수입금지 해제, 이후 재차 수입금지 조치
- 조류독감 발생관련 한국산 닭고기(및 가공품)수입금지. '03년 12월12일부 개시, 현재도 적용중

□ 반덤핑 과세 조치

○ 한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 조사개시 : 2001년 4월 23일
- 조사종료 : 2002년 4월 22일
- 대상품목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굵기 : 3.88-22.23, 길이: 25-80mm)
- 부과기간 :200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과 결정
- 제조기업 : 도레이, 크라레,유니치카 파이버등
- 피제소기업 : 한국 : S사 등 30사, 대만 : CHUNG SHING TEXTILE CO, LTD외 7사

□ 세이프가드(SG)관련 모니터링 체제 정비

○ 농림수산물에 주된 대상으로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일본 국내 산업에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2단계 모니터링 실시중으로 한국은 농수산물이 대상으로 지정됨

- 모니터링대상은 수입국 전체,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요주의
- 상기 품목외에 파에 대해서도 일본 당국은 요주의 품목으로 관리중

< 감시대상품목(농림수산물성관련) >

- 마늘, 가지, 加糖조제품, 합판, 건표고버섯, 가다랭이, 연어, 송어, 복어(0/상레벨1) 감시대상품목 지정, 분기단위 조사
- 더욱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기 품목(레벨2)에 대해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재지정, 월단위 모니터링 실시. 파, 생표고버섯, 다다미, 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製材품및 集成材), 미역, 뱀장어(조제품포함)

< 감시대상품목(식품위생법관련) >

* 장염 비브리오 검출관련 감시대상품목 지정 운영

- 품목명 : 섬게(일본명 : 우니), 피조개, 키조개(일본명 : 타이라기貝)
- 모니터링 실시기간 : '05.7.1-10.31

□ 식품위생법관련 수입규제(세관 검사 강화)

- 법률 근거 : 식품위생법 제15조 3항에 의거한 검사명령 실시
- 실시내용
 - 실시기간 : 2003.4.1-계속
 - 검사방법 : 관련법률 규정에 입각, 전국세관에서 全數 조사
- 한국관련 조치 내용(대상품목 및 감시대상 물질.성분)
 - 복어(어종감별), 피스타치오넛츠(이후라톡신), 믹스스파이스(좌동), 시안화합물 함유 두류(시안화합물), 캐사바 및 동가공품(좌동) : 이상은 전수출국대상
 - 돼지고기(설파지미진), 활장어(오키소린산), 양식 광어 및 동 가공품 (옥시테트라사이 클린, 엔로후로키사신), 2매패 및 동 가공품(마비성패독), 냉동피조개(황색 5호 및 적색 102호코치닐, 구치나시황색소, 모나스카스색소), 오리 및 동 가공품 (지크롤 보스), 청고추 및 동 가공품(에토프로호스), 적고추 및 동 가공품 (에토프로호스), 미니토마토 및 동 가공품(EPN), 미나리 및 동가공품(크롤피리호스), 파프리카 및 동 가공품 (에토프로호스), 부추 및 동 가공품(크롤피리호스), 파 및 동 가공품 (프로시 미돈, 크롤피리호스), 들깨 및 동 가공품(비헨트린), 상추 및 동 가공품(프로시미돈) : 이상은 한국 해당 품목

2 . 비관세 장벽 현황

1) 수입할당제 운영

- 어패류 수입할당제
 - 9종의 어패류(대구, 방어 등)에 대한 수입할당제 시행
 - 할당규모 : 9종 합계 연간 4천만불 범위내
- 김에 대한 수입할당제
 - 할당규모 : 04년도의 경우 240백만매(대한국)
- 다시마 조제품에 대한 수입할당제
 - 할당규모 : 500메트릭톤

2)관세할당제 운영

- 견연사에 대한 관세할당제 잠정 운영
 - 05년1월1일부터 섬유협정 체결시 철폐
- 가공피혁 및 혁제신발류에 대한 관세할당제 운영

3)검역.검사

- 패류(굴 등)에 대한 과도한 검사

- 신선야채·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유해물질 발견관련)
- 식품위생관련
 - 가공식품에 대한 폴리솔베이트 사용금지
- 기타
 - 수입차에 대한 인증제도의 국제 정합성 결여
 - 항만 하역작업시 항운협회의 사전협의제 운영
 - 냉동 수산물 운송용 특수차량의 일본내 운행 제한 등

7. 출입국/비자

1) 여권 발급기관

- 서울 : 노원구청, 서초구청,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 지방 : 각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

<여권 신청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각 지역 여권발급창구)
- 칼라사진 (여권용 3.5 X 4.5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무배경, 탈모) 2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1통
- 인지대 복수여권 4만5천원 / 단수여권 1만5천원
- 도장 (본인 직접 신청시 사인도 가능)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시 부(父) 또는 모(母)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2) 비자 발급기관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의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에서 신청가능
- 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서울소재)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제주도

<일본비자 신청서류>

-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발급신청서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비치되어 있음) 1통
- 사진 (칼라, 상반신, 4.5×4.5,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1매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매
- 신원보증서 (신청인의 신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서류)
 - ※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
 -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 무직자의 경우 보증인 서류 및 관계증명용 서류

- 위 서류 중 만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 않으며 학생인 경우 여권, 사진, 신청서,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한 일본대사관 (www.japanem.or.kr) 홈페이지의 비자 발급 안내 참조 요망

3) 비자 필요여부 및 특이사항

기본적으로 하기와 같은 비자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아이치엑스포 개최기간 중(2005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한해 90일 이내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됨. 본 조치는 취업 의도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비자가 필요. 단, 외교 혹은 관용(공용)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 외교 혹은 공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종래부터 비자가 면제

위의 기간 중이라도 한국인이 단기체재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 심사 후 기존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함

관광 목적의 관광비자신청 (15일/ 90일)은 15일 관광 멀티플 (제한 1년내 15일씩 출입국을 몇 번이고 할 수 있음. 단, 관광에 한해서만)과 3개월 단기체류비자(1년에 1번, 3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수 있음)

출장이나 사업으로 15일 초과 체재할 경우 상용비자

상사주재원의 재류기간은 3년, 1년, 6개월 또는 3개월이며 주재원 가족의 재류기간은 주재원 본인과 동일함

- 6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필하여야 함
 - 외국인 등록절차 및 수속
 - 시기 : 일본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담당기관 : 거주지의 市區町村 사무소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신청서 1부, 사진2매
- 재류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비자연장 필요
 - 관할지방 입국관리국에서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가능
 - 필요서류 : 여권,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2부, 신청이유서 1부
신원보증서 1부, 재류기간 갱신 필요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원 보증인의 보증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1부
- 재입국 허가
 - 장기비자를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는 도중 일시 출국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동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 종래에 가지고 있는 비자는 자동 취소되므로 출국후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받아야 함
 -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명서, 여권

- 재입국 허가의 종류에는 2종이 있음
- . 싱글 : 1회한 (수수료 : 3,000엔)
- . 멀티플 : 다회 출국 및 재입국 가능(6,000엔)
- 재입국 허가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재입국 허가는 무효가 되며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아도 무효가 됨

4) 출입국절차 및 유의사항

출입국시 특별한 어려움은 없음. 일본어가 불가능해도 무관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별송품이 있는 여행자는 " 휴대품신고서 "를 제출해야 함. 그 외의 여행자는 구두로 신고함. 용지는 항공기내, 선내, 세관에 준비되어 있음

일본 세관의 통관 검사는 비교적 관대한 편임. 세관원은 매우 수상한 인물에 한해 수화물의 개방을 요구함. 고가의 제품이라도 일본 현지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용 물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음

단, 불법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엄격히 단속하며 특히 마약류를 상시 단속함

< 휴대품 면세범위 >

품 명	수량 또는 가격
주 류	3병 760ml 1병으로 계산함
담 배	권련 : 200개피 여송연 : 50개피
향 수	2온스 (56ml)
기 타	상기 품목을 포함, 개인당 200,000엔 (원화 약 2,000,000원)까지 면세 대상임

다음 물품은 법률에 의해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 일본 당국은 하기 물품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소지해서는 안 됨

- 마약, 각성제류
- 총기, 도검류
- 외설잡지, 테이프류
- 야생동물류, 식물, 의약품 등

8. 환전

1) 개요

일본 화폐단위는 엔(Yen)이며 표시기호는 ¥임.

화폐는 주화와 지폐로 구성되어 있음. 주화는 1, 5, 10, 50, 100, 500엔 등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폐는 1,000, 2,000, 5,000, 10,000 엔권 등 4 종임. 지난 2004 년 11 월 1 일부터

10,000 엔권, 5,000 엔권, 1,000 엔권의 신권이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음. 새로운 은행권의 발행 후에도 현재의 은행권 (구지폐)도 계속해서 유효함.

일본은행은 2000 년에 500 엔권 주화의 디자인을 변경했고 2000 년 7 월에는 2000 엔권 지폐를 발행했음.

중앙은행 발행 화폐 이외에 한국과 같은 고액권 자기앞수표는 사용되지 않고 T/C 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만 통용됨.

당좌수표의 경우 개인 당좌수표는 없으며 법인발행 수표만 통용됨. 엔달러 환율은 2005 년 6 월 6 일 현재 USD1 당 107 엔, 엔원화 환율은 100 엔당 936 원임.

일본 출장 및 여행 출발전 한국에서 미리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함. 일본의 환전업무는 자유화되어 있고 출장자의 경우 은행, 호텔 등에서 주로 환전하고 있음.

2) 환전가능한 장소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지역>

- 외환은행 도쿄지점, 오사카지점, 후쿠오카지점

<나고야지역>

- UFJ 은행 (원->엔, 엔->원)
 - 중부국제공항 출장소 (08:00-22:00 / 연중무휴),
 - 아이치만국박람회 출장소 (9:00-15:00 / 엑스포기간중 무휴)
- 도쿄미쓰비시은행 (원->엔, 엔->원)
 - 나고야지점 (09:00-15:00 / 토.일요일 휴무)
- 미즈호은행 (원->엔)
 - 나고야지점, 나고야중앙지점, 나고야역전지점, 나고야빌딩지점, 오조네지점, 이찌노미야지점, 오카자키지점, 토요하시지점 (09:00-15:00, 토.일요일 휴무)
- 주쿄은행 (원->엔, 엔->원)
 - 본점영업소 (11:45-14:30, 토. 일요일 휴무)
- World Currency Shop (도쿄미쓰비시은행 계열 외화/환전취급점) (원->엔, 엔->원)
 - 나고야역전 메르사점 (10:00-18:00, 토요일 11:00-17:00, 일요일 휴무)
 - 사카에 메르사프라쓰점 (11:30-18:30, 토요일 11:30-17:00, 일요일 휴무)
- 우체국 (원->엔, 엔->원)
 - 나고야중앙, 치쿠사, 도요타, 나고대학내, 나고야역앞 분실(分室)
- 나고야지역 해외발행 신용카드(PLUS, CIRRUS) 대응 ATM 기 설치장소

설 치 장 소	층수	주 소	영업시간
UFJ 카드			
나고야힐튼호텔	1F	名古屋市中区栄1-3-3	7:00~23:00
나고야관광호텔	1F	名古屋市中区錦1-19-30	7:00~23:00
나고야니시키위싱톤호텔 프라자	2F	名古屋市中区錦3-12-22	24시간
웨스턴호텔 나고야캐슬	1F	名古屋市西区樋の口町3-19	7:00~23:00
메이테츠 메르사	B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2-4	10:00~20:00
테루미나 CD코너	7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1-2 名古屋ターミナルビル	9:00~21:00
메이테츠 백화점	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2-1	월~토 10:00~19:30 일, 휴일 10:00~19:00
유니몰	B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4-5-26 先ユニモール地下街	8:00~20:30
JR나고야 타카시야마	10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1-4	10:00~19:30
중부국제공항	2F	常滑市セントレア1-1	7:00~24:00
미쓰이 쓰미토모 VISA카드			
JR나고야 타카시야마	10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1-4	10:00~19:30
선로드 나고야서비스센터	B1F	名古屋市中村区名駅4-7-25 名古屋地下街サンロード	7:00~21:00
JCB카드			
도카이 영업부	1F	名古屋市中区新栄町2-13栄 第一生命ビル	9:00~17:00
시티뱅크			
나고야지점	1F, 8F	名古屋市中区栄3-14-15 スギビル1F・8F	24시간
나고야역 출장소	33F	名古屋市中村区名駅1-1-4 セントラルタワーズ内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6:00
중부국제공항	2F	常滑市セントレア1-1	24시간
AEON 크레딧 서비스			
AEON ATSUTA 쇼핑센터	1F	名古屋市熱田区六野1-2-11	9:00~23:00
AEON 월드 데스트 나고야	1F	名古屋市中区錦3-4-6桜通大津第 一生命ビル	00:10~23:45
중부국제공항	2F	常滑市セントレア1-1	00:05~23:50
기타 설치장소			
자스코 모리야마점	1F	名古屋市守山区大字吉根字笹ヶ 根 559-2	9:00~22:00
자스코 세토미즈노점	1F	瀬戸市本郷町68	9:00~23:00
다이아몬드시티 원더시티	1F	名古屋市西区二方町40	7:00~22:00
자스코 도요타점	1F	豊田市広路町1-1	00:00~23:45
자스코 타카하시점	-	豊田市東山町1-5-1 店内オレンジ駐車場前)	9:00~21:00
지하철 혼고역	-	名古屋市名東区本郷2-132	00:15~23:50
AEON 아리마쓰 쇼핑센터	2F	名古屋市緑区字有松町200	9:00~23:00

9. 기후

<일본의 기후>

4 계절이 분명하며 전 국토가 북에서 남으로 약 3,300 km에 걸쳐 뻗어있고 복잡한 지형과 해류에 의한 영향이 커 지역에 따라 기후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임.

대부분의 지역이 ‘해양성 온대기후’에 속하나 북쪽 지역의 경우 아한대 기후를 나타내며 큐슈 이남 지역은 아열대 기후의 특징을 보임.

6 월 초순부터 7 월 중순에 걸쳐 약 1 개월 이상 지루한 장마가 지속되며 8 월 중순부터 10 월에 걸쳐 남태평양에서 생성되는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음.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동남 계절풍이 태평양에서 불어오고 겨울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아시아 대륙에서 불어옴.

태평양 인근 지역은 대체로 여름에 비가 많고 겨울에는 건조한 바람이 부는 날이 계속됨. 반대로 동해 인근 지역에는 여름에 비가 적은 대신에 겨울에 눈이 많고 지역에 따라 적설량이 2-3 미터에 달함. 도쿄의 겨울은 비교적 온화하며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것이 특징임.

<오사카지역 기후>

오사카는 위도상으로 한국의 부산, 제주와 비슷한 위치이나, 기온상으로는 연평균 섭씨 2-3 도 정도 높은 편이다. 겨울에도 영하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어 눈이 내리는 경우도 매우 드뭄.

5 월 중순부터 30 도를 오르내리는 여름날씨가 시작되고, 9 월말까지는 낮기온이 30 도 이상인 경우가 많음.

한국보다 평균기온이 높은 편이라든 겨울철 난방은 온돌이 아닌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함. 일반 가정은 오히려 한국보다 매우 춥다고 느낄 정도이고, 호텔 등 숙박시설도 에어컨만을 사용하므로 다소 한기를 느낄 수 있음.

<나고야지역 기후>

남쪽으로 태평양을 접하고 서쪽에서 북쪽을 거쳐 동쪽에 이르기까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형임. 하절기에는 남동계절풍이 불어와 매우 고온 다습하고 동절기에도 습도가 높은 날이 많지만 영하기온으로 떨어지는 날이 드물고 적설량도 매우 적은 편임.

낮 최고기온이 30 도를 넘어서는 나고야의 하절기는 통상 5월말부터 시작하여 9월말까지 계속 됨. 분지 지형의 특성상 무덥고 습하기로 일본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유명함. 봄, 가을은 짧은 편이며 대부분의 현지 주택에 온돌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동절기에는 한국보다 춥게 느껴짐.

<후쿠오카지역 기후>

큐슈는 위도가 대부분 제주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아열대성 기후를 보임. 특히 한 때

일본 국내 신혼여행지의 메카였던 미야자키를 가 보면 길가에 죽 늘어서 있는 야자수 나무가 남국의 정취를 물씬 풍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년에 4계절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더 온화한 편임. 겨울에도 눈이 내리는 경우는 드물어 큐슈 지역 사람들은 스키를 타기 위해서 혼슈로 가야만 함. 대신 화산이 많아 온천이 풍부한 탓에 추운 겨울에는 곳곳에서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음. 바다로 둘러 쌓인 섬 답게, 무더운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해상스포츠를 마음껏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김. 온갖 꽃이 만발하는 봄에는 특히 벚꽃이 많은 이로부터 사랑 받음.

10. 공휴일

일본의 축일법(祝日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도 일본 법정공휴일

일자 (요일)	공휴일 명칭
1. 1 (토)	신년공휴일 (元旦)
1.10 (월)	성인의 날 (成人の日)
2.11 (금)	건국기념일 (建國記念の日)
3.21 (월)	춘분의 날 (春分の日)
4.29 (금)	초록의 날 (みどりの日)
5. 3 (화)	헌법기념일 (憲法記念日)
5. 4 (수)	국민의 휴일 (國民の休日)
5. 5 (목)	어린이날 (こどもの日)
7.18 (월)	바다의 날 (海の日)
9.19 (월)	경노의 날 (敬老の日)
9.23 (금)	추분의 날 (秋分の日)
10.10 (월)	체육의 날 (体育の日)
11. 3 (목)	문화의 날 (文化の日)
11.23 (수)	근로감사의 날 (勤勞感謝の日)
12.23 (금)	천황탄생일 (天皇誕生日)

< 연중 일본 현지 출장을 피하셔야 할 기간 >

- 3월 중순 - 3월 말 : 한국과 달리 일본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임. 이에 일본기업은 연도 결산월인 3월 말까지 연간 결산업무를 반드시 종결해야 하기 때문에 3월 중순에서 말까지 외부인과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매우 강함.
- 4.29 - 5. 5 : ‘골든위크 (ゴールデンウィーク, GOLDEN WEEK)’ 라고 불리는 연휴 기간으로 은행 및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하고 있어 업무 연락이 불가함.
- 8월 중순 : ‘오봉야스미 (お盆休み)’ 로 지칭되는 여름휴가기간으로 8월15일을 전후 하여 약 10일간 상당수 기업의 직원들이 휴가를 떠나 접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12.29 - 1. 3 : ‘연말연시연휴(年末年始連休)’ 기간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이 일제히 휴무하고 있음.

11. 호텔

1) 일반 호텔 (ホテル)

일본의 일반 호텔요금은 지역과 등급 및 시설 수준별로 매우 다양함. 연중 시기별 수급 동향에 따라 호텔요금의 변동폭도 적지 않음. 통상 싱글 (1 인실)을 기준으로 15,000 - 25,000 엔 수준임.

일본의 호텔은 주로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이 보급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도시 소재 호텔은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호텔예약을 검색, 신청할 수 있는 현지 인터넷사이트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일본 일반호텔 검색 및 예약 가능 인터넷사이트>

사이트명	홈페이지	한국어 지원
일본숙박정보 (Accommodation JAPAN)	www.e-stay.jp	가능
JTB 숙박예약정보 (JTB 宿泊予約情報)	www.yado.jtb.co.jp	불가
Rakuten TRAVEL (楽天トラベル)	www.mytrip.net	가능

2) 비즈니스호텔 (ビジネスホテル)

잡은 출장 업무에 분주하고 저렴한 숙박비를 선호하는 비즈니스 출장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로 룸과 욕실이 일반 호텔보다 좁음. 요금은 싱글 (1 인실)을 기준으로 7,000 - 10,000 엔 선으로 일반 호텔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며 룸서비스, 포터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일본 비즈니스호텔 검색 및 예약 가능 인터넷사이트>

사이트명	홈페이지	한국어 지원
비즈니스호텔찾기달인 (ビジネスホテル探しの達人)	www.good-businessshotel.com	불가
비즈니스호텔 JARAN (ビジネスホテルじゃらん)	http://biz.jalan.net	불가

3) 료칸 (旅館, 여관)

일본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일본 전역에 약 90,000 개의 여관이 있음. 객실요금은 지역 및 시설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함. 유명 관광지의 고급 여관의 경우 특급호텔요금 수준 (약 30,000 엔)에 달하지만 보통의 여관은 1 인당 10,000 엔 전후. 일반적으로 숙박 당일 석식 및 다음날 조식은 숙박비에 포함됨.

<일본 료칸 검색 및 예약 가능 인터넷사이트>

사이트명	홈페이지	한국어 지원
야도네트 (YADO NET)	www.yadonet.ne.jp	불가
일본여관명선 (日本旅館名選)	www.ryokan.or.jp	가능

[참고] 일본 주요 도시별 호텔 리스트

<도쿄지역>

호텔명	전화	팩스	홈페이지
시나가와프린스	03-3440-1111	03-3441-7091	www.princehotels.co.jp/shinagawa
뉴오타니	03-3265-1111	03-3221-2619	www.newotani.co.jp/tokyo
오쿠라	03-3582-0111	03-3582-3707	www.hotelokura.co.jp/tokyo
아카사카프린스	03-3234-1111	03-3262-5163	www2.princehotels.co.jp
제국	03-3504-1111	03-3581-9146	www.imperialhotel.co.jp

<오사카지역>

호텔명	전화	팩스	홈페이지
호텔닛코오사카	06-6244-1111		www.hno.co.jp
스위스호텔	06-6646-1111	06-6648-0331	www.swissotel-osaka.co.jp
난바위싱턴호텔	06-6212-2555	06-6214-3332	nanba.wh-at.com
뉴오타니호텔	06-6941-1111	06-6941-9769	www.newotani.co.jp/osaka
토요코인우메다	06-6376-1045	06-6376-1046	www.grandcourt.co.jp

<나고야지역>

호텔명	전화	팩스	홈페이지
웨스턴캐슬	052-521-2121	052-521-5195	www.castle.co.jp
매리어트어소시아	052-584-1111	052-584-1112	www.associa.com/nma
힐튼	052-212-1111	052-212-1225	www.hilton.com
도큐	052-251-2411	052-251-2422	www.nagoya-h.tokyuhotels.co.jp
젠니쿠그란코트	052-683-4111	052-683-4121	www.grandcourt.co.jp

12. 식당

도쿄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쿠사노이에 본점 (草の家本店)	03-3589-0779	아카사카
한일관 (韓日館)	03-3589-1989	아카사카
일룡본점 (一龍本店)	03-3583-5278	아카사카
일룡별관 (一龍別館)	03-3582-7008	아카사카
천영 (千榮)	03-3452-1714	아자부
용원 (龍園)	03-3564-1576	긴자
도토리	03-3501-0535	유라쿠초

도쿄 주요 일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세리나	03-3402-1053	오쿠라호텔
나다만	03-3221-4152	뉴오타니호텔
오카한	03-3261-3417	뉴오타니호텔
TOP OF THE TOWER	03-3238-0023	뉴오타니호텔
깃쇼	03-3591-8191	긴자
사가미	03-3216-4624	유라쿠초

오사카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진미갈비 (珍三カルビ)	06-6205-2959	大阪市中央区瓦町2-1-11
간니치칸 (韓日館)	06-6213-3089	大阪市中央区西心斎橋2-4-6第一花月Bldg2階
민조크무라 (民俗村)	06-6212-2640	大阪市中央区宗右衛門町1-22
아지요시 (アジヨシ) http://www.ajiyosi.co.jp/	06-6772-7760	大阪市天王寺区下味原町2-2
우메다메이게쓰칸 (梅田明月館) http://r.gnavi.co.jp/k043902/	06-6312-2989	大阪市北区堂山町5-17
하쿠운다이 (白雲台) http://www.hakuundai.com/	06-6774-4129	大阪市天王寺区下味原町5-26

오사카 주요 일식당

식당명	전화	주소
쓰르통단 (つるとんたん) http://www.tsurutontan.co.jp/	06-6211-0021	大阪市中央区 宗右衛門町3-17
기소지 (木曽路) http://www.sake-kisoji.com/	06-6212-5155	大阪市中央区 西心齋橋2-1-3 다이아몬드빌딩 B1
쿠이다오래 (くいだおれ) http://www.cui-daore.co.jp/	06-6211-5300	大阪市中央区 道頓堀1-8-25
간꼬스시 (がんこ寿司) http://www.gankofood.co.jp/	06-6376-2001	大阪市北区 芝田1-5-11猪井梅田빌딩
히이키야 (轟眞屋) http://www.hiikiya.co.jp/	06-6315-9288	大阪市北区 曽根崎2-7-13

나고야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신라관 (新羅館)	052-702-2900	名東区 極楽 5-1
야키니쿠테라스 (焼肉テラス)	052-953-0233	中区 錦 3-12-32
서울야 (ソウル家)	052-959-2220	中区 錦 3-15-4
코리아타운 (KOREA TOWN)	052-262-7860	中区 新栄 1-12-30
북창동순두부 (BSD)	052-752-7474	千種区 池下 1-4-15

나고야 주요 일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기소지 카와라마치 (木曽路)	052-261-7469	中区 新栄 1-27-17
카니혼케 사카에쥬오 (かに本家)	052-263-1161	中区 栄 3-8-28
시라카와 (白河)	052-522-8331	西区 城西 4-30-3
카파 스시 (KAPPA 寿司)	052-541-7888	中村区 JRTwinTower 12F1
엔슈 (圓珠)	052-221-8989	中区 栄 1-12-37

후쿠오카 주요 한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미야코	092-271-7484	기온마치
한정	092-263-0334	나카고 후쿠마치
한일관	092-752-4040	케고
명동	092-683-5651	와카미야

13. 교통/통신

1) 항공편

대한항공(KAL), 아시아나항공(OZ), 일본항공(JAL) 등 6개 항공회사가 인천, 부산, 제주와 일본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정기 항로에 취항.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은 KAL(대한항공) UAL(유나이티드 항공), OZ(아시아나항공), JAL(일본항공), ANA(전일본공수 NWA(노스웨스트) / 김포공항과 도쿄 하네다 공항을 연결하는 정기편에는 KAL(대한항공), OZ(아시아나항공) ANA(전일본공수), JAL(일본항공)이 있음

< 한국 → 일본 >

서울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매일	2시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NWA	매일	
	UAL	매일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UAL	매일	
나고야 (名古屋)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후쿠오카 (福岡)	KAL	매일	1시간 5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삿포로 (札幌)	KAL	매일	2시간 35분
	JAL	매일	
나가사키 (長崎)	KAL	월, 토	1시간 20분
가고시마 (鹿児島)	KAL	수, 금, 일	1시간 20분
니이가타 (新潟)	KAL	매일	1시간 50분
	JAL	매일	
구마모토 (熊本)	ASIANA	월, 목, 토	1시간 20분
센다이 (仙台)	ASIANA	매일	2시간
고마츠 (小松)	KAL	월, 수, 금, 토	1시간 35분
	JAL	월, 수, 금, 토	
히로시마 (広島)	ASIANA	매일	1시간 20분
	JAL	화, 목, 일	

다카마츠 (高松)	ASIANA	월, 수, 토	1시간 20분
아오모리 (青森)	KAL	수, 금, 일	2시간 20분
아키타 (秋田)	KAL	월, 목, 토	2시간 15분
오카야마 (岡山)	KAL	매일	1시간 30분
오이타 (大分)	KAL	금, 일	1시간 30분
토야마 (富山)	ASIANA	월, 수, 토	1시간 55분
오키나와 (沖縄)	ASIANA	수, 목, 일	2시간 5분

부산 출발 (김해국제공항)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매일	1시간 40분
	JAL	매일	
	NWA	매일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 1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후쿠오카 (福岡)	KAL	매일	1시간 10분
	ASIANA	금, 일	
나고야 (名古屋)	KAL	매일	1시간 20분
	JAL	매일	
코마츠 (小松)	KAL	금, 토	1시간 30분

제주 출발 (제주국제공항)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월, 수, 금, 일	3시간 10분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 35분
	ASIANA	목, 일	
나고야 (名古屋)	KAL	수, 금, 일	1시간 40분

<일본 -> 한국 >

서울 도착 (인천국제공항)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매일	2시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NWA	매일	
	UAL	매일	
오사카 (大阪)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UAL	매일	

나고야 (名古屋)	KAL	매일	1시간 30분
	ASIANA	매일	
	JAL	매일	
후쿠오카 (福岡)	KAL	매일	1시간 5분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삿포로 (札幌)	KAL	매일	2시간 35분
	JAL	매일	
나가사키 (長崎)	KAL	월, 토	1시간 20분
가고시마 (鹿児島)	KAL	수, 금, 일	1시간 20분
니이가타 (新潟)	KAL	매일	1시간 50분
	JAL	매일	
구마모토 (熊本)	ASIANA	월, 목, 토	1시간 20분
센다이 (仙台)	ASIANA	매일	2시간
고마츠 (小松)	KAL	월, 수, 금, 토	1시간 35분
	JAL	월, 수, 금, 토	
히로시마 (広島)	ASIANA	매일	1시간 20분
	JAL	화, 목, 일	
다카마츠 (高松)	ASIANA	월, 목, 토	1시간 20분
아오모리 (青森)	KAL	수, 금, 일	2시간 20분
아키다 (秋田)	KAL	월, 목, 토	2시간 15분
오카야마 (岡山)	KAL	매일	1시간 30분
오이타 (大分)	KAL	금, 일	1시간 30분
토야마 (富山)	ASIANA	월, 목, 토	1시간 55분
오키나와 (沖縄)	ASIANA	월, 수, 금	2시간 5분

부산 도착 (김해국제공항)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東京)	KAL	매 일	1시간40분
	JAL	매 일	
	NWA	매 일	
오사카 (大阪)	KAL	매 일	1시간10분
	ASIANA	매 일	
	JAL	매 일	
후쿠오카 (福岡)	KAL	매 일	1시간10분
	ASIANA	금, 일	
나고야 (名古屋)	KAL	매일	1시간20분
	JAL	매일	

제주 도착 (제주국제공항)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東京)	KAL	월, 수, 금, 토	3시간10분
오사카	KAL	매일	1시간35분

	ASIANA	월, 금	
나고야(名古屋)	KAL	월, 수, 금	1시간40분

2) 선박편

운항구간	선사명	운항수	소요시간	문의처
부산-시모노세키	부관훼리	매일 1편	12시간 30분	TEL) 051-463-3161 ~ 9 02-738-0055
부산-오사카	팬스타라인 (팬스타드림호)	매일 1편	18시간	TEL) 051-468-0501 02-779-4011
부산-후쿠오카	한국고속해운 (비틀/제비)	매일 3-4편	2시간 55분	TEL) 051-465-6111 02-730-8666
	미래고속	매일 2-3편	2시간 55분	TEL) 051-441-8200 02-725-1101
	고려훼리 (뉴카멜리아호)	매일 1편	16시간 30분	TEL) 051-466-7799 02-775-2323
부산-히로시마	부관훼리 (은하호)	매일 1편	16시간 30분	TEL) 051-463-3161 ~ 9 02-738-0055

* 여수 - 후쿠오카, 제주 - 나가사키 정기훼리가 취항중

3) 일본 현지 교통기관 이용방법

○ 철도/지하철

- 전철을 탈 경우에는 먼저 표를 자동판매기로 구입함. 보통 판매기 위쪽에 노선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역의 이름과 요금을 알 수 있음. 목적지까지의 표를 구입한 다음에 개찰구 통과함. 단, 특급권, 좌석 지정권은 자동판매기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역의 매표소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버스

- 버스종에는 정액요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과 승차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것 2가지가 있음
- 정액요금 버스인 경우 버스 앞쪽 문에서 타고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함에 돈을 투입함
- 승차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버스인 경우 대개 버스 가운데 부분에 있는 문으로 타고 정류장 번호표를 받음. 하차 정류장을 알려주는 안내에 따라 버스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 내릴 준비를 함. 내릴 때 운전석 위쪽에 있는 번호표 번호에 맞는 요금 금액을 확인하고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함에 돈을 투입함

○ 택시

- 앞 유리 왼쪽에 있는 표시등에 빨간색 글자로 “空車” 라고 쓰여 있는 택시는 탈 수 있음. 달리는 택시의 경우 손을 들면 그 택시를 세운 다음, 운전기사가 왼쪽 뒷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면 승차함. 행선지를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내릴 때 요금을 지불.

일본에서는 운전기사에게 팁을 줄 필요가 없음.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승차 전 신용카드 지불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4) 일본 현지 전화 이용방법

○ 일본 국내 지역으로 전화

- 한국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전화번호는 시외국번 (지역번호)-시내국번-가입자 번호로 되어 있음. 상대방이 시외국번 (지역번호)이 같은 경우에는 시내국번과 가입자 번호만을 누르면 됨

○ 공중전화

- 동전 또는 텔레폰 카드를 사용. 텔레폰 카드에는 자기카드와 IC카드가 있음. 녹색, 회색 공중 전화기는 자기 텔레폰 카드 및 동전의 사용이 가능함. 동전은 10엔 또는 100엔의 사용이 가능하나 100엔 동전을 사용할 경우 잔돈은 반환되지 않음
- 자기 텔레폰 카드에는 500엔권과 1,000엔권이 있고, 1,000엔권은 1,050엔 분의 통화가 가능함. IC마크가 있는 IC공중 전화는 IC텔레폰 카드를 사용함. IC텔레폰 카드는 카드의 끝부분을 자른 뒤 포켓에 투입하여 다이얼을 함
- 텔레폰 카드는 자동판매기와 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
- 국제 통화 겸용” 표시가 있는 공중 전화기는 국제전화 이용 가능

○ 시내전화

- 국번과 번호만 누르면 되며 요금은 2005년 6월 현재 1분에 10엔 (원화 약100원)

○ 시외전화

- 0번을 포함한 해당지역번호 (시외국번)를 누른 다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름

○ 국내 콜렉트콜

- 먼저 106을 누름
- 녹색, 황색, 청색전화는 106을 누르면 되나 적색전화는 공중전화를 운영하는 점포 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함
- 교환이 나오면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줌
- 상대방의 콜렉트콜 수락이 있을 후 통화 가능

○ 국제전화

- 국제전화는 국제자동전화 (ISD)와 교환원을 통하는 국제수동전화의 2가지가 있음
- 국제자동전화 : 전화통신회사의 고유번호-010-국가번호-시외국번-상대방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전화통신 회사의 고유번호는 0041,0061,0033,001등이 있음)
- 국제수동통화 : 먼저 010을 누른 다음 원하는 지역과 번호를 말하면 됨
- 국제전신전화 안내 : 03 - 3270 - 5111
- 주요국가의 국가번호

미국/캐나다	1	한국	82
프랑스	33	중국	86
영국	44	홍콩	852
독일	49	대만	886

14. 유용한 연락처

<외교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일대한민국대사관(대표전화)	03-3452-7611/9	03-5232-6911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03-3455-2601	03-3542-2696
주일대한민국대사관 문화담당실	03-3988-9271	03-5476-4976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06-6213-1401	06-6213-0151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092-771-0461	092-771-0464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011-621-0288	011-631-8158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045-621-4531	045-624-2963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052-586-9221	052-586-9286
주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025-230-3411	025-230-5505
주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022-221-2751	022-221-2754
주코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078-221-4853	078-261-3465

<KOTRA 무역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KOTRA 도 교	03-3214-6951	03-3214-6950
KOTRA 오사카	06-6262-3831	06-6262-4607
KOTRA 나고야	052-561-3936	052-561-3945
KOTRA 후쿠오카	092-473-2005	092-473-2007

<주요 공공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03-5472-2641	03-5472-2640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03-3597-1717	03-3591-4601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	06-6266-0847	06-6266-0803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092-471-7174	092-474-8015
농수산물유통공사 도쿄농업무역관	03-5367-6656	03-5367-6657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본사무소	03-3508-0673	03-3508-0675
한국경제연구센터	03-3543-1045	03-3545-0710
한국과학재단 도쿄사무소	03-3431-7215	03-3431-7218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도쿄사무소	03-3453-1484	03-3453-1484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03-3513-0233	03-3513-0234

<금융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한국은행 (도쿄사무소)	03-3213-6961	03-3213-6959
한국수출입은행	03-3287-0925	03-3287-2435
외환은행 도쿄지점	03-3216-3561	03-3214-4491
외환은행 오사카지점	06-6630-2600	06-6630-2806
국민은행 도쿄지점	03-3201-3411	03-3201-3410
신한은행 도쿄지점	03-3578-9321	03-3578-9355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	03-3214-4541	03-3214-6933

<일본 주재 언론사>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연합뉴스	03-5571-4033	03-5563-1522
경향신문	03-3246-3690	03-3246-3691
대한매일신문	03-5715-3588	03-3740-3536
동아일보	03-3248-1251	03-3248-1254
문화일보	03-5908-4373	03-5908-4374
조선일보	03-3214-5236	03-3213-1060
중앙일보	03-3524-0333	03-3524-0334
한겨레신문	03-3639-8575	03-3639-8577
한국일보	03-3270-8371	03-3270-8372
매일경제신문	03-3257-8786	03-5298-7014
한국경제신문	03-3216-2363	03-3216-1687
파이낸셜뉴스	03-5255-7226	03-5255-7227
KBS	03-3485-5100/5500	03-3485-6529
MBC	03-5500-5871/2	03-5500-5875
SBS	03-6215-0087	03-6215-0089
YTN	03-5571-4033	03-5563-1522

<투자진출지원 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아이치 투자 서포트 오피스	052-203-4527(영어/일어)	http://www.ai-support.jp
일본 무역진흥기구 나고야 무역정보센터	052-203-4527	http://www.jetro.go.jp
아이치현 기업청	052-954-6692	http://www.pref.aichi.jp

<외국인 대상 상담 창구 및 긴급 전화번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재)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 (財団法人愛知県国際交流協会)	052-961-7902	http://www2.aia.pref.aichi.jp/
(재)나고야 국제센터 (財団法人名古屋国際センター)	052-581-0100 (한국어대응)	http://www.nic-nagoya.or.jp/
외국인 의료센터 (外国人医療センター)	052-588-7040	http://www.h6.dion.ne.jp/~mica
Information on NTT service for 24 hours!	0120-019116	http://www.ntt-west.co.jp/service_guide
입국관리국 외국인재류 종합정보센터 (入国管理局外国人在留総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052-223-7336 ~ 7	
법무성 나고야 입국관리국 (法務省名古屋入国管理局)	052-955-0927	http://www.immi-moj.go.jp
도쿄변호사회 외국인인권구제센터 (日本弁護士連合会)	03-3581-2201	http://www.nichibenren.or.jp/bengoshikai.html
메이테츠 고객센터 (名鉄電車テレフォンセンター)	052-582-5151	http://www.owari.ne.jp/~nico/link/koutsu/koutsu.htm
긴테츠 텔레폰 센터 (近畿日本鉄道(株)テレフォンセンター)	052-561-1604	http://www.owari.ne.jp/~nico/link/koutsu/koutsu.htm
JR도카이 텔레폰 센터 (JR東海テレフォンセンター)	052-561-4143	http://www.owari.ne.jp/~nico/link/koutsu/koutsu.htm
일본도로교통정보센터 (日本道路交通情報センター)	03-3264-1331	http://www.keishicho.metro.tokyo.jp/
경시청 교통상담코너 (警視庁総合相談センター)	03-3593-0941	http://www.keishicho.metro.tokyo.jp/soudan/sougou/sougou.htm
경시청 운전면허 전화서비스 (警視庁運転免許テレホンサービス)	03-3450-5000	http://www.npa.go.jp/koutsuu/license_renewal/home.htm
2005 아이치 엑스포 콜센터 (愛・地球博コールセンター)	052-955-2005 (한국어 대응)	http://www.expo2005.or.jp/
한국통신(KT)콜렉트 콜	0053-821 0066-55-821	예) 일본에서 한국02-123-4567으로 전화 00539-821⇒4⇒2⇒123-4567#⇒통화 00539-821⇒4⇒0⇒한국교환원⇒통화
위급, 화재	119	
교통사고, 범죄	110	
날씨예보	177	
전보	115	
전화번호 안내 (유료)	104	
전화고장	113	
국제전보	03-3347-2345	

관광안내소 및 관광협회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및 인터넷 URL
나고야시 나고야역 관광안내소 (名古屋市金山観光案内所)	052-541-4301	名古屋市中区金山1-17-18 (金山総合駅北口)
나고야시 가나야마 관광안내소 (名古屋市名古屋駅観光案内所)	052-323-0161	名古屋市中区金山1-17-18 (金山総合駅北口)
오아시스21 i센터 (オアシス21 iセンター)	052-963-5252	名古屋市中区東桜1-11-1 (オアシス21地下1階)
아이치현 관광협회 (愛知県観光協会)	052-561-5231	http://www.aichi-kanko.jp/apta000.asp
기후현 관광연맹 (岐阜県観光連盟)	0120-310561	http://www.pref.gifu.lg.jp/perf/HIMIKO
미에현 관광연맹 (三重県観光連盟)	0120-301714	http://www.kankomie.or.jp
나고야 관광 컨벤션 뷰로 名古屋観光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ー	052-202-1143	http://www.ncvb.or.jp
여행자 인포메이션 센터 (ツーリス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03-3201-3331 075-344-3300	http://www.jnto.go.jp/info/support/tic.html

숙박 및 관광정보(인터넷 웹사이트)

기 관 명	홈페이지 주소
(사)일본호텔협회 (社団法人日本ホテル協会)	http://www.j-hotel.or.jp
전일본시티호텔연맹 (全日本シティホテル連盟)	http://www.jcha.or.jp
일본관광여관연맹 (社団法人日本観光連盟)	http://www.nikkanren.or.jp
JAPANESE INN GROUP	http://www.jpinn.com
Accommodations JAPAN	http://www.e-stay.jp
국제관광여관연맹 (社団法人国際観光旅館連盟)	http://www.ryokan.or.jp
일본 유스호스텔협회 (財団法人日本ユースホステル協会)	http://www.jyh.or.jp
국민휴가촌협회 (財団法人休暇村)	http://www.gkamura.or.jp
아이치 관광정보파일 (愛知観光情報ファイル)	http://www.aichi-kanko.jp
기후관광 가이드 (岐阜観光ガイド)	http://www.pref.gifu.lg.jp/pref/HIMIKO
관광 미에 (三重県観光情報)	http://www.kankomie.or.jp
The Roads Trough Japan`s Heartland (일본 중부지역 중심)	http://www.j-heartland.com
비지트 재팬 캠페인(일본) (VISIT JAPAN CAMPAIGN)	http://www.visitjapan.jp
국제관광진흥회(JNTO) (日本国際観光振興会)	http://www.jnto.go.jp

15. 여행시 유의사항

1. 일본 여행시 유의 사항

1) 지나친 자신 및 자국에 대한 칭찬

이러한 경우 일본인은 상대방을 매너가 없으며 수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일본의 가정교육 혹은 학교교육의 제1조는 "자랑하지 말라" 임을 상기하시기 바람

2)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피해야 함. "자랑하지 말라"가 가정교육의 제1조 라면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는 제2조에 해당함

3) 공격적인 자신의 주장과 입장 표명

일본 속담에 "나온 말뚝이 정 맞는다"는 표현대로 일본인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입장을 고려하여 표현하고 행동하며 상대방도 자신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함

2. 일본 비즈니스 유의 사항

외국기업 특히 한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서로의 문화나 습관의 차이로 인해 각종 트러블이 발생하여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인의 비즈니스 룰이나 매너, 가치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일수록 타국에 대해 더욱 더 공부하는 법임

1) 일본인은 “협조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함

사내 부서간 협조 작업에서는 회의를 반복하여 한 부서만의 돌출된 행동은 삼가함

회의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함 결코 상대방을 묵살하려고 하지 않음

거래처나 관련회사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조정을 반복하여 인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냄

트러블이 발생할 때에는 바로 안이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끝까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

2) 개인플레이보다 팀플레이를 중시함

업무에서 자기만 다른 동료들과 동떨어져 있거나 돌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업무는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스포츠와 같아 집단을 의식하며 그 안에서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음

3) 대화를 중시함

인간관계나 업무상의 트러블에 큰소리를 낸다든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거나 폭력을 써서는 결코 안되며 대화로 해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음

4) 상대를 이해하여 신용을 갖기까지 시간이 걸림

타사와의 업무적인 미팅이나 세일즈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소개가 필요하며, 예약없는 면회는 거절당하기 쉬움. 이 부분은 외국인으로서 큰 장애요인이기도 함. 또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신뢰관계가 없으면 성공적인 거래가 될 수 없음.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순서임. 왜냐하면 상품의 우수성만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경쟁사에서 자사의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임.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적인 면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의를 다해 상대방을 대해야 함. 일본인은 비즈니스 매너나 룰을 중요시하는 국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5) 성과 우선주의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미덕임

계약서와 커뮤니케이션, 양쪽 모두 중요함. 설사 계약의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6) 인맥 만들기 중요

일반적으로 일본인은 외국인과 접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꺼려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처음으로 접촉하는 곳은 아는 일본인을 통한 소개를 바탕으로 접촉하는 것이 일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음. 회사 외부의 임원이나 고문 또는 어드바이저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보다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외의 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함

7) 시간을 엄수함

만날 시간보다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할 것. 적어도 방문 5분전에는 도착하는 것이 기본임. 약속시간에 늦었을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8)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함

단 한번의 약속위반으로 이후의 모든 거래가 중지될 수도 있음.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신용을 쌓는 기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함

9) 존칭에 유의함

일반회화나 회의에서는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사용하는 듯한 말투를 쓰지 않도록 함. 특히 서양에서처럼 성을 뺀 이름만을 부르거나 해서는 안됨

10) 각종 교류회에 적극적으로 참가

교류회는 인맥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명함을 교환하고 얼굴을 익혀둘 것. 교류회의 다음날에는 자필로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후에 약속을 정하여 상대방의 회사를 방문함. 이렇게 하여 자신의 인맥을 넓혀 나갈 수 있음

11) 자신의 어필하기 위한 식사 및 술자리도 중요함

단, 과음은 삼가. 상대방 앞에서는 될수록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음.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으며, 설사 상대방이 피우고 있더라도 자신은 피우지 않는 것이 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음

12)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피하도록 함

회의석상에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이에게 전달될 정도의 음량으로만 말할 것
그 이상 커지면 불쾌한 잡음이 됨

13) 발당의 입구나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양보

현관 및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양보하는 것이 매너임

14) 택시를 탈 때에는 자신이 앞 좌석에 앉아서 요금을 지불함

15) 접대나 회식자리에서는 상석에 앉지 않도록 함

3. 일본기업 방문시 주의할 점

외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당신이 회사의 대표라는 인식을 갖고 행동해야 함. 당신 개인의 이미지가 그대로 회사의 이미지로 반영되지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유의함

1) 반드시 사전에 약속함

상대방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방문하는 것은 실례일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 허탕을 치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약속하고 방문하는 것이 기본예의임. 사전에 방문목적, 방문일시, 소요시간등을 밝히고 상대방의 확인을 얻어야 함. 사전약속은 상대방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어 상담의 원활화에 도움을 줄 것임

2) 방문처에 대한 기초조사

처음으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기업의 사업내용을 비롯하여 경영방침, 주요 거래처, 업계에서의 위치, 신규 사업계획 등 가능한 최신정보를 많이 입수하는 것이 좋음. 상담상담시 자기무장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됨. 또한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상대방의 소속부서명과 이름 등을 미리 메모하여 찾아가는데 실수가 없도록 준비함

3) 자료, 명함, 선물 등을 준비함

필요한 서류와 자료, 샘플 등을 리스트업하여 빠트리지 않도록 유의함. 또한 메모 도구, 명함 등도 확인함. 일본은 명함이 꼭 필요한 사회임. 따라서 영업직의 경우에는 명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선물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것으로 준비함. 예를 들면 직원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소규모로 포장된 빵, 과자류, 아이스크림 등)나 드링크류 등이 가장 보편적임

4) 약속시간을 엄수함

약속시간보다 5-10분정도 전에 접수처에 도착하는 것이 좋음. 약속시간에 늦거나 너무 빨리 도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폐가 됨. 지각은 비즈니스에서 신용을 잃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임.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임. 만일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앞의 상담이 늦어져서 약속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얼마정도 늦어진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임

5) 접수처에서의 매너

타사 방문시에는 제일 먼저 접수처 담당자에게 자신의 회사명과 이름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명함을 건네고, 〇〇와 〇〇시에 약속했다고 전함.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명함만 불쑥 내민다거나, 약속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님. 접수용 전화나 인터폰이 설치된 회사의 경우에는 번호를 눌러 자기가 도착했음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지시에 따름. 접수처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원에게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안내를 부탁함. 응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례임

6) 응접실에서의 매너

응접실에서는 안내인이 자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열이 낮은 자리(입구쪽)에 앉아서 기다림. 방문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직위가 높은 순위로 상석(입구쪽에서 먼 자리)부터 차례로 앉음

7) 응접실에서의 자리 배치

가방이나 샘플은 자기 발밑에 둬. 팜플렛이나 샘플은 필요시에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정면이 상대방으로 가도록 하여 두 손으로 전달함. 기다리는 동안이나 상담중에 음료수를 대접받으면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상대방이 만약 회의중이어서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목례를 함

8) 명함 주고받기

- ① 방문한 쪽에서 먼저 내밈 (여럿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사, 선배 순으로 내밈)
- ② 회사명, 이름을 말하면서 건넬
- ③ 상대방이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건넬
- ④ 상대방 명함은 두 손으로 받음

- ⑤ 상대방 이름 한자의 읽는법을 모르는 경우 공손히 물음
- ⑥ 상대방 명함을 만지작거리거나 명함에 메모등을 하지 않도록 함
- ⑦ 상대방이 명함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요하지 않음

방문한 곳에서 명함을 교환한 후에 상대의 명함은 자신이 앉은 테이블 오른쪽의 자신의 명함케이스 위에 올려 놓음. 상대방이 복수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가로로 나란히 놓음. 상대방의 명함을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바로 자신의 명함 케이스에 넣어서는 안 됨

9) 인사법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인사법이 철저한 나라이며, 일본인끼리는 거의 악수를 하지 않음. 일본의 인사법은 상대방의 나이보다는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그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사내 복도에서 상사나 내방객을 지나칠 때는 가볍게 목례를 하지만, 업무적으로 만나게 되는 납품처 관계자, 구입처 관계자, 그리고 동업자, 상사, 부하직원, 동료등과 교환하는 인사는 각각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인사예절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일본통’ 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목도(15도)

동료와의 아침 저녁인사, 상사나 고객과 복도에서의 인사

※ 중례(30도)

일반적인 인사로 고객을 응대, 배웅할 때, 아침 저녁 상사에 대한 인사

※ 최경례(45도)

정식인사로 사죄하거나 감사하다는 인사

10) 대화시의 주의점

일본인은 태도나 언행에서 상담교섭(商談交渉) 이전의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상담교섭 이전의 문제란 품질이나 가격도 매력적이지만, 그 영업맨의 태도나 말씨가 어떠한가, 또는 얼마나 좋은 인상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임. 일본어로 상담하거나 대화할때에 주의할 점은 발음이나 인토네이션보다는 예의바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임. 영업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바른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음. 언행으로 인해 품위나 수준까지도 의심받기 쉬움. 특히, 다리를 꼬고 앉거나 소파에 몸을 뒤로 젖혀서 앉는 행위는 불손한 태도로 보여지므로 삼가하는게 좋음

16. 관광명소/큐슈의 관광명소

큐슈에는 일 전에 일본의 국내 신혼여행지의 메카로서 이름을 날렸던 미야자키를 비롯하여 온천으로 유명한 벳푸나 유후인, 화산으로 유명한 아소산 등 관광지가 풍부하고 관광 자원이 무수히 많다. 그리고 큐슈라고 해도 상당히 넓으므로 단기간에 전부 돌아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일단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역별로 혹은 관심사 별로 루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큐슈를 지역별 주요 관광 명소는 다음과 같다.

1. 큐슈 북부

큐슈 북부에는 큐슈의 수도로 불리 우며 상업도시로 발달해 후쿠오카시 및 제조업이 발달한 기타큐슈시 등이 위치하여 최첨단 문화와 전통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1) 미지향 레트로지구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모지향역을 중심으로 이국정서가 넘치는 풍취를 구경할 수 있다.

2) 다자이후 텐만구

학문의 신으로 숭배 받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기리는 전국 텐만구의 총본궁이다.

3) 히코산

일본 3대 수도의 장으로 큐슈 전역에서 신앙시 되어온 산이다. 일본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4) 우사신궁

전국 4만여 하치만샤의 총본산으로 본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2. 큐슈 서부

고대의 낭만과 이국 정서가 넘치는 역사를 자랑하며 다채로운 문화를 풍부히 꽃 피우고 있는 곳이다.

1) 하우스텐보스

17세기 네덜란드의 거리를 재현하여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테마파크이다.

2) 요시노가리 유적

야요이시대 일본 최대급의 환호집락유적으로 외지왜인전에 기술되어 있는 야마토국을 생각나게 한다. 일본에서 두번째로 국영역사공원으로 정비, 공개되고 있다.

3) 평화공원, 나가시키펀족 자료관

세계 최초로 원폭이 투하된 곳으로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3. 큐슈 중부

수려한 계곡이나 화산 등 천혜의 관광 자연이 풍부한 곳이다

1) 구마모토성

일본 3대성 중의 하나로 뽑히는 명성으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봄에는 주위에 벚꽃이 만발하여 감탄을 자아낸다.

2) 아소 화산

지금도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으로 나카다케 화구는 남북 1.1km, 동서400m, 주변 둘레 4km에 이른다.

3) 벳부

온천 원천수 및 용출량에서 일본 제1위로 꼽히는 벳부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온천휴양지이다. 벳부의 유명한 관광 명소로는 지옥 순례라고 하여 색이나 성분이 다양한 열탕이 200-300m 지하에서 분출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4) 다카치호 계곡

아소용암을 강이 침식하여 생긴 협곡이다. 이 곳의 마나이 폭포는 일본의 폭포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협곡을 보트를 타고 유람할 수도 있다.

5) 구주 고원

구주 산록에 넓게 펼쳐진 완만한 경사의 광대한 고원으로, 목가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4. 큐슈 남부

한 때에는 국내 신혼여행의 메카였던 미야자키, 가고시마 등이 소재하여 아직도 맑고 깨끗한 바다와 공기를 즐길 수 있다

1) 시가이아

광대한 부지에 리조트 호텔, 오션돔, 컨벤션센터, 어뮤즈먼트, 골프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대형 리조트이다.

2) 니치난 해안

국도 220호선은 동쪽으로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 루트이다. 이 도로를 따라서 30분 정도 달리다 보면 유명한 관광리조트인 아오시마가 있다

3) 사쿠라섬

하루에 7번 모습이 바뀐다고 하는 활화산이 있는 섬으로 전망대, 용암도로 등이 추천코스이다.

4) 오키나와

세계에 알려진 남국의 섬 리조트로서 아직 손 닿지 않는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17. 관광명소

<도쿄지역>

○ 요요기(代代木) 공원

- 개 요 : 원래 육군 연병장이었던 곳으로 도쿄 올림픽 경기대회의 선수촌 등으로 활용됨. 1971년 4월에 공원으로 개원.
- 교 통 : JR야마노테선 하라주쿠 역 하차.

○ 도쿄 국립근대 미술관

- 개 요 : 1952년 일본 최초의 국립미술관으로 개관된 후 1972년에 현재의 건물로 이전 개관되었음. 현재 본관에는 약 6,200 점에 이르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음.
- 교 통 : 지하철 도자이선 다케바시역 하차, 도보 3분.

○ 도쿄 돔

- 개 요 : 각종 스포츠나 콘서트, 이벤트가 열리는 돔으로 21번 게이트 옆에는 야구 체육박물관도 있음.
- 교 통 : JR 소부선, 지하철 미타선 스이도바시역 하차.

○ 도쿄 디즈니랜드

- 개 요 : 도쿄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테마파크의 하나로 크게 쇼핑센터와 여섯 개의 특징있는 랜드로 구성되어 있음.
- 교 통 : JR게이요선 마이하마역 하차, 도보5분.

○ 도쿄타워

- 개 요 : 전장 333M의 철탑, 도쿄를 대표하는 타워로 1958년에 완성된 도쿄의 상징임.
- 교 통 : 지하철 히바야선 가미야초역 하차, 도보 7분.

○ 에도 도쿄박물관

- 개 요 : 에도시대부터 현재 도쿄에 이르기까지 변천 과정이 실물자료와 모형등으로 소개 되고 있음.
- 교 통 : 료고쿠(兩國) JR 역에서 도보 3분, 입장료 600엔.

○ 가마쿠라

- 개 요 : 도쿄에서 1시간 거리에 소재, 1192년 봉건정부가 창설된 지역으로 조용한 절과신사가 있음. 특히 700년전에 만들어진 대불이 볼거리임.

<오사카지역>

○ 오사카성

- 개 요 : 오사카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4만명의 인력을 들여 3년 간에 걸쳐 1585년 완성하였으나 그의 죽음과 함께 불타 거석이나 흔적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을 도쿠가와 바쿠후의 제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개수한 것으로 오사카의 대표적인 상징물임.
- 교 통 : JR이용 오사카조코엔(오사카성공원)역에서 하차

○ 가이유칸(海遊館 <http://www.kaiyukan.com/index.html>)

- 개 요 : 환태평양 화산대에 생식하는 약580종류 3만점의 생물을 모은 세계 최대급의 수족관임
- 교 통 : 지하철 중앙선 오사카코우(大阪港)역 하차 도보5분. 입장료 2,000엔

○ 유니버설스튜디오재팬(USJ, <http://www.usj.co.jp>)

- 개 요 : 헐리웃 영화들의 주인공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세계적인 수준의 무비테마파크임. 각종 3D, 4D 상영관 등이 볼거리
- 교 통 : JR 오사카역에서 JR니시쿠조(西九条)역 방향으로 JR유니버설시티역 하차. 간사이공항에서 JR간사이공항쾌속(関空快速)탑승 JR니시쿠조(西九条)역에서 갈아탐. 입장료 4,950엔

<나고야지역>

○ 나고야 성 (名古屋城)

- 개 요 : 161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대 기술을 결집하여 축조한 성으로 도쿠가와 가문의 영광이 서려 있음. 성내 니노마루(二の丸)정원을 포함한 주요 유적은 2차 대전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음. 현재와 같이 복원되면서 벚꽃 등 일본의 정취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유명함.
- 교 통 : 지하철 메이조센(名城線) 시야쿠쇼역(市役所駅) 하차, 도보 10분.

- 도쿠가와 미술관(徳川美術館), 도쿠가와엔(徳川園)
 - 개 요 : 도쿠가와 가문에 전해져 내려온 수많은 유품과 다이묘(大名, 영주)가 사용한 각종 도구를 전시하고 있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품을 중심으로 일본 국보 겐지 모노가타리 그림두루마리(源氏物語絵巻)등이 있음.
 - 미술관 옆에 소재한 도쿠가와엔(徳川園)은 일본 에도(江戸) 시대 영주의 정원양식이 그대로 복원된 일본 전통 정원으로 폭포에서 계곡을 지나 연못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본의 자연풍경을 응축하여 재현하고 있음.
 - 교 통 : JR츄오혼센(中央本線) 오오조네역(大曽根駅) 하차, 도보 10분.

<큐슈지역>

- 모지항 레트로지구
 - 네오르네상스 양식의 모지항역을 중심으로 이국정서가 넘치는 풍취를 구경할 수 있음.
 - 모지항역은 역사로서는 유일하게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다자이후 텐만구
 - 학문의 신으로 숭배 받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기리는 전국 텐만구의 총본궁임.
- 히코산
 - 일본 3대 수도의 장으로 큐슈 전역에서 신앙시 되어온 산임.
 - 일본 최초로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었음.
- 하우스텐보스
 - 17세기 네덜란드의 거리를 재현하여 풍차와 꽃밭으로 꾸며진 테마 파크임.
- 요시노가리 유적
 - 야요이시대 일본 최대급의 환호집락유적임.
 - 위지왜인전에 기술되어 있는 야마토국을 생각나게 함.
 - 일본에서 두번째로 국영역사공원으로 정비, 공개되고 있음.
- 벳뿌
 - 온천 원천수 및 용출량에서 일본 제1위로 꼽힘.
 - 다양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유명한 온천휴양지임.

18. 유용한 현지어 표현

1) 인사

예	hai……はい
아니오	ie……いいえ
안녕하세요?	ohayou gozaimasu……おはようございます konnichiwa……こんにちは konbanwa……こんばんは
안녕히계세요/ 가세요	sayounara……さようなら

고맙습니다	arigatou……ありがとう
미안합니다	sumimasen……すみません
천만에요	dou-itashimashite……どういたしまして
안녕히 주무세요	oyasumi-nasai……おやすみなさい
자, 어서	douzo……どうぞ (when offering something)
잘 부탁드립니다	onegai-shimasu. ……おねがいします (when requesting something)
처음 뵙겠습니다	hajime-mashite……はじめまして

2) 기본 회화

제 이름은 ~입니다	watashi-no-namae-wa ~desu……私の名前は~です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anatano-namae-wa-nan-desuka ……あなたの名前はなんですか
저는 일본어를 못합니다	watashi-wa-nihongo-ga-hanasemasen ……わたしは日本語が話せません
당신은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anata-wa-eigo-wo-hanasemasuka ……あなたは英語が話せますか?
()는 어디입니까?	()-wa-dokodesuka……()はどこですか
이 전차는 ()에 갑니까?	kono-densha-wa-()-e-ikimasuka ……この電車は()へ行きますか
()에 도착하면 알려주십시오	()-ni-tsuitara-ohiete-kudasai ……()に着いたら教えてください
요금은 얼마입니까?	ryoukin-wa-ikuradesuka……料金はいくらですか
이것은 얼마입니까?	kore-wa-ikuradesuka……これはいくらですか
이것을 주세요	kore-wo-kudasai……これをください
계산해 주십시오	okanjou-wo-onegaishimasu……お勘定をお願いします
환전 부탁드립니다	ryougae-wo-onegaishimasu……両替をお願いします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kurejitto-kado-wa-tsukaemasuka ……クレジットカードは使えますか
도와주세요!	tasukete-kudasai……助けてください

3) 숫자, 방향

시간 / jikan……時間	분 / hun……分
일 / ichi……1	이 / ni……2
삼 / san……3	사 / shi……4
오 / go……5	육 / roku……6
칠 / shichi……7	팔 / hachi……8
구 / kyu……9	십 / ju……10
백 / hyaku……100	천 / sen……1,000
만 / man……10,000	
왼쪽 / hidari……左	오른쪽 / migi……右
위 / ue……上	아래 / shita……下
동 / higashi……東	서 / nishi……西
남 / minami……南	북 / kita……北

4) 일본식 영어

대개의 일본인들은 영어를 좋아하는데 일본인들이 영어에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지식인들은 영어를 상업용어 및 정부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로 만들고자 했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고 영어는 그대로 인용되어 일상용어로 많이 사용됨

많은 영어단어들이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원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형태로 바뀐 경우가 많음

일본식 영어는 '카타카나고'(カタカナ語)라고 일컫어짐. 일본어에서 영어 단어의 스펠링이 '카타카나'로 표기되기 때문임. 종종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일본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카타카나 발음으로 읽음

일본식 영어발음은 정통 영어식 발음과는 완전히 다름. 상당수의 '카타카나고'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게 그 문맥과 의미에 미묘한 느낌을 주어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임

○ 일본식 영어

나이타 - Night Game	바스켓토 - Basketball
싱쿠로 - Synchronized swimming	카스타 - Newscaster
테레비 - Televison	호또 - Hot Coffee
아포 - Appointment	후루 - Full time
스토 - Strike	콤비니 - Conveience store
스파 - Supermarket	파소콤 - Personal Computer
와프로 - Word Processor	모보 - modern + boy
모가 - modern girl	마스코미 - mass + communication
아메훗토 - American + football	

19. 국토

1. 총면적: 377,899 Km²

- 일본 국토는 4개의 주요 섬과 6,852개의 섬으로 구성
- 연안(해안)연장 : 약 33,889 Km
- 영해면적 : 약 430,000 Km²
- 접속수역면적 : 약 320,000 Km²
- 배타적경제수역면적 : 약 4,050,000 Km²

2. 형태별 면적비율 : 농림지 13.0%, 산림지 66.4%, 대지 0.7%, 수면.하천.수로 3.6%, 도로 3.4%, 택지 4.7, 기타 8.2%

3. 주요 섬 면적 : 혼슈우(本州) 231,046 S/M, 홋카이도(北海道) 83,451s/m, 큐슈(九州) 42,145s/m, 시코쿠 18,784s/m, 오키나와(沖縄) 2,265s/m (각 부속도서 포함)

4. 주요 지역별 면적

- 도쿄도(東京都): 2,187 Km²
- 교토부(京都府): 4,613 Km²
- 오사카부(大阪府): 1,894 Km²
- 이와테(岩手)현: 15,279 Km²
- 후쿠시마(福島)현 : 13,783 Km²
- 가가와(香川)현: 1,876 Km²
- 기타
 - 최대섬: 에도로후토 (擇捉島, 면적: 3,183s/m)
 - 최고산: 후지산 (富士山, 높이: 3776m)
 - 최장강: 도네가와 (利根川, 길이 322km)
 - 최대호수: 비와코 (琵琶湖, 면적 670.3s/m)

20. 국민

1. 인구 개요

세계인구 62억 25백만명 (2002년 기준, 최근 통계)를 놓고볼 때 일본 인구는 2.05%를 차지한다. 주로 따뜻하고 교통산업이 발달한 태평양쪽의 해안을 따라 인구가 모여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본의 3대 인구밀집지대는 도쿄 중심의 관동평야지대, 오사카중심의 긴키 지역, 나고야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이며 이들 모두 태평양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에서 최초로 실시된 1920년의 국세조사시 일본의 인구는 5,600만명 이었으나 80여 년에 걸쳐 2배 이상 증가하여 2004년 11월 1일 기준으로는 12,619만 명을 기록하였다.

- 수도인구 : 동경 23구 기준 12,310천명(03.10.1 기준), 위성도시인구 (도쿄도+사이타마현.치바현.가나가와현, 1도3현) 포함시34,050천명(03.10.1 현재)
- 주간인구비율(도쿄도) : 1,467만명(2000년 국세조사 기준)
- 주간인구는 근무지, 통학지에 따른 인구로 도도부현별 주간인구는 도쿄도가 가장 많고 이어서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아이치현순임
- 2010년 추계인구 : 127,473천명
- 도쿄 중심에서 반경 50km 범위 내에 3000만명 밀집

도쿄는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무인정권인 에도막부(江戸幕府)를 설치한 이래 인구가 급증하여 막부 설치후 100년 경과한 180초에는 100만명을 초과하여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로 발전하였다. 1988년 이후 지가 상승, 생활비 상승 등으로 도쿄권의 인구 유입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쿄 23구내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참고수치

- 인구 : 126,192천명 ('04.11.1 현재)
 - 남자인구 : 61,597천명
 - 여자인구 : 64,595천명

○ 2000년 이후 추계인구

- 2010년 : 127,473천명 (0-14세:13.4%, 15-64세:64.1%, 65세 이상:22.5%)
- 2020년 : 124,107천명 (0-14세:12.2%, 15-64세:60.0%, 65세 이상:27.8%)
- 2030년 : 117,580천명 (0-14세:11.3%, 15-64세:59.2%, 65세 이상:29.6%)
- 2040년 : 109,338천명 (0-14세:11.0%, 15-64세:55.8%, 65세 이상:33.2%)
- 2050년 : 100,593천명 (0-14세:10.8%, 15-64세:53.6%, 65세 이상:35.7%)

(단위 : 천명)

구 분	1990	1995	2003
인구수	123,611	125,570	127,619

*인구수는 각년도 10.1일 기준

< 국적별 외국인 등록인원 비율 (03년말 현재) >

한국·북한 (33.8%), 중국 (22.9%), 브라질 (14.5%), 필리핀 (9.1%), 페루 (2.8%), 미국 (2.6%), 기타 (14.3%)

< 주요 도시별 인구 (03.10.1) >

- 요코하마 (横 浜:YOKOHAMA) : 3,467천명
- 오 사 카 (大 阪:OSAKA) : 2,490천명 (위성도시의 인구 제외)
- 나 고 야 (名古屋:NAGOYA) : 2,117천명
- 삿 포 로 (札 幌:SAPPORO) : 1,838천명
- 고 베 (神 戸:KOBE) : 1,484천명
- 교 토 (京 都:KYOTO) : 1,386천명
- 후쿠오카 (福 岡:FUKUOKA) : 1,315천명
- 가와사키 (川 崎:KAWASAKI) : 1,259천명
- 히로시마 (廣 島:HIROSIMA) : 1,119천명
- 키타큐슈 (北九州:KITAKYUSHU) : 997천명
- 센 다 이 (仙 台:SENDAI) : 991천명
- 치 바 (千 葉:CHIBA) : 889천명

< 주요 행정구역별 인구 >

- 1위 : 도쿄도 (12,310천명)
- 2위 : 오사카부 (8,816천명)
- 3위 : 가나가와현 (8,687천명)
- 4위 : 아이치현 (7,158천명)
- 5위 : 사이타마현 (7,029천명)

< 2003년도 인구동태(추계) >

- 출생율 : 8.9%
- 사망율 : 8.1%
- 자연증가율 : 0.8%

(자료 : 2004년 일본국세 도회)

21. 역사

1. 원시시대

일본에 인간이 정착을 시작한 것은 약 10만 년 전이지만 동시대의 인간의 생활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죠몬시대

일본에서 최초로 발생한 문명으로 1만년 전부터 기원전 3-2세기경까지 지속되었다. 수렵과 어업 생활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죠몬 문명을 구축한 민족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아이누 족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죠몬 토기 (토기에 새끼줄 모양의 디자인이 새겨진 토기. 죠몬이란 새끼줄의 의미임)를 사용하였다. 죠몬토기는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죠몬 문명이 일본 전국에 확산되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동시기에는 대륙과는 물론 동남아시아나 폴리네시아와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야요이시대

현재의 일본문명의 원형을 형성한 시대로 기원전 3-2세기경부터 AD 3세기까지 지속 되었다. 동시대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벼농사를 짓고 청동기 및 철기가 대륙으로부터 도입되었는데 동문명의 주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한반도를 통해 건너온 대륙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동시기에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상당량의 교역이 있었으며 동문명은 한반도의 식민 문명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4. 고대(5세기 - 12세기)

4세기에 야마토 정권이 성립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일본을 통일해 나가기 시작했다. 동시기에는 대륙 및 한반도로부터 한자, 각종 정치경제제도, 불교, 사상(유학) 등이 일본에 전해짐으로써 국가의 기초가 공고해졌다. 야마토 조정은 천황을 수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유력한 지방 호족들의 협력(중앙의 천황과 지방의 호족간의 연합 국가)으로 천황은 권력을 행사하였다.

5. 나라시대(600 - 794년)

동시대에 국가의 기초가 굳혀졌으며 국가의 기초구축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자는 쇼토쿠태자(聖德太子)로 백제로부터 불교를 도입 장려하는 한편으로 중국의 제도를 본따 법치국가 체제를 구축하였다. 다이오 원년(701년)에는 중국을 법률제도를 모방한 다이호 율령이 공포되었으며 또 동 율령에 따라 관료제도가 정비되었다. 현재 일본의 근대 관료제도도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동시기에 일반국민들은 호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국가에 귀속되게 되 일반백성들은 국가로부터 일정량의 토지를 제공 받고 대신에 세금 납부 및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한편 일본의 기록상에 쇼토쿠 태자가 중국의 수에 보낸 문서에서 일본이 라는 국명이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보아 동시기에 국명이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에 보낸 문서에서 일본을 "해뜨는 국가"-일본-이라 처음으로 칭함) 동시대의 정치적인 실권은 초기에는 천황에게 있었으나 중반기에 들어서는 소가 일가가 장악하였으며 천황은 형식적인 지배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6. 헤이안시대(794 - 1192)

헤이안 시대는 감무 천황이 도읍을 나라에서 헤이안(현재의 교토)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동시기에 일본의 문화가 절정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며 귀족의 권력이 강대해져 귀족정치가 실시되었는데 귀족들은 나라시대에 시행된 토지제도를 악용하여 토지사유화와 권력강화를 꾀하였다. 헤이안 시대의 정치적인 실권은 후지와라 일가가 장악하였으며 정부의 모든 요직을 독점하였으나 호화생활 및 부패로 1156년 이후 내란이 발생, 권력은 차츰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무사계급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7. 중세(12세기 - 19세기)

헤이안 시대 말기에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던 무사들은 당초에는 귀족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귀족들의 사병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귀족에 대신하여 정권을 쥐게 되었는데 무사 세력 중 平氏(헤이시 또는 헤이케)와 源氏(겐지)의 세력이 강하여 헤이안 시대 말기에 2대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 2대 무인세력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상호 대립하였는데 치열한 전투 끝에 겐지가 승리 정권을 잡게 되었다.

겐지는 1192년에 가마쿠라에 무인 정부인 막부를 개설, 무사 통치를 시작하였으며 무사 정권은 이후 7세기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일본 역사 구분상 동 무사정권시대를 중세라 부르고 있다.

8. 가마쿠라 막부시대(1192 - 1333)

가마쿠라 막부는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으로 겐지의 일족인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단노우라(현재의 시모노세키) 전쟁에서 헤이씨 일족을 제압한 후 1192년에 개설하였다.

막부는 쇼군(장군)을 정점으로 하여 지방 지배를 위해 각지에 고쿠시(지방행정관), 슈고(치안유지관, 막부 정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함), 지토(장원관리자)를 파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막부가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천황이나 귀족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였으며 정치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단순한 종교적 혹은 문화적 상징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동기간 중 2차례에 걸친 몽고의 침입이 있었는데 공을 세운 무사들에 대해 막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 주지 못함에 따라 무사계급 내부에서 반목이 초래되어 붕괴되었다

9. 무로마치시대(1338 - 1573)

가마쿠라 막부의 붕괴 후 일시적으로 천황(고다이고 천황)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공헌한 무사들에게 충분한 반대급부를 실시하지 못하여 아시카가 일가에 의해 추방당하였다. 천황을 추방한 아시카가 일가는 교토의 무로마치에

막부를 설치하여 전국을 지배하였다. 무로마치 시대의 지배자들은 호화 사치생활을 즐겼는데 이 때문에 15세기 중반 이후 각지에서 반란이 발생하여 16세기 중엽 이후 군웅이 할거하는 전국시대에 돌입하였다. 동시대에는 정치적으로는 혼란을 보였으나 문화적으로는 많은 융성을 보였으며 금각사, 은각사를 비롯한 현존하는 교토의 대사찰은 대부분 동시기에 건설되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지배자들의 호화 사치생활에 따라 무거운 세금부담을 강요당하였으며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10. 전국시대(1573 - 1598)

무로마치 막부는 16세기 중엽 이후 들어 각지방에서 발생한 반란 등으로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 상실하였으며 각지방에서는 중앙으로 부터 독립한 호족들이 할거하게 되었다. 동시대를 전국시대라 부르는데 전국시대는 현재의 나고야 지역에서 세력을 일으킨 오다노부나가에 의해 점차적으로 통일되어 나갔다. 그러나 노부나가는 1582년 통일을 목전에 두고 암살 당하였으며 후계자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일본을 통일하였다. 히데요시의 사후 히데요시家와 이에야스家간에 내전이 발생하였는데 이에야스가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11. 에도시대(1603 - 1867)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3년 에도(현재의 도쿄)에 막부를 개설하였는데 이후 명치유신으로 근대화를 시작한 1867년까지를 에도시대라고 부른다. 동시대에는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었으며 주산업인 농업은 물론이고 차츰 상공업도 융성해졌다. 특히 18 - 19세기에는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상인의 경제력이 커지고 이에따라 무사의 지배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문화와 교육도 눈에 띄게 발전하여 근대국가 발전의 밑바탕이었고 크리스트교의 확산 및 막부에서 멀리떨어진 지방봉건 영주의 외국과의 접촉을 통한 세력강화를 우려하여 막부는 철저한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다.

12. 근세(19세기 후반 이후)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이 흑선을 이끌고 도쿄 만에 나타나 개국을 강요한 것을 계기로 막부는 쇄국정책을 철회하고 통상 및 교역을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막부는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무역에 의해 경제혼란이 초래되고 반막부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반막부 세력의 중심은 막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막부의 영향력이 적게 미친 사쓰마지역 (현재의 가고시마현)과 조슈지역(지금의 야마구치현)의 세력 이었는데 이들은 무력에 의해 막부로 부터 권력을 탈취하여 천황에 권력을 이양하였다(" 다이세이호칸 " - 1867년)

다이세이호칸의 다음해인 1868년에는 메이지 천황이 이끄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 되었는데 동 정부는 정권발족이래 근대화 추진을 위해 서양의 근대국가를 모방한 활발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 근대국가로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통치 제도 면에서는 내각제의 채택, 헌법제정 (의회개설, 사법권독립, 국민의 권리와 의무설정), 독일식 육군과 영국식 해군의 창설, 지방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 졌으며 경제면에서는 토지제도 개혁, 산업진흥, 화폐제도의 통일 등이 이루어 졌다. 또한 사회, 문화면에서는 근대적 학교제도의 창설, 무사의 신분상의 모든 특권 폐지 등이 이루어 졌다.

13. 현대

세계1,2차 대전을 거치며 종군위안부, 남경대학살, 식민지 지배 등 주변국에 상처를 주었던 일본은 전후 미국의 군정 통치를 거치며 현대화를 이룩, 세계경제대국 2위의 자리에 올랐으나 독일과는 달리 과거역사문제 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주변국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대두, 국내의 고비용 구조, 경기 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경제대국의 지위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UN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기도하고 있으나 주변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 참고자료:연표 >

- 기원전 660	진무천황, 일본건국(신화)
- 4세기초	야마토조정 성립
- 600 - 794	나라 시대
- 794 - 1185	헤이안 시대
- 1192 - 1333	가마쿠라 시대
- 1338 - 1573	무로마치 시대
- 1573 - 1598	전국 시대
- 1603 - 1867	에도 시대
- 1868 - 1912	메이지 시대
- 1912 - 1926	다이쇼 시대
- 1926 - 1988	쇼오와 시대
- 1989 - 현재	헤이세이 시대

22. 국가조직

일본은 입헌군주제이나 천황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헌법의 제약하에 있으며 국민통일성의 상징으로만 남아 있다. 행정부는 내각책임제이며, 내각은 수상과 주로 중의원가운데 선출된 20명 이내의 각료로 구성된다.

수상은 의원 가운데서 선출되나 집권여당 출신의 경우가 많다. 내각의 각료는 수상이 임명한다. 수상을 포함한 각료는 천황이 최종 임명권자이다.

사법제도는 3심제이며,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 또는 가정재판소로 구분된다. 최고재판소는 도쿄에 있으며 1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고등재판소는 전국 8개소에 있으며 민.형사 사건을 동시에 관장하며 판사는 5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는 전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판소 수는 각각 50개소이다. 지방재판소는 438개의 간이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 군법회의와 같은 특별재판소는 헌법에 의거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의회는 중위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중의원 수는 480명이고 임기는 4년이며, 참의원은 252명이고 임기는 6년이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양원 일치로 원칙으로 하나, 불일치 하는 경우 중의원의 결정이 우선한다. 국회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구분되어 개최되며, 정기국회는 매년 1월 150일 회기로 개최되어 예산, 법안 등을 의결한다. 임시국회는 내각의

결정 또는 양 원 중 어느 한쪽의 25% 이상의 요구로 개최되며 국정 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2001년 1월 6일부터 1부 12성으로 개편하여, 작은 정부에 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04년 9월 27일 개각(고이즈미 2차 개조내각)을 단행하였으며 각료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주요각료명단

- 총리 : 고이즈미 준이치로(62세)
 - 총무대신 : 아소 타로(64세)
 - 법무대신 : 노오노 치에코(68세)
 - 외무대신 : 마치무라 노부타카(59세)
 - 재무대신(유임) : 타니가키 사다카즈(59세)
 - 문부과학대신 : 나카야마 나리아키(61세)
 - 후생노동대신 : 오츠지 히데히사(63세)
 - 농림수산대신 : 시마무라 요시노부(70세)
 - 경제산업대신(유임) : 나카가와 쇼이치(51세)
 - 국토교통대신 : 기타가와 카즈오(51세)
 - 환경(유임).오кина와.홋포 : 코이케 유리코(52세)
 - 관방장관(유임) : 호소다 히로유키(60세)
 - 국가공안.방재.유사법제 : 무라타 요시타카(60세)
 - 방위청장관 : 오오노 요시노리(68세)
 - 금융담당상 : 이토 다츠야(43세)
 - 경제재정(유임).우정민영화 : 다케나카 헤이조(53세)
 - 행정개혁.특구.산업재생 : 무라카미 세이이치로(52세)
 - 과학기술청장관 : 타나하시 야스후미(41세)
- (2005년 2월25일 현재 재직 기준)

23. 정치제도

1. 국가형태

일본은 대외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으나 천황은 권력의 행사에서 헌법의 제약하에 놓여 지고 국민통일성의 상징으로서만 남아 있다

2. 정치제도

일본의 정치체제는 내각책임제이다.

내각은 수상과 통상 중의원 가운데 선출되는 20명 전후의 각료로 구성된다. 각료의 임명권은 수상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정치 세력간 자리 배분의 색채가 강하다.(과거 자민당정권시에는 각 파벌간, 現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의 연립정권하에서는 각 정당간 선출)

내각의 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이상으로 강력하여 입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법안이 내각과 그 산하기구에서 입안되며 의원개개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각을 지휘하는 수상은 중의원가운데 선출되고중의원의 손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수상이 갖는 권한은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의 권한에 비해 훨씬 작다. 구체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수상의 권한은 2차 대전 이전과 비교하여 월등히 강화되었으나 실제로 얼마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여당 내에서의 권력기반에 의해 좌우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각료의 임명권
 - 각료회의의 주재 및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에 근거하여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
- 내각을 대표하여 자위대를 지휘 통괄
- 국회에 대해서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고 일반국무나 외교안건에 대해 국회 보고함.

일본의 각료는 관료기구에 대해 여타국가에 비해 미치는 영향력이 적으며 이에 따라 행정권 기능은 사무차관을 정점으로 하는 전문관료집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들은 강력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으며 엘리트집단으로 정치에 대한 발언권이 강하다. 헌법상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의회이나 실제로는 관료기구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메이지시대 이후 호족의 세력을 견제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권력을 관료기구에 집중시킨데에 그 원인이 있다.

동시대의 관료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천황의 관료였다. 이와 같은 관료우위 구조는 전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는데 이처럼 관료우위의 구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첫째 일본의 공업화 과정에서 관료가 선도적 역할을 하여 온점, 둘째 정당에 있어서 관료출신자가 주류를 이루어 온 점, 셋째 우수한 인재를 관료기구가 흡수하여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 및 분석능력을 갖추게 했고 정책대안의 제시에 있어서 업계 및 학계의 광범한 합의를 얻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폭넓은 영향력과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던 점, 넷째 일본인의 집단주의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지속되어 온 점 등을 들 수 있다

3. 사법제도

일본 사법제도는 최고재판소, 고등법원, 지방 또는 가정법원의 넷으로 구분되어 있다. 최고재판소는 도쿄에 소재하고 있으며 15명의 최고재판소 판사로 구성된다. 고등법원은 전국에 8개소 있는데 모두 민사 형사사건을 동시에 관장하며 재판부는 통상 5명으로 구성된다.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은 전국의 각지방에 위치하며 그 수는 지방법원 약 570, 가정법원 약 50개 정도이다. 최고재판소 판사는 수상의 지명으로 천황이 임명하며 탄핵소추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되지 않지만 최고재판소 판사의 지명도는 매우 낮아 일반 선거에서 탄핵소추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일본의 법원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는 반대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공해의 발생에 따른 오염피해의 배상원칙을 판례로서 확립하고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검찰관은 확실한 증거 없이는 기소하지 않는 탓에 기소된 피고의 99%가

유죄판결을 받는다. 형량에 있어서 재판관의 판결은 여타국에 비해 관대한 편이고 개선
여지 및 정상 참작 등에 따라 형량이 상당히 달라진다. 군법회의와 같은 특별 재판소는
헌법상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24. 정치사회동향/고이즈미 국내 개혁 추진

일본은 거품 경기가 꺼지면서 사회 전체가 만성적인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임.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 등의 신흥 세력 대두, 주변국가와의 영토분쟁 및 역사 문제,
대내적으로는 고비용 사회구조, 고령화 사회문제, 높은 시장진입장벽, 폐쇄적인 사회 구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미해결 문제점을 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현재 고이즈미총리는 다케나카 헤이조를 우정민영화담당 내각부특명대신으로, 무라카미
세이이찌로를 행정개혁 및 구조개혁특구·지역재생담당 내각부특명대신으로, 타나하시
야스후미를 정보통신기술담당 내각부특명대신으로 각각 임명, 내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25. 국가원수

○ 천황 (상징적 국가 원수)

- 성명 : 아끼히토 (昭仁)
- 즉위일 : 89.1.7일 (昭和 64년 1월 7일)
- 생년월일 : 33.12.23일
- 학력 : 學習院大學教育
- 자녀 : 2남 1녀

○ 수상 (실질적 국가 원수)

- 성명 :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 취임일 : 2001.4.26일
- 생년월일 : 42년생(61세)
- 학력 : 게이오대학 졸업
- 경력 : 중의원 첫당선 (1972년)
대장성정무차관 (1979년)
자민당 재정부회장 (1980년)
후생성장관 (1988년)
우정상 (1992년)
후생상 (1996년)
자민당 모리파 회장 (2000년)
수상피선 (2001년 4월 26일)
- 취미 : 음악에 조예가 깊음
- 기타
 - 이혼, 현재 독신

- 외교의전 행사시 FIRST LADY에 관심
- 한국과는 인연이 없었으나, 2001. 10월 중국에서 개최 되는 ASEAM 총회 방문시, 일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에 따른 한-일 양국간의 협의를 위하여 2002년 3월 한국을 방문하였음.
- 월드컵 개막행사의 국민자격으로 5월 31일 방문함
- 2003년 2월 25일, 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바 있음.

26. 주요인사

-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 자민당 총재
-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대신, 친한 인사
-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대신, 전 대장상
- 이시하라신타로 도쿄도 지사
(임기 4년의 지사에 99년 당선, 2004년 10월 현재2기재임중)
- 가와구찌 요리코 전외상(환경성장관 역임),
고이즈미 2차 개조 내각에서 물러나 수상 보좌관에 임명
- 오키다 히로시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회장
- 토요다 소이치로 토요타자동차 회장, 일본 최대 제조업체 오너
- 와다나베 오사무 일본무역진흥회(JETRO) 이사장
- 세토 유우조 일한경제협회 회장, 아사히맥주 회장
- 리차드 쿠 노무라총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중국계 미국인
- 손 마사요시(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 나가누마 일본 올림픽 조직 위원장
- 호리우치 츠네오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팀 감독
- 마츠자카 다이ске 프로야구 세이부 라이온즈 투수
- 스즈키 이치로 미 프로야구팀 마린ERS 타자 (미 프로야구 역대 최다 안타 기록 작성, 2004시즌, 262안타 기록)
- 노모 히데오 미 프로야구 투수
- 이자와 히데오 프로 골퍼
- 마루야마 "
- 가다야마 "
- 나카타 일본 대표축구 선수 10번, 현 이탈리아 세리에A프로팀 소속
- 마쓰이 미 프로야구 양키스팀 타자, 2003년 2월 입단

27. 행정구역/행정구역(1都 1道 2府, 43縣 總 47 區域)

수도는 東京이며, 광역 행정구역은 1都 1道 2府 43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별 중앙 관청은 廳이라 하며, 자치제에 의거 운영된다.

행정구역장은 知事라 하며, 행정구역단위로 60명 전후로 구성된 지역의회가 있다. 知事와 地方議員은 지역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하위 행정단위는 市(區), 村(町)등으로 구분되며 관청은 役所, 役場이라 한다.

현 고이즈미 내각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행정구역재편(현재의 47개구역을 약10개 행정 단위로 축소)을 검토 중에 있다.

광역 행정구역별 기초정보는 다음과 같다.

	都道府県 庁所在地	人口 (人)	面積 (平方km)	人口密度	市町村数			
					市	区	町	村
北海道	札幌市	5,641,529	78,419.00	71.94	34	10	150	23
青森県	青森市	1,450,681	9,606.78	151.01	9		27	11
岩手県	盛岡市	1,394,810	15,278.64	91.29	13		29	16
宮城県	仙台市	2,370,985	7,285.53	325.44	13	5	31	1
秋田県	秋田市	1,159,139	11,612.22	99.82	11		24	7
山形県	山形市	1,223,739	9,323.39	131.25	13		27	4
福島県	福島市	2,104,850	13,782.75	152.72	11		47	25
茨城県	水戸市	2,991,589	6,095.68	490.77	26		27	9
栃木県	宇都宮市	2,014,874	6,408.28	314.42	13		29	2
群馬県	前橋市	2,033,744	6,363.16	319.61	11		27	20
埼玉県	さいたま市	7,063,942	3,797.25	1,860.28	40	10	39	6
千葉県	千葉市	6,047,388	5,156.54	1,172.76	33	6	39	5
東京都	東京(新宿区)	12,452,586	2,187.09	5,693.68	26	23	5	8
神奈川県	横浜市	8,740,136	2,415.85	3,617.83	19	25	17	1
新潟県	新潟市	2,448,025	12,582.58	194.56	20		21	10
富山県	富山市	1,116,306	4,247.34	262.82	10		9	2
石川県	金沢市	1,177,133	4,185.43	281.25	10		12	
福井県	福井市	825,880	4,189.22	197.14	8		16	4
山梨県	甲府市	886,890	4,465.37	198.62	12		16	10
長野県	長野市	2,211,523	13,560.55	163.09	18		30	54
岐阜県	岐阜市	2,120,044	10,622.85	199.57	21		24	2
静岡県	静岡市	3,799,809	7,779.82	488.42	24	3	32	1
愛知県	名古屋市	7,205,625	5,162.50	1,395.76	32	16	36	6
三重県	津市	1,868,865	5,776.59	323.52	15		26	6
滋賀県	大津市	1,374,182	4,017.36	342.06	13		20	
京都府	京都市	2,645,451	4,612.98	573.48	13	11	24	1
大阪府	大阪市	8,839,699	1,893.75	4,667.83	33	24	9	1
兵庫県	神戸市	5,591,881	8,393.41	666.22	28	9	32	
奈良県	奈良市	1,429,969	3,691.09	387.41	11		18	15

和歌山県	和歌山市	1,050,466	4,725.82	222.28	7		34	6
鳥取県	鳥取市	609,858	3,507.21	173.89	4		15	1
島根県	松江市	749,157	6,707.47	111.69	8		18	3
岡山県	岡山市	1,950,661	7,112.70	274.25	14		18	2
広島県	広島市	2,879,313	8,477.73	339.63	15	8	14	
山口県	山口市	1,504,593	6,111.11	246.21	13		19	1
徳島県	徳島市	815,045	4,145.46	196.61	7		25	3
香川県	高松市	1,019,434	1,876.16	543.36	7		28	
愛媛県	松山市	1,475,959	5,676.92	259.99	11		12	
高知県	高知市	802,954	7,104.88	113.01	9		26	12
福岡県	福岡市	5,059,670	4,974.75	1,017.07	26	14	53	6
佐賀県	佐賀市	869,876	2,439.31	356.61	8		23	4
長崎県	長崎市	1,493,611	4,094.39	364.79	11		33	1
熊本県	熊本市	1,852,135	7,404.42	250.14	14		43	11
大分県	大分市	1,214,575	6,339.11	191.60	12		11	2
宮崎県	宮崎市	1,160,531	7,734.77	150.04	9		28	7
鹿児島県	鹿児島市	1,768,261	9,187.50	192.46	14		59	5
沖縄県	那覇市	1,357,216	2,273.93	596.86	10		15	24
全 国		127,864,589	372,867.66	342.92	739	164	1317	338

(자료원 : 인구는 각 지자체가 발표한 2004년 10월 1일의 추계인구 /
면적은 국토교통성국토지리원 발표 자료)

28. 대외관계

1. 국제기구 가입현황

- 1956 UN
- 1955 GATT
- 1963 OECD
- 1952 IMF(국제통화기금)
- 1952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 1964 CCC(관세협회이사회)
- 1966 ADB(아시아개발은행)
- 1956 IFC(국제금융공사)
- 1975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 1974 IEA(국제에너지기구)
- 195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1951 ILO(국제노동기구)
- 1970 BIS(국제결제은행)

- 1954 ESCAP(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 1962 UNIDO(UN공업개발기구)
- 1973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개최
- 1973 안보리, 중동에 국제연합군 2차파견 결정
- 1978 제1회 국제연합군축특별회의 개최
- 1999 코소보 잠정 통치기구 설치

2. 대외관계 개관

1) 자국의 경제력과 국제사회를 위한 기여도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 위상 확보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기도
- G8 등에서의 '아시아의 이익 대변자' 역할 도모
- 군축, 지역분쟁 해결, 환경, 난민, 마약, 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
- 대개도국 개발원조 지속 실시
- 아시아 및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 강화

2) 미국 등 주요국가들과의 관계강화

- 미국과의 관계를 기축으로,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동남아 제국과의 관계 공고화, 중국, 러시아 및 EU 등 주요국가, 지역과의 교류확대 및 관계 발전 도모
- 일본은 자국내의 반대 분위기에 불구 고이즈미 수상의 강력한 의지에 의거,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

3) 한.일 관계를 중시, 한.미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북한 관계 개선 추진

- 2002년 5월 29일부터 6월 말까지 월드컵 공동개최
- 2003년 12월말 제1차 한일 FTA정부간 교섭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004년에도 6차에 걸쳐 한국(서울)과 일본(도쿄)을 번갈아 오가면서 정부간 교섭회의를 속개

3. 주요국과의 관계

1) 미 국

일본은 일.미간의 협력이 자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세계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 하다는 기본인식하에, 양국간 안보체제의 강화 등 포괄적인 협력관계 유지 노력

- 96.4월 미.일 안보공동선언 ' 채택
- 97.9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 개정
- 99.5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국내법안 성립
- 98.11월 클린턴대통령의 방일, '99.5월 오부치 총리 및 2000.5, 2001.3월 모리 총리의 방미 등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 재확인
- 2001. 6월30일 고이즈미 총리방미
- 2001. 10월8일 미군 후방지원, 아프가니스탄 1차 파병

- 2002. 2월 7-19일 미국 부시 대통령, 방일
 - 일본과 미국과의 협력강화
 -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지지입장 표명
 - 테러전에 대한 일본의 지지요청 등
- 일본정부, 2002. 5. 17일 해상자위대 파견기간 연장
 -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음(2003.3.11 현재)
 - 고이즈미 수상이 미국을 방문(2003. 5. 23), 미일안보, 이라크 재건협약, 북핵, 글로벌 문제 등에 관한 부시대통령과 회담
- 2004.4.3일 일미교류 150주년 기념

2) 러시아

영토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조약 체결을 목표로 이를 위한 정치 작업으로 일.러시아 관계 개선 추구

2000.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일시 15개 분야 경제협력에 관한 '모리-푸틴 플랜' 합의,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등 일정한 성과 거양

일측은 '영토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의 동시 추진', 러시아측은 '평화조약 체결 후 영토 문제 계속 교섭' 입장 견지

2001.3.25 이루쿠츠크에서 개최된 일.러정상회담에서는 구소련이 평화조약체결후 하보마이, 시코탄 두섬을 인도하기로 한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을 양국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의 출발점을 설정한 기본문서로서 확인

2001년 6월 일본경제인연합회 경제사절단 러시아방문 가칭 "일본.러시아 무역.투자촉진 위원회" 설치합의 (일본측 단장: 이마이 경단련 회장)

3) 중 국

- 일본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안정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원
 - 대중 엔차관 및 무상원조 공여로 중국의 경제개발 지원
 - 중국의 WTO 조기 가입지지 등
- 98.11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방일시 '21세기를 향한 일.중 협력 관계'의 지표를 담은 공동문서채택
- 2000.10월 주용기 중국 총리 방일시, 해양조사활동의 사전통보제도 수립, 양국 함정의 상호방문, 일본의 ODA에 대한 중국내 인식 확산 등을 위한 조치에 합의하는 등 일정한 성과 거양
- 2001년 4월 23일 일본의 잠정 긴급수입제한 3개품목(파, 생표고버섯, 이구사 등) 실시

- 2001년 5월 25일 북경 ASEM회의 개최시 다나카 외상참석, 양국 외무장관 협력합의
- 2001년 6월 1일 중국은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 등 주요공산품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하여 양국은 무역분쟁 중에 있었으나 2002년 4월 양국 무역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타결
- 2002년 5월 중국 일본영사관의 탈북자 진입사건으로 양국관계가 경색
- 2004년초 센카쿠 열도 중국인 활동가의 상륙사건, 대륙붕 유전개발관련 시설물 설치 등으로 재차 중일 관계 냉각 조짐

4) 동남아지역

- 일본은 자원수입.상품수출 시장으로서의 ASEAN 등 동남아 각국과의 관계를 중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관계강화 추구
- 각국과의 양자관계와 함께 ARF, ASEAN.PMC, ASEAN+3 등 '다자의 틀' 내에서의 협력관계 강화도 추구
 - 2002년 1. 9 -15일 ASEAN 5개국을 순방, 무역자유화 협정(FTA)체결을 제안
 - 2003년 10월 아세안 정상회담(일본, 중국도 참가)에서 일.아세안간 FTA교섭을 개시 키로 협의, 이후 2004년들어 아세안 및 아세안 개별국과의 FTA교섭이 급물살을 타게 됨

5) 유 럽

EU가 경제통합에 이어 정치통합의 길에 나섬에 따라 일본은 EU와의 관계를 종래의 경제중심 관계에서 정치, 안보, 문화 등 각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관계로 발전 추구

EU를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의 협력파트너로 간주

한편, 구 공산권 유럽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 EU 및 국제기구와 보조를 맞추어 이들 국가들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노력을 지원

6) 기타

- 2002년 1월 21- 22일, 동경에서 아프가니스탄 부흥지원회의를 개최
 - 총 61개국 과 22개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대규모회의를 주관
 - 아프가니스탄 부흥지원 조직의 창설과 각국의 지원금 45억불 각출에 성공
-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수상은 평양을 방문, 김정일 총서기와 국교 정상화 교섭을 시작하는 "평양 선언"을 채택
- 2002년 10월 5일, 북한 납치인 5명에 대한 일본 방문후, 미귀환과 북한의 핵개발에 따라, 양국의 국교 정상화 교섭중단

29. 국가경쟁력/IMDb발표 국가경쟁력 순위

스위스의 국제 비즈니스교육연구기관인 IMDb는 2004년 5월초 세계의 주요국을 대상으로 2004년판 국가경쟁력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60개 국가 중 23위(2003년 25위에서 2순위 상승)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30개국 가운데서는 9위(전년과 동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5개국 가운데서는 8위에 랭크되었다.

참고로 미국은 1위, 2위는 싱가포르(2003년 4위), 3위는 캐나다(동 6위)의 순이다. 2004년도 일본의 “경제활동분야”에 대한 각 요소별 경쟁순위는 국내경제 3위, 국제통상 13위, 국제투자 10위, 고용이 11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으나, 특히 가격부문은 57위로 부진세를 보임으로써 “경제활동분야” 종합평가순위는 17위에 머물렀다.

30. 도량형

일본이 국제표준인 미터법조약에 가맹한 것은 1885년으로 그 전에는 척관법이라고 하여 길이의 단위는 척, 무게의 단위는 관으로 표시하고 있었음. 그 후 어느 정도 척관법과 미법 야드폰드법을 혼용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미터법으로 통일되었음. 현대에 와서는 국제표준인 SI단위를 적극 채용하고 있음.

31. 관공서 관행

일본의 관공서는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그러나 담당자의 재량이 적고 형식 및 절차에 구애를 많이 받아 구비 서류나 증빙서 등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군다. 또한 서류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급한 건은 미리 미리 확인 후 처리해놓는 것이 좋다.

아직 까지 공급자 위주, 관 위주의 사회구조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서는 고자세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급행료나 뇌물 등은 전혀 통하지 않으니 청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2. 국제공항 및 항구/주요국제공항

일본정부가 지정한 제1종 공항은 나리타국제공항, 도쿄국제공항, 오사카국제공항, 칸사이 국제공항, 츄주국제공항 5개로, 정부는 이중 나리타 및 칸사이, 츄부 국제공항 3개의 공항을 국제 거점공항으로 육성코자하고 있음

1. 나리타 국제공항

- 2004 년에 신도쿄국제공항으로부터 현재의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공항명 변경
- 도쿄에서 동쪽으로 66km 떨어져 있음.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이지만 시내 중심에서 지나치게 멀어 세계에서 가장 이용하기 불편한 공항중의 하나로 평가됨.

- 1978년 개항하였고 규모는 1,084ha 수준
- 여객수는 2003년 국제선 28,624,305명, 국내선 1,107,372명을 기록
- 화물취급량은 2003년 국내,국제선 합쳐 2,038,725t

제1터미널(NARITA AIRPORT), 제2터미널 (AIRPORT TERMINAL 2)로 구성 되어 있으며 출항하는 주요 항공사는 다음과 같다.

주요 항공사 현황

제 1 터미널	제 2 터미널
*KAL, VIR, AFR, AZA, AAL, BAW, CDN, CPA, FIN, DLH, NWA, SAS, SIA, SWR, UAL, VRG, CES, IAW, KLM, MAS, OAL, PAL, PIA,	JAL, ANA, JAS, JAA, AFD, CCA, AIC, ALK, ANZ, FJI, AOM, AAR, AUA, BBC, CMI, DAL, MSR, GIA, IBE, IRA, QFA, SAB, THA, THY, *ASIANA

주: 국내선 발착은 모두 제2터미널

- 제 1터미널 주요항공회사 연락처 (나리타 시외전화 국번 : 0476)
 - . 아메리카항공(AAL.AA) ----- 03-3248-2011
 - . 캐나다안항공(CDN.CP) ----- 32-7763
 - . 캐세이퍼시픽(CPX.CX) ----- 32-7653
 - . 싱가포르항공(SIA.SQ) ----- 32-7591
 - . 대한항공(KAL.KE) ----- 32-7561
 - . 노스웨스트(NWA.NW) ----- 32-7411
 - . 뉴나이트항공(UAL.UA) ----- 03-3817-4411
- 제 2터미널 주요항공회사 연락처 (나리타 시외전화 국번 : 0476)
 - . 일본항공(JAL.JL) ----- 03-5489-1111
 - . 전일공(ANA.NH) ----- 03-5489-1212
 - . 일본에어시스템(JAS.JD) --- 03-3438-1155
 - . 일본아시아항공(JAA.EG) --- 03-5489-5411
 - . 아시아나항공(OZ) ----- 34-8311
 - . 스위스항공(SWR.SR) ----- 34-8430
 - . 중국국제항공(CCA.CA) ----- 34-3941
 - . 중국동방항공(CES.MU) ----- 34-3945
 - . 필리핀항공(PAL.PR) ----- 34-8381
- 종합안내전화
 - . 항공시간안내 ----- 34-5000
 - . 공항시설안내 ----- 32-2802
 - . 분실물 문의 ----- 32-2105, 34-2157
 - . 주차장문의 ----- 32-2253, 34-2364
 - . 도로교통정보센터 ----- 32-8918
 - . JR ----- 32-1630, 34-6008
 - . 케이세이철도 ----- 32-1630, 34-8763
 - . 리무진버스 ----- 03-3665-7220
 - . 공항택시 ----- 32-8282

- 공항셔틀버스 ----- 32-7954
- 케이세이버스 ----- 32-8502
- 동경시티에어터미널 ----- 03-3665-7111
- 요코하마시티에어터미널 --- 045-459-4800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교통편은 크게 JR 라인, 게이세이(京成)라인 리무진 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게이세이 라인

저렴하고 운행회수(하루에 72편. 요일에 따라 다소 변동)가 많아 이용하기 편리하다. 초특급(스카이라이너), 특급2가지 종류가 있다.

○ 게이세이 스카이라이너(京成 SKYLINER)

- 정차역 및 소요시간

우에노 |——| 닛보리 |——| 공항제2터미널 |——| 나리타공항 |
(上野) (日暮里)

나리타 — 공항제2터미널 : 3분
나리타 — 닛보리 : 55분
나리타 — 우에노 : 60분

- 운행횟수: AM 7:49 - 21:57 약 30-40분 간격 (1일 23편)
- 요금: 어른 1,920엔 (운임 1,000엔 + 라이너권 920)
- 어린이 960엔 (운임 500엔 + 라이너권 460)

- 게이세이 특급 :

- 소요시간 : 75분
- 요금 : 어른 1000
- 운행횟수 : AM 6:07- 22:43 약 20분 간격 (1시간 3번정도)

2) JR 나리타 익스프레스(NARITA EXPRESS)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표를 구하기 힘들며 요금도 비싸나 시내 중심까지 연결 된다

- 소요시간(나리타-도쿄역) 60분. 요금 2,890엔(계절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 일일 26편 운행
- 금연실 및 특실 있다
- 공항터미널 지하역에서 승차 가능

3) JR 쾌속

게이세이 라인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아니라(나리타-도쿄역간 1,280엔) 소요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용을 권장하지 않음(나리타-도쿄역 : 90분)

4) 에어포트 버스

짐이 있을 경우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수시로 운행되며 소요시간은 교통사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교통체증이 없을 경우 나리타공항 - 도쿄역간 1시간 전후 소요. 국내선 공항인 하네다공항까지는 80분 소요되며 러시아워시는 상기시간 보다 30분이상 추가 소요된다

또한 다음의 호텔로도 직접 연결된다

- . 메트로 폴리탄 호텔(이케부쿠로 소재)
- . 셴샤인시티 프린스호텔(이케부쿠로 소재)
- . 그랜드 팰리스호텔(이케부쿠로 소재)
- . ANA 호텔 도쿄(아카사카 소재)
- . 뉴오타니 호텔(아카사카 소재)
- . 아카사카 프린스호텔(아카사카 소재)
- . 아카사카 도큐호텔(아사사카 소재)
- . 팰리스 호텔(긴자소재)
- . 제국호텔(긴자소재)
- . 심바시다이이치호텔(긴자소재)
- . 긴자도큐호텔(긴자소재)
- . 도쿄프린스호텔(시바소재)
- . 오키라호텔(시바소재)
- . 퍼시픽 호텔(시나가와소재)
- . 다카나와프린스 호텔(시나가와소재)
- . 뉴다카나와프린스 호텔(시나가와소재)
- . 게이오플라자 호텔(신쥬쿠소재)
- . 센츨리하야트 호텔(신쥬쿠소재)
- . 힐튼호텔(신쥬쿠소재)
- . 신쥬쿠워싱턴호텔(신쥬쿠 소재)

- 요금

- . 나리타 - 도쿄역간 : 3,000엔
- . 나리타 - TCAT(TOKYO CITY AIR TERMINAL) 간 : 3,000엔
- . 나리타 - 이케부쿠로간 : 3,000엔
- . 나리타 - 아카사카간 : 3,000엔
- . 나리타 - 긴자간 : 3,000엔
- . 나리타 - 시바간 : 3,000엔
- . 나리타 - 시나가와간 : 3,000엔
- . 나리타 - 신쥬쿠간 : 3,000엔
- . 나리타 - 하네다간(국내선공항 소재지) : 3,000엔
- . 나리타 - 요코하마간(YOKOHAMA CITY AIR TERMINAL) : 3,500엔

2. 도쿄국제공항

- 1931년 개항하였으며 면적은 1,271ha로 24시간 운영
- 여객수는 2003년 기준으로 국제선 149,828명, 국내선 61,809,151명 기록

- 신도쿄국제공항(현 나리타국제공항) 개항 이후에는 실질적으로는 국내공항으로 전락
- 도쿄도심에서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 도쿄도내 액세스가 편리
- 특히 김포공항간에 한일 정기노선이 취항함에 따라 최근 하네다공항 이용자가 증가 추세

3. 오사카 국제공항

- 1959년 개항, 효고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317ha
- 이름은 국제공항이지만 칸사이국제공항 개항 이후로는 여객 및 화물 모두 국제선은 없는 국내 공항임
- 여객수는 2003년 국내선만 16,060,768명, 화물은 동년 국내선만 132,621t을 기록
-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교통편
 - 리무진버스 (오사카 시내 30분, 고베 시내 30분, 교토 시내 60 - 90분)

3. 칸사이 국제공항

- 1994년 개항한 현대식 공항
- 규모는 524ha, 24시간 운영
- 2003년 기준 이용객수는 국제선 10,441,672명, 국내선 6,479,210명
- 화물취급량은 국제선 715,699t, 국내선 51,609t
 - 특급 하루카(JR)로 신오사카역까지 45분, 자유석 특급권 기준 2,470엔)
 - 칸쿠우패속(JR)로 오사카역까지 63분)

<나고야 지역>

1. 중부국제공항 (센토레아)

1) 중부국제공항 개요

일본 중부권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부국제공항 “센토레아”(Centair)가 2005년 2월 17일에 개항했음. 활주로 길이는 3500m이며 24시간 상시 이착륙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쿄의 나리타 국제공항,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에 견줄만한 톱 클래스 국제공항으로 주목받고 있음. 접근도 편리하여 나고야역에서 공항까지 철도 또는 셔틀버스로 약 40-50분 정도 소요되며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쾌적한 시설 및 시스템을 갖춘 국제공항임.

2) 중부국제공항 이동 교통수단

<철도> (메이테츠 공항선 이용)

출 발	목 적 지	소요시간	요 금 (환율:1엔=10원)
중 부 국 제 공 항	이누야마	53분	1,310엔
	메이테츠 기후	55분	1,310엔
	메이테츠 나고야	28분	850엔
	가나야마	25분	790엔
	진구마에	22분	730엔
	도요하시	86분	1,590엔

* 시간은 쾌속특급의 제일 빠른 열차로 계산

* 쾌속특급은 ‘유티켓(지정석권)’ 350엔이 가산

<버스>

출 발	목 적 지		소요시간	요 금 (환율:1엔=10원)
중 부 국 제 공 항 센 토 레 아	나고야 시내	나고야	60분	1,000엔
		사카에	52분	1,000엔
		후지가오카	69분	1,400엔
	고마키		105분	1,700엔
	아카이케		75분	1,600엔
	나바리		150분	2,800엔
	윳카이치		90분	2,000엔
	쿠와나		70분	1,800엔
	도바		140분	2,300엔
	가리야		47분	1,300엔
	미카와안조		60분	1,400엔
	니시오		62분	1,500엔
	한다		40분	750엔
	고와		43분	950엔
	토요타		68분	1,700엔
	오카자키		80분	1,700엔
	토요하시		113분	2,200엔
	가마고리		102분	1,800엔

3) 중부국제공항 국제선 취항노선

국 명	주 간 운 항 편 수	
	2004년 노선운항	2005년 노선운항
한 국	59	59
중 국	56	56
미 국	21	35
대 만	21	21
괌	21	21
타 이	14	14
필리핀	11	11
홍 콩	7	7
싱가폴	7	7
사이판	7	7
오스트레일리아	7	7
프랑스	7	7
독 일	7	7
말레이시아	5	5
인도네시아	3	3
뉴질랜드	3	3
캐나다	0	7
기 타	7	7
합 계	263 (26개 도시)	284 (30개 도시)

2. 나고야항

1) 나고야항 개요

1870년에 개항한 나고야항은 일본 열도의 중앙에서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이세만(伊勢灣)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해상 물류거점임. 그 규모는 나고야시, 동해시, 치타시, 야토미町, 토비시마村 와 3개의 시(市)와 1개의 촌(村)에 걸치는 광대한 규모로 항면구역면적(해상)이 약 83km², 임항지구면적(육지)은 약42km²로 합치면 나고야시의 약 1/3 크기 (약120km²)에 달함. 특히 임항지구는 요코하마항과 도쿄항을 합친 면적을 상회, 일본 최대 면적을 자랑하고 있음.

나고야항은 연간 약 1억 58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일본 주요 항구별 물동량 비교>

(단위 : 톤)

항 구 명	해외 물량	국내 물량	합 계
나고야	108,509,352	49,510,528	158,019,880
요코하마	72,531,121	45,603,658	118,134,779
오사카	31,477,339	54,652,522	86,129,861
도쿄	39,807,682	42,707,113	82,514,795
고베	37,633,840	40,967,455	78,601,295

2) 나고야항 규모

- 나고야항은 세계 150여 개국과 연결되어 있음.
- 수입화물량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카타르, 미국, 한국, 캐나다 순.
- 수출화물량은 호주,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한국 순.
- 전체적으로 호주가 나고야항의 1위 무역상대국으로 자리잡고 있음.

<주요국별 수출화물량>

순 위		국명	03년		02년	전년 대비 (%)	주요 수출품
03년	02년		물량 (톤)	구성비 (%)	물량 (톤)		
1	2	호주	5,530,177	13.6	4,778,360	115.7	자동차, 자동차부품
2	1	미국	4,415,798	10.8	5,354,445	82.5	자동차, 산업기계
3	3	중국	4,162,772	10.2	3,536,597	117.7	자동차, 자동차부품
4	5	싱가포르	1,857,763	4.6	1,587,404	117.0	자동차, 자동차부품
5	4	홍콩	1,761,944	4.3	1,744,652	101.0	자동차, 화학제품
6	6	사우디아라비아	1,494,929	3.7	1,536,167	97.3	자동차, 고무제품
7	7	대만	1,480,600	3.6	1,532,816	96.6	자동차, 화학약품
8	9	한국	1,475,363	3.6	1,357,790	108.7	자동차, 화학약품
9	8	영국	1,464,170	3.6	1,390,338	105.3	자동차, 자동차부품
10	10	태국	1,314,401	3.2	1,300,127	101.1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 타			15,851,591	38.8	14,529,583	109.1	
합 계			40,809,508	100	38,648,279	105.6	

<주요국별 수입화물량>

순 위		국명	2003		2002	전년 대비 (%)	주요 수입품
03년	02년		물량 (톤)	구성비 (%)	물량 (톤)		
1	1	호주	17,206,115	23.5	16,247,479	105.9	철광석, 석탄
2	2	인도네시아	8,846,381	12.1	8,428,141	105.0	LNG, 석탄
3	4	중국	8,442,324	11.5	6,626,093	127.4	의복, 신발, 석탄
4	3	카타르	6,981,809	9.5	6,771,070	103.1	LNG, 원유
5	5	미국	4,547,311	6.2	5,474,937	83.1	옥수수, 비료
6	6	한국	2,728,393	3.7	3,008,356	90.7	비료, 철강
7	8	캐나다	2,308,116	3.2	2,202,069	104.8	석탄, 철광석
8	23	이란	2,153,441	2.9	320,291	672.3	원유
9	14	인도	2,117,385	2.9	1,494,480	141.7	철광석, 비료
10	13	사우디아라비아	1,919,439	2.6	1,556,109	123.3	원유, LPG
기 타			15,935,656	21.9	17,732,048	89.9	
합 계			73,186,370	100	69,861,073	104.8	

33. 국제공항 및 항구/주요항구

일본에는 2004년 4월 1일 기준으로 특정중요항만 23개를 포함한 중요항만 128개 및 지방항만 953개로 도합 1,081개의 항만이 있음

일본은 내외의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나가기 위해 4개의 슈퍼중추항만을 주요 국제 항만중에서 선정, 중점육성하려는 ‘슈퍼중추항만육성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2003년 1월에는 8개 지역이 슈퍼 중추항만 선정에 응모하였으나 검토 결과 2003년 3월에 도쿄항, 요코하마항, 나고야항, 코베.오사카항, 기타큐슈항 및 하카타항의 5지역이 슈퍼 중추항만 후보로 선정되었음.

일본 전국의 항만 중 취급화물량 랭킹 10위는 다음과 같음 (2002년 기준)

- 1위 나고야 (161,670천톤), 2위 치바 (158,929천톤), 3위 요코하마 (118,074천톤), 4위 도마고마이 (97,017천톤), 5위 미즈시마 (92,394천톤), 6위 가와사키 (89,862천톤), 7위 오사카 (86,517천톤), 8위 기타큐슈 (85,343천톤), 9위 도쿄 (82,520천톤), 10위 코베 (78,601천톤)

34. 국제공항 및 항구/주요항구

- 일본에는 특정중요항만 23개를 포함한 중요항만 128개 및 지방항만 953개가 있어 전국적으로 1,081개의 항만이 있음
- 일본 정부는 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나가기 위해 주요국제항만 중 4개의 슈퍼중추항만을 중점육성하는 ‘슈퍼중추항만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2003년 1월까지 슈퍼중추항만지정신청을 받은 결과 8개 지역이 신청, 동년 3월에는 이 가운데 도쿄항·요코하마항, 나고야항, 코베항·오사카항, 기타큐슈항 및 하카타항의 5개 지역을 슈퍼중추항만의 후보로 선정함
- 전국 주요 항만의 취급화물량 상위 랭킹 10위는 다음과 같음 (2004년말 기준)
 - 1위 나고야 (161,670천톤), 2위 치바 (158,929천톤), 3위 요코하마 (118,074천톤), 4위 도마고마이 (97,017천톤), 5위 미즈시마 (92,394천톤), 6위 나가사키 (89,862천톤), 7위 오사카 (86,517천톤), 8위 기타큐슈 (85,343천톤), 9위 도쿄 (82,520천톤), 10위 코베 (78,601천톤)

35. 매스미디어

1. TV 방송 (2003년 회계연도말 현재 기준)

1) 민간TV방송국

- 민간방송 회사수 : 133개사
- 방송국 수 : 8,270국
- 평균 방송시간(시.분) : 22.08

2) 일본방송협회(NHK)

- 방송국수 : 6,745국
- 평균방송시간 (시.분) : 23.58 시
- 수신계약자수 : 38,157천건

2. 위성방송 (2003년 회계연도 기준)

1) BS방송 계약수

- NHK : 1200.9만건
- WOWOW : 248.5만건

2) CS방송 계약수

- 스카이퍼펙트TV : 352.3만건

3. 케이블 TV 가입 세대수

- 1,514만세대 (2002년)

4. 주요신문 발간 (2002년 기준)

- 일간지 발간 사수 : 124개사
- 발간부수 : 70,815천부
- 천명당 신문부수 : 556부

5. 잡지발간 (2002년 기준)

- 출판점수 : 4,417점
- 발간부수 : 467,855만권
- 실매출액 : 14,246억엔

6. 매체별 광고비(2003년 기준)

- 신문 : 10,500억엔
- 잡지 : 4,035억엔
- 라디오 : 1,807억엔
- 텔레비 : 19,480억엔
- SP : 19,417억엔
- 위성미디어 419억엔
- (자료원 : 2004/05 일본국세도회)

7. 매체별 발간부수(2002년 기준)

- 요미우리(讀賣) 신문 : 10,062천부
- 아사히(朝日) " : 8,306천부
- 마이니치(毎日) " : 3,977천부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 : 3,008천부
- 쥬니치(中日) " : 2,747천부
- 산케이 : 2,110천부
- (자료원 : 2004/05 일본국세 도회)

36. 주한 주재국기관

1. 한국내 해당국의 주요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전화번호
주한일본대사관	02-739-7400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
일본무역진흥회 서울사무소	02-739-8657
서울 일본상공회의소	02-3210-2411
Seoul Japan Club	02-739-6962

2. 일본 주요종합상사의 한국내 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이토추상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동방생명빌딩 22층	7518-975
가네마쓰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안국화재빌딩 15층	777-5311
스미토모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 교육보험빌딩 15층	7211-114
소지쓰	서울 중구 명동 96 무교빌딩 11층	772-8901
미쓰이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타 9층	201-3901
미쓰비시	서울 중구 명동 2-50 유네스코 605호	776-0001/2
마루베니	서울 중구 소공동 1 롯데빌딩 20층	310-0114
도멘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센타빌딩 18층	757-0960

37. 현지화제 유머속담/현지화제 및 유머/속담 (1)

1. 화제

○ 학원붕괴 (學級崩壊)

초급학교에서 "이지메(괴롭히기)", 등교거부 등 이른바 학원붕괴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혼자 놀기", 교사의 스트레스 증가도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학원붕괴와 출생을 저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학교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 후리터(후리 아르바이터, Free Arbeiter)

정규직에 취업을 하지 않고 파트타이머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기 불황,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이 같은 형태의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정규직에 취업을 마다하고 후리터로 남는 젊은이도 많다.

○ 윤사마

2003년 NHK 위성방송을 통해 방영되어 한류 붐을 일으킨 계기가 된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에 대한 일본내 애칭이다. 2004년 이후 일본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2004년 히트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 속담

○ めぐすりを しりへさす.

본래는 "눈에 넣는 약을 항문에 넣다"라는 의미이나 "되지도 않는 일을 하려한다 (그러나 해야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 かぜが ふけば おけやが もうかる

본래 의미는 "바람이 부면 술집이 돈을 번다"라는 의미이나 "뜻하지 않은 영향이나 결과가

초래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 へそで ちゃを わかす

본래는 "배꼽으로 차를 꿰인다"라는 의미이나 "가당치도 않을 일하려 한다(그래서 우습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 おにの いぬまに せんたく

본래는 "도깨비가 없는 사이에 빨래를 한다"라는 의미이나 "상사나 감독자가 없는 동안 딴 짓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38. 물가정보

항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개	8.20	1인분
	햄버거	2.40 , 5.52	맥도널드 빅맥1개, 세트
	수입담배	2.73	말보로라이트1갑20개피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1,818~4,545	시내, 신축, 100m2/월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636~1,272	후쿠오카 시내, 신축 2~3LDK/월
	사무실 임차료	455 / 909~1,273	하카타구 20m2 / 50m2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17,273	현대JM,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0.9	후쿠오카 시내 1구간
	택시 요금	5.4 / 5.55	소형 / 중형 기본요금
	택시 요금	0.73	추가요금, 2분15초(365m) 당
통 신 전 기	공중전화요금	0.09 , 0.44	근거리1분, 장거리1분
	국제전화요금	0.45~1.09	일본->한국, 1분당
	전기요금	2.70	큐슈전력, 10암페어1kwh
	인터넷사용료	27.27~45.45	1개월, ADSL 100M
교 육	사립학교 수업료	2,727~9,090 (평균5,454)	수도권 사립초등학교 연간 수업료
	외국인학교 수업료	578	재일한국학교 월간수업료
레저, 오락	골프장 그린 피	100	비회원, 18홀1라운드, 평일
	영화 관람료	16.36, 13.63	성인요금, 학생할인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15~20	의료보험적용(본인부담30%), 내과초진기준
호 텔	특급호텔 숙박비	136 ~182	싱글1박
	보통호텔 숙박비	63.63 ~90.9	싱글1박, 조식포함
임 금	사무실비서 월 급여	1,364~1,545	학력 불문, 초임
	사무실직원 월 급여	1,636~1,818	대졸, 초임(수당별도)

○ 1US\$=¥110 기준

○ 자료 : 후쿠오카무역관 자체 조사 (2005년)

*후쿠오카 지역의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기에 지역에 따라서는 가격이 다를 수 있음

39. 경제발전사

경제발전사

개요

- 막부시대에 도시발달 등으로 근대화 잠재성 성장

일본은 2차대전 전 1세기 동안에 이미 근대화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그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괄목할 만한 장기 성장의 기초도 다졌다.

1968년의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일본경제의 근대사를 다루는 것이 통례이나 실은 그 이전 기간, 즉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약 250년 간에 걸쳐 일본 나름대로의 경제발전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은 전형적인 저개발국가는 아니었다.

17세기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토쿠가와 막부의 봉건적 지배 하에 있던 일본은 경제적으로 후진국이었지만 여타부문은 일본 고유의 특성을 살린 발전 패턴을 갖추고 있었다. 전인구의 3/4에 달하는 농업인구, 과중한 소작료 수취, 서구기술의 미보급, 비농업부문의 노동집약적인 생산구조등은 비근대적인 산업구조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에도, 교토, 오사카 등과 같이 도시화된 지역이 있었고, 특히 교육 수준이 높아 남자인구의 절반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점 등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즉 기능적인 사회·정치적 하부구조에 기초하여 선진 기술의 흡수능력이 배양됨으로써, 일본의 자생적인 근대적 요소들이 후일 경제발전의 기본바탕이 될 수 있었다.

- 메이지유신으로 공업화 본격 추진

일본의 발전을 촉진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화라 할 수 있고, 공업화가 본격 추진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메이지유신 이었다.

20세기 초에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도입을 통하여 산업화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는데, 일본경제가 이처럼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이유는 공업화의 유인으로 작용했던 섬유산업의 성장이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일본은 근대화에 필요한 재원을 농업부문에서 조달하여 이를 재정 지출을 통하여 수출진흥과 공업화에 활용하였다. 즉 희소한 재원을 활용하여 면직물산업은 물론, 군수품산업에 필요한 선진 산업시설과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도 확충했다. 결과적으로 농업부문의 발전이 공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공업화가 촉진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 1차대전이 공업화 가속 계기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경제는 급성장을 거듭하여 산업생산량이 5배로 늘어나고 수출도 급증했다. 20세기 초에는 면직물 위주의 노동집약적인 공업제품의 성장이 주요 산업으로 등장하였으며,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에 은행제도가 도입되고 토지세제에 바탕을 둔 재정제도가 확립되었다. 또 이 기간 중에 사회간접자본 형성도 활발하여 도로와 철도, 항만

등을 포함한 기간시설이 폭넓게 확충되었으며, 통신망을 이용하는 전국적인 우편, 전화제도도 확립되었다. 법인형태의 주식회사제도, 국영기업체 설립을 통한 기간산업 건설 등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화학, 금속, 기계공업 등의 거대한 공장들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변화도 이루어졌는데, 일부 산업들은 집중현상을 보여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 기간을 거치면서 주요 산업들이 가족 중심의 독점경영형태인 재벌 형식으로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제2차 대전 전에 일본은 이미 공업화를 통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면서, 일본 특유의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이념적인 토대로 활용하여 부국강병, 식산흥업을 기치로 경제근대화를 도모하였다. 청일, 러일, 1차대전, 만주사변, 중국침략, 태평양 전쟁 등 군사적인 침략은 정부 재정과 국민복리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으나, 전쟁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중화학공업은 급속히 발전했다.

○ 전후 일본경제의 부흥

제2차 대전 패전후 가장 큰 문제는 실업문제, 전력문제, 식량문제, 소비증가에 의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이었다. 46년 정부는 긴급금융책을 채택하여 신통화를 발행하여 플레이션 억제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인플레이션 극복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쟁기간 중에 자본설비가 40% 이상 파괴되고 패전 후 600만명의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일본 국민의 생활수준은 제1차 대전 이전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점령당국은 전쟁물자의 재생산을 억제하는 극히 한정된 공업화 만을 허용하는 전후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과잉인구 및 실업과 빈곤이 심각한 경제문제로 대두되자 미국은 일본의 경제재건과 복구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점령당국의 경제 시책은 군수품생산금지와 경제 민주화 조치로 대별되며, 경제 민주화 조치는 재벌해체, 노동운동 활성화, 농지개혁으로 대표되고, 이 조치들은 전후 일본경제에 뿌리내려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한편, 정부관리를 비롯한 다수의 일본인들은 자유경쟁 시장원리보다 정부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선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업계는 또다시 정부관료와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주도하게 되었다. 야심차게 시도된 경제구조개혁은 실제면 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룰 수는 없었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또 하나의 큰 계기는 한국전쟁으로, 이는 일본 경제재건에 의외의 혜택을 베푸는 계기가 되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구세주를 만난 일본경제는 재건은 물론이고, 부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점령군에 의해 추진된 제반 개혁정책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전후 일본경제체제의 기초를 형성하였으나, 생산력 제고와 고도성장 달성이 요구되면서 이러한 민주화에 입각한 제반 개혁조치는 퇴색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 한국전쟁과 고도성장

한국 전쟁으로 일어난 특수는, 주로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군의 보급창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군의 휴양지로도 활용되어 상당한 규모의 외화를 가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로로 획득한 외화는 51년 5.9억 달러, 52, 53년에는 각각 8억 달러를 상회하였는데 이 규모는 당시 총수출의 60-70%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수에 의한 외환 증가로 당시 외환계정에 근거하여 통제되던 수입제한조치도 연간 20억 달러 규모로 완화되어 49년에 10억 달러에 불과하던 수입규모가 50년에는 20억 달러로 배증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생산활동도 활발히 증대되었다.

외환사정의 개선과 GNP 대비 수입률의 하락은 GNP성장률의 둔화현상을 완화하는 완충제 역할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한국전쟁은 일본의 산업영역을 확대시키고 그 구조를 개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투자를 위한 생산설비의 보강과 확충이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과 함께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일본경제는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산업체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새로운 기술을 원용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하여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였다. 일본의 기간산업인 철강, 전력, 해운, 석탄 등의 산업들은 모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것들이다.

경제정책

○ 성장에 역량집중

일본의 경제성장은 정책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경제관료와 산업성장을 주도하는 민간 경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은 정부가 경제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동 목표에 부합한 정책들을 마련하며, 관련 기업들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고도성장이 가능했다. 기업간의 경쟁, 목표산업설정, 정부보조금 지급, 외환할당, 상대국과의 교섭 등 다양한 범주에서 정부와 기업간에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가 맺어 졌다.

전후 성장기간 동안 행정부 수반이 다수 교체되었으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수행되어 왔다. 경제성장정책이 그대로 계승되었고 경제목표달성을 위해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옹호하면서도 산업을 육성하는데 정책적 역량이 모아졌다.

○ 이케다 수상의 소득배증계획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활용, 전후 일본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다. 시장경제원리라는 기치 하에 무역증진, 특히 수출확대에 전력을 기울였다.

○ 내실을 기하는 자유화

서유럽국가들이 솔선하여 무역 자유화 운동에 앞장서 자유화를 통한 무역신장과 복지향상에 주력한 반면, 일본은 원칙상 자유화를 채택하였으나 자국의 경제계획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이를 추진했다.

즉, 일본 정부가 추진한 자유화는 경영합리화와 산업효율화를 이룩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이른바 '내실을 기하는 자유화'였다. 예를 들어 합성섬유산업의 경우, 통산성은 1953년에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취했는데, 생산증가와 시설확장에 대하여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기업목표량을 설정한 후 기업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보조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수요의 경우 정부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1962년에 통산성이 제출한 산업화 잠정법안은 특정산업의 성장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산업육성 및 보호, 이를 위한 행정지도 등의 정책근간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며, 미국과의 경제구조 관련 회담 등에서도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종종 지적되고 있다.

○ 최근경제현황

일본경제는 80년대 구조적 저축과잉을 내수확대를 통해 해소하는 정책 추진 결과, 자산가치가 급등하는 거품경제를 형성했으며, 90년을 정점으로 거품붕괴후 주가와 지가의 하락으로 발생한 부실채권 처리와 증권·부동산시장의 침체 등 자산 시장의 구조적문제 해결을 요구받고 있으며, 부실채권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으로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및 공공투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어,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하에 있으며, 부실채권 처리와 재정 적자 해소, 경기회복이 3대 선결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금융구조조정, 경제구조개혁(규제완화조치, 규제개혁 특구 제도 시행 등) 추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들도 인원삭감 및 조직개편(슬림화), 해외부문을 포함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수익구조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2002년에 1.1%의 플러스 성장을 보이면서 장기간에 걸친 불황 극복의 발판을 마련한데 이어 2003년에는 2.0%의 비교적 높은 성장율을 실현하였고 이후로도 경제 회복세는 더욱 뚜렷해져오고 있다.

이 같은 일본경제 회복세는 물론 정부와 기업 부문의 노력에도 힘입은 바가 크나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디지털 경기로 대변 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부문의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도 신장세를 보여오고 있는 점, 그리고 이 같은 수출 신장세에 힘입어 디지털부문을 중심으로 생산 및 설비투자가 지속 확대되어오고 있는데 기인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일본 경제 회복세는 이른바 기업부문 주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4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개인소비도 회복세를 보여오면서 경기 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들어서는 IT재조고정 지연, 수출 신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경기는 일시적으로 조정국면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조정국면을 벗어나 회복 사이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0. 경제정책/고이즈미 경제정책

< 고이즈미정권의 경제정책 >

1. 기본 방향

- 구조개혁을 최우선시 : 경기회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구조개혁 추진에 중점
 - 「구조개혁없이 경기회복없다」(4월 26일 고이즈미 총리의 취임 발언)
- 경제정책은 전 모리(森)정권이 작성한 「긴급경제대책」을 중심으로 추진
 - 구체적인 경제대책은 정기국회종료(6월 29일)후 발표 예상

2. 주요내용

- 고이즈미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은 부실채권처리, 증권세제개정, 은행보유주식 제한, 시장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재정재건이며, 이 가운데 핵심사항은 부실채권처리 및 주식 매입기구 설치, 그리고 세출억제 등을 통한 균형 재정 달성임
 - 부실채권처리
 - 목적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기업의 과잉채무를 동시에 해소
 - 내용 : 도산우려처 이하 채권을 기존 부실채권 (금융청조사, 12조7천억엔)은 2년 이내에 처리하고, 신규 발생 채권은 3년 이내에 처리,실적을 매기 공표하고 금융청이 진척상황을 점검
 - ※ 倒産憂慮處以下 : 도산우려처와 실질도산처, 도산처를 포함하는 용어로 은행은 채무자를 도산처, 실질도산처, 도산우려처, 요주의처, 정상처로 구분
 - 수단 : 정리회수기구·민간투자가 등에 매각, 법적정리 (회사갱생법, 민사재생법)
 - 채권포기를 대상으로 하되 매각을 최우선시
 - 기타 :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기업재건 동시 추진
- 주식매입기구 설치
 - 목적 : 금융기관의 기능 회복 및 주식시장 활성화
 - 대상 : 처분대상 주식액은 자기자본기준(미확정)시 11조엔 (은행자본총액 32조엔, 은행주식 보유총액 43조엔)
 - 내용 : 거품경제해소책의 일환으로 허용한 상호교차주식보유에 의해 발생한 11조엔에 달하는 은행의 과잉보유주식을 주식매입기구를 설치하여 시장 밖에서 처리
 - 방법 : 동 기구가 시가로 매입하여 상장투신과 투자신탁, 確定據出型 연금 등을 활용하여 처분하며, 매입자금은 예금보험기구및 정부보증을 통한 공적 지원에 의해 조성추진

○ 재정적자 축소

- 목적 : 국채발행 억제등으로 5년 이내 Primary Balance (국채비재외세출-국채발행제외 세수·세외수입)의 균형 달성 등을 통한 재정개건
- 내용 : 2002년도부터 세입부문의 국채발행을 연간 30조엔 이하 등으로 억제하고 공공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의 세출 삭감을 통해 5년 이내 Primary Balance의 균형을 달성하고, 이후 재정흑자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정부/지자체의 재정적자액 : 666조엔[명목 GDP(500조엔)의 133%]
- 방법 : 건설국채의 발행 억제 등을 통해 국채발행액을 30조엔 이하로 억제 지방교부금 배분기준 개선과 교부세의 지방채 변제 금지조치 등을 통한 세출 삭감

※ 소비세 인상 : 장기적으로는 인상 불가피 (시오카와 마사주로 전재무장관)
(인상검토시기는 대략 2007년전후)

3. 경제정책 평가

○ 부실채권처리구상

- 긍정적 평가 : 현재 경제상황을 밸런스시트(balance sheet) 불황으로 규정하고 이의 타개를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함으로써 산업계의 과잉채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인식에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주된 대상이 대형 제너콘 (general constructor, 종합건설 회사) 이 제외된 중소기업인 점으로 인해 개혁지연에 대한 의문과 자구노력 회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개혁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부정적 평가
- 상위 대형은행 관련 도산우려 처수는 3천개사 전후로 이중 절반이 중소기업임
- 미포함된 요주의처 채권은 70조 엔에 달하며 이들 채권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 미비
- 실업자 급증에 대한 고용 대책 시행으로 대규모 재정지출 발생

○ 주식매입기구 설치 구상

- 긍정적 평가 : 안정된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리스크 자산인 주식의 과잉보유를 시장 밖 에서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고 주식시장에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 부정적 평가 : 개혁의 초점을 주식시장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기업체질강화와 개인투자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에 두지 않고 시장원리에 반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수급조정으로 문제해결에 치중
- 기구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미수립 : 방안수립일정 연말로 연기(총리 등 발언)
- 60년대 유사기구 설립해 성공하지 못함 : 日本共同證券(64년), 會社組合(65년)

○ 재정재건구상

- 긍정적 평가 : 세입과 세출부문의 균형을 통해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 이후 재정흑자 체제 확립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 기틀 마련

- 부정적 평가 : 국채발행과 공공사업비 축소 등으로 인해 침체상태에 있는 경기 회복을 지연시켜 세수감소를 유발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마이너스 효과 발생 가능성 관련 경제주체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추진기간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현재 명목GDP대비 재정 적자율 133%의 증가세를 감소세로 전환하는 데 약 7년 소요

4. 고이즈미정권의 경제전망

< 선결과제 >

- 내부과제로는 구조개혁 추진력 구비를 위해 여당내 강력한 정치세력 형성과 급증할 실업자에 대한 고용대책, 2-3년 이후의 가시적인 개혁성과 제시를 통한 국민 신뢰 유지 등임
 - 정치력 강화
 -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 재선거 출마시 소속파벌이었던 모리파를 이탈하여 현재 소속 파벌이 없는 상태임
 -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의 연합정권 기반이 흔들릴 경우 정권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지므로 이의 결속과 더불어 자민당 체제의 강화도 과제
 - 고용대책 강구
 - 정부측, 수만에서 수십만명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담당장관)의 실업자 발생예상, 민간측 30만-130 만명의 실업자 발생 예상
 - 국민 신뢰 유지
 - 당선 직후 기록한 국민지지율 87%의 국민 신뢰 유지가 관건(그러나 2005년 현재 지지율은 5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
 - 개혁을 통한 경기회복 가시화(개혁기간중 GDP성장을 개혁후2.5- 3.0%유지)등 필요
- 외부요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상황
 - 해외경제 호조시 수출 및 생산 증가에 의해 구조조정 추진에 일조, 경제 회복 지속 가능
 - 미국경제 : 5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하반기 이후 성장세 회복 예상
 - 구주경제 : 물가인상 압력으로 금리인하에 어려움으로 완만한 성장세 예상 (2.5%)
 - 주식시장 활성화 및 환율유지정책에도 유리하게 작용 예상

5. 경제정책 시행성과(중간점검)

- 부실채권처리 등의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부실채권비율은 2005년 3월말 현재 4%대로 낮아졌고 은행의 수익율도 호전 단계
- 경제성장율(GDP성장율, 실질기준)은 2003, 2004년도까지 2%내외의 성장율을 달성 2005년에도 2%정도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 전망
- 실업율은 2005년 4월 기준 4.4% (10.7일 발표)로 (2003년 5.6%) 낮아졌음

41. 금융통화제도

현지 금융조달 여건

일본의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시장으로 금융조달은 용이한 편이나, 담보 없이는 원칙적으로 융자하지 않고 있으므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한다.

버블 경제시 부동산투자 등에 다량대출로 인한 거액의 반환불능 불량채권으로 효고 은행(제2위 지방은행), 키츠신용조합(제1위 신용금고)등의 경영파탄에 이어 최근 들어 교와신용조합(동경), 코스모신용조합(오사카) 등 금융기관의 파산사건이 연이어 발발하여 일본 금융업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재무성, 일본은행 등 관계당국은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 신속한 사후처리와 함께 약체화된 일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일본은행은 장기화된 경제부진타개, 금융시스템 불안감의 확산방지, 엔저현상유도를 목적으로 95년 9월 8일부로 현행 년1%인 공정 할인율을 0.5%로 인하, 일본의 공정할인율은 사상 최저수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은행을 중심으로 한 단기시장금리도 공정할인율 인하수준에 맞추어 대폭적인 하락세를 보여 일본은 본격적인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04년도 6월말 현재 은행 예금금리는 3개월-6개월 정기에금 이율은 0.019, 1년 0.03, 단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단기1.478, 장기금리는 1.418이다.

주택론 : 2.375 - 2.80, 교육론 : 2.2, 카드론 : 15 - 18임

참고로, 2004년 6월말 현재, 정부발행 채권의 장기금리(10년물)는 1.78% 수준이다.

한국계 진출 은행으로부터 대출시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약 6% 정도의 대출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42. 주요산업동향/일렉트로닉스산업

일렉트로닉스 산업

2004년도는, 국내 디지털 AV기기 등 전반적으로 호조를 유지,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 일부부문은 소강기로 디지털 경기에도 불구하고 부진세 기록. 디바이스부문에서도 호조를 보인 어플리케이션 기기 호황에 견인되어 확대기조를 유지, 플래쉬 메모리, CCD/CMOS 센서 등의 반도체 시황은 유연해질 것으로 전망됨.

아날로그 기기에서 디지털기기로의 대체 수요의 영향을 받아 디지털 경기는, 2005년도는 국내에서 보급 일순 등으로 조정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 디지털 기기로의 전환 수요로의 이행으로 경합은 보다 심해질것으로 전망됨.

반도체 시장은, 2004년도 후반부터 2005년도에 걸쳐 조정국면으로 전환하나, 반도체 수요 전체를 차지하는 디지털 AV기기, 자동차 등 「비컴퓨터」 어플리케이션 비율의 확대로 인해, 실리콘 사이클의 흐름은 평탄한 커브를 그리게 될 것으로 전망.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단축화로 인해 시장 참입기업은 지속적으로 수익확보가 난망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수익 확보방법으로는, ①반도체 업계 표준(de facto standard) 확보대책을 포함한 플랫폼 전략, ②키 바이스 내제화, 조기 제품시장 투입(선행자 이윤확보) 등이 있음.

1. 산업 동향

1. 민생용 전자

1) AV기기

2004년도는, 소위 「新3종의 神器」(평면TV, DVD레코더, 디지털카메라)가 시장 견인역으로 작용, 디지털 AV 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 내수·외수 는 함께 견조한 추세. 국내에서는 올림픽 효과로 인해 평면TV, DVD레코더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 영상계 디지털 기기의 전반적인 제품가격 저하로 인해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단, 이들 영상계 디지털 제품은, 기존 아날로그 제품(CRT TV, VTR등)의 대체로서 대수 페이스에서 AV기기 총수요를 크게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

2005년도에는 대형 평면TV 등 고액 제품에 대해서는, 주요 디바이스의 증산체제의 정비(설비증강)에 의해 제품 단가의 저하가 예상된다. 향후의 디지털 AV기기 수요는 세계적으로 불투명한 측면은 있으나, 보급품 가격대의 제품을 중심으로 보급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AV기기에 있어서도 디지털 카메라가 전반적인 시장 보급확대로 인해 수요가 둔화되는 등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격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백색가전

2004년도의 국내 백색가전시장은, 무더위의 영향으로 국내 에어컨 판매가 증가, 상반기중 내수가 확대되었고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국내 백색 가전시장은 「여름 에어컨시장이 좌우」하는 구조에는 변함없으며, 식기세척기, IH쿠강히터 등의 신제품 수요는 착실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세계시장을 돌아보면 선진국 중에서도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유럽에서 무더위로 인해 2003년 여름 이후 에어컨이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져, 판매 활성화와 함께 기업용·가정용 에어컨 설치 확대가 진전되고 있다.

2005년에도, 세계적인 백색가전 수급동향은, 시장전체의 확대에 한계를 노정하면서 2004년도 수준의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민생용 전자 수급 총괄표 >

< 실적금액>

구분	(단위)	03년 (실적)	04년 (실적)	05년 (실적)	04/상 (실적)	04/하 (예상)	05/상 (예상)	05/하 (예상)
내수	(억엔)	37,573	40,290	41,711	20,712	19,578	20,895	20,816
수출	(억엔)	20,089	20,846	21,822	10,257	10,589	10,704	11,118
수입	(억엔)	9,874	10,906	11,335	5,679	5,227	5,679	5,656
생산	(억엔)	47,789	50,230	52,198	25,290	24,940	25,920	26,278

<증가율>

구분	(단위)	03년 (실적)	04년 (실적)	05년 (실적)	04/상 (실적)	04/하 (예상)	05/상 (예상)	05/하 (예상)
내수	%	▲7.6%	7.2%	+3.5%	+13.3%	+1.4%	+0.9%	+6.3%
수출	%	+15.9%	3.8%	+4.7%	+3.1%	+4.4%	+4.4%	+5.0%
수입	%	▲0.1%	10.5%	+3.9%	+19.9%	+1.7%	+0.0%	+8.2%
생산	%	▲0.8%	5.1%	+3.9%	+7.7%	+2.6%	+2.5%	+5.4%

자료원 : 미즈호코포리트은행 2005년, 주 : 내수=생산-수출+수입 (재고변동을 포함한 내수)

2. 산업용 전자

1) 컴퓨터 (PC)

2004년도 세계 컴퓨터 출하대수는 약 1억 8,500만대(전년대비 12%증가)로 2000년 문제대응 컴퓨터로의 전환, 투자억제 반동감 등으로 2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 출하대수는 04년도 상반기 549만대(전년대비+7%)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출하금액은 7,924억엔(▲1%)으로 마이너스 신장세에 머물렀다. 2004년 연간으로는 국내 출하 대수가 1,140만대(전년대비+6%)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대기업 메이커의 저가격 전략의 영향으로 인해 금액 베이스의 신장세는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다.

2005년에도, 세계적인 시장확대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에서는 2000-2001년 구입 분량의 전환이 중심으로, 일부 노트북의 추가 구매 정도에 그침으로써 BRICs에서의 노트북 저가격화로 인한 보급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 된다.

2) 컴퓨터 (서버)

2004년은, 2003년부터 IT투자확대의 흐름이 계속되어, 세계적인 서버 출하대수는 680만대(전년대비+22%)로 대폭 성장세를 보였다. 세계 서버시장에 있어 다운사이징화, 저가격화의 흐름은 변화가 없어 출하금액은 49억 37백만 달러(전년대비+7%)에 그쳤고 저 가격기로의 이동과 더불어 전체적인 가격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 국내시장도 동일한 상황이다. 다만 2005년에는 IT투자를 배경으로 출하대수, 금액 모두 감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통신기기 (인프라)

국내통신 캐리어의 2004년도 설비투자총액은, 약 2조 3,800 억엔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도

에는 약 2조4,700억엔의 소폭 증가가 전망된다. 이동계 캐리어의 설비투자 내역으로는, 3G(차세대 휴대전화)용의 비중이 증가, 지하, 건물내에서의 쾌적한 시설환경정비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고정통신에서는 역세망의 광케이블화 투자는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네트워크기기는 IP전화기, IP-BOX(구내교환기), 무선LAN관련기기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4) 통신기기 (휴대전화)

2004년 세계 휴대전화 출하대수는 616백만대(전년대비+19%)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시장 확대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컬러 단말기 전환 구매도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내출하는 연간 베이스 43백만대 수준인데 이는 2003년의 카메라폰에의 전환 구매가 늘어난데 따른 영향이다. 출하의 약 90%는 전환구매 수요로 고화질 디스플레이, 고화소 카메라의 탑재 등에도 불구하고 큰 수요촉진효과는 내지 못한 상황이다.

2005년 세계 휴대전화 출하대수는 약 660백만대로 예상된다. 중국의 휴대전화 단말 재고는 높은 수준으로, 수요 또한 높아 세계 휴대전화 시장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출하는 휴대전화의 평균 사용년수가 2~2.5년으로, 2005년에도 회복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환 구매 수요의 중심은 3G단말기로 예상되는 가운데, 「FeLiCa」 대응, TV 전화 기능, 착신 음악 등의 부가 서비스가 수요 창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전자디바이스 (반도체)

2004년 세계 반도체 예상 출하금액은, 2,128억달러 (전년대비+27.8%)로 전망된다. 정보통신 관련기기(컴퓨터, 휴대전화)와 더불어 디지털 AV기기, 디지털카메라 시장이 확대, 시장을 견인하였다. 다만 후반기에 들어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조정국면에 들어가면서 신장율은 하락하였다.

2005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04년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감속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수요는 2,153 억달러로 전년대비1.2% 증가에 그쳐 성장률은 급속하게 둔화할 전망이다. 향후로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화에 의한 실리콘 사이클의 흐름이 평탄화될 것으로 보인다.

6) 전자디바이스 (액정)

04년 세계 대형 액정패널(15인치형 환산)출하매수는, 약 132백만매(전년대비 35.9%증가)로 급속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으로 공급체제의 정비에 의한 경합으로 후반기보다 패널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특히, 모니터, 노트북용 패널 가격 하락폭 커서 컴퓨터용 등 상품화한 패널 공급 비율이 높은 패널 메이커를 중심으로 업적이 악화하고 있다. 또한 부품재는 편광판 등 일부에서 수급이 팽박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패널 가격에 비해 가격 하락폭은 적은 편이다.

05년 세계 대형 액정패널(15인치형 환산) 출하매수는, 약 166백만장(전년대비+25%)으로 예상된다. 최대 어플리케이션인 PC관련 수요에서 감속세가 보여지나, TV용 패널은 여전히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대형TV용 패널은, 일본, 한국, 대만에서 제6, 제7세대라고 불리는 대형 공장의 가동 등의 요인도 있어 연말까지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로 인해 대형

액정TV는, PDP, 프로젝션TV와 비교해 인치당 단가가 높아 고가격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7) 충전

국내에서는, 국내전력 각 회사가 전력 자유화를 배경으로 한 코스트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써 설비관련 지출의 억제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IPP (독립계 발전사업자)에 의한 전원설비 신설의 움직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원설비(원자력, 수력, 화력)·비전원설비(송전, 변전, 배전) 양대부문 공히 수요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중국·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전력수요 증대에 따른 설비투자 의욕의 고조를 반영, 플랜키 (프랜트 전체 설비, 제조, 토목, 시운전을 포함한 일괄 계약), 턴키 (플랜키 계약에서 토목공사를 제외한 것)에 의한 수주회득, IPP 출자에 의한 수주회득, 장기적 관리 계약 회득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 산업용전자 수급 총괄표 >

(실적금액)

구분	적요 (단위)	03년 (실적)	04년 (예상)	05년 (예상)	04/상 (실적)	04/하 (예상)	05/상 (예상)	05/하 (예상)
내수	산업용전자 (억엔)	93,937	92,180	91,068	43,612	48,568	43,279	47,789
	전자디바이스(억엔)	44,926	46,493	47,806	22,887	23,606	22,887	24,919
수출	산업용전자(억엔)	37,345	40,537	42,425	20,065	20,472	21,233	21,192
	전자디바이스(억엔)	89,557	96,876	99,282	48,761	48,115	48,761	50,521
수입	산업용전자 (억엔)	32,008	33,285	34,451	15,899	17,386	16,535	17,916
	전자디바이스(억엔)	42,156	45,472	47,710	23,088	22,384	23,088	24,622
생산	산업용전자 (억엔)	99,274	99,433	99,042	47,779	51,654	47,977	51,065
	전자디바이스(억엔)	92,327	97,898	99,378	48,560	49,338	48,560	50,818

(증감률)

	적요 (단위)	03년 (실적)	04년 (예상)	05년 (예상)	04/상 (실적)	04/하 (예상)	05/상 (예상)	05/하 (예상)
내수	산업용전자(억엔)	+2.8%	▲1.9%	▲1.2%	▲1.0%	▲2.6%	▲0.8%	▲1.6%
	전자디바이스(억엔)	+3.9%	+3.5%	+2.8%	+10.2%	▲2.2%	+0.0%	+5.6%
수출	산업용전자 (억엔)	▲0.1%	+8.5%	+4.7%	+11.1%	+6.2%	+5.8%	+3.5%
	전자디바이스(억엔)	+9.0%	+8.2%	+2.5%	+11.5%	+5.0%	+0.0%	+5.0%
수입	산업용전자(억엔)	+7.0%	+4.0%	+3.5%	+3.3%	+4.6%	+4.0%	+3.0%
	전자디바이스(억엔)	+8.9%	+7.9%	+4.9%	+13.6%	+2.5%	+0.0%	+10.0%
생산	산업용전자(억엔)	+0.5%	+0.2%	▲0.4%	+2.2%	▲1.7%	+0.4%	▲1.1%
	전자디바이스(억엔)	+6.6%	+6.0%	+1.5%	+9.9%	+2.5%	+0.0%	+3.0%

자료원 : 미즈호코포릿은행 2005년

주 1. 산업용 일렉트로닉스; 컴퓨터, 통신기기, 충전, 그 외 전자기기

2. 전자 디바이스; 일반전자부품, 반도체, 액정, 그 외 디바이스

3. 내수=생산-수출+수입

II. 업계동향

1. 종합가전메이커

2004년도 실적동향

대형 종합가전 메이커 4사의 05년도 상반기 매출합계는, 10조2,068억엔(전년동기대비+8.5%), 영업이익은 3,260억엔(+39.5%)으로 전망된다. 04년도의 연간 매출 전망은, 21조 90억엔(전년동기대비+6.4%), 영업이익은 6,000억엔(+17.3%)이다. 국내에서 올림픽 특수 요인에 의한 평면TV, DVD레코더 등 AV정보통신기기 분야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 디바이스분야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세트 제품관련 코어 디바이스(플래쉬 메모리, CCD/CMOS센서, DSP등) 수익기여도가 크나 하반기 들어 이 분야에서도 세트 제품의 조정의 영향으로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도 전망

2005년도 또한 디지털 가전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본격적으로 보급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액정TV가 견인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 가전은 경쟁 격화와 전자 디바이스의 가격 저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단기화도 진행되면서 제품 투입시기, 제품력, 판매력 등에 따라 각사의 수익동향은 차이가 날 것을 보인다.

< 종합가전 메이커 수지동향 >

(실적금액)

구분	회사 수(단위)	03fy(실적)	04fy(예상)	05fy(예상)
매상고	대형4사(억엔)	197,414	211,600	218,600
영업수익	대형4사(억엔)	5,116	6,100	7,200

(증감률)

	회사 수(단위)	03fy(실적)	04fy(예상)	05fy(예상)
매상고	대형4사(%)	+3.6%	+7.2%	+3.3%
영업수익	대형4사(%)	+4.5%	+19.2%	+18.0%

자료원 : 미즈호코포리트은행 2005년

주 : 대기업 4사는 마츠시타전기산업, 산요전기, 소니, 샤프임

2. 종합전기메이커

2004년도 동향

대형종합전기메이커 5개사의 2004년도 상반기 매출 합계는 13조2,430억엔, 영업이익은 3,139억엔을 기록하였다. 2004년도의 연간 매출은 27조9,700억엔, 영업이익은 9,600억엔 이다. 2004년도 상반기 영업이익 증가 2,535억엔의 주된 내역은 히타치 제작소 1,071억엔, 도시바 627억엔이나, 5사중 4사가 매출대비 이익률 2% 전후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양 하였다.

세그먼트 별에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특히 디지털가전의 호전의 영향을 받은 반도체, 기타 전자 디바이스의 기여도가 큰 편이었다. 한편 소프트 서비스 분야는 주채산 안건의 발생 등으로 수익구조는 악화되었다.

2004년도에는 디지털AV기기의 성장 둔화로 상반기 후반무렵 부터 반도체와 기타 전자디바이스가 조정국면에 들어간 점과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저하세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만을 놓고보면 前期대비 감익을 계상하였다.

2005 년도 전망

2005년도는 증가폭은 감소하나 계속적인 증수증익이 예상된다. 반도체는 실리콘사이클의 계곡이 나타나고 있고 2004년도 후반부터 감속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종전과 달리 디지털AV기기가 파고를 줄이고 있고, 디지털AV기기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의 요인으로 반도체의 조정기는 단기간에 종료될 것으로 보여 2005년도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 메이커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2004년말에 미국 IBM사의 컴퓨터 사업의 중국 레노보사예의 매각이 발표되었는데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상 큰 변동은 없으나, 데스크톱, 노트북 모두 브랜드파워를 가진 IBM과 저가격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레노보의 일체화는 향후 컴퓨터의 저가격화를 더욱 초래할 것으로 보여 일본계 메이커의 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가전, 종합전기 각사 공히 디지털 민생기기의 제품 라이프사이클 단기화로 소프트 개발비용이 수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 소프트의 개발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사는 시스템 LSI 등 하드웨어 플랫폼의 공통화를 진행하고 있다.

세트 제품에서 코스트 삭감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서도 수익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스템 LSI의 외판활동 강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향후로도 이 같은 흐름은 가속해갈 것으로 예상되나 디바이스 메이커와 세트메이커가 여하히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하고 공통화를 진행해 갈 것인가가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트 메이커로서는, 가일층 고객 니즈에 즉시 대응 가능한 공급 체제를 정비하고, 선행자 이윤을 향유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스트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키바이스 내제화 (서플라이체인의 수직 합화 등)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종합가전 메이커 수지동향 >

(실적금액)

	회사 수(단위)	03fy(실적)	04fy(예상)	05fy(예상)
매상고	대형5사(억엔)	271,954	278,200	281,900
영업수익	대형5사(억엔)	7,852	9,300	9,800

(증감률)

	회사 수(단위)	03fy(실적)	04fy(예상)	05fy(예상)
매상고	대형5사(%)	+1.5%	+2.3%	+1.3%
영업수익	대형5사(%)	+42.0%	+18.4%	+5.4%

자료원 : 미즈호코포잇은행 2005년

43. 주요산업동향/자동차산업

1. 산업 동향

< 자동차 >

○ 수급동향 (2005년도 전망)

2005 년도는, 2004년도 후반에 투입된 신형차 효과에 힘입어, 등록차는 완만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미미한 수준이긴 하나 계속적인 호조를 보여온 경자동차는 수요가 일순함으로 인해 감소 추세, 국내 수요 전체로는 소폭 증가에 멈출 전망. 또한 수출은 북미, 아시아 지역의 수출은 감소, 국내 생산은 대략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해외생산은, 북미, 아시아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수지동향 (2005년도 전망)

매상고는 내수·수출 모두 제자리걸음이나, 해외 판매 증가에 의해 수익 증가. 영업이익은, 강재 등 원재료의 높은 가격상승 영향으로 이익 감소가 예상.

< 시장 >

□ 내수

○ 2005년도 내수는 미비한 증가 예상

2004년도 내수는, 보통승용차, 경자동차가 증가, 소형자동차 및 상용차의 감소에 의해 5,870천대 (전년대비▲0.3%)를 기록하였다.

2005년도는, 등록차 에서는 2004년도 하반기에 각 사가 투입한 신형차가 수요의 견인 역할을 하지만, 계속 호조를 보여온 경자동차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내수 전체적으로 보면 5,896천대의 소폭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수급 동향 >

단위; (천대)	03년 (실적)	04년 (실적)	05년 (예상)	04/상 (실적)	04/하 (추정)	05/상 (예상)	05/하 (예상)
내 수	5,887	5,870	5,896	2,704	3,166	2,730	3,166
수 출	4,774	5,008	5,020	2,456	2,552	2,465	2,555
수 입	279	273	270	132	133	133	137
국내생산	10,356	10,604	10,646	5,028	5,062	5,062	55,84

< 증감률 >

단위; (%)	03년 (실적)	04년 (실적)	05년 (예상)	04/상 (실적)	04/하 (추정)	05/상 (예상)	05/하 (예상)
내 수	+0.4	▲0.3	+0.4	▲1.5	+0.8	+1.0	+0.0
수 출	+0.1	+4.9	+0.2	+6.6	+3.3	+0.4	+0.1
수 입	+0.0	▲2.2	▲1.2	+0.5	▲4.7	+0.5	▲2.8
국내생산	+0.3	+2.4	+0.4	+1.1	+3.6	+0.7	+0.1

자료원 : 미즈호코포리트은행 2005년

○ 승용차 대폭 회복 기대 난망시

2004년도 승용차는 컴팩트카의 수요 일순으로 소형 승용차는 마이너스폭 소폭 축소, 보통 승용차는 미니밴, 세단 등을 중심으로 신장, 승용차 전체로는 미미한 증가(+0.8%)를 기록하였다.

2005년도는 2004년 후반에 각 메이커가 집중적으로 투입한 신차 효과로, 보통·소형승용차 모두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률 감세 폐지 등 가처분 소득의 감소의 영향으로 자동차 구입 마인드의 본격적인 회복은 예상하기 어려워 완만한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상용차는 감소, 일정 환경규제 수요는 계속

2004년도의 경우 상용차는, 2003년도 환경규제(각 자치제 실행의 주행 규제조례, 국교성도입의 Nox·PM)에 의한 대체 수요가 일순했으나, 견조한 추세를 지속하여 승용차 합계로는 1,090천대에 달하였다.

2005년도는, ①환경규제 대응 수요의 잔존, ②거품경제 시기에 도입한 차량의 대체가 일부 진행 ③각 사의 신장기 배기가스규제 대응차 투입 등의 요인으로 보통상용차, 소형상용차 모두 견실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

○ 일본계 메이커와의 고급차 세그먼트 경쟁 감소

2004년 수입은, 신형차 투입은 있었으나 경기 감속감 등으로 하반기 들어 외제차의 하락

추세, 또한 일본계 메이커의 해외 생산차 (역수입차)의 감소도 겹쳐 수입대수는 273천대로 3년만에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2005년도에는 역수입차의 일순도 더해져 고급차 세그먼트에서 일본계 메이커차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년도대비 ▲1.2%의 270천대로 전망된다.

□ 해외시장

○ 미국은 약간 감소, 유럽 대폭적인 회복기대 어려움

2004년도 미국시장은 16,761천대로 보험세에 머물렀다. 5년간에 걸쳐 1,600만대가 넘는 고수준의 페이스가 계속되고 있으나 2001년 9월 미국동시테러 직후, 수요 환기를 겨냥해 도입된 인센티브정책도 장기화되면서 수요창출효과도 한계에 도달 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의 미국시장은 크게 감소하지는 않으나, 16,587천대로 소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도 유럽시장은, 15,244천대로 보험세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도 유로경제권은 유로 강세의 영향으로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내수 회복도 한정적일 것으로 보여 15,362천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기타 아시아 지역의 성장은 둔화

2004년도 아시아시장은, 금융긴축으로 전환한 중국이 5,117천대로 성장률이 둔화 추세하에서도 확대세를 보였고, 기타 아시아지역도 안정된 경제 성장으로 4,494천대로 증가, 전체적으로는 9,611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도에는, 중국시장에서 조정세가 계속되는 점 외에 기타 아시아지역의 내수 둔화로 인해 확대 페이스는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

○ 2005년도 수출 제자리걸음

2004년도의 수출은, 북미, 아시아는 감소, 유럽, 그 외 지역 수출은 증가해 5,008천대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5년도에는, 북미, 아시아 수출의 현지생산 전환과 더불어, 성장의 견인 역할을 담당해온 유럽, 그 외 지역 수출의 증가 속도도 약해져 5,020천대로 답보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현지생산 진전에 따른 북미 수출은 계속된 감소

미국시장은 픽업 트럭 등 신차 투입의 성공 등으로 2004년도에 일본계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29.7%→30.4%로 상승하였으나 현지 생산 진전으로 인해 북미 수출은 ▲2.0% 감소에 머물렀다. 연비가 좋은 일본계 자동차는 2005년도 세단형, 픽업형 모두 지속적인 호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각 사의 현지 생산화에 의한 수출 대체가 진행되는 추세로 인해 2005년도 북미 수출은 1,680천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 수출 성장 둔화

2004년도 대유럽 수출은, 내수가 정체기미를 보인 가운데 ①엔화 하락 유로강세 기조 계속, ②일본계 각 사가 소형차, 디젤엔진차 등 시장 니즈에 대응한 차종 투입, ③ 러시아 등 비유럽지역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도대비 11.7%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5년도의 경우 대유럽 수출은, 환율수준이 전년도와 거의 동수준하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지속하겠으나 성장률은 둔화해 1,345천대로 전망된다.

○ 아시아 수출도 성장 둔화

2004년도 아시아 수출은, 금융긴축 및 현지생산을 개시한 중국의 감소, 그 외의 아시아 지역국가도 생산의 진전에 의해 전년도대비 ▲3.8% 512천대로 감소하였다. 2005년도에는 중국, 그 외의 아시아 지역 공히 각 완성차 메이커의 현지 생산능력 증강의 진전 및 IT분야의 재고 조정을 주원인으로 하는 경기 감속으로 전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2. 해외생산

○ 생산 확대 계속

2004년도 해외생산은, 수출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현지생산화 등, 일본계 완성차 메이커의 적극적인 글로벌 생산 확대로 해 아시아, 북미, 유럽 각 지역이 증가를 보여 9,867천대 (전년대비 11.1% 증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해외생산은 3년 연속으로 두자리수 성장을 기록한 셈이나, 생산관리의 현지체제확립 등에서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 일본계 점유율 상승도 일단락한 점 등에서 2005년도에는 증가 속도가 떨어져 10,512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생산

○ 수출에 힘입어 증가

2004년도 국내생산은 국내수요는 제자리걸음인 한편, 해외시장에서 일본차가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이 증가, 국내생산은 10,604천대(전년도대비+0.7%)로 증가하였다. 전술한대로 2005년도는 내수, 수출 모두 제자리걸음, 국내생산은 10,645천대로 보험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II. 업계 동향

< 매출액 >

○ 2005년 미비한 증가 예상

완성차 메이커 9사의 2004년도 연결 매출액 단순 합계는, 국내 판매는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호조를 보인 미국과 더불어 유럽, 아시아 시장 등의 해외시장의 판매 증가로 인해 44조 5,260억엔, 전년도대비2.4%의 수익 증가로 엔화상승·달러하락의 환율환산으로 감소분을 커버하였다. 2005년도에는 현지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판매는 증가하나 앞서

지적한대로 수출, 내수의 정체로 인해 매출액은 45조 125억 엔의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 영업이익 >

○ 2005년 원재료 가격상승 영향으로 이익 감소 예상

완성차 메이커 9사의 2004년도 연결매출액 단순합계는, 엔화상승·달러하락으로 이익감소를 보였으나, ①원가절감 효과 ②국내에 비해 해당 이익률이 높은 북미 판매가 증가한 점 등으로 전년도대비 0.1% 증가한 3조 3,276억엔을 기록하였다.

2005년은, 엔화환율은 對달러,對유로 모두 전년도 수준을 맴돌 것으로 보여 환율변동에 의한 증감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을 보이는 가운데 ①판매관리비·연구개발비·고정비의 증가 ② 2004년도에 이어 강재 등의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이익 감소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율 변동에 대해서도 달러 하락→엔화 가치 상승 진행의 가능성도 우려되고, 원가절감·합리화 대응으로 발생하는 이익 감소 요인에 여하히 대응할 것인가가 완성차 메이커 각 사의 업적을 좌우하는 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수지 >

(금액)

구분	적요(단위)	03년(실적)	04년(실적)	05년(예상)
매출액	9사(억엔)	435,024	445,260	450,125
영업이익	9사(억엔)	33,233	33,276	32,771

(증감률)

구분	적요(단위)	03년(실적)	04년(실적)	05년(예상)
매출액	9사(%)	+4.4%	+2.4%	+1.1%
영업이익	9사(%)	+10.8%	+0.1%	▲1.5%

(주)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완성차 메이커 12사중 9사 연결결산 단순합계

< 완성차메이커 9사의 이익 변동 요인의 실적과 예측 >

단위 : 억엔	03년(실적)	04년(실적)	05년(예상)
영업이익증감요인	▲2,722	43	505
환율변동	2,843	▲4,423	139
원가저감·합리화	7,96	4,696	3,707
매출변동·매상구성차	4,389	4,230	2,033
판매비증가	▲2,447	▲1,389	▲2,385
연구개발비제품향상비증가	▲1,945	▲2,744	▲3,035
고정비·노무비등	▲1,552	▲669	▲635
그 외	24		▲330

44. 주요산업동향/철강 산업

□ 철 강

< 요약 >

내수에 관해서는 국내경기의 회복경향과 호조한 외수의 견인에 의해, 자동차·조선·산업기계 등의 주요 제조업종의 호조가 지속. 건설쪽도 도심부의 재개발 프로젝트등 민간비주택 투자가상승세로 보정예산에 의해 공익 투자의 감소폭도 둔화할 전망이다

수출에 관해서도 세계적인 경기회복 추세하에서 주력인 동아시아 시장의 수요도 상승세로 시장환경은 양호한 상황 지속. 강재시장도 최근 들어 미국·유럽을 포함 전세계적으로 대폭적인 상승세 기록. 수급면에서 임팩트가 큰 중국에서는 수요 증가를 웃도는 공급 능력 확대에 의해 04년 9월부터 철강 순 수출국으로 전환해 오고 있음. 일본으로부터의 대중국 수출은 현지 생산이 곤란한 고품질 철강 분야가 중심이기 때문에 영향은 경미, 그러나 일상용품 분야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의 강재 유입이나, 국제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기업수지(용광로 대기업4사)와 관해서는 04년도 결산은 국제시장의 대폭상승을 배경으로 한 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코스트업을 흡수 과거 최고수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산됨. 그러나 05년도는 04년도를 웃도는 철강 원 연료의 상승의 조짐이 있어 05년도의 수지 동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격인상 교섭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 동향 >

1) 내외수 공히 상승세, 철판류를 중심으로 2005년도 수급팽박 상황 지속

○ 내수는 05년도도 상승세

내수 (보통 철강 강재 베이스)에서는 계속되는 공공 토목용의 감소 경향이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침체폭은 둔화, 한편 다른 수요 분야는 대체로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회복 경향을 지속해오던 설비 투자에의 감속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일정한 수요가 기대되어 05년도에도 전년도수준의 수요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조 분야에서는 약 3개년 분의 수지 공사량을 유지하고 능력 증강 분의 수요증가가 전망되는 조선용, 해외 판매의 호조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내 생산과 KD셋 수출의 증가가 전망되는 자동차용은 05년도에도 상승세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이상으로부터, 보통 철강 강재 내수는 04년도 62.6백만 톤 (전년기 대비+4.3%), 05년도도 62.6백만 톤으로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기기용이 호조인 특수 철강 강재 내수(국내수주 베이스)에 관해서도 04년 10월로 31개월 연속 플러스로 과거 최고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 철강 수급개요 >

	개요(단위)	03년 (실적)	04년 (실적)	05년 (예상)	04/상 (실적)	04/하 (추정)	05/상 (예상)	05/하 (예상)
내수	조강환산 (백만톤)	76.7	80.4	81.4	39.5	40.9	40.6	40.8
	보통강강재 (백만톤)	60.0	62.6	62.6	30.6	32.0	30.9	31.8
수출	조강환산 (백만톤)	38.2	37.4	37.5	18.9	18.5	18.7	18.9
수입	조강환산 (백만톤)	4.0	4.6	4.7	2.3	2.4	2.4	2.3
생산	조강환산 (백만톤)	111.0	113.2	114.2	56.1	57.1	56.9	57.3
국내용 재고	보통강강재 (백만톤)	5.0	5.3	5.4	5.4	5.3	5.3	5.4

< 증감율 >

	개요 (단위)	03년 (실적)	04년 (실적)	05년 (예상)	04/상 (실적)	04/하 (추정)	05/상 (예상)	05/하 (예상)
내수	조강환산	+2.9%	+4.7%	+1.2%	+2.5%	+7.0%	+2.8%	▲0.3%
	보통강강재	+1.1%	+4.3%	+0.0%	+5.8%	+2.9%	+0.8%	▲0.7%
수출	조강환산	▲1.3%	▲2.1%	+0.3%	+1.0%	▲5.0%	▲1.3%	+1.9%
수입	조강환산	+12.9%	+17.0%	+1.7%	25.9%	+9.6%	+4.7%	▲1.3%
생산	조강환산	+1.1%	+2.0%	+0.9%	+1.2%	+2.7%	+1.4%	+0.5%
국내용재고	보통강강재	▲5.6%	+5.3%	+1.9%	▲5.3%	+5.3%	▲1.4%	+1.9%

자료원 : 미즈호 코포리트 은행 2005년

○ 수출도 세계적인 철강 수급의 압박에 의해 호 환경을 계속

수출 시장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경기 회복 국면 진입으로 철강 수요가 대폭으로 증가한 점, 중국을 비롯한 철강 생산의 급증이 원료 부족을 야기, 공급 사이드의 증산으로 일정부분 커버를 하였으나, 세계적인 철강수급의 압박, 주력의 아시아 마켓에 있어서도 수요증가와 수입 압력의 감소에 의해 특히 일본이 강점을 보유한 고품질 철강 분야의 매매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감소가 계속되는 내수도 회복세로 전환되어 04년초 보다 강판류를 중심으로 한 국내 강재 수급 팽박현상으로 대기업은 수출을 축소, 국내 공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04년도의 전 철강 수출은 전기대비 ▲2.7%의 34.4백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각사 공히 일본계 메이커를 중심으로 조건부 유지쪽을 우선하고 현지 메이커가 제조하지 못하는 자동차, 집전용 등의 고품질 철강 분야의 수출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는 적어도 연간 200~300만 톤의 수출 전용 오더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의 수출 환경과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에 의한 긴축정책의 경과가 주목되고 있는 중국이나, 정부 제약이 표면화 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수급 동향 및 외환 등의 변동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나 당면은 수요 사이드가 대폭 변동될 정도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여, 증산을 계속중인 중국 등의 공급 사이드의 기술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직은 시간을 필요하는 등등의 요인으로, 당분간은 시장수급상황은 양호한 여건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말의 수마트라 지진관련, 복구 수요의 규모. 시기등은 미정이나 결국 아시아 시장은 수급핍박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05년도의 전 철강 수출은 내수 및 해외 조건부 유저용 수요와 국내 생산량과의 밸런스에서 여력이 발생한 부분이 수출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내수 시세가 변동하지 않는 미미한 증가세의 국내 생산, 미미한 증가세의 수입과의 관계 등으로, 전기 대비+1.0%의 34.8백 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의 발송지인 한국용이 건설 센터를 중심으로 한 내수 침체로부터 전환하는 한편, 중국, 대만, 아세안용 등은 상승세로 추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은 범용품을 중심으로 증가

한편, 04년도의 수입은 국내 철강재 수급의 압박과 가격 인상으로 보통 강재가 전기대비 +13.1%의 3.4 백만톤 증가하였다. 수입 상대국에서 주목 할 것은 중국에 있어서의 철강 수급 밸런스의 변화로 03년에 35백만톤의 입초를 보였던 중국은 04년9월 이후 철강 순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04년 상반기에 본격화한 중앙 정부에 의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철강 수요의 속도가 둔화하는 한편 대기업 메이커를 중심으로 하는 대폭적인 철강 증산이 계속되면서 일상용품을 중심으로 중국 국내시장이 국제시장을 밀치고 있는 점,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점 등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제조하지 못하는 고품질 철강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대일 수출에 대해서는 공급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선재나 H형강, 핫코일, 압판 등의 범용 강재가 일부 일본 시장에도 유입되고 있다.

품질상의 문제로 수입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은 적지만,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한국에의 중국 강재의 유입으로 한국자재의 일본에의 유입량이 증가하는 것도 예상되어 05년도의 보통 강철강재 수입은 전기대비 +4.7%의 3.5백 만톤의 증가가 예상된다.

○ 조강 생산은 능력상한의 수준에서 증산 대응

용광로의 개조나 설비 밸런스의 개선 등에 의한 증산 대응에 의해 조강산업은 04년도 113.2백만톤 (추정치), 05년도에는 114.2백만톤의 증가가 예상되어진다. ([도표2-4])

< 2004*2005년도의 철강 수급 동향 및 전망 >

(내수)

보통 철강강재	2003년	2004년(실적)	2005년(예상)	04/03(%)	05/04(%)
건설	27.2	28.2	28.0	3.7	▲0.7
내 건축	19.4	21.0	21.0	8.3	0.2
내 토목	7.8	77.2	7.0	▲7.7	▲3.3
제조업	32.8	34.4	34.6	4.8	0.7
내 자동차	12.8	13.0	13.1	1.7	0.5
내 산업 기계	4.9	5.6	5.6	13.4	▲0.0
내 전기 기계	3.7	3.9	3.8	5.4	▲2.2
내 조선	4.4	4.8	5.0	8.9	6.1
합계	60.0	62.6	62.6	4.3	0.0
국내 외관 소비	76.7	80.4	81.4	4.7	1.2

(수출)

전철강	35.4	34.4	34.8	▲2.7	1.0
내 미국	1.3	1.5	1.5	12.2	0.7
내 중국	7.0	6.5	6.6	▲6.6	0.9
내아시아(중국제외)	22.8	22.0	22.4	▲3.5	1.4
조강 유입	38.2	37.4	37.5	▲2.1	0.3

(수입)

내 중국	6.2	6.8	7.2	10.1	5.7
보통 철강강재	3.0	3.4	3.5	13.1	4.7
조강 수입	4.0	4.6	4.7	17.0	1.7

(생산)

조강 생산	111.0	113.2	114.2	2.0	0.9
-------	-------	-------	-------	-----	-----

자료원 : 미즈호 코포리트 은행 2005년

주 : 국내 외관 소비=조강 생산+조강 수입 (단 재고 변동을 포함하지 않음)

장기간에 걸쳐 과잉 설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철강 메이커는 대폭적으로 경감된 기존 설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증산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철강수급에 있어서는 조선, 산업기계,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는 압판이나 자동차, 가전용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박판 등에서 수급이 매우 팽박해진 상황이나, 대기업 각사는 압판, 박판 설비에 대해서도 04~06년도까지 대폭 능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05년도에도 강판류의 수요는 견조하게 추이할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유저에의 공급 책임을 어디까지 달성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강재시장은 대폭 상승. 철강원료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가격인상 추세 지속

○ 시장은 다름없이 상승세, 철강원료 高勝分の 전가가 진행

세계적인 철강수요의 팽박으로 철강 시장도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03년도까지는 대폭적인 철강 수요 확대 국면이 지속된 중국이 국제시장을 견인했으나 긴축 대책의 영향 등으로 인한 시장 상황 유연화로 전환한 중국을 대신하여 미국이 국제시장 상황을 견인했다.

핫코일 가격을 예로 들면 03년까지 톤당 200 달러대에 있던 미국시장은 04년에 일시에 800 달러대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유럽시장도 04년도 봄이후 상승이 가속되어 일시 조정 국면을 보였던 중국 시장도 04년도 여름 이후 상황이 반전, 유럽.아시아 시장이 미국 수준에 근접해오는 상황이다. 또 한가지 주목 할 것은 강재 시장의 이단화를 들 수 있다. 대폭적인 생산 능력 증강에 의해 준 수출국으로 전환한 중국의 수출품은 주로 저 그레이트 건설용 강재로서 공급잉여분이 유출된 것이다.

국내시장에 관해서는 강판류의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한편 소형봉강 H형강 등 조강류는 시세가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저중에서도 시중 조달이 많은 건설용으로의 영향이 커서 스크랩 가격의 高勝 및 조달난도 있어 H형 강. 철근용 봉강등 전로 품종류로 파급되었다.

강판류의 수급은 05년도 후반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철강 메이커의 증산 대응에 의해 다소의 완화 추세가 보여지고 있으나 조선이나 자동차를 비롯한 수요 증가 움직임으로 05년도중 수급 팽박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로 건설용으로 사용되는 조강류에 대해서는 H형 강 등에서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가격상승세 억제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고는 04년 상반기에 박판 제품을 중심으로 과잉 재고 상태를 보였으나 각사의 감산 노력에 의해 재고조정이 진전되어 거의 평년 수준이 되었다.

< 기업업적 >

□ 2004년도 실적

○ 대폭적인 수익 증가에서 과거 최고 수익을 달성

04년도의 고로 대기업 4개사의 합계 연결 매상고는 전기대비 +17.0%의 90,552억엔, 동 4사 합계 연결영업손익은 +76.3%의 11,842 억엔으로 전기를 상회하는 대폭적인 증익 결산을 실현함으로써 과거 최고 수익을 달성하였다.

더욱이 전로 메이커 등의 철강 사업 자회사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이전부터 지속해온 합리화 효과도 증익에 기여하였다.

< 기업지수동향 >

[실액]

	(회사 수)(단위)	03년(실적)	04년(실적)	05년(예상)
매상고	용광로 대기업4사 (억엔)	77,396	90,552	97,394
영업 이익	용광로 대기업4사 (억엔)	6,718	11,842	11,443

[증감율]

	개요(단위)	03fy(실적)	04fy(실적)	05fy(예상)
매상고	용광로 대기업4사(%)	+1.8%	+17.0%	+7.6%
영업 이익	용광로 대기업4사(%)	+52.4%	+76.3%	▲3.4%

자료원 : 미즈호코포잇은행 2005년

< 2005년도 전망 >

05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철강원료 가격이 더욱 상승, 04년도의 가격 상승폭을 대폭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판매 가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격인상의 움직임이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아시아 시장 수요도 상승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철강 메이커 각사도 계속되는 국제시황에 비해서 국내 조건부 유저용의 가격인상 교섭에 힘써 04년도의 인상 달성분의 기여와 합쳐 05년도의 판매 가격도 상승의 조짐이다.

< 업계의 이슈 및 동향 >

- 철강석. 원료탄 가격은 미체험 존으로 돌입

03년도부터 04년도에 걸쳐 업계 전체적으로 7,000억엔으로 추산되는 철강 원연료 조달 가격의 코스트 상승은 04년도부터 05년도에 걸쳐서 더욱 확대되어 1조원에 달한다는 시산도 나오고 있다.

그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선반, 고로 각사와 대기업 서플라이어 간에 합의한 원료탄의 코스트 상승으로 과거 최고치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동향

이러한 상황하에서 강재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인지 여부는 역시 중국이 포인트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4년 9월부터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범용 강재를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 표면화되고 있는 중국의 철강 메이커가 원료가 高勝하에서도 증산 페이스를 유지할 것인지, 설비를 일시 억제해서 수급조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아시아 범용품 마켓의 양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향후의 아시아시장을 내다본다는 의미에서도 05년에는 중국의 동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45. 주요산업동향/통신산업

□ 통신

<요약>

고정 통신분야에서는 브로드 밴드의 보급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ADSL부터 FTTH로의 시프트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고정식 전화는 IP전화로의 전환이 가속되어 新電電 2사의 기본 요금 시장 참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더욱 시장 축소가 심화될 될 전망임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시장의 포화로 인해 누적 가입자수의 증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G(차세대 휴대 전화)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가입자 확보를 위한 요금 경쟁의 영향으로 통신료 수입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캐리어 각 사에 의한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2004년도의 대기업 통신사업자 4개 그룹의 연결 합계는 이동통신 사업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05년도에도 고정통신분야.이동통신분야와 함께 경쟁 격화가 예상되어 적자가 될 전망임

< 산업 동향 >

FTTH의 본격적인 보급이 기대되는 개인용 고정통신시장

- 브로드 밴드의 가입자수는 2004년도 말 기준 1,970만명

브로드 밴드 액세스 서비스는 계속해서 순조로운 보급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2004년도 말에는 1,970만 가입(전년대비+32.0%)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ADSL의 증가 페이스는 약20만/월로 서서히 둔화하는 한편 FTTH에 대해서는 월 증가 페이스가 10만인을 넘는 등 증가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DSL은 고속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상품가치의 향상, 저렴한 저속 서비스의 확대나 농촌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에리어의 확대 등으로 고객을 개척해오고 있다. 한편, FTTH에서는 ADSL보다도 저렴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집합 주택용에다 일반 주택용에 대해서도 가격 저하와 서비스 확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4년 8월에 관서전력 자회사인 케이오 프티콤이 일반 주택전용 FTTH의 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ADSL보다도 저렴하고 또한 고속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케이옵티콤 (FTTH) 와 타사사업자 (ADSL) 의 요금비교 >

	케이옵티콤 (FTTH)	ADSL 사업자
인터넷 (모뎀 렌탈료 포함)	eo홈 파이버100Mbps 월액4,900엔(2년계약동결시)	Yahoo! BB12Mbps 50Mbps 월액 3,535엔~3,935엔
전화	Eo광전화 어댑트 월액300엔	NTT3 급국 주택용 월액1,785엔
합계	월액 5,200 엔	월액 5,320~5,720 엔

(자료원 : 미즈호코포잇은행 2005년)

- 2005년 도중에도 가입 증가의 주역은 ADSL에서 FTTH로 이동

브로드밴드 액세스 서비스의 월간 순수 신규 증가수는 2005년 도중에도 FTTH이 ADSL을 웃돌것이 전망된다. FTTH서비스에 관련된 요금인하나 초기비용 무료 캠페인등, 각사 공히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기존 가입자 전화에서 번호 이동이 가능한 IP 전화나 유선 서비스방송,영상 베이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텔레비전 전화)등의 추가 서비스의 경쟁이 향후 FTTH보급을 후원하는 요인으로서 주목된다.

- 고정통신 시장의 축소 계속

브로드밴드 사업 사업자의 매상고는 순조롭게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고정계 대기업 사업자로서는 가장 큰 수입 기반인 통신료 수입의 감소가 크고, 고정통신 시장의 축소가 계속되고 있다. 통신료 수입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① 휴대전화나 메일로의 수요 이동 ② 상시 접속 인터넷의 보급에 따르는 다이얼 업 수요 감퇴, ③ 통화료가 무료 또는 저렴한 IP전화로의 수요 이동 등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 기본요금 시장으로 新電電 2사가 참가

이와 같은 상황하에 일본 텔레콤과 KDDI(이하, 新電電2사)는 목전의 교환 설비를 이용해서 기본료, 통화료와 함께 NTT에 비해서 저렴한 전화 서비스의 개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종래에는 NTT동서회사가 사실상 독점해오던 기본요금 시장에 있어서도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로 NTT는 민영화 이후 처음으로 기본요금 인하를 실시, 통신료나 서비스 사용료.시설 설치 부담금에 대해서도 인하를 하였다.

계속되는 세대교차가 진전되는 기업전용 데이터 통신시장

- 신형 WAN서비스에의 이동이 계속되지만 수익성이 어렵고 시장 축소가 계속

기업전용 데이터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종래의 전용선이나 플레임 릴레이로부터 IP-VPN이나 광역 인터넷 등의 대용량, 저렴한 신형 WAN서비스로 사내 네트워크를 전환하는 움직임이 진전되고 있다.

대기업에 있어서 신형 WAN 서비스 이행 움직임은 일순하면서 대용량화의 움직임이 중심이 되는 한편 각 캐리어 영업의 타겟은 중견.중소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 가고있다. 각 캐리어는 네트워크 업무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계 등 솔루션 사업으로의 진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존SI사업자와의 경합을 하게 되어 수익의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될 조짐의 이동통신 시장

○ 2004년도의 이동통신시장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휴대전화 사업자 4그룹(NTT도코모, KDDI<AU>, 보다폰, 프카)에 의한 2004년도의 통신서비스 (음성+데이터)수입은 음성수입의 침체를 데이터 수입의 증가에서 채우는데 이르지 않고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누적 가입자수 증가가 정체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 2006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넘버 포터빌리티 투입전에 각 캐리어 가족 할인의 확충 등의 가격 인하로 가입자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확대세를 지속해온 가입자당 데이터 통신 수입도 차세대 이동전화 (3G)로의 이행이 수반되는 통신료 단가의 저하나 정액제 요금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은 실정이다.

○ 캐리어 마다 전략의 차이가 선명하게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각 캐리어는 통신수입 이외의 추가적인 수익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캐리어에 따라서는 략의 방향성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NTT 도코모는 Felica 탑재 단말을 투입해서 리얼 비즈니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객만족도 향상과 해약율 저하를 통해서 기존 고객의 확보를 주력함과 동시에 통신이용 기회의 증가와 수수료 수입의 획득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KDDI<au>는 타사에 앞서 도입한 데이터 정액제를 배경으로 퍼스널에 액세스 가능한 휴대 미디어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전략이 마련되고 있다. 착신벨 대응 단말 투입에 의한 음악 서비스를 개시함과 동시에 PC 포털 사업자나 옥션 사업자와 제휴해서 포털 사이트의 확충을 지향하는 등 콘텐츠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보다폰은 글로벌 로밍 확충과 글로벌 조달에 의한 단말 코스트 삭감등 세계 전략화를 명확히 내세우고 있어 2004년 가을에 3G 대응 7단말의 투입과 데이터 정액제를 개시하여, 반격을 꾀하고 있다.

< 기업업적 >

○ 지난해에 이어 2005년도도 수익 감소가 계속될 전망

2004년도는 대기업 통신사업자 4그룹의 연결 합산 베이스에서 수익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통신사업 전체의 수익증가 기조를 뒷받침해온 이동통신 사업은 가입자 증가의 둔화와 요금인하의 영향으로 영업 수입이 소폭 감소된데다 3G 이행 촉진에 수반되는 판매 촉진비의 확대 등으로 감익을 기록하였다. 또, 고정통신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익 감소 페이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新電電2사에 의한 직수 서비스의 개시에 수반되는 고객 획득 코스트의 증가, 2005년 1월부터 실시한 NTT에 의한 인하의 영향에 의해 대폭적인 감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도에는 대기업 통신 사업자 4그룹의 연결 합산 베이스에서 계속해서 수익 감소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이동통신사업은 가입자 증가가 더욱 둔화됨과 함께 2004년도중에 실시되었던 인하가 연중 영향을 끼치는 물론 3G 이행에 수반된 프로모션비용도 마찬가지로 고수준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 감소 결산이 될 전망이다.

○ 2004년도의 설비 투자는 2003년도 실적을 웃돌 조짐

2004년도에는 이동통신분야에서 계속적으로 활발한 3G용 투자 (에리어 충실, 코어네트웍의 IP화 추진)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는 2003년도를 약간 웃도는 수준의 설비 투자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정 통신 분야에서는 新電電 2사의 직수 전화 서비스 개시에 따르는 설비 투자에 의해 2003년도를 웃도는 설비투자가 전망된다.

2005년도도 이동통신분야에 있어서 3G용 투자는 고수준으로 추이할 전망이다. 한편 총무성은 주파수 할당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1.7GHz대와 2GHz대 에서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면허 교부가 이루어질 경우 신규 참가 사업자에 의해 기지국 투자개시되어 이동통신분야에 있어서 설비 투자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고정통신 분야에 있어서 NTT는 차세대망으로의 투자 증가를, 기존망 투자 축소, 설비기기 조달 단가 인하 등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현행 수준의 설비 투자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新電電 2사의 직수 전화 서비스나 차세대망으로의 설비투자 지속으로 2004년도를 약간 웃도는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업계의 이슈 및 동향 >

○ FMC로의 조합에 주목

2005년도에는 정보통신 사업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에는 축소세가 지속되었던 고정통신 시장에 가세해 지금까지 성장을 뒷받침해온 이동통신 시장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 정보 통신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어려운 사업 환경하에 고정통신과 이동통신 융합 (Fixed Mobile Convergence, 이하 FMC)을 통한 대응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 NTT는 FMC의 실현을 중계 기동의 하나로

NTT는 중기 경영전략의 제일 핵심으로 FMC를 실현하는 브로드밴드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개발 .보급으로 그룹의 종합력을 발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두번째 핵심으로 고정통신과 이동통신의 융합을 포함한 서비스의 공통 기반으로 풀IP의 차세대 네트워크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 시장의 확대에 공헌하는FMC서비스의 등장에 기대

FMC로 대표되는 브로드 밴드 서비스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통신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데 향후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가 개발.제공될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될 것을 여겨진다. FMC서비스의 선봉으로 등장한 모바일 센트랙 서비스(하나의 단말을 사내에서는 내선전화, 회사 밖에서는 통상의 휴대전화로서 사용 가능한 FMC 서비스)는 도입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솔루션 으로서 주목되면서 대대적(큰 규모의) 도입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당장은 기업 전용 중심의 FMC 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통신 수요를 창출하여 통신시장에 공헌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 종합통신회사화 진행

유럽 캐리어에 있어서는 고정과 이동의 양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가능한 통신회사로의 조직 재편을 진행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BT(브리티슈 텔레콤)은 2008년을 목표로 네트워크의 풀 IP화를 이루어 진행함과 동시에 보다폰으로 부터 MVNO(설비도매)에 의해 휴대사업으로의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

이후, 일본에 있어서는 FMC의 진전을 착안하여 각 캐리어가 어떤 사업전략을 표명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46. 주요산업동향/정보서비스산업

정보서비스

<요약>

정보서비스부문은 미약한 회복세 지속, 유저가 IT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주된 배경임

2004년도는 하반기 이후로도 큰 성장은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연간 성장률은 2%정도로 추정됨. 2005년도는 시큐리티 관련 등의 수요가 예상되나 업계내의 과당경쟁, IT투자에 대한 신중한 자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연간 전체 성장률은 2004년보다 약간 높은 3%정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IT투자수요가 존재하나, 투자 규모 자체는 작은 편으로 시장을 견인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임. 한편, 대규모 제조업에 있어 IT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부상하고 있는 시기적 요인을 배경으로 현재의 회복기조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됨

채산성이 불량한 안건은 상당히 감소했으나 가격저하 추세 지속으로 SI사업자의 수익율 제고는 어려운 상황. 유저 니즈를 선취하여 이에 대응한 솔루션의 제안력이 향후 성장의 열쇠를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됨

1. 산업의 동향

1. 회복기조에 진입하였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 지속 전망

○ 회복기조에 접어들었으나 기세는 약한 상황

경제산업성의 특정 서비스 산업 동태 통계에 의하면, 정보서비스 시장전체적으로는 2003년도 제3/4사분기기(2003년 10-12월期)이후 3 사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 미약하나마 회복기조를 보였으나, 2004년도 제2/4분기(7-9월期)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최근 수개월간 소폭의 증가세와 소폭의 감소가 반복되는 혼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회복기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수년간 업계를 견인해 온 「시스템 등 관리 운영 위탁(아웃소싱)」 시장의 성장률이 크게 저하되어 상반기 소프트웨어투자가 마이너스로 침체되는 한편 하반기 투자계획이 대폭으로 수정되는 상황에서 필요불가결한 IT투자 이외의 투자는 제고하는 유저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2004년도는 2%정도의 성장을 달성

IT의 상품화 진전으로 업계 자체가 안정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음과 동시에 시장확대를 견인하는 새로운 솔루션, 기술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은 답보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로부터의 이월안건 실행, 2000년 문제 대응시의 시스템 갱신수요의 본격화라는 일부 밝은 재료가 존재하고 있어 2% 정도의 신장은 기대되나, 높은 성장을 실현해온 2000년 무렵과 비교하면 신장세는 약화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2. 기업규모별·업종별 IT투자 동향

○ 중견기업의 강한 견인력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에서 ERP(종합기간업무시스템)도입, 이를 발단으로 하는 주변 분야 (데이터 관리 등), 왕성한 IT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 중견기업에 있어 IT시장 및 건당 안건의 규모는 대기업 규모와 비교해 작고, 시장 전체를 견인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당면 회복 기조를 지탱해 온 대기업·제조업에 있어 IT투자가 감소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 IT투자는, 제조업중심에서 비제조업으로 확대

업종별 동향을 보면, 2004년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IT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경기회복에 의해 비제조업분야에도 IT투자가 확대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수년 동안 침체됐던 금융업계의 IT투자는 불량채권 문제 등으로 유보해온 은행업계가 IT투자 증강으로 전환한 것을 배경으로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 2004년도 하반기 이후 시장성장의 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 2005년도 전망

○ 2005년도 성장률 3% 전망

2005년도 정보서비스 시장은, 유비쿼터스화의 진전, IT·네트워크의 융합을 배경으로 개발 수요가 고조됨과 동시에 2000년 문제 대응과 관련한 시스템 갱신 수요의 본격화도 기대된다.

또한, 개인 정보보호법 시에 따른 시리티를 비롯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 정보 개방에 의한 시스템 개발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웃 소싱 서비스는 유저의 뿌리깊은 코스트 삭감 니즈를 배경으로 향후로도 견조한 수요가 예상되나, 업무 플로우를 제공하는 BPO(Business Process Transformation Outsourcing), 유저의 비즈니스 모델 개혁도 동시에 청부하는 BTO(Business Transformation Outsourcing)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이동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러 수요가 존재하는 한편, 사업자간의 과당 경쟁, IT 투자효율에 대한 유저의 신중자세는 계속될 것을 보여 2005년도 성장률은 2004년보다 약간 높은 3%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II. 기업 실적 동향

2004년 상반기는, 업계의 회복기조를 배경으로 수익증가를 달성한 기업이 많았지만, 이익면에서는 서비스 가격 저하 등의 영향으로 이익율 감소를 기록한 사업자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서비스별로 보면, 제조업용이나 종래의 호조 분야인 아웃소싱, 컨설팅 관련분야를 시작으로 하드웨어, 금융 업계관련 서비스가 회복 추세에 있다. 한편, 공공청분야는 중앙관청을 중심으로 수요가 부진세를 보임과 동시에 수익율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며, ERP관련 서비스도 침체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

○ 유저 수요창출과 대응력이 관건

최근 정보서비스 사업환경을 어렵게 해온 불량 채산 안건은, 개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관련되는 인재 및 조직 체제 강화에 대한 노력으로, 여전히 일부 사업자에 국한되기는 하나 상당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유저의 제한된 예산규모안에서 효율이 높은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시스템 제·구축 능력뿐 아니라 컨설팅 기능의 활용,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창출에 유저의 IT수요를 선점, 그에따른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갈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동향

○ 국산 메인프레임의 사업자원은 종래 분산 경향으로

주요 메이커인 NEC, 히타치, 후지츠는, 메인 프레임 전성 시대 이래 정보서비스업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들 메이커는 소프트 서비스 사업에 관계되는 기술이나 자원을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 왔으나 한편으로 그러한 사업 자원이 그룹내에 있어 기능 분담화나 재무기능 강화 등의 제반 니즈, 경영환경, 사업전략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그룹내에 분산되어버리는 측면도 존재하였다.

○ 사업 자원의 정리·통합이 중요한 과제

그러나, 오픈화의 가속에 의해 시스템 개발이 보다 복잡화되고, 휴대 단말이나 가전분야에 있어 소프트 개발 수요가 유비쿼터스시대의 본격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등 정보서비스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 업계재편 초래할 가능성도

2004년은, 메인 프레임 전문기업에 있어 소프트 서비스 사업의 재편이 잇달았던 한 해이기도 하다.

우선 후지츠가 2004년 5월에 자회사인 후지츠서포트 & 서비스의 완전 자회사화를 통해

보수·운용 프로세스를 재편한데 이어, 11월에는 NEC가 IBM 컨설팅을 매수함으로써 컨설팅·시스템 기획 공정을 보강했다.

NEC는 12월에도 NEC소프트·NEC시스템 테크놀로지를 완전 자회사化함으로 소프트 개발 자원을 NEC본체에 집약, 재편성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메인 프레임의 소프트 서비스 사업 강화는 스스로의 사업 재편에만 멈추지 않고, 협력 회사의 선별이나 자체 제작 비율 향상에 의한 외주비 삭감이라는 정보서비스 산업 전체의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어 향후 업계 재편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47. 지적재산권

1. 일본의 지적재산권보호관련 제도 개요

일본의 지적재산권 관련법규로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국제출원법, 부정 경쟁방지법, 변리사법 등이 있다.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조약으로는 베른협약, UCC, 파리협약이 있다.

일본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시각은 특히 최근 들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기술, 자본, 상품의 국제교류 및 국제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첨단기술분야의 신기술 보호와 신기술 개발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85 년중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명문화했으며 반도체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은 또한 기술선진국으로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는 신라운드등 에서도 보호확대 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신기술제품의 교역자유화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적재산권 관련 절차는 자의적인 부분이 많으며, 등록절차도 복잡하고 정식으로 발효될 때까지는 약 5-6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예컨대, 특허권 및 상표권에 있어서 신청·조사 및 검사·부여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요한 발명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의 제기를 접수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있고, 특허 중 특정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만 인정하고, 특허신청도 반드시 일본에서 할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허에 관해 번역에 따른 오기를 인정치 않으며 특허관련분쟁도 접수시에 제공된 사례 및 한도내에서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면에서 미흡하다. 특허권의 경우 외국 특허 신청과정의 지연으로 특허권 획득에 보통 2년에서 10년이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허보호 범위가 극히 협소하여 경쟁사에 의한 유사특허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상표권의 경우도 4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벌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판권의 보호기간도 30년으로 여타국에 비해 짧다. 현행 일본의 특허법 하에서는 행정기관이 수입하는 경우 특허모조품을 배제하지 못하며, 특허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직접 재판소에 침해를 중지토록 또는 침해에 의해 발생한 부당이익을 반환하도록 제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제소가 불가능하다.

* 그러나 일본정부는 최근 들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서의 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보면, 일본정부는 2003년에 지적재산 입국을 표방하고 특허 심사의 신속화, 대학과의 공동연구활동 등을 집중 지원해오고 있으며, 국제적인 특허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적 재산고등 재판소도 2005년까지 신설 예정으로 있는 등 특허관련 정책을 집중, 강화해 오고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인프라가 착착 정비되어오면서 지금까지 국제적 소송을 주저해오던 일본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중에 후지츠가 삼성SDI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PDP소송(이후 화해로 조정완료)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아국정부, 업계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 형태별 개요

가) 저작권

일본은 1970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그후 수차례에 걸쳐 동 법을 개정해오고 있다. 일본의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1. 소설, 드라마, 논문, 강연 및 기타 문학작품
2. 뮤지컬 작품 3. 안무 및 판토마임 4. 그림, 조각 및 기타 예술작품
5. 건축물 6. 지도, 차트, 모델 7. 영화
8. 사진 9. 프로그램 등 10. 다. 반, 방송, 유선방송 등으로 구분된다.

데이터베이스, 유선회로 TV, 비디오텍스등의 이른바 뉴미디어에 의한 새로운 정보서비스도 1985년의 저작권법 개정시 소위 편집저작권과 저작권 인접권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85년의 저작권법 개정시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위 창작 년월일 등록제도를 취하여 설사 동 컴퓨터 프로그램이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 지라도 창작과 함께 그 저작권이 보호된다.

일본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
(단, 영화 사진작품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창작후 50년)
- 외국저작물의 경우는 베른조약에 의거하여 보호. 단 원저작국의 보호기간이 일본보다 짧은 경우에는 원저작국의 법률에 의함
- 공연, 다. 반, 방송 및 유선방송의 경우 첫공연 또는 방송으로부터 20년

○ 저작권 위반에 대한 제재

- 저작권 침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상업용 다. 반복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나)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은 1905년 제정되었으며 그후 수십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현행 법률은 1959년의 개정실용신안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일본은 실용신안에 있어서 심사주의, 1고안 1출원,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 출원공고일로 부터 10년 (단 출원일로 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원공고 : 다음 항의 특허법과 동일
- 위반에 대한 제재
 - 실용신안권 침해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 사기행위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은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 특허청 또는 법원에서 위증을 한자 : 10년 이하의 징역

< 반도체칩의 설계 (LAY - OUT) >

일본의 반도체칩 회로배치 방법의 보호는 지난 83년 미국과 일본간의 첨단기술산업 작업회가 반도체칩의 배치방법에 대한 미국과 일본 양국정부에 건의한데 따라 실시되었다. (미국은 84년부터 , 일본은 85년부터)

일본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 등록일로 부터 10년
- 등록신청 : 최초 제조후 2년 이내에만 등록신청 가능
- 권리의 양도 및 이용권의 설정 : 특허권자는 권리의 양도, 전용이용권 및 통상 이용권의 설정이 가능
- 보상금 청구의 소급성 : 등록전에 회로배치가 모방되고 이용되는 경우 등록권자는 등록후에도 그 보상금 청구가능
- 위반에 대한 제재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다) 종묘권

1978년 제정된 " 종묘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 등록일로 부터 15년. 단 과수 재목등은 18년
- 위반에 대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라) 상표권

일본에서 상표법은 1959년에 제정된 이래 수차례의 부분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보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 출원등록일로 부터 10년. 갱신가능
- 상표등록권자 :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표가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

- 불사용 취소 : 3년
- 출원공고 (이의신청기간) : 3개월
- 상품분류 : 34류
- 위반에 대한 제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마) 의장권

일본 의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 의장등록일로 부터 15년
- 신규성 장애요인 : 국내외 공용공지, 국내외 간행물 게재
- 심사주의
- 등록표시 필요
- 위반에 대한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바) 특허권

일본 특허법은 1899년 제정된 이래 20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는데, 현행법률은 1959년 개정법률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일본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기간 : 출원 공고일로 부터 15년. 단 출원일로 부터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 추가특허는 원특허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한다.
- 신규성 장애요인 : 공지공용, 국내외 간행물 게재
- 특허대상이 될 수 없는 발명 : 원자력 변환의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물질
- 이의신청 : 출원공고가 있을 때는 누구든지 공고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청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실시의무 : 특허권 부여후 동권리가 3년간 적절히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강제실시가 허용된다. 강제실시는 통산성대신의 요청에 의해 실시된다.
- 심사청구 : 출원일로 부터 7년
- 출원공고 : 특허청장관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출원공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할 하여야 한다.
- 위반에 대한 제재
 - 특허권 침해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사기행위에 의해 특허를 받은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 허위표시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 법원 및 특허청에서의 위증 : 10년 이하의 징역

* 최근 인터넷 소프트에 대한 copy 방지목적으로 소프트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48. 소비자보호

1. 소비자보호기본법

1968년 5월 제정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소비자의 이익의 옹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제조물책임법 (PL법)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PL법)이 94년6.22 참의원에서 최종 가결되어 95년7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안은 민법의 특례법으로 총6조 부칙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화되었으나, 소비자 중시형의 미국형 PL법보다는 기업측에 유연한 유럽형 PL법에 가깝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계,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책임기간은 유통단계에서 10년간이며, 법률 시행후 출하된 제품부터 대상이 된다. PL법 각 조문에서는 제조물의 범위 및 결함의 정의가 상세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의 판단과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각 업계단체에서는 PL상담센터를 설립,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제품하자에 의한 손해에 관한 상담은 많지 않으며, 의뢰건수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3. 소비자보호 조례

소비자보호 조례는 1974년에 고베시가 "고베시민의 생활을 지키는 조례"를 제정한 이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정해진 소비자보호 조례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정하고 있는 등 국회를 통과한 소비자보호 법안보다 내용면에서 훨씬 엄격하다.

< 독과점금지 >

1) 개 요

가) 독점금지법의 체계 및 구조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獨占禁止法 또는 동법)은 13장, 본문 130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130조 가운데 실체규정은 20조정도로 나머지는 절차 규정이다.

○ 실체규정

독점금지법은 공정,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3가지의 기본정신이 있다.

- 독점의 금지 : 사적독점의 금지(3조 전단), 합병, 영업양도, 주식 보유, 임원겸임의 제한, 독점적 상태의 규제.

- 카르텔의 금지 : 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 (3조후단), 사업자 단체의 일정 행위의 금지,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관한 규정
-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19조)

○ 절차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및 위반행위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나) 독점금지법의 연혁

-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1947년 초에 제정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 총사령부에 의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反 트러스트법을 기초로하여 제정되었다. 원시독점금지법은 기업결합의 엄격한 제한 등 미국의 독점금지법 이상으로 엄격한 것이었다.
- 그러나 그 후의 국제정세변화가 미군정의 정책변화를 가져와 급속히 일본경제를 부흥, 자립시키는 정책으로 바뀌어 이를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49년 제1차 독점금지법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 1953년의 개정은 큰 폭으로 완화된 내용의 독점금지법제를 만들었으나 1977년의 개정은 제1차 석유파동에 의한 물가폭등에 따른 과징금제도 및 대규모기업의 주식보유총액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엄격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1992년의 개정은 더욱 과징금이 고액화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운용은 점차로 엄격해져감과 함께 사안별로 세무지침을 설정하고, 독점금지법의 운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방침을 알리기도 하며, 산업계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하는 등 일종의 예방행정활동을 해왔다.

다) 독점금지법과 부속법령

- 독점금지법의 체계를 구성하는 법률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고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등에 관한 법률 (독점 금지법의 적용제외에 관한 법률)
 -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 (하청법)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
- 공정거래 위원회는 그 내부기준, 사건 처리 절차, 신고 및 인가 기타 사항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76조) 공정 거래 위원회 규칙 가운데에는 실무상 중요한 것이 많다.
 - 인가신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국제적 협정 및 국제적 계약 신고에 관한 규칙
 - 독점금지법 8조에 의한 신고에 관한 규칙

라) 기본개념

- 독점금지법 제2조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임원, 경쟁, 사적독점, 부당거래제한(카르텔), 독점적 상태,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는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각각의 용어에 해당하는 용어를 정확히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 경쟁 및 경쟁의 실질적 제한

- 독점금지법상의 '경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서로 시장 가격 및 품질면에서 보다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거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사적독점, 카르텔에서와 같은 시장지배력의 형성·유지행위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 '경쟁의 실질적 제한'은 시장에서의 경쟁상태 내지 경쟁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가리킨다.
- 한편 제2조 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쟁'개념은 사업자간에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것은 시장을 의미한다. '일정한 거래분야'를 확정하기 위한 요소로서는, 구체적인 경쟁제한행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거래의 상대방, 거래가 행하여지는 지역, 거래의 단계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 불공정한 거래방법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는 각종 경쟁저해적 행위를 배제하고 경쟁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정립함으로써 시장조건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 주요한 세부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법령의 운용에 관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사무 처리기준을 공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불공정한 거래방법
- 유통거래관행 가이드라인
 - 연속적, 배타적 거래를 배경으로 하는 행위
 - 총대리점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 병행수입의 부당저해
- 공동개발연구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지침
- 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에 관한 운용기준

- 회사의 합병 등의 심사에 관한 사무처리기준
- 회사의 주식소유의 심사에 관한 사무처리기준
-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의 신고 관한 규제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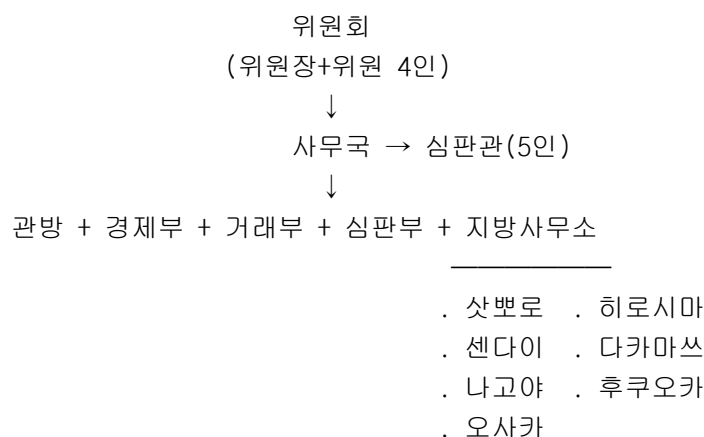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무청의 외국(外局)으로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의 관할에 속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위원장의 임면은 일왕(日王)이 인증하다. 사무국 직원가운데에는 심판절차를 행하는 심판관은 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특별히 검찰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사무국의 정원은 1993년 3월말현재 484명 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의 국과 7개의 지방국을 가지고 있다.

○ 권한

- 행정권한 : 독점금지법위반행위에 대한 배제조치명령, 과징금의납부명령 등. 이들의 목적을 위한 신고, 보고서의 접수, 출입검사 등
- 준입법적 권한 :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지정 등. 신고, 인가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
- 준사법적 권한 :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범죄의 고발. 심판, 심결

독점금지법은 정치적 중립성하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는데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직권행사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다.(31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사)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및 조치

- 독점금지법위반행위를 규율하는 수단으로서 독점금지법은 행정절차, 형사절차 및 민사손해배상절차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행정절차에서 심사가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거나 또는 심판절차를 개시한다.

- 피심판자가 심판개신결정서의 기재사실 및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대하여 그 이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결(審決)을 받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고 또한 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결할 수 있다. (동의심결)

- 행위자가 권고를 응낙한 때에는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권고 와 동 취지의 심결을 한다. (권고심결)

-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도쿄 고등재판소(전속관할)에 대하여 시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피심판인은 재판소가 정하는 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당해심결이 확정되기 까지 그 집행을 면할 수 있다.

아) 과징금의 납부명령 및 그 처리절차

- 과징금제도는 카르텔금지 위반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1977년 독점금지법개정에 의해 신설된 것임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상의 조치로서 카르텔을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카르텔에 의한 경제적 이득의 국고에의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은 아니다.

- 과징금액은 사업자가 카르텔의 실행으로서 사업활동을 행한 날로부터 없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실행기간)중 카르텔대상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정령(政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매출액에 6% (소매업은 2%, 도매업은 1%)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7조의 2,8조의 3)

- 납부명령 불복이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도쿄고등재판소(전속관할)에 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형사처벌 및 고발을 둘러싼 문제

- 독점금지법은 89조에서 95조의 3까지 벌칙규정을 두고, 부당한 거래제한 및 사적 독점의 금지규정 등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 그러나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다.

-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양벌(兩罰) 규정외에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표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 95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89조 (사적독점, 부당거래제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일정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의 실질적제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1억엔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 95조의 2 : 제89조 1 1), 90조의 2) 혹은 3) 91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계획을 알고도 그 방지에 필요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각조문의 벌금형(최고 5백만엔)을 과한다.

상기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1심 재판권은 도쿄고등재판소에 있다.(85 조)

- 사적독점 또는 부당거래 제한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국제협정 등의 제한, 주식소유 등의 제한규정의 위반 및 확정 심결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고발을 소송조건 으로하고 이 조건을 결할시에는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다. 일단 공소제기가 성립한 후에는 고발을 취하할 수 없다.(96조)
-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 법률규정에 위반하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하다. 지금까지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발한 예로는 원유 판매업자 12사의 석유제품 가격인상 결정사건(도쿄 고등재판 판결 80년 9월 26일) 등이 있다.

차) 손해배상청구소송

- 독점금지법은 사적독점 혹은 부당한 거래 제한을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25조) 이 제도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같은 3배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청구권은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가 없고, 결정확정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따라 소멸한다.(26조)
- 또한 이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동조 위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하다.(84조)
-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독점 금지법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 709조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에 근거하여서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9. 수입관리제도

일본 수입 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6개항목으로 수입품을 관리하고 있다.

1. 외환 관리법에 따른 관리

외환관리법에서 "외국무역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모"건지에서, 수입에 관한 특정 화물 등에 대한 승인 또는 확인 의무를 부과

- 수입 승인을 요하는 화물
- 수입공표 제 1호, 제2호 해당 품목

○ 확인의 요하는 화물

- 사전 승인품목
- 통관시 확인 품목

2. 관세 정율법에 따른 관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화물등은 수입을 금지하는 이외도, 위조통화, 권총, 마약등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

3. 관세법등에 따른 관리

관세납부 등을 포함한 다수의 법규에 따라, 수입통관 절차에서 규정

4. 기타, 국내법에 따른 수입관리

상기법 이외에도, 다수의 국내 관련법에 따라 수입금지품목, 수입규제품목, 검사를 요하는 품목으로 관리

- 대마 단속법, 식물방역법등에 따른 일부 품목 수입금지
- 가축 전염병 예방에 따른 수입검역
- 약사법, 비료취급법에 따른 수입허가.등록제도

5. 조약 및 국제협약에 따른 관리

- 바세나르 조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조약, 화학병기금지 조약, 대인지뢰 금지조약에 따른 수입관리

6. 수입특례

- 외환법에서는 본래 수입규제등, 모든 화물등에 대해, 특정경우, 승인을 요하는등 불요로 구분, 특례를 제정하고있다.
 - 총액 500만엔 이하의 소액화물
 - 무상 구호품
 - 개인 사용화물로 매매대상이 아닌 화물(이사 화물)
 - 입국자 휴대품과 직업용구 (끝)

50. 관세제도

1. 일본의 관세제도 개요

가. 개 요

일본의 관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각종 세칙사항은 3개의 법률

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관세는 특혜관세와 비특혜 관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혜관세(관련법령 : 관세잠정조치법)는 중국, 동남아국가 등후발 개도국에 적용하는 관세(관련 홈페이지 : <http://www.houko.com/00/01/S35/036.HTM>)와 FTA 체결국에 적용하는 관세에 적용된다.

비특혜관세(관련법령 : 관세법기본통달 68-3-5)는 협정(WTO)관세와 기본관세가 있는 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받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북한, 동티모르, 안도라 등 3개국은 기본(or국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혜택이 가장 불리하다.

나. 최근 일본관세제도의 주요 특징

첫째, 신속성이 강조된다. 즉 일본관세제도의 기본목표는 "신속과 정확"이라는 2대 명제를 두고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최근 수출입물량의 증가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응하여 "신속"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둘째, 보세지역을 5개종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화물관리에 있어 법률상 외국화물은 반드시 보세지역에 입고, 보관토록 되어있다

[참고] 보세지역 종류 5가지

- 지정보세지역 (관세법 제37조 - 41조)
- 보세 장치장 (" 제42조 - 55조)
- 보세공장 (" 제56조 - 62조)
- 보세전시장 (" 제62조 2항-7항)
- 종합보세지역 (" 제62조8항-15항)

셋째, 수입자가 반드시 신고자이어야 한다. 관세법 제67조에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지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통관업법 基本通達에도 "수입신고는 통관업자의 명으로 수행해서는 안된다" 고 명시되어 있어 수입자가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이에따라 일본의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란은 있으나 신고자란은 없음)

넷째, 관세의 신고납세방식: 일본은 1966년부터 관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세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부는 부과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통관시스템의 전산화 구축이다. 일본 세관은 1988년부터 항공화물에 대한 통관처리 전산화를 시작했으며, 1991년부터는 해상화물에 대해서도 전산화가 도입됨. NACCS (통관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한 통관처리는 전체신고건의 9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여섯째, HS분류를 채택 하고 있다. 일본의 실행 관세율표는 일본관세협회(전화 03-3263-7221)가 발행하고 있으며 품목별 관세율, GATT 양허표, 관세잠정조치법 및 수입통계 품목표가 게재되어 있다. 각종 관세율과 통계치는 HS조약에 의거 작성되며, 部(21개), 類, 項(4자리수), 號(6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 관세제도상 각종 규제완화조치

일본정부가 지난 95년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세제도와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수속: 항공기화물에 대해서 도착즉시 수입 허가제 도입

- 절차의 신속화 - 예비신고의 결과 검사가 불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세지역에 반입하지 않고도, 화물도착이 확인되는 대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
-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간이통과제도 도입
- 수출수속의 포괄 사전심사제도 확충

2) 업무처리의 24시간화 : 주요 공항에 있어 업무시간외 업무처리체제 확충

- 업무시간외 예비신고의 수리 - 수입업자 등은 야간, 휴일에도 예비신고가 가능
- 臨時開廳의 자동승인제 도입 - 세관의 업무시간 이외에 신고를 할 경우 미리 임시 개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함. 단, 예비신고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어 검사 불요로 판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본신고로 인정 됨

3) 수입업자 및 선택 자유화

- 관세 등의 포괄납기기한 연장에 관한 담보제도 개선 - 수입화물에 관계되는 관세 및 소비세납부에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3개월이내에 한해 납기한 연장이 인정됨.
 - 현행 각 세관별로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SEA- NACCS(해상통관정보처리 시스템) 도입세관에서 1곳에 담보를 제공할 경우 타세관에서도 이를 이용할 있도록 함.
- 가공재수입 감세제도에 관한 수속간소화
 - 일본에서 수출된 원재료가 외국에서 가공또는 조립된후 재수입될 경우, 동제품에 부과된 관세 가운데 수출 당시 원재료에 해당되는 관세분은 감세가 가능함
 - 동제도를 이용하기위해 소요되는 각종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되어 통관의 신속화와 함께 이용자부담이 경감됨

4) 전산화의 가속 및 인터페이스화

- 현재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에 규정된 수입절차는 매뉴얼로 처리되고 있는데, 대장성은 각 절차를 전산화하는 동시에 이미 전산화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
- 식품위생수속 관련 96년 이후, 동식물검역 수속관련 97년 이후 시행
- 제출서류의 전자정보화에 의한 PAPERLESS화 추진
- 세관의 적하목록 처리에 있어 EDI 촉진
 - 해상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제출 및 해당화물의 보세업무를 EDI 화함.

라. 예비심사제도

- 개요
 - 대상화물: 모든 수입화물
 - 제출서류: 예비신고서(수입신고서 사용), 인보이스, 기타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필요서류

- 제출처: 화물의 장치예정장소를 관할 하는 세관관서
- 신고시기: 수입신고 예정일의 최대 11일전

- 예비심사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되어 1991년 대폭 개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수입자의 신속한 화물인수를 촉진키 위해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전에 수입 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주요 이용대상 화물은 생선, 식품 등 신선도를 요하여 거래선의 납기기간이 엄격한 화물, 연말연시 등 주요 시즌에 지급 소요되는 화물, 수입신고될 화물,종류가 매우 많아 서류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화물, 기타 법령에 의거한 화물 등등이다.

이용상 주요 이점으로 1)서류심사가 화물도착 전에 행해지며 2) 검사여부가 수입 신고전에 판명되므로 화물의 인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주요 관할처(전화 상담처)
 - 도쿄세관 : 업무부 수입총괄 제1부문 전화 03-3528-3666
 - 요코하마세관 : " 전화 045-212-0300
 - 나고야 세관 : 전화 052-655-1790
 - 고오베세관 : 업무부 수입총괄부문 전화 078-333-4410
 - 오사카세관 : " 제1부문 전화 06-6576-1130

2. 2005년도 관세제도 개정 주요 내용

일본은 2005년부터 적용할 관세제도 개정판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특혜관세적용제외 확대, 관세 감면.면세제도의 개정, 지적재산권 등의 단속 강화 및 통관수속 신속화를 위한 세부 시행규칙의 정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첫째, 관세 감면세 제도의 개정으로 지난해말로 기한이 만료한 가공품 수입감세제도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革製 자동차용시트 부분품을 대상품목에 추가하는 한편 항공기부분품 등의 면세제도도 적용기한을 동일하게 연장기로 하였다.

둘째로는 잠정세율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잠정세율 적용대상 총 420개 품목에 대해 현행 잠정세율의 적용기한을 2005년도(2006.3.31)까지 연장기로 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 의거 관세화된 농산품의 특별 긴급관세, 소고기.돼지고기의 긴급조치의 적용기한을 2005년도말(기한은 상동)까지 연장기로 하였다.

셋째로는 국별.품목별 특혜관세적용제외 조치로서 각국별 사정을 고려 국별.품목별 특혜 적용 제외 조치를 적용기로 하였는데 올해부터 제외조치가 적용되는 국가 및 품목은 다음과 같다.

국 명	HS Code	대상품목
중 국	160419 세번 등	조제한 기타 魚
	160590-2-(3) 세 번 등	조제한 연체동물
	282410	일산화 鉛

	691200	도자제 식탁용품,キッチン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940490	침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태 국	160414 세번 등	조제 참치, 가다랭이
인도네시아	160416	조제한 전갱이
말레이시아	293919	나트륨 규산염

자료원 : 재무성

주 : HS 코드번호는 일본식 분류에 의한 것으로 특히 6단위 이하의 경우 분류방식이 다를 수 있음

넷째로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조치임.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관련된 인정수속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하에서 권리자로부터의 신청에 의거 세관이 당해물품의 견본을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에 의거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 즉, 표시 혼란을 야기하는 제품 등을 수입금지품목으로 추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하고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벌칙 규정 개정, ▲세관이 현장에서 신속·적정하게 침해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하였다.

한편 농산물분야에서는 육성자권의 효력을 가공품까지 확대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침해 여부에 관해 세관이 필요에 따라 종묘법의 소관성청에 의견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관에서의 현장 단속 강화 및 통관수속의 신속화위한 조치로서 국내에서의 테러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폭발물, 화약류 등에 추가하여 아동포르노물을 수입 금지품에 추가하는 한편 세관 현장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통관수속의 간소화 등을 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통관수속의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법령준수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 및 허가가 가능토록 하고,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가 납세신고전에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는 간이신고제도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세관장이 적용대상 화물을 지정할 때 일정 요건 충족시 HS4단위 기준의 지정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을 통하여 수출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는데 예컨대 구조개혁특별구역에 있어서의 법정시간외 수속승인수수료의 경감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FAL조약(국제해상교통의 간소화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비 외국무역선 등의 입항수속의 간소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의 개정 조치내용중 특히 아국의 대일무역활동과 관련이 있는 조치내용으로서는 ▲특혜관세 적용 제외 조치,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강화,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표시부정물품 단속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특혜관세 적용 제외 품목의 경우 특히 우리의 주요경쟁상대국인 중국의 적용 제외 품목은 우리의 대일 수출비중이 적지 않은 품목도 포함되어 있어 금년도 수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예컨대 침구(HS940490, 관세율 3.8%)의 경우 2004년 중국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은 87.3%로 압도적인 1위를 점하고 있고 반면 한국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 조치는 일본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특히 아국의 경우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단속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아국 기업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51. 통관절차/통관

1. 수입통관절차 개요

외국에서 일본에 도착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검사를 거쳐 수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수입신고로 부터 시작되어 필요한 검사를 거쳐 관세 및 내국 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허가를 받을 때 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수입통관 절차이다.

2. 수입신고

1)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특별히 허가 받은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된 후이다.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 혹은 부선에 물품을 적재한 채 또는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전에 신고가 인정되고 있다.

2) 수입신고자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입자를 대신하여 통관업자에 의한 대리 신고가 이루어진다.

3) 제출서류

수입신고는 통상, 수입(납세)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 수입부문의 품목별 (예:농수산물, 기계 등) 통관담당 부문에 제출한다

①송품장

②원산지증명서

- 협정세율 또는 편익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③일반특혜제도 원산지 증명서

- 특혜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④포장명세서,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등(필요한 경우)

⑤관세법 이외의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서등

- 타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규제를 받는 경우 해당

⑥감면세 명세서

- 감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⑦납부서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4) 수입심사

수입신고서가 세관수입통관부문에 제출되면 다음사항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 ① 수입신고서, 송품장등의 제출부수 및 기재사항은 정확한가 또 이들 서류상의 내용은 서로 일치되고 있는지 여부
- ②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허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허가,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 ③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관세율표 번호, 세율, 세액등이 정확한지 여부
- ④ 관세 또는 내국소비세의 감면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필요한 감면세 명세서 기타 감면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5) 수입검사

수입검사의 목적은 신고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을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관세 및 내국 소비세를 확보하고 수입규제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권총등 사회악 적발 등에 있다

○ 검사대상물품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물품의 종류,성질,목적지 등을 감안하여 예를 들면

- ① 세번 및 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② 수입무역관리령의 규제대상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③ 각성제단속법,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 대마단속법, 독극물 단속법, 식물 방역법등의 규정에 의한 수입규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④ 수량확인을 위하여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⑤ 권총등 사회악 물품의 부정수입 혐의가 있는 물품등, 특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중에서 중점적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검사장소

수입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같은 장소로 세관검사장 및 보세구역 등이 있다. 즉 중량물품,산물 또는 위험물품으로 지정검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것을 '指定地外検査'라 한다

○ 검사의 구분 및 방법

수입검사를 실시할 것 인지의 여부는 세관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이것을 '검사지정'이라 하며 검사지정된 물품은 검사장소의 구분에 의거 検査場検査(세관구내 검사장에서 행하는 검사) 또는 現場検査(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指定地外 검사장소등에서 행하는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방법으로 전부검사, 일부지정검사 또는 견본검사가 있다

6) 수입허가

수입허가는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서류의 심사 또는 물품의 검사결과, 신고내용과 화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동시에 다음에 게시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고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 ① 관세, 내국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들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납기연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 ② 물품이 아편, 마약, 기타 수입금지품이 아닐것
- ③ 타 법령의 규제를 받는 물품은 각각의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을 득할 것
- ④ 물품의 원산지 등이 허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것

* 기타사항 2003 년 7 월부터 동경을 비롯한 전국 주요 6 개(동경, 요코하마 등등)항 에서 24 시간 동안 통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제 구축

52. 유통구조

일본은 상당한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며 수입상부터 최종 판매자까지 의 거래관계가 매우 엄격하면서도 보수적이다. 이는 각 거래단계별로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중요시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최종 유통업자는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유통업자를 배제시킨채 직접적으로 유저(User)와 접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품의 품목에 따라, 유통구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통구조가 일반적이다.

- 1. 수입업자 - 도매상(1 차-2 차) - 소매업자 - 소비자
(FOB 가격의 2-3 배가 소비자 가격)
- 2. 수입업자 - 소매업자(수퍼마켓/백화점)- 소비자
(FOB 가격의 2- 2.5 배가 소비자 격)
- 3. 수입업자- 소비자(통신판매/인터넷)
(FOB 가격의 2 배가 소비자 가격)

53. 국제입찰제도

1. 입찰기관

일본은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따라서 정부조달 시장의 경우 중앙정부 30省廳 및 84개의 정부 산하단체가 입찰기관이 된다.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전문 입찰기관은 없다.

각 기관은 일본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거 국제입찰을 실시한다. 입찰과 관련한 법령에는 國家物品 調達手續 特例 政令과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國家物品 調達手續 特例省令이 있다.

동 政令 및 省令은 기본적으로 WTO정부조달협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

2. 입찰제도

일본정부는 WTO의 정부조달협정이 정한 기준이상으로 쉽게 일본시장 접근이 가능토록 자주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동 기준은 정부조달 절차의 명확화, 일반 경쟁계약의 실시절차, 자격 심사절차의 개선, 정부조달 정보 제공의 개선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정부 및 산하기관이 실시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입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기와 같은 기준에 의거 일본정부는 국제입찰 대상을 WTO가 정한 13만SDR보다 낮은 10만 SDR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8만 SDR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해서는 WTO Plus의 일환으로 입찰전 조달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찰정보는 정부관보 및 JETRO Data Base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D/B를 이용하는 경우 공시종류, 관보 게재일자, 조달기관, 조달기관 소재지 및 품목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입찰방식은 기본적으로 최저 가격낙찰제를 택하고 있으나 Computer, 전기통신기기, 의료 기기등 가격입찰로 대응이 어려운 분야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높이 위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10만 SDR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의 경우 관보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官房長官과 各省廳의 사무차장으로 구성된 정부조달고충처리추진본부 및 고충검토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준하여 개별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입찰전략

일본은 입찰정보 사전공개 그리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일목표로 하고 있다. 입찰제도도 모두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므로 Agent를 통한 사전 정보입수나 로비활동은 필요없다고 일반인들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일본의 입찰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맥을 통한 사전정보 입수와 Lobby활동이 중요한 요소이다.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기업이 사전 담합하여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입찰을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발주처인 정부기관 인사영입을 낙찰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기업도 있다. 입찰참가를 위해 Agent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낙찰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Agent는 입찰 서류를 일본어로 작성해야 할 뿐만아니라 서류제출시 일본내 연락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이다.

입찰정보는 JETRO(일본무역진흥회)의 정부공공조달 Data Base에서 구할 수 있다. 매년초 개최되는 정부조달 세미나를 통하여서도 정보입수가 가능하다. 발주처에 입찰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관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에 실시되는 국제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정부조달세미나 참가를 권한다.

입찰을 통하여 외국에서 조달받는 물품은 항공기 및 부속장치(93.3%), 광물성생산물, 의료용기기, 철도용차량 및 부속장치, 화학공업 생산물, 광학기기, 제어기기, 농수산물,

사무용기기(10.0%) 순이다.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사전 등록하여 참가자격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입찰준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일 것이다.

4. 전자입찰 제도

정부는 정부물자 조달을 향후 전자 입찰제도에 따라 시행할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2001년도 10월부터 국토교통성에서는 건당 2억엔이상의 입찰에 있어서는 동제도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산하기관및 자치단체까지 확대 실시되어 2004년에는 44,000여건, 2010년대에는 약 40만건이 전자입찰제도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54. 외환관리제도/외환법

외환관리가 자유화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없으며 최근 개정된 일본 외환법의 내용과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외환법 개정내용 및 영향분석

I. 外換法 改正 目的

-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국제금융거래의 글로벌화 대응
- 동경 금융시장 육성

II. 改正 外換法の 意義

- 실질적인 외환자유화 추진
 - 개정된 외환법은 "外國爲替 및 外國貿易法"으로 법의 명칭에서 管理를 삭제한 점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전신고 및 승인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외환 자유화 조치
- 일본판 빅뱅의 선도역할
 - 2001년까지의 금융빅뱅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개혁의 일환

III. 外換法 改正의 主要内容

- 자본거래의 자유화
 - 자본거래와 관련한 사전허가 및 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 일정 금액이상의 경우에는 사후보고 제도 도입
- 외환업무의 완전 자유화
 - 외국환은행제도, 지정증권회사제도, 환전상 제도등 외환시장진출 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외국환 업무를 완전 자유화

○ 사후보고제도 정비

- 국제수지 통계작성, 시장동향 파악 등을 위해 외환거래의 사후보고 제도를 정비

○ 經濟制裁등 국제적 요청에 대응

- 국제적 요청에 따라 경제제재등을 기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메카니즘 확보

IV. 外換法 改正에 따른 影響 및 對應

1. 個人去來에 대한 영향 및 대응

○ 외환수수료 부담 경감, 서비스 향상

- 외환업무 자유화에 따른 신규진입 증가로인한 경쟁격화, 외화를 외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됨(종전에는 엔화로 환전후 다시 외화로환전)으로써 송금수수료 및 T/C 취급 수수료가 삭감
- 환전수수료의 경우 달러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大和銀行은 3엔에서 2.8엔으로 인하 하였으며, 최근 진출한 파피루스(倉澤商社)계의 할인권 취급점)는 달러당 2엔으로 설정
- 송금수수료는 1만불 미국 송금시 大和銀行이 4,900엔인데 비해 三和銀行은 4,500엔으로 은행간 경쟁 본격화
- 第一勸業銀行은 외화예금 신청에 대한 전화접수 서비스를 신설
- 한국계 일본진출은행을 통하여 1만불을 한국에 송금시는 4,300엔의 송금수수료를 지불함

○ 국내 외화거래 자유화

- 시티은행 : 엔화와 달러 양쪽에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발급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과 해외예금구좌를 결합한 금융상품개발, 판매 개시
- 아사히은행, 제일권업은행, 후지은행 : 외화예금구좌, 외환송금서비스를 전 지점으로 확대
- 住友, 三和은행 : 전지점에서 외화예금구좌 개설
- 사쿠라은행 : 외국인여행자 및 외국인을 주요 타겟으로 98. 5월 코베에 외화 환전 전문점을 개설하며, 토.일요일도 영업할 예정이며, 고베지점의 실적을 검토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

○ 해외예금 자유화

- 기존 "일본계 은행을 통한 송금으로, 2억엔 이내 자유, 엔화 해외예금은 금지" 등의 규제가 완전 자유화
- 종전에도 개인 2억엔 한도는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에 따른 예금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특히 해외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한계세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세금면에서 불리

- 해외예금은 금리차 및 환율 전망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세금문제, 복잡한 절차등을 감안하면 해외예금 보다는 일본금융기관을 통한 외화예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東京三菱銀行, 사쿠라은행의 경우 계열 미은행에 대한 예금구좌 개설서비스를 종전의 본점고객에서 전지점으로 확대

○ 해외 증권회사와의 직접거래

- 일본내 외국계 증권회사의 해외증권투자 유치활동이 불가능(외국증권업자에 관한 법률)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발적인 해외증권투자는 미미할 것임
- 세금면에서도 해외투자는 불리한 상황으로 일본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는 채권투자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되며, 주식투자의 경우도 매각차익의 26%에 대한 신고분리 과세만 인정할 뿐 원천분리과세를 인정하지 않음

○ 환전가능장소, 달러 숏 증가

- 가전양판점, 여행사, 전국규모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대형슈퍼 등을 중심으로 환전 업무 진입이 예상
- 수입품 전문 취급점 (수입가구점, 수입주류점) 및 외국인 고객을 타겟으로 환전 및 외화결제에 의한 판매방식을 병행하는 형태도 증가

* 환전업무 진입업체 : 빅카메라 (가전양판점) : 달러숏도 병행, AMPM (편의점)의 외화 택배 서비스, 파피루스 (구라자와商社の 할인권 취급점)

2. 企業去來에 대한 영향 및 반응

○ 국내기업간 외화결제에 의한 외환리스크 경감

- 거주자간 외환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완전 자유화됨으로써 일본기업간 외화결제 증가 및 외환 리스크 경감으로 연결될 것임
- 97년까지 약 1,000개사가 허가후 국내 외화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화결제 규모가 월간 수억불 규모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자유화를 계기로 국내 기업간 외화결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브리지스톤의 경우 98.4월부터 상사를 경유한 수출대금을 전액 외화로 수령할 예정이며, 미츠비시화학의 경우 거래기업의 외화결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사로부터 외화수령을 늘릴 방침을 밝히고 있는등 수출기업의 외화 자체관리가 증가할 전망

○ 相殺決済 (네팅)에 의한 결재자금량의 감소

- 국내외 기업간 채권채무를 상쇄하고 차액만 결재하는 방법으로 종전의 포괄 허가 사항에서 자유화됨으로써 상쇄결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통해 결재규모가 감소함으로써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등의 경감 가능
- 그러나 상쇄결재 및 국내기업간 외화결제가 자유화됨에 따라 실수요자간 거래감소로 인해 엔화의 외환거래 금액이 줄어듦 전망이며 이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환율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수수료 부담 경감

- 외환 관련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존 대형고객에 대한 우대수수료가 일반화될 전망으로 수출기업의 외환거래 관련 부담이 경감

○ 해외투자절차 간소화

- 해외증권투자 : 증권투자의 경우 종전에도 신고A (심사불요신고)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증권투자 자체보다는 2억엔 이상의 해외예금에 대한 허가제도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자유화
- 해외직접투자 : 종전의 신고B (심사필요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되어 직접투자의 절차가 간소화됨

○ 자금조달 원활화

- 기존 자금조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증권발행을 통한 외화조달, 해외차입, 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대부, 거주자간 외화대부등 신고B에 해당 되었던 자본거래가 자유화됨으로써 해외자금 조달이 용이해 짐

○ 외환 헷지 코스트 경감

- 외국금융기관, 기존 외환 미취급은행, 일반기업등의 선물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른 경쟁격화로 외환 헷지 코스트 감소로 연결될 것임

V. 韓日 經濟關係에 미치는 影響

1. 對日輸出에 미치는 영향

이번 외환법 개정으로 인해 대일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쇄결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본 모기업과 대한 투자기업간, 종합상사간 거래등은 간접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해외예금을 활용한 수수료 삭감등을 통해 개인수입(카탈로그, 인터넷등을 활용한 거래)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정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對韓 直接投資에 미치는 영향

해외직접투자가 종전의 신고B 사항 (심사필요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자유화됨으로써 대한투자를 위한 절차는 간소화되었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경우 절차상의 간소화로 인해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경제위기가 진정되고 회복기조가 확실히 되는 시점에서 대한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既진출기업의 지분확대 및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M&A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3. 在日僑胞 및 日本人의 金融, 有價證券에 대한 투자

이번 외환법 개정으로 해외예금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모국에서의 예금구좌 개설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발행한 외평채의 경우는 한국내에서 판매되고, 일본내에서 구입하려 할 경우 대리인 선정 및 수수료부담이 많은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활발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예금 자유화 조치로 인해 절차상 간소화되었으나 한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음. 본격적인 투자는 한국내 환율안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관 및 개인이 한국내 구좌개설등 대한국투자를 위한 사전준비는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투자 문의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대한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 대해서는 현재시점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초저금리, 주가침체등을 감안하면 이번 외환법 개정으로 대형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나 이는미국등 선진국에 집중될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경우 정보부족, IMF등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이 대한투자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5.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지난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며 일본시장공략에 나섰다가, 결국에는 실패하여 사업을 중단한 점은 일본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기불황으로 일본에서도 값싼 제품이 인기를 모을 것이라는 판단에 성공을 자신했던 까르푸가 실패한 이유로는 일본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상품기호, 배타적인 유통구조,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하위층간의 소득격차등이 거론되고 있다.

비록 까르푸의 일용품이 다소 싸다고 하더라도, 일본국적의 경쟁유통업체는 다양한 세일판매(예: 일요일 오전 전품목 10%할인, 특정품목에 한해 기간한정 할인 등)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까르푸가 갖추지 못한 다양한 상품구색을 일본 유통업체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일본소비자의 발길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시장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몇가지를 들수 있다.

1)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및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다. 특히 '95 년 7 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 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브랜드제품을 선호한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브랜드명, 혹은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판단하는 경향이강하다. 따라서 TV, 인쇄매체 등 광고매체를 통한 선전활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다.

* 유럽의 유명브랜드 제품 1/3 이 일본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일례로 구찌의 경우는 2000 년대들어 도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포의 신규 개설을 강화하여 2004 년 7 월초 현재 일본내 점포수는 총 47 개처에 이르고 있다.

3) 시장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시장이다. 일본시장은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 경쟁이 매우 심한데 최근에는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수요의 이분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가품 제품의 시장이 없어진 반면 고가품과 저가품 제품의 시장구분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소수 대기업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특정 메이커가 신규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경쟁기업도 반드시 경쟁상품을 시장에 투입하는 경향이 크다.

4) 유통이 계열화되어 있다.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일본의 복잡한 유통체계를 들 수 있는데, 유통의 계열화도 한 특징에 속한다.

일부 상품에서 대기업이 대량생산, 대량판매를 위해 유통망을 정리, 전국적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고, 또 계열화 되어 있지 않은 유통조직이라도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거래를 중시(당장에 이익이 발생하는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 보다는 안정적인 일본기업과의 거래를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상행위상의 특징으로는 품질 규격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다는 점이다. 견본이나 계약상의 품질 규격과 다른 상품을 보내오거나 불량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제품교환, 반품, 변상등 클레임을 제기한다. 또한 납기 요구도 엄격하며, 장기적 거래관계와 신뢰관계를 중시하고, 의사결정이 늦은 반면 의사결정후 행동은 신속히 이루어진다.

일본은 부족한 천연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동태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공업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는 가공무역형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기술 혁신과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한편, 비교 열위화된 자원,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는 적극적 조정을 추진한 결과 일본의 산업은 2 차대전이후 섬유등 노동집약형에서 금속, 화학 등 자본.자원집약형을 거쳐 수송기계, 전기기계, 일반기계등의 기술 집약형, 가공조립형 산업으로 각각 주력산업이 바뀌어 왔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절약, 자원절약을 위한 기술 혁신과 이에 따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중심으로한 첨단기술혁신이었다. 일본의 산업구조가 보이는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2 차산업의 비중이 미국보다 높으나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고, 3 차산업은 독일을 상회하고 미국보다 낮다. 2 차산업중에서도 일본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서 점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2) 연료를 수입하고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수직분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출이 갖는 생산유발효과는 크나 수입이 갖는 생산절감 효과는 작기 때문에 외국과의 수평분업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이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보다 많은양을 생산하고 있는등 해외시장에서 외국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그러나 90년대이후 미국을 비롯한 구미선진국과의 지속적인 통상마찰, 엔고추세, 고령화 진전 등의 영향에 따라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글로벌한 생산, 판매 체제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제국을 중심으로한 분업적 생산구조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수입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있으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한 2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일부산업에서는 경제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였으나, 현지 생산여건의 불리함, 자원조달의 비효율성, 비교경쟁력의 약화등 여러가지 이유로 현지생산 기지를 폐쇄하고 철수하는 경향도 최근들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의 경우 제조원, 품질, 브랜드명 등에 따른 적절한 가격을 매우 중시하며, 이는 곧 구매행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차 고급제품을 선호하고는 있으나 경기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격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품질면에 있어서는 장시간 동안 여러상품을 서로비교해 보고 카다로그와 일일이 대조해 보는등 지극히 꼼꼼하다.

예컨대 식료품의 경우 실제로 신선해야 함은 물론이고 외관상으로도 신선해 보여야 하며, 규격도 통일되어야 하며, 의류는 품질은 물론 끝마무리가 철저해야 한다. 내구소비재는 각종 안전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강해야 하고, 표면상의 처리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내부부문에 대한 체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 소비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따른 품질, 평판 등을 숙지하고 있으며, 고가품의 경우 특히 브랜드가 매우 중시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신분에 대한 상징으로서 고급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고, 일단 고급품이라는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하면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2) 다양한 디자인과 개성화가 요구된다.

일본의 소비는 없는 제품을 신규구입한다기 보다는 기존제품보다 한수준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 상품의 디자인 및 개성화를 통한 신규수요의 창출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소비의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친 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산 식료품 및 공업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서비스 소비의 국제화가 진전되는등 소비의 국제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식료품의 경우 어패류, 육류, 야채, 과일등의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과일 및 야채는 주로 일본에서 재배되지 않는 열대성 작물이 중심을 이루고, 어패류는 일본 영해에서의 어획이 곤란한 어종과 고급어류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공업제품은 섬유제품등 일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이 중심을 이룬다.

일본은 특히 서구의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은 대규모 구매시즌 없으나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오쥬겐이나 설날과 같은 오세이보의 경우 인사형식으로 부담없는 선물을 주고받는 선물 문화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주요 구매시즌은 다음과 같다.

○ 입학, 졸업 구매

- 구매시기 : 2월 - 3월(입학 : 4월, 졸업: 3월)
- 구매품목 : 학용품, 선물용품

○ 오쥬겐 구매

- 구매시기 : 6 - 7월
- 구매용품 : 선물용품(과자, 과일, 음료, 상품권 등)

○ 오세이보 구매

- 구매시기 : 10 - 11월
- 구매용품 : 선물용품(과자, 과일, 음료, 넥타이, 손수건, 상품권 등)

- * 일반적으로 유명브랜드의 고가격대가 일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으나, 경기 전망의 불투명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저가격대의 케쥬얼웨어(중국산) 유니클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56.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일본인과 상거래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장

정장이 원칙이고, 와이셔츠도 흰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비즈니스맨의 경우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약간의 색상이 가미된 복장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패션성이 강하거나 무늬가 요란한 복장은 점잖치 못하다는 인상을 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본의 비즈니스맨은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긴팔 와이셔츠에 상의를 입고(아니면 들고 다니더라도)다니기 때문에 덥다고 해서 노타이 차림으로 일본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비즈니스맨의 매너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명함

상당시 명함 교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본에서 명함은 늘 몸에 지니고 다녀야할 필수품으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명함은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순 한글로 된 명함보다는 한자와 영어로 된 명함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가족으로 된 명함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며, 깨끗한 상태의 명함을 상대방에게 건네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수첩이나, 지갑에서 때가 묻은 명함을 꺼내서 건네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3) 상담자료(카다로그, 샘플)

상담이전에 자사 카다로그를 미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꼼꼼하다는 인상을 심어줄수 있어 상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인은 회사의 규모나 실적등을 중시하므로 회사의 규모나 연혁,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회사소개자료나 공개해도 무방한 거래처의 리스트등의 자료를 카다로그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상담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거래선중 유력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신용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 활자는 진실에 버금가는 것이므로 무역이나 기타 분야의 정기간행물등에 자사나 자사 제품에 대한 소개기사가 게재되었을 경우 이것을 보여주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이 비즈니스상담에는 효과적이나 별도로 구비되지 않을 경우 영어자료라도 준비하도록 하자.

좌석

상대방 기업에 방문하였을 경우 방문자는 자리를 안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상담 태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타협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인은 타협할 자세를 갖추고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이 너무 많거나 공격적이며 타협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경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노골적인 힘의 과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한 인상을 가질 수 있다.

상담은 중간관리층이 행하는 것이 좋고, 젊은 직원을 상담대표로 보내는 것은 일본측을 불쾌하게 만들수도 있으며 이경우 일본인은 상대회사가 상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규모가 크지 않은 상담에 임원급이 참석하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상담대표로는 중간관리층이 가장 적당하다. 상담시에는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비어나 속어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통역을 두고 상담하거나 일본어에 대단히 능통하고 있지 않는 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비어나 속어의 사용은 좋지않다.

그러나 오래동안 거래하여 서로간에 잘 아는 사이일 경우는 농담이나 익살스런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일본기업은 기본적으로 거래선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며 가능한 한 동일 기업과 오래 거래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어 거래선 선정에 대단히 신중하다. 따라서 첫 상담에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과욕은 금물이며 무엇보다 처음 상담에서는 일본측에게 신뢰할 수 있고 거래를 해도 안전한 상대방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일본기업과의 거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한탕주의적인 거래태도는 버려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발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대화도중 상대방의 발언을 가로 막는 것은 대단한 실례이기 때문이다.

비록 상대방이 이야기가 요점을 벗어나고 있더라도 끝까지 들어준 후 얘기가 끝나면 "예. 그렇습니다만 ---"이라고 발언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상대방의 질문이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겸손은 일본인의 미덕이므로 일본인은 상대방의 상품에 관심이 전혀 없더라도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이 전혀 없거나 간단한 대답만을 하는등의 경우는 관심이 없다는 의사표시로 생각할 수 있다.

5) 일본시장은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일단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처음으로 방문하여, 연회석을 마련하는 일은 금물이며, 추후 거래가 성약되고 거래관계가 잘 유지되고 상호 친하게 된 후에는 고려할만하다.

7) 최근의 상담의 경우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한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품질에 별 특징이 없는 경우 싸 가격제시가 거래성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57.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1. 개요

외국의 대일직접투자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자본거래도 완전 자유화 되어 있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단, 석유업 등 극히 일부의 분야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 그러나 엄청난 地價, 인건비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외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여전히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대로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이후 장기간에 걸친 불황기를 거쳐오면서 기업도산(야마이치증권 등 대기업 포함)건수 증가, 실업률 상승, 생산위축 등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 현상을 겪으면서 기업은 인원 및 조직 축소, 사업재편 등 리스트럭처링을, 정부도 금융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개혁을 비롯한 제반 경제구조 및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일본 경제는 이같은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02년에 플러스 성장(실질GDP성장율 1.1% 달성)을 실현한데 이어, 2003년, 2004년 공히 2%전후의 성장율을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들어서도 일본경제는 연초이래 IT재고조정, 개인소비 회복세 지연 등으로 경기가 조정국면을 맞았으나 하반기이후로는 이 같은 조정국면을 탈피할 것으로 보여 전년도에 이어 플러스 성장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종전까지 해외투자일변도였던 투자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해외자본을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 5월중 대일투자회의(본부장 겸 의장 고이즈미 수상)를 설치하여, 투자대상처로서 가장 매력이 있는 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각종 투자유치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일투자회의 구성

- 의장 내각총리대신
- 부의장 :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 멤버 : 총무대신, 법무대신, 외무대신, 재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환경대신, 내각관방장관,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대신, 규제개혁담당대신, 산업재생기구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구조개혁특구담당대신

- 검토사항 : 대일투자촉진시책 총괄, 대외홍보 등
(필요시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토록함)

이같은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강화 시책에 부응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는 '03년초부터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도쿄도 도심지인 아카사카에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상담역을 두고 외국인 투자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재무성이 발표한 '03년도의 대내 직접투자(외국인 투자유치)상황을 보면, 외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의 주식취득, 금전의 장기대부를 나타내는 대일직접투자는 2년만에 감소하여 전년도대비 3.2% 감소한 2조1,160억엔을 기록하였다.

'02년도에는 미 소매체인인 월마트 스토어즈에 의한 세이유주식 취득 등 대형투자안건이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이같은 대형안건이 없어 대일투자는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년도대비 41.2% 감소한 3,492억엔. 구주지역 으로부터는 同 2.1% 감소한 6,929억엔, 아시아지역으로부터는 약 3.5배 정도 증가한 1,614억엔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속, 석유가 대폭 감소하였고 제조업 전체로는 同 40.8% 감소한 4,872억엔을 기록하였다. 한편 비제조업에는 부동산, 금융.보험이 신장세를 보여 同 19.5% 증가한 1조 6,289억엔을 기록하였다.

'03년도 일본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다음과 같다

순 위	국 가	금 액	전년도대비 증감율
1위	미국	3,492억엔	(▲41.2%)
2위	네덜란드	3,164억엔	(▲19.4%)
3위	케이만	2,932억엔	(43.4%)
4위	버뮤다	1,618억엔	(1786.8%)
5위	싱가폴	1,486억엔	(551.6%)
	국내외자	3,596억엔	(▲33.9%)
	합 계	21,161억엔	(▲3.2%)

자료원 : 재무성(2005년 6월10일 현재, 2004년도 통계는 미발표)

'03년도의 대외 직접투자 실적을 보면 일본으로부터 네덜란드에의 직접투자액이 전년도대비 93.3% 증가한 7,764억엔에 달하여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계 재생 펀드에 의한 일본기업의 매수에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 활발해진 것이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어 전년도대비 65% 증가한 3,553억엔을 기록하였다.

대외직접투자액은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에서의 법인 설립, 주식취득에 의한 자본참가, 자금융자, 지점 설치.확장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종합한 통계이다. '03년에는 엔고.달러 약세 기조의 영향 등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대비 9.2% 감소한 4조795억엔을 기록하였다.

대네덜란드 투자액 가운데 신장이 두드러졌던 것은 금융·보험업으로 전년도대비 35.9% 증가한 3,820억엔에 달하였다. 네덜란드에 등기된 일본기업 재생, 불량채권 매수 펀드에 대해 일본국내로부터의 출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대중국투자는 4년연속 증가하여 '95년도의 4,300억엔에 이은 규모를 기록하였다. 전기 등 중국에 생산거점 설치와 더불어 합작회사의 설립, 현지기업의 자본참가가 증가하였다. 미국은 19.4% 증가한 1조1,950억엔을 기록하였다.

'03년도 일본의 주요국별 직접투자실적은 다음과 같다.

○ '03년도 일본의 주요국별 대외직접투자 실적

순 위	국 가	금 액	전년도 대비 증감율
1위	미 국	11,955억엔	(19.4%)
2위	네덜란드	7,764억엔	(93.3%)
3위	중 국	3,553억엔	(65.0%)
4위	케이만	2,399억엔	(▲51.2%)
5위	영 국	2,018억엔	(▲62.5%)

자료원 : 상동

참고로 외국기업의 대일직접투자는 북미나 유럽등의 유명기업 혹은 유명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로 부터의 투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럴지 못한 개도국으로 부터의 투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기업 고유의 뚜렷한 우위요소가 없는 개도국 기업은 일본의 엄청난 지가, 인건비등에 따른 투자비용을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기업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일본기업의 우위요소와 차별화 될 수 있는 핵심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2. 장단점

일본 투자시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 볼 수 있다

○ 장 점

- 방대한 인구 및 시장
- 높은 소득수준
- 투자에 대한 법적 자유
- 무역입국으로 제3국 수출용이
- 자본거래상 제한 없음
- 안정된 정치 및 치안
- 기술인력 확보 용이

○ 단 점

- 엄청난 地價 및 높은 물가
- 도쿄 및 오사카 중심 평당 신축사무실 임차료 기준,

도쿄도내의 오피스 시장은 일부에서는 호전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회복 페이스는 더딘 편이다. 주가상승등 경제지표의 호전은 오피스시황 부활에 더디게 기여한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은 변화폭이 장기에 걸치게 되므로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시에서는 치요다구, 미나토구등, 일부지역에서 대형신규공급이 있어서 양구의 오피스 수요는 활기를 띄었으나, 그외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적다. 도내에서도 오피스의 밀집이 진행되는 지역과,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등 지방도시의 오피스 시황은 밝지 못하다. 오사카에서는 오피스가에 분양맨션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오피스빌딩 수요가 줄고 있다는 뜻이다. 지방의 중핵도시에서도 주변부의 임대를 꺾하고 있으나 수요는 한정되어 있다.

< 임대료현황 >

◇ 도쿄

(단위 : 천엔, 3,3평방 밀리미터당)

지 역	월임차료(천엔)	보증금(천엔)
마루노우치 오테마치지역 (도쿄의 금융중심지역)	38-45	480-693
가스미가세키지역 (도쿄의 행정중심지역)	26-34	312-408
교바시 니혼바시지역 (도쿄의 상업중심지역)	22-27	264-324
니시신주쿠지역(부도심지역)	17	204

◇ 오사카

(단위 : 천엔, 3,3평방 밀리미터당)

지 역	월임차료(천엔)	보증금(천엔)
우메다지역	9-13	80-122
미도스지혼마치 주변	6-30	60-300

- 높은 임금수준
- 까다롭고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관습
- 개도국 제품에 대한 나쁜 이미지 및 소비자의 고급 브랜드 제품 선호
- 고급인력,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
 - 고급인력, 기술인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을 선호하여 외국기업은 확보하기 어려움
- 배타성
- 세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기업과 경쟁
- 동경 주재원의 부대비용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3. 국가 위험도

< 정치안정도 >

현 고이즈미 정권의 지지율은 2001년 4월 집권시 86%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2003.

5월 아사히 신문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43%, 부지지율 42%, 2004년 6.29일 요미우리신문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40.7%, 부지지율은 43.5%로 나타나 지지율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5년 5월 14.15 양일간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지율은 51.4%로 오랜만에 지지율이 50%대로 올라섰으며 부지지율은 37.0%로 이 역시 전회에 비해 낮아져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보면 고이즈미내각은 비교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정권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 국가위험도 >

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불경기가 13년이상 계속되어왔으나 2002년이후 경제는 회복세를 보여 오고 있음(2003년, 2004년의 경제성장률은 2.0%내외의 플러스 성장세 시현).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위기설이 운위되어 왔으나 금융재생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부실채권비율 (주요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5년 3월말에 4%대로 낮추는데 성공)이 낮아지고 금융부문의 수익성도 개선되어오고 있어 일단은 큰 위기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의 요인을 포함,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일본은 국가 위험도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국가위험도가 낮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이나 한일 양국관계를 놓고 보면 우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종종 역사문제 등으로 파국으로 치달곤 해와 이 같은 점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하에 놓이게 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4. 일본투자 안내창구

< 정부 및 정부위임 창구 기준 >

일본에 대한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는 정부 총괄조직으로서 내각부 (대일 직접투자 촉진 대책실)가 있고 실행총괄창구로서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대일투자 비즈니스 서포트센터)가 있다. 이밖에도 소관업무별로 각 중앙부처(공정거래위, 총무성, 재무성 등)에도 담당 창구가 설치되어 있다.

○ 내각부 정책통괄관부 대일직접투자촉진대책실

- 전화 : 03-3581-8950(직통), 03-5253-2111(대표) 내선 45207
- 팩스 : 03-3581-9897
- Email : invest-japan.be@mfs.cao.go.jp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대일 투자.비즈니스서포트센터

- 전화 : 03-3584-6042(직통)
- 팩스 : 03-3580-9568
- Email : dbjmail@dbj.go.jp

58. 투자유치정책

1. 개요

일본의 대외투자유치활동은 9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지역사회의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아름다운 국토창조를 목표로 외국인 직접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관련법규를 정비하였다.

현재 외국인 투자진출은 국가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투자진출이 개방되어 있으며, 자본거래도 완전자유화되어 법적, 제도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엄청난 地價, 인건비등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막대하여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그렇게 용이한 국가는 아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엔고극복차원에서 최근까지도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대표되는 해외투자가 중심이었고 대내투자유치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처져 있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기업의 대일 직접투자는 북미나 유럽등의 유명기업 혹은 유명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개도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기업은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일본기업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경우 일본 투자진출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2003년부터 정부는 경기불황대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 유지를 위한 각종대책을 마련, 세계에서 가장 투자에 매력에 있는 국가를 건설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 투자진출 환경상 장점

- 방대한 인구 및 시장
- 높은 소득 및 소비수준
- 금융자원 활용 용이
- 인접국과의 교류 용이
- 투자 및 자본거래 자유 보장
- 고도 기술수준 이용
- 풍부한 국내외 시장정보

○ 투자진출 환경상 단점

- 높은 지가, 물가, 임금 수준
- 높은 물류비용
-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관습
- 전통적 거래선 중시
- 소비자의 고품질 요구
- 고급인력의 외국기업 기피
- 세계수준의 기업과의 경쟁

2. 관련법규

외국인 직접투자진출은 기본적으로 "對內直接投資等에 관한 政令"에 의거한다.

동 政令의 하위법령으로 대외물품거래에 관한사항은 通産省令인 "貿易關係貿易外取引 等에 關한 省令"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거래에 관한사항은 大藏省令인 "外國爲替取引等報告에 關한 省令"에 규정되어 있다.

투자진출이 완료되면 특히 내국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일본 국내법에 의거하여 회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투자진출 관련 주요법령에 외국환거래법, 노동법, 무역관계법, 상법, 세법, 특허법 등이 있다.

3. 우대제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우대조치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특정 투자진출 사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세금우대, 책임보증, 저리융자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자유무역지대(FAZ)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 투자진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로는 세금우대와 책임보증 제도가 있다. 세금우대는 현행 세법상 5년인 손실금 이월을 10년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책임보증은 투자 진출후 5년간 차입한 사업자금을 산업기반정비기금이 차입금의 95%를 10년간 보증해 주는 제도 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사업소.자산세.취득세 감면등의 세금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투자유치촉진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低利융자.대부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주요 우대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비과세 : 특정지역내 공장건립시 토지보유세 비과세
- 세감면 : 생산설비 신.증설시 3년간 취득세, 사업소세, 고정자산세 감면
- 보조금 : 특정생산설비 및 연구소 신.증설시 고도기술자 1인당 10만엔 보조
- 융자 : 특정 생산설비 건축과 관련한 자금의 80%를 년6% 이내로 융자

4. 연도별 대내 직접투자 실적

연 도	건 수	금 액
1997	1,301건	6,782억엔
1998	1,542건	13,404억엔
1999	1,705건	23,993억엔
2000	1,842건	31,251억엔
2001	1,497건	21,779억엔
2002	1,465건	21,863억엔
2003	1,431건	21,161억엔
2004	745건	22,308억엔

자료원 : 재무성 대내투자통계(2005년6월 10일현재)

59. 외국인투자제한

1. 투자제한 분야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진출이 가능하며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 일부 업종은 사전신고를 하거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은 국가의 안전 및 OECD 자본자 유화 Code에 의거 개방이 유보된 업종이다. 핵연료제조업, 항공기제조업, 무기제조업, 농림수산업, 석유업, 피혁, 제품 제조업 등이 사전신고 업종에 해당한다.

사전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은행업, 보험업, 가스 및 전기업, 증권업 등이다. 이들업종은 각각의 사업법에 의거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후에 영업개시가 가능 하다.

사전신고서는 투자실시 3개월전까지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성 및 所管省大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접수시 재무성 및 所管大臣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접투자 내용변경 또는 투자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일본의 국가의 안전 및 외국환관리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본은행을 신고접수후 2주일 이내에 투자가능 통지를 한다.

사후신고는 위에 언급된 업종이외의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사후신고는 투자후 15일 이내에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성 및 所管大臣에게 하여야 한다.

2. 투자진출 유망분야

1)유망분야

일본 통상백서, 경제백서, JETRO백서에 의거한 대일투자진출 진출유망분야는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 : 2x4공법, 새로운 건축자재, Interior소재 및 System Design을 도입한 주택건설
- 의료.복지 : 고도 의료기기, Silver Service, 원격의료System, 생명공학적 의료복지 시설 및 기기
- 환경 :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환경조화형 제품
- 에너지 : 절전형 전기제품, 폐기물 이용 발전
- 정보,통신 : 정보제공 Service, Information Network관련 Software, 통신교육 Service
- 유통 : 대규모 Shopping Center,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 생활 : 스포츠.레저활동 관련제품, 원예, Car Navigation System, 건강관련제품, 예술.문화, 애완용품
- 직업알선 : 인재파견, 직업소개
- 경영지원 : Outsourcing, 법률 및 경영자문, 업무대행
- 식품 : 건강식품, 유기식품, Bio관련 식품.
- IT관련 및 정보통신산업
 - IT분야는 특히 우리기업의 일본 진출이 활발한 분야임
 - 우리 IT관련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무역관이 중점 지원활동을 전개중

- 이와 별도로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일본사무소(I-Park Tokyo), 중소기업진흥공단 일본사무소 한국사업창출센터(전화:03-3508-0673)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입주방식에 의한 지원활동을 전개중
- 기타 온라인게임분야 등은 이미 우리 기업(한게임, 그라비티)이 가입자수 1백만명이상, 동시접속 10만명이상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해오고 있는 중

2) 특기사항

200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본내 한류붐의 영향으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해오고 있다. 이 같은 한류는 영화, 드라마, 배우 등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라 2005년들어서는 일반상품분야로까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미 국산소프트웨어제품이 일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가전제품, 자동차 등도 서서히 인지도를 높여오고 있다. 이밖에도 고가브랜드의류분야의 직접 진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한류마케팅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현재와 같은 한류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갈 경우에 대비 한류관련상품의 마케팅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분야에서의 일본시장 직접 진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0. 투자진출절차

대일 투자진출절차는 사전준비 단계, 회사등록 단계 그리고 신고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진출 절차는 매우 복잡하므로 일본 투자진흥기관인 JETRO (일본무역진흥회)또는 일본정책투자은행(OBJ)에 문의하거나 투자전문 컨설턴트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

1) 투자진출 목적 정의

투자진출 목적은 정관작성, 법인등록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한 사항임으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정한다. 진출목적의 명확한 정의는 진출수속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2) 상호 결정

상호는 동일한 행정구역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호 결정전에 동일상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호는 일본어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Sign이나 Symbol은 포함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상호의 앞 또는 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정부 승인업종 여부확인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승인이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한다. 특히 환경보호등과 관련한 규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외환관리법상 신고기간 확인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는 재무성과 관련 省에 신고되어야 한다. 연료, 무기, 금융관련 분야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일본은행 국제부에 확인한다.

5) 인감 등록

일본은 印鑑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주요인사는 반드시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회사의 경우에도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준비하여야 한다.

6) 주거래은행 지정

일본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다. 주거래은행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납입금을 관리한다. 주거래은행은 회사설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납입자본금을 관리할 책임이있다.

2. 회사등록

1) 발기인 회의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은 1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일본거주자 여부를 불문 다. 대표자는 복수로 지정이 가능하나, 최소한 1명이 일본 거주자 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창립총회를 통하여 선임한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며, 의무조항과 선택조항으로 구성된다. 의무조항에는 설립목적, 회사명, 총주식수, 자본금, 발행주식수, 본사주소, 공고방법, 발기인 성명 및 주소등이 있다. 작성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3) 자본금 납입

자본금은 최소 1,000만엔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발행총액이 억엔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거 재무성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은 주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4) 회계감사 임명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한 1명 이상의 회계감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감사는 일본 비거주자도 가능하나 회사관련이 없는 외부인사이여야 한다.

5) 설립 등기

설립 등기는 법무국에 신청하며, 등기 완료까지는 신청서 제출후 통상 15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영업개시일과 주식납입금 입금일자등을 고려하여 법인등록일자를 결정한다. 등기신청서 제출후 신청증명서를 10부정도 발급받아야 세무서등 관련기관에 대한 신고 및 등록이 가능하다. 법인 설립등기에 따른 소요비용은 약 17만엔 정도이다.

3. 사후신고

1) 직접투자 사후신고

법인설립후 15일 이내에 일본은행을 통하여 재무성에 한다. 관계 부처에 대한 신고는 중앙은행을 통하여 한다.

2) 세무당국에 대한 신고

설립후 2개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설립신고를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신고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대차대조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감면을 위한 青色申告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다.

3) 공공직업안정소에 대한 신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시에는 회사등기부등본과 근로자명부를 첨부한다. 보험요율은 연봉기준 사업주가 7.5/1000이고, 근로자가 4.0/1000이다.

4) 사회보장사무국에 대한 신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 신고를 한다. 신고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賃金대장, 출근부를 첨부한다. 건강보험은 월정급여 기준 사업주 및 근로자가 42.5/1000이고 연금은 각각 86.75/1000이다.

4. 기타 사항

일본 투자관련 정보는 JETRO 홈페이지를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www.jetro.or.jp)

61.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1. 진출거점의 분류

외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하여 사업거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로는 「주재원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점(Branch Office)」, 「현지법인(Subsidiary)」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지법인」에는 주식회사(KK), 유한회사(YK),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다. 이중에서 외국기업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은 주재원사무소, 지점,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다.

주재원사무소는 가장 간단한 거점설치 방법으로, 특별히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주재원사무소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등기가 필요없으며, 세법상으로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은행업이나 증권업, 보험업에 종사하는 외국금융기관이 일본에 주재원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사업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주재원사무소의 일본국내에서의 사업활동은 본사를 위한 자산구입 또는 보관, 광고, 선전, 정보제공, 시장조사, 기초적연구 등 본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적활동에 한정되며, 일본에 항구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당해 주재원사무소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러한 주재원사무소는 장래의 일본 지점 또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또는 시장조사를 위한 일본에서의 활동거점으로서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과 관련된 자금의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에 대하여 외환관리상 제약은 없다.

단순히 주재원사무소가 아니라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점형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법인 형태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점 또는 현지법인 어느쪽을 택할 것인가는, 일본에서의 사업전망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을 세운 후에 세무상 어느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지법인설립과 지점설치를 비교해보면, 유연성이라는 점에서는 지점설치가 우세하다. 지점인 경우 새로 경영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 운영방법이나 자본금 등에 대하여 세세한 법률규정도 없다.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감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으로 정하는 임원이나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 자본금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지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기만 하면 되고 자본금도 지점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있으면 된다.

반면에 현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이라는 점에서는 현지법인이 우세하다. 현지법인이라면 법률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청산절차도 엄격한 반면, 지점은 간단하게 폐쇄할 수 있으므로 폐쇄후에는 일본에 연락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조세체계상 일본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일본지점에 대하여 과세되는 주요세금에는 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소비세 등이 있는데, 이들 세금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은 현지법인이나 지점이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예컨대 과세소득의 범위, 세액공제방법, 결손금의 이월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세무에 정통한 Big6등 유명 회계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일본에 거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인 주재원사무소와 지점의 설치절차를 알아보는데 그친다. 주식회사등 현지법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비교적 경험이나 재정능력을 갖춘 중견이상의 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초로 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현지의 기관을 통하여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에 주재원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기로 하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무소나 지점의 장이 될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파견한다는 사실이다. 일본국민이나 재일 한국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VISA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람을 일본에 보내어 지점을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취업VISA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취업VISA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경영」에 해당하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주재원 사무소설치의 경우에는 「기업내전근」이라는 비교적 간편한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설립절차의 전체 과정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대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래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통상 일본에 지점이나 주재원사무소를 설립하는데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단계, 둘째 단기VISA(15일)를 받아서 입국하여 사무실 및 직원과 거주지를 확보하고 지점설립등기 등을 완료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는

단계, 셋째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하여 VISA를 신청·취득하고 재입국하여 본격적으로 설립절차를 완결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마무리단계이다.

2. 거점설치요령

1). 사전준비단계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 일본에 주재원사무소나 지점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고난 후, 거점설립을 담당할 직원이 단기VISA를 받아 현지로 떠나기 전에 해야할 것은 무엇보다 현지 단기체재시 해야할 일들에 대한 사전조사와 각종 증빙서류의 준비이다.

○ 사전조사해 두면 좋은 것

- 필요에 따라 2-3개월 머무를 수 있는 장기체제용 호텔과 임시 사무실
- 사무실 물건 리스트
- 주거 물건 리스트
- 고용할 사무원의 채용조건 및 근로기준 등

○ 준비해야할 증빙서류(일어번역본 필요)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시 제출할 입증자료를 위주로 사진등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자료

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단계

일본거점설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기VISA로 입국을 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준비기간이 길어지면 단기체재를 위한 출입국을 수차례 해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본에서 설립절차 전체를 대행해줄 사람이 있다면 입국할 필요조차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을 포함한 제반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VISA로 직접 현지에 들어가 여러가지 작업을 다 해내는 수 밖에 없다.

참고로, 2002년 월드컵 축구 한.일 공동주최를계기로 한국인의 일본 입국이 원활하도록 VISA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일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관광비자의 경우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개최되는 아이치엑스포기간중 한시적으로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무비자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영구 무비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일본정부가 적극 검토중)

○ 단기체류VISA로 입국

- 체류기간 : 15일/1회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복수
-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4개월이상), 사진1매(최소 3개월이내),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재직기간 명시), 주민등록증 사본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24시간후 발급

나) 사무실 확보

거점설립작업중에서도 상당히 이른 단계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 사용할 사무실을 구해서 확보하는 것이다. 설립등기나 공적인 신고, VISA를 취득하기 위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은행구좌 개설, 종업원채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거점개설 작업에는 사무실의 주소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재원사무소 설치의 경우에 재택근무를 할 생각으로 오피스텔(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념의 오피스텔은 흔하지 않음) 같은 것을 얻는 것도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거와 분리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있어 입국관리국의 재량이 많이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체로 주거와 사무실을 분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무실을 알아본 후,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압축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교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에 있어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의 상관습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사전에 다음과 같은 일본의 상관습을 잘 이해한 후 교섭에 임할 필요가 있다.

다) 주거확보

현지 거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둘러 해야할 일중의 하나가 향후 자신이 생활할 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생활의 거점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지점의 대표로 취임하여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거가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된다.

주거를 찾는다는 신문이나 정보지의 광고에 의존하여 찾는 것보다는 부동산 중개회사(브로커)에 의뢰하는 편이 선택의 폭도 넓고 시간도 절약된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브로커를 활용하는 이외에 직접 소유주를 접촉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한 직접 접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월 100만엔이상의 고액물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부동산회사나 금융기관이 주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직접 접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는 일본국내에서의 계약이기 때문에 통상 일본어를 사용한다. 회사의 사택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계약주체는 실제로 거주하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다. 고액물건일수록 소유주는 회사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개인도 일본에 거주하는 보증인을 한명 세울 수 있으면 전혀 문제는 없다.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보증인이 되어줄 사람을 수배해주는 업자도 있다.

임대차계약은 통상 2년이며, 3개월전에 통지하면 벌과금을 물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2년이 지나 그 주거지에 계속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 정도의 갱신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주거 임대에는 드는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내 용	지 불 처
계약시	· 敷金(통상 집세 6개월분) · 첫달분 집세 · 禮金(關東지역 대부분) · 수수료(통상 집세 1개월분)	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집주인
매 월	· 다음달 집세 및 관리비	집주인 또는 관리회사

레이킨(禮金)이라는 것은 일본(주로 關東지역)에 독특한 관습으로 월 임차료 2개월분 내외를 지불하며, 임대차계약 종료시에도 반환받지 못하는 일종의 사례금이다. 시키킨(敷金)은 퇴거시에 반환받을 수 있지만 현상복구비로 얼마정도 공제하고 되돌려 받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 지불액수가 각각 다르나 관동지역은 2개월분 내외, 관서지역은 6개월분을 선납해야 한다. 임대료는 교섭가능하지만 사무실과는 달리 큰 할인율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고액물건일수록 할인율은 높아지는 편이다. 한편, 부동산 중개인에게서는 임차료 1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따라 주택에 입주할 경우 초기 경비가 과다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 종업원 확보

주재원사무소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지점개설을 위하여 '투자 · 경영'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현지직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본래 종업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채용조건 결정과 동시에 급여 및 수당규정, 인사고과규칙, 취업규칙, 연금플랜등의 인사제도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제도 구축은 이것저것 처리할 것이 많으므로 채용예정자의 얼굴을 보아가며 제도화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에 있어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인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뿐만 아니라 노사관련 각종 관행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일본 현지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보험가입의무가 발생한다. 사회보험제도에는 후생성관할 사회보험(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및 노동성 관할 노동보험(고용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4가지가 있다.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보험은 원칙적으로 일괄가입하여야 한다. 법인조직은 전부, 개인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가입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소(예컨대, 3명의 현지직원이 있는 주재원사무소)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市區町村 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에, 후생연금보험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한편, 종업원의 퇴직금은 고용계약에 따른다.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 계약서에 퇴직금지급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마) 지점(사무소)의 설립

주재원사무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은행업이나 증권업, 보험업의 경우 해당사업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허가나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영업을 하지않기 때문에 상법상 등기가 필요없으며, 세법상으로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점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무실, 주거, 종업원 등이 확보되고 나면 실제로 지점설립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지점설립절차는 설립등기로 일단 완료되는데 등기절차를 밟기까지의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인허가사항의 유무 확인
- 外爲法상의 사전신고 요부 확인
- 개인의 인감 작성 및 인감증명 취득
- 회사의 인감 작성
- 지점설립등기

○ 각종 인허가사항의 유무 확인

지점을 설립하기 전에 관공서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각 도도부현청에 인허가 의 유무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취득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外爲法상의 사전신고 요부 확인

지점설치는 外爲法 (外國爲替 및 外國貿易法) 제26조 2항 5호에 따른 대내직접투자해당되므로,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대장성대신 및 소관대신에 대하여 사후보고 또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보고가 원칙이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도 필요없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일본은행 또는 외국환취급은행이나,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 일본은행 국제국 투자과 대내직접투자계
 - 東京都 中央區 日本橋 本石町 2-1-1
 - Tel : 03-3279-1111

○ 개인의 인감작성 및 인감증명 취득

인감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취득하여야 지점의 대표로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인감은 주거지의 사무소 (市役所 · 區役所) 에 등록함으로써 인감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다.

○ 회사의 인감 (대표인) 작성

등기신청서에 날인해야 하는 대표자가 등기소에 신고하는 인감으로, 개인인과 겸용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별도로 한다. 지점설립등기 직후에 대표인을 인감 증명서 교부신청서에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로부터 지점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교부된다.

○ 지점설립등기

지점을 신설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법무국 산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점의 신설은 정관이나 연차보고서의 번역 등 방대한 작업이 들어 비용이나 노력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宣誓供述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지점등기를 할 수 있다.

우선 지점의 경우에는, 정관을 새롭게 작성하는 대신에 본국 모회사의 정관 원본을 가져와 모회사의 기본정관, 부속정관, 일본지점 대표자에 대한 임명장 또는 고용계약서, 선서 공술서 등을 지참하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관에 주재하는 공증인 앞에서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선서한 후, 대사관에서 서류를 인증해 받는 절차이다.

바)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 및 보고

○ 세무신고

세무신고에는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청 산하의 세무서에, 지방세와 관련하여 별도로 해당 지자체 소속 都道府縣稅事務所에 각각 하여야 하는데, 보통 회계-세무 사무소에 대행시키는 경우가 많다.

세무신고종에는 청색신고승인신청서라는 것이 있는데, 기업은 청색 또는 백색 중 어느 하나의 신고법인이 되는것을 선택할 수 있다. 백색법인에는 특별히 우대세제가 없지만, 청색신고법인에는 각종 세액공제와 더불어 토안성 국제기업과에 의하여 '특정대내 투자사업자'로 인정되면 회사설립일 이후 3년을 경과하는날까지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10년을 한도로 하여 이월할 수 있는 세제상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다.

그 대신, 청색신고법인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를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기록함과 동시에 장부서류의 법정기간 보존이 의무화된다. 일본지점의 설립의 경우, 당해사업년도를 포함하여 청색신고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후 3개월을 경과한 날과 설립후 최초사업년도의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사회보험관련신고

사회보험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4) 종업원확보' 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

지점 또는 주재원사무소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취업비자의 취득문제이다. 비자발급은 입국허가를 추천하는 의미로 외무성 (재외공관) 소관사항이며, 재류자격인정서증명교부는 일본내에서 상당기간 이상의 체재를 인정하는 의미로 법무성 입국관리국 소관사항이다.

재류자격은 통칭 VISA STATUS라고 부르는데 27종류가 있으며, 이 중 취업 VISA STATUS에 해당되는 것은 14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지점설치의 경우에는 '투자·경영'이라는 재류자격이 필요하고, 주재원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기업내전근'이라는 재류자격이 필요하다고 보된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 신청은 대리신청뿐 아니라 인정신청까지 허용되는 행정서사(신청중개자증명서라는 분홍색 증명서를 갖고 있으며, 일본국내에 약 100명정도 밖에 없다.)에게 의뢰하는 경우, 본인은 한번도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지 않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신청의뢰는 변호사, 사법서사, 기타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인정신청 수속을 신청중개자 증명서가 있는 행정서사에게 재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대행비용은 25만엔-80만엔 정도이다.

○ '투자·경영'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서: 양식 1, 2B(상용, 취직), 3B(상용, 취직) 1통
- 사진 2매
- 입증자료(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3에 기재된 자료, 단 공공간행물등에서 회사 개요가 명확한 경우에는 불요)

a.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 혹은 이런 사업에 투자하여 경영을 하는 경우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후 3개월 이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총수를 입증하는 자료: 회사안내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서 등 사본, 상근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2인의 직원에 관련된 다음의 자료(고용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업소의 개요에 관한 자료: 회사안내서,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등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b.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 혹은 이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신하여 그 경영을 하는 경우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발행후 3개월이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총수를 입증하는 자료: 회사안내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서 등 사본, 상근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2인의 직원에 관련된 다음의 자료(고용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업소의 개요에 관한 자료: 회사안내서,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등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의 내요, 기간, 지위, 보수 등이 기재된 문서: 계약서 사본, 파견장 사본, 인시이동통지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c. 일본내에서 개시 또는 투자된 무역 기타 사업의 관리에 종사 또는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 혹은 이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신하여 그 관리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 · 법인등기부등본 (발행후 3개월 이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총수를 입증하는 자료 : 회사안내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서 등 사본, 상근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2인의 직원에 관련된 다음의 자료 (고용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업소의 개요에 관한 자료 : 회사안내서, 사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등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있어서 3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서 : 재직하고 있던 기관이나 재직중인 기관에서의 직무내용 및 재직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대학원에서 경영 혹은 관리에 관계되는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입증하는 문서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의 개요, 기간, 지위, 보수 등이 기재된 문서 : 계약서 사본, 파견장 사본, 인사이동통지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 '기업내 전근'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서
- 사진
- 입증자료(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제3에 기재된 자료, 단 공공간행물 등에서 회사 개요가 명확한 경우에는 불요)
- 다음중 어느 하나로 외국의 사업소와 일본의 사업소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 : 안내서, 사업자등록 관련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 일본의 사업소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 상업, 법인 등기부 등본(발행후 3개월이내의 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 (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안내서
- 외국의 사업소에 있어서의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입증하는 문서 : 외국의 사업소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등 전근전 1년간 종사하였던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입증하는 것
- 외국의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 상업, 법인 등기부 등본(발행후 3개월이내의것),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입증하는 문서 : 전근명령서 사본, 파견대상기관의 사령장 사본, 이에 준하는 문서
- 졸업증명서 및 경력을 입증하는 문서 : 졸업증명서 또는 그 사본, 신청인의 이력서

입국관리국에서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 XX를 입증하는 서류" 라는 식으로 규정할 뿐, 서류의 세부사항이나 양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류의 기재방식이나 표현방법의 타당성과 보조자료의 제출등 운영면에서의 세부적인 판단은 창구의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한 신청후 2~3개월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한 체류자격과 다른 자격으로 증명서가 발급될 수도 있는데, 체류자격의 최종결정은 입국관리국에 맡겨져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마무리 단계

○ VISA취득 및 재입국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고 나면 국내에서 소재하는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된다. 일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비자발급신청서 1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1부, 신청인의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을 하면 일본공관에서는 여권의 비자 페이지에 VISA STATUS를 표시하는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재류자격번호를 기입해준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해도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각각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시 상담 또는 대행의뢰하였던 전문가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취업비자로 일본에 입국하면 입국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재류자격의 도장을 찍어준다. 이것으로 일본에서의 장기체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내 전근'은 1년마다 비자 갱신을 하여야 하며, '투자.경영'은 1~3 년마다 갱신한다. 비자 갱신 역시 다소의 수고가 필요한데, 주거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 (사무소소재지 관할 입국관리국이 아닌점에 주의)의 지침에 따라 갱신하면 된다.

3) 각종후속조치

○ 외국인등록증명서

일본에서의 재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주거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난 후 그 주거지 관할 사무소에 등록을 한다. 신규등록절차는 사무소의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여권 및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약 2~3주 정도 걸리며, 카드형식의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교부받게 된다.

○ 재입국허가신청

일본은 주재중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출국전에 입국관리국에 가서 재입국 비자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최초 입국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 입국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게 된다. 재입국허가는 일단 받아놓으면 최장 1년간 유효하며, 기한이 되면 재신청하면 된다. 허가에는 단수와 복수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재입국허가신청도 대행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그다지 어려운 절차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서류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신청서1통, 수입인지등이 있다.

현재 한일간 영사회담에서는 다른나라에서 별로 통용되지 않는 재입국허가제를 철폐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처럼 일단 입국비자를 받아놓으면 비자유효기간중 마음대로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98.10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측은 우리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 참고사항(거점설립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 (주)대일투자 서포트 서비스 (FIND)

- 주소 : Sixth Floor, Akasaka Annex, 2-17-42 Akasaka, Minato-ku, Tokyo, Japan
- 전화 : 03-3224-1203
- 팩스 : 03-3224-9871 (<http://www.fid.com>)

- JETRO 비즈니스 서포트센터 (BSC)
 - 전화 : 03-5562-3131
 - 팩스 : 03-5562-3110
 - <http://www.jetro.go.jp/EXPORT/jet02-4.html>
- 법무성입국관리국
 - 전화 : 03-3580-41111
- 외국인재류 종합인포메이션센터 (동경)
 - 전화 : 03-3213-8523~7

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과 그 관계자로부터의 상담이나 안내에 응하기 위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및 요코하마의 각지방입국관리국과 지국에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화와 방문에 의한 문의에 일본어뿐 아니라 외국어로도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상담하고 있다. 인포메이션센터의 운영은 재단법인 '入關協會'에 위탁되어 있다.

3. 중요사항

제외국에 비해 여전히 규제가 많은 것으로 종종 지적되고 있는 일본에서 국내지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일본내 지사를 설치할 경우, 본국의 본사 세금문제가 일본 지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본에서 지사를 설치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일본에 진출한 국내 주요기업의 진출 형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참고사항

- 일본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은 기관 : “ JETRO ” 에서 전담(2003년 4월부터)

62. 공장설립

1. 개요

일본에서는 공장 설립이 가능한 천연개의 공업단지가 있다.

그러나 공업단지별로 입주조건이 상이하여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각 공업단지별로 사전에 충분한 기초정보를 입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 공장용지에 관한 정보는 용지조성 주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수가 가능하다. 일본 전체적인 정보는 통산산업성 立地指導室이나 일본입지센터에서도 입수가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공장용지를 조성, 분양하고 있는 지역진흥정비공단에서는 기업입지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전국의 공장용지 및 공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3월에는 외국기업의 공장입지 선정편의를 위하여 JETRO와 지역진흥정비공단(이하 정비공단)이 공장입지추진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동 세미나에서는 최근의 입지동향 및 외국기업의 입지경험담 등이 소개된다.

2. 부지확보

공장건축을 위한 공장부지는 임대하는 방법과 분양받는 방안이 있다. 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물건마다 상이하여 입주대상 지역을 선정후 지방자치단체등과 임대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계기구제조업 및 Software개발등 기반적 기술산업분야의 기업의 경우 지역진흥 정비공단을 통하여 공장,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으며 동 공단을 이용하는 경우 초기단계에 최소한의 자본만 투자하여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는 제세감면, 보조금지급, 융자지원등의 혜택이 있는 지방공업단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등 인구밀집지역은 工場等制限法에 의거 500s/m이상의 공장의 신설·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에 의거 도시내의 도시계획 용도지정지역은 공장부지 확보가 제한되어 있다.

지방진흥을 위한 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에 입주하는 경우 공업재배치촉진법 및 각종 지역개발법에 의거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세제면에서 감가상각특례와 사업소세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조금으로는 산업재배치촉진비보조금, 전원지역산업 재배치촉진 보조금, 지역고용 개발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외국기업의 대일투자 촉진을 위해 일본은행, 지역진출정비공단등에서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독입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도시계획법에 의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국토이용 계획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용지면적이 2ha를 초과하는 경우는 農林水産大臣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며 2ha이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한다.

다음과 같은 특정업종의 경우는 공장용지, 공업단지 이외에 사무용지 및 산업단지내 용지확보도 가능하다. 용도별 입주가능 업종 및 입주지역은 다음과 같다.

- Technopolis개발 : 첨단산업, 학술 관련업종 : 大分, 熊本, 宇部등 26개 지역
- 頭腦입지개발 : Lease, Software, 정보처리서비스, 광고대행업 리스,
- 소프트웨어관련 업종 : 八戸, 富山, 徳島등 26개 지역
- 지방거점개발 : 연구소, 첨단Service기업, 지역기반 육성에 기여하는 업종 歳, 石巻, 南國등 85개 지역
- 지방산업 집적 활성화개발 : 제조업 지원을 위한 기반적 기술산업 : 廣島등 22개 지역

지역별 분양가격을 포함한 가용用地현황은 일본입지센타 Home pag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공장건설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용지조정(농지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 - 조성 완료신고(개발허가권자) - 토지등기(등기소) - 건축확인신청(지방자치단체건축과 : 건축기준법) - 특정공장 신고(공장입지법) - 공해시설신고(지방자치단체장) - 건축

공장설립 절차는 규제사항을 순리대로 처리해 나가는 절차와 같다. 일본의 경우 공장설립과 관련한 규제에는 공장입지법, 건축기준법, 工業等제한법 그리고 환경관련법이 있다.

공장입지법은 특정공장과 녹지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정공장이란 敷地面積 9,000s/m 이상 또는 건축면적 3,000 s/m 이상의 공장을 의미한다. 특정공장을 新增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후 90일 이내에 의견이 없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녹지면적은 공장용지면적 대비 공장부지면적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녹지면적이 30/100이상이어야 한다.

건축기준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율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동법에 의거 공사착수전에 건축확인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하여야 하며 신청후 21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공업등제한법은 수도권등 인구밀집지역에 공장설립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다. 동 법률에 의거 수도권의 경우 공장면적 500s/m 또는 1,000s/m이상의 공장은 신증설이 제한된다.

공해방지관련법은 공해를 규제하기 법률로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소음방지, 진동방지, 악취방지, 폐기물처리등이 이에 해당하며 관련시설 설치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해방지 관련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률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률은 국가가 정한 법률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4. 공장설립 관련 우대조치

일본은 대도시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경제 발전 촉진을 위하여 지방에 입지한 기업에 대하여 여러가지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대. 지원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감면, 보조금지급, 융자지원등이 있다.

○ 조세상의 우대조치

- 국세 : 특정자산구입시 과세특례, 감가상각자산의 특별상각, 地價稅산정시 과세가격 산입 특례, 신규 취득토지등과 관련한 이자과세특례
- 지방세 : 사업세, 부동산취득세 및 고정자산세 감면, 특별토지보유세의 비과세 및 면제, 地自體의 세제상 우대조치

○ 보조금

- 산업재배치 촉진환경정비 보조금, 電源지역산업 재배치촉진 보조금, 지역고용개발 보조금, 지자체별 보조금

○ 융자

- 일본정책투자은행 융자, 중소기업 종합사업단의 고도화자금 융자, 지자체의 융자

○ 지원

- 인재 육성사업, 기술인력 소개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5. 기타사항

일본지역의 공장 건설은 적극 검토가 바람직하다.

일본의 대기업을 비롯한 지방의 중소기업은 국내 제조원가의 고가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을 검토하고있어, 국내에서는 공장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어, 일본내 공장건설은 적극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일본은 고물가 지역으로 일본의 기업도 저물가 국가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점을 잘 갈파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개발 분야하면, 일본과 같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지역에 진출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한국의 제조기업이 일본에 직접 진출하여, 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점은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63. 산업단지/주요 산업단지 리스트 1

○ 響灘東部 工業團地 (HIBIKINADA TOBU INDUSTRIAL AREA) >

- 소재지 : 1,HIBIKI-CHO, WAKAMATSU-KU,KITAKYUSHU-SHI
- 부지면적 : 5,982,735㎡
- 조성주체 : 北九州市
- 공단성격 : 기타큐슈시 북쪽에 위치한 해면매립 공업단지이며 도시계획법, 항만법에 의거 임해공업 전용지역임.
- 입주비용 : 분양가격 26,500엔/㎡ (2002. 12월) 원칙적으로 계약시 일괄 지불해야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공업용지면적 5,982,735㎡ 중 미분양면적 1,781,224 ㎡ 계약시 입주 가능.
- 교통
 - . 철도 : 신간선 코쿠라역까지 12km, JR와 카마쓰역까지 4km
 - . 공항 : 후쿠오카공항까지 약 75km,기타큐슈공항까지 약 23km (약 30분)
- 전력 : 큐슈전력의 보통고압(6KV), 특별고압(66KV)이 가설되어 있으며 입주 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응
- 용수 : 기타큐슈시 운영 公共用 수도로 최대공급량 54,210㎥/일급수
- 통신 : 전화, 컴퓨터 통신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노동력확보 용이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4만엔/월
- 외국기업 입주현황 : 없음.

- 한국입주 기업명단 : 포스메탈(PI0) '94년 7월 가동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제조업, 유통업, 일부서비스업(소프트웨어업, 정보 처리 서비스업)에 한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해야하고 입주계약 체결후 2년내에 조업 개시해야 함.
- 우대조치
 - . 보조금 : 대상시설이 마루면적 3,000엔/㎡ (2,000㎡를 초과하고 신규 상용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6,000엔)
 - . 고용장려금 : 공장 신 증설시 종업원 1인당 30만엔
 - . 자금융자 : 공장 신 증설시 1개기업당 5억엔
- 입주여건에 대한 의견 :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있어 대한국출입여건은 좋으나, 기타큐슈시의 인구가 약 100만으로 큐슈지역의수요가 극히 한정되어 있음. 도쿄, 오사카등 대도시까지 유통할 경우 물류비가 상당한 부담이 됨.
- 공단연락처 : 북구주시 경제국 기업입지과
 - . 주소 : #803 1-1, SHIRONOUCHI, KOKURA-KITA-KU, KITAKYUSHU-SHI
 - . 전화 : 81-93-582-2065
 - . 팩스 : 81-93-581-9352
 - . 담당자 : MR. GURIBIYA

○ 北九州 테크노파크 (KITAKYUSHU TECHNO PARK)

- 소재지 : NAKAHARA SHINMACHI, TOBATA-KU, KITAKYUSHU-SHI
- 부지면적 : 53,000㎡
- 조성주체 : 北九州市 토지개발공사
- 공단성격 : 산업의 두뇌부분을 동지역에 집적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꾀하는 '두뇌입지법'이 제정되고 기타큐슈시가 집적 촉진지역으로 지정됨.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시설의 유치를 꾀하고 있음.
- 입주비용 : 분양가격 78,000엔/㎡, 원칙적으로 계약시 일괄 지불해야 하나, 분할 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공업용지면적 53,000㎡중 미분양 면적 14,100㎡, 계약시 입주가능.
- 교통
 - . 철도 : 신간선 코쿠라역에서 12km, JR와 카마쓰역에서 도보 1분
 - . 공항 : 후쿠오카국제공항에서 약 70km (1시간)
 - . 도로 : 큐슈공업대학에 근접해 있음.
 - . 전력 : 전기, 가스, 수도, 전화시설이 집중화되어 있으며, 보통고압, 특별고압이 가설 되어 있음.
 - . 용수 : 기타큐슈시 운영 公共用 수도로 급수
- 통신 :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노동력확보 용이.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 14만 엔/월
- 외국기업 입주현황 : 없음. 일본기업으로는 교토전자, 이와시타엔지니어링, 젠린 등이 입주
- 한국기업 기업명단 : 없음.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디자인업, 기계설계업, 엔지니어링업, 연구개발시설에 한함.
- 우대조치
 - . 보조금 : 대상시설이 마루면적 3,000엔/㎡ (2,000㎡를 초과하고 신규 상용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6,000엔)

- . 고용장려금 : 공장 신 증설시 종업원 1인당 30만엔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인구 100만명의 큐슈지역의 중심지역으로 큐슈공업 대학과 기타큐슈 테크노센터가 인접해 있어 연구시설, 정보서비스업의 진출기지로 적당.
- 공단연락처 : 북구주시 경제국 기업입지과
 - . 주소 : #803 1-1, SHIRONOUCHI, KOKURA-KITA-KU, KITAKYUSHU-SHI
 - . 전화 : 81-93-582-2065
 - . 팩스 : 81-93-581-9352
 - . 담당자 : MR. KONO

○ 大朝地區 工業團地 (OASA INDUSTRIAL PARK)

- 소재지 : OASA, OASA-CHO, YAMAGATA-GUN, HIROSHIMA-KEN
- 부지면적 : 181,333㎡
- 조성주체 : 히로시마현 기업국
- 공단성격 : 추고쿠(中國)내륙의 공업벨트에 일익을 담당, 공업 재배치법에 의한 유도지역, 과소지역 활성화특별조치법에 과소지역, 공업입지법에 의한 공장 적지
- 입주비용 : 분양가격 16,050엔/㎡ 원칙적으로 계약시 일괄 지불해야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공업용지면적 181,338㎡ 중 미분양면적4,028㎡ 분양모집 중. 계약시 입주 가능.
- 교통
 - . 철도 : 신요우신간선 히로시마역까지 60km,
 - . 공항 : 히로시마 공항까지 90km
 - . 도로 : 중국횡단자동차도 오오아사(大朝) IC까지 1km
 - . 전력 : 보통고압전력(6,600V고압선)은 현의 부담으로 가설됨.
 - . 용수 : 1,500㎡/일 급수가능
- 통신 : 전화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오아사(大朝町)타운의 인구는 약 26,000명이며 고졸자수는 약 400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약 100명수준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4만/월
- 외국기업 입주현황 : '96년 6월 없음.
- 한국입주 기업명단 : '96년 6월 없음.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공해방지기준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각서제출
- 우대조치
 - . 보조금 : 대상시설이 마루면적 3,000엔/㎡ (2,000㎡를 초과하고신규 상용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6,000엔)
 - . 고용장려금 : 공장 신 증설시 종업원 1인당 30만엔
 - . 자금융자 : 공장 신 증설시 1개기업당 5억엔
- 입주여건에 대한 의견 : 공업재배치촉진법에 의거 조성되는 신규공단으로 입주비용은 타공단에 비해 저렴하나 히로시마에서 약60km 떨어져 입지 조건상 다소 불리함.
- 공단연락처 : 히로시마현 상공노동부 기업 입지과
 - . 주소 : #730 10-51, MOTOMACHI, NAKA-KU, HIROSHIMA-SHI
 - . 전화 : 81-82-223-5050
 - . 팩스 : 81-82-223-6314
 - . 담당자 : MR. HAMANOTO

○ 三次 工業團地 (MIYOSHI INDUSTRIAL PARK)

- 소재지 : MATSUGASAKO, HIGASHI-SAKAYA-CHO, MIYOSHI-SHI, HIROSHIMA-KEN

- 부지면적 : 756,000㎡
- 조성주체 : 히로시마현
- 공단성격 : 추고쿠(中國)내륙의 공업지역으로 1983년 4월 정비가 완료된 제조업 중심의 공단으로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입주비용 : 분양가격 14,770엔/㎡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공업용지면적 756,000㎡ 중 극히 일부만 미분양 계약시 입주 가능
- 교통
 - . 항만 : 히로시마항까지 60km
 - . 철도 : 산요우신간선 미요시驛까지 4km
 - . 공항 : 히로시마 공항까지 60km
 - . 도로 : 추고쿠자동차도로 미요시(三次)IC까지 2km
- 전력 : 보통고압전력(6,600V)이 가설되어 있음.
- 용수 : 1,200㎡/일 급수 가능
- 통신 : 전화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산지市 주변인구는 약 10만명으로 노동력확보 용이/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4만엔/월
- 외국기업 입주현황 : TRW INC. (미국) 83년 1월 조업개시
- 한국입주 기업명단 : 없음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환경보호규칙에 의거 각서제출
- 우대조치
 - . 조성금 : 히로시마현의 공장 및 시험연구시설에 해당할 경우 1억엔의 조성금지원
 - . 자금융자 : 공장 신 증설시 1개기업당 3억엔
- 입주여건에 대한 의견 : '96년 6월 공단분양률이 99.5%로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식품, 목재 등의 제조업과 트럭운 송업이 입주해 있음. 이미 31개사가 입주해 있어 생산거점으로 유리함.
- 공단연락처 : 히로시마현 상공노동부 기업입지과
 - . 주소 : #730 10-51, MOTOMACHI, NAKA-KU, HIROSHIMA-SHI
 - . 전화 : 81-82-223-5050
 - . 팩스 : 81-82-223-6314
 - . 담당자 : MR. HANAMOTO

○ 北攝三田 테크노파크 (HOKUSETSU SANDA TECHINO PARK)

- 소재지 : 3-1, SUZUKAKEDAI, SANDA-SHI, HYOGO-KEN
- 부지면적 : 989,000㎡
- 조성주체 : 주택. 도시정비공단
- 공단성격 : 코오베시 중심부에서 북방 27km 떨어진 한신(阪神)도시권에 인접하는 공업단지로 표고 약 200m의 구릉지에 조성된 제조업중심의 공단. 1971년 공단으로 조성됨.
- 입주비용 : 분양가격 80,000엔/㎡ ('94년 10월) 원칙적으로 계약시 일괄 지불 해야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공업용지면적 989,000㎡ 중 미분양 면적 120,000㎡은 98년중 분양예정
- 교통
 - . 항만 : 코오베항까지 20km
 - . 철도 : JR 후쿠지야마선 신산다역까지 1km

- 공항 : 칸사이공항까지 60km
- 도로 : 舞鶴자동차도로 三田西IC까지 1km
- 전력 : 보통고압, 특별고압 등 기업입지에 따라 대응 가능
- 용수 : 공업용수 5,000㎥/일 급수, 지하수는 공해방지협정에 의거 사용 금지
- 통신 : 전화 등 통신시설 양호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노동력확보는 용이.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약 16만엔/월
- 외국기업 입주현황 : '96년 6월 없음
- 한국입주 기업명단 : 없음%0

○ 綾部공업단지

- 소재지 : 교도부
- 단지면적 : 137.5ha
- 입주기업 : 9개업체
- 주요입주기업 : 일동정공, 아사히맥주, 토스텐 등

○ 이색병 산업단지

- 소재지 : 大阪府
- 단지면적 : 66ha
- 입주기업 : 6개업체
- 주요입주기업 : 서효제강, 남해화공

○ 오사가 링구타운

- 소재지 : 大阪府
- 신도시형 타운구성
- 입주기업 : 51개사
- 전일본공수, 아사히에어포트서비스, 히루마 등

○ 풍강중핵공업단지

- 소재지 : 兵庫縣
- 단지면적 : 47.2ha
- 입주기업수 : 19개사
- 주요 입주기업 : (주)산마루켄, 단마전자 등

○ 氷上 공업단지

- 소재지 : 兵庫縣
- 단지면적 : 18.5ha
- 입주기업 : 7개
- 주요입주기업 : 동양전기, 빙상제작소, 村上공업

○ 小野 공업단지

- 소재지 : 兵庫縣
- 단지면적 : 94.6ha
- 입주기업수 : 7개
- 주요입주기업 : 일본햄식품, 高岡화학, 日光제작소

○ 西氷 공업단지

- 소재지 : 兵庫縣
- 단지면적 : 275ha
- 입주기업수 : 7개
- 주요입주기업 : 住友시멘트, 三菱전기, 西礪통운

○ 六甲 아일랜드 공업단지

- 소재지 : 神戸市
- 단지면적 : 580ha
- 입주기업수 : 30개
- 주요입주기업 : 六甲물류, 大日통운, 神戸이스스자동차, 清水운수

○ 桃山 공업단지

- 소재지 : 和歌山縣
- 단지면적 : 17.2ha
- 입주업체 : 3개사
- 주요입주기업 : 半島화학, 桶上擊物(끝)

<나고야지역 산업단지>

1) 개 요

에도시대부터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고 2차 대전 후에는 중공업, 자동차산업이 발전된 지역으로 27년 연속으로 제조품 출하액에서 일본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굴지의 공업지대임. 나고야지역의 산업단지는 집적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산업의 고도화, 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음.

2) 아이치현 기업용지 안내

나고야시가 소재한 아이치현(愛知県)의 구조개혁특구로 지정된 곳은 중부공항도시 국제교류 특구(도코나메시 전역/나고야 공항지역), 국제자동차특구(토요하시시, 토코나메시, 가마고오리, 미토町, 다와라 전역), 아이치/나고야 제조연구개발특구(나고야시, 세토시, 카스가이시, 토요타시, 오하리아사하시, 나가쿠테町 전역)으로 기업용지를 분양 또는 리스하고 있음.

<기업용지 및 토지리스 제도에 관한 문의처>

기 관 명	주 소	연 락 처
아이치현 기업청 기업입지부 기업유치과 기업유치 그룹	(460-8501) 名古屋市 中区三の丸三丁目1番2号県 自治センター 12階	TEL : 052-954-6691 FAX : 052-961-7004 www.pref.aichi.jp/youchi kigyo-yuuchi@pref.aichi.lg.jp
아이치현 기업청 기업입지부 기업유치과 도쿄유치 그룹	(102-0093) 東京都千代田区 平河町6番3号都道府県会館 9階	TEL : 03-5212-9092 (대표) FAX : 03-5212-9095

아이치현 기업입지 추진협의회	(460-8422) 名古屋市 中区栄二丁目10番19号 名古屋商工会議所 プロジェクト推進部内	TEL : 052-223-5702 FAX : 052-231-5703
아이치현 기업입지정보코너	(460-8501) 名古屋市 中区三の丸三丁目1番2号 県西庁舎7階	TEL : 052-961-2111 (대표) 내선 3366 / 3367 FAX : 052-961-7246 www.pref.aichi.jp/shinsangyo/

- 참고로 일본의 산업단지 현황에 대한 안내 홈페이지로서는
 - 일본무역진흥회(www.jetro.go.jp)와 , 경제산업성(www.meti.go.jp), Japan Industrial Location Center (www.jici.go.jp)가 있으며 상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64. 자유무역지대

1. 자유무역지대 개요

○ 설치목적

자유무역지대(FAZ, Free Access Zone)는 수입촉진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입, 대일투자 촉진을 위해 1992년에 정책적으로 채택된 제도로 “수입촉진 및 대내투자사업의 원화화에 관한 임시조치법(1995년 개정)”에 근거, 설치된 것을 지칭하며 일본 전국에 22개지역이 국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지역의 공항, 항만을 중심으로하는 지역에 물류시설 등을 정비하여 수입관련 업무를 집적시킴으로써 대도시권에 집중되어오던 수입화물의 창구를 지방으로도 확대하여 수입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 해당지역으로의 입주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설치에 따른 파급효과로 해당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각 FAZ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민간기업으로 설립된 제3섹터가 중심이 되어 수입에 관련된 기반시설(물류시설, 비즈니스 지원시설, 가공·도매업무시설, 전시장, 회의시설 등)을 정비 함과 더불어 수입관련 비즈니스에 관계되는 각종 지원, 홍보활동, 기업유치 활동등을 행하고 있다.

한편 각 지역 공히 해당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지역 특성을 살린 FAZ계획을 추진해오고 있고 시설 운영 활성화에 진력해오고 있다.

2. FAZ지역 지정 요건

- 항만, 공항 및 그 주변지역일 것
- 수입화물이 상당정도 유통되거나 또는 유통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일 것
- 항만 또는 공항의 정비 및 수입화물을 취급하는 시설의 여건에 비추어 FAZ의 정비에 의해 수입촉진효과를 상당정도 기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수입촉진기반정비사업에 관련된 시설의 정비 및 수입화물 유통촉진사업의 실시가 확실 하다고 인정될 것 등

3. FAZ 설치지역 현황

○ 설치지역수 : 총 22개처(2005년 6월 현재)

- 아오모리현(하치노해항지역)
- 미야기현(시오가마항, 센다이지구.센다이공항지역)
- 가와사키시(가와사키항지역)
- 요코하마시(요코하마항지역)
- 니이가타현(니이가타항지역)
- 이시카와현(코마츠공항지역)
- 시즈오카현(시미즈항지역)
- 교토부(마이즈루항지역)
- 오사카부(간사이국제공항지역)
- 오사카시(오사카항지역)
- 고베시(고베항지역)
- 돗토리현.시마네현(사카이미나토지역)
- 오카야마현(오카야마항.미즈시마항지역)
- 히로시마현(히로시마항지역)
- 야마구치현(시모노세키항지역)
- 에히메현(마츠야마항지역)
- 고히현(고삐항지역)
- 기타큐슈시(기타큐슈항지역)
- 나가사키현(나가사키공항지역)
- 오이타현(오이타항지역)
- 구마모토현(구마모토항지역)
- 이바라기현(히다치나카항지역) 이상 22개처

4. FAZ지역 입주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활동

한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는FAZ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FAZ관련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해오고 있다.

주된 지원업무는 전국의 FAZ지역에 관한 기초데이터, 주변지역 경제.무역.주변프로젝트 등을 망라하여 FAZ지역에 입지를 고려하거나 대일수출, 대일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 그리고 지방의 비즈니스관련 정보의 입수를 원하는 고객에게 정보제공 및 컨설팅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참고로 FAZ관련 상세 정보는JETRO의 관련홈페이지(하기 어드레스참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HP어드레스 : www.jetro.go.jp/ov/j/faz/datafile.html

65. 조세제도

일본 조세제도 개요

1. 개요

일본의 조세제도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공공단체(都道府縣과 市.町.村)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구성(참고로 최근들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를 삭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되어 있다.

일본 헌법상,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권을 보장하고, 그 집행의 일환으로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리를 부여하고있으며 국세나 지방세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국세 : 소득세(원천소득세, 개인신고소득세), 법인세
 - 지방세 : 都道縣民稅, 事業稅, 市町.村民稅
- 재산에 부과하는세금
 - 지방세 : 고정자산세
- 소비에 부과하는세금
 - 국세 : 소비세
 - 지방세 : 지방소비세
- 거래에 부과하는세
 - 국세 : 인지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 : 부동산취득세

2. 국세인 법인세에 대한 개요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이익)을 과세대상으로하는 소득세의 일종이며,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로 말하여지는데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은 인세로 일컬어진다.

-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
 - 1억엔 이하 경우 :
 - = 800백만엔 이하의 소득 : 법인세율 22%
 - = 800백만엔 초과 소득 : 법인세율 30%
 - 1억엔 초과경우
 - = 모든소득 : 30%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율은 법인세 30%, 주민세 17%, 사업세9.6% 이다. 과세소득에대한 법인세.주민세.사업세의 세액 합계의 비율은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약 41%가 된다.

실효세율 = 법인세율 0.30 + 법인세율 0.30 X 주민세율 0.173 + 사업세율 0.096 (1-실효세율)

3. 기타사항

장기불황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비롯하여 사전증여세를 2천만엔까지 면세하는 한편, 주류세, 담배세등에 대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66. 사회간접자본

1. 전력

전력은 2차 대전이전에는 국영전력회사인 " 일본발송전 " 이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으나 2차 대전이후 일본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부가 이를 9개의회사로 분리한후 현재 10개의 전력회사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국영전력회사 시절에는 수력발전이 위주였으나 현재는 원자력 및 화력 발전이 중심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수력비중도 크다.

전력의 주파수는 전력회사에 따라 다름.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동부 일본에 위치하고 있는 전력회사는 50헤르츠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반해 나고야 이서의 서부 일본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60헤르츠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의 전력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양질의 전력 때문인 것으로 말하여 지고 있다 또 대부분의 공단에서 초고압의 전력을 공급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즉 어느 공단이라도 10,000V 이상의 전압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60,000V 이상의 특별고압의 전력을 공급하는 공단도 많다

최근들어 일본은 제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요금의 인하를 위해 전력자유화를 더욱 확대 실시해오고 있어 향후 전력요금은 상당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 코스트 경쟁력 강화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통신

잘 정비되어 있으며 아무런 문제 없다.전화의 신청은 NTT에 하며, 신청후 1주일만 지나면 이용할 수 있다.

[참고]요금안내

일반 전화회선 요금 : 72,100엔

착신 전용회선 요금 : 43,000엔, 휴대전화의 소지가 용이함 : 3,500엔/월

시내전화는 NTT만을 이용해야 하나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의 경우는 상호경쟁하는 수개사를 이용할 수 있다.예컨대 시외전화의 경우 NTT 보다 DDI등 NTT 이외의 회사의 요금이 저렴하다. NTT이외의 회사 상호간에는 요금차 거의 없으며 NTT를 이용할 경우는 특별한 수속이 필요 없으나 여타 회사를 이용할 경우는 이들 전화회사에 이용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모뎀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필요하다(모뎀료 및 설치 공사비는 무료임)

국제전화의 경우는 3개의 회사(001, 0041, 0061)가 있는데 요금면에서 0041, 0061이 001보다 다소 저렴하나 최근 각전화회사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유치를 위해 점차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또한 국제전화는 시외전화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이나 공사가 필요 없으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르기에 앞서 이들 회사의 번호만 누르면 된다

전화요금체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TT 시내 및 시외통화 요금(3분통화시 요금. 심야 및 공휴일의 경우 할인요금이 적용되며. 시외전화의 경우 NTT 이외의 회사를 이용할 경우 최대 2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 시내 : 10엔
- . 20KM 이내 : 20엔
- . 30 " : 50엔
- . 40 " : 60엔
- . 60 " : 90엔
- . 80 " : 120엔
- . 100 " : 140엔
- . 160 " : 180엔
- . 320 " : 250엔
- . 320KM 이상 : 330엔

- IDC(0061) 일본 -> 한국간 국제전화 요금(3분당)
 - . 보통요금: 680엔(월-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7시에 적용됨)
 - . 할인요금: 550엔(토, 공휴일 및 월-금요일 오후 7시-23시에 적용됨)
 - . 특별할인요금 : 400엔(오후 11시 - 오전 8시간 적용)

3. 교통

철도, 자동차, 해운, 항공이 골고루 발전되어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철도교통은 잘 발달되어 있다. 자동차교통은 비싼 지가등으로 인해 구미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져 있음. 그러나 주요 도로는 대부분 포장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간의 도로는 고속화 되어 있다. 현재 일본의 교통수단별 비중은 여객수송에 있어서는 자동차 60%, 철도 40%의 비율이며, 화물수송은 철도 5%, 자동차 47%, 해운 47%의 비율이다.

그중 철도는 가장 일반적인 도시내 교통수단으로 대도시 및 대도시 주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으며 도시간 승객 이동수단으로서도 40%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일본의 철도는 하드웨어면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나 정확성이나 안전성등 소프트웨어의 면에서 특히 뛰어나다. 1일 철도 운행편수(지하철등 도시내 철도 제외)는 1일 약 30,000편이며 도시간, 혹은 도시근교 이동시에는 여러 회사의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장거리의 도시간 이동시에는 1987년 국철에서 부터 민영화된 JR(6개의 회사가 있음)을 이용해야 한다. JR은 지역적으로 독립된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갈아 탈 필요가 없으며 티켓을 여러번 구매할 필요도 없다

자동차는 일본의 교통수단의 중심이나 자동차대수에 비해 도로가 비좁아 대도시 주변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관동지역,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긴끼지역의 교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항공의 경우 지형적으로 활 모양으로 길게 남북으로 뻗어있는 특수한 일본지형 관계로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항공 교통상의 요지는 도쿄,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오카야마, 나하이며 동 지역에서는 일본의 주요 도시와 항공으로 연결된다.

[참고] 도쿄에서 주요 도시까지의 항공요금(2005년 6월10일 현재 기준)

- . 도쿄 - 삿포로 : 23,300엔
- . 도쿄 - 나고야 : 17,700엔
- . 도쿄 - 오사카 : 19,200엔
- . 도쿄 - 히로시마 : 26,700엔
- . 도쿄 - 후쿠오카 : 24,300엔
- . 도쿄 - 가고시마 : 25,800엔
- . 도쿄 - 나가사키 : 27,100엔
- . 도쿄 - 나하 : 35,100엔
- *주 : 도쿄-나고야간은 나리타 출발

- 항공회사는 전국을 커버하는 JAL, ANA가 있으며 일부 지역만을 커버하는 SWAL, JAS, JAC, ANK, NCA, NAW, JAIR이 있음.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항공사로는 NAL, CAM 이 있음

4. 상하수도

구미선진국보다는 못하나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이용요금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근년 조성된 공단에서의 상수도 이용요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와키 요시마 중핵 공업단지
상수도 : 142엔/ 입방미터, 공업용수 : 49엔/ 입방미터
- 요네자와 하찌만바라 공업단지
상수도 : 255엔/ 입방미터, 공업용수 : 30엔/ 입방미터
- 센다이 북부 공업단지
상수도 : 240엔/ 입방미터, 공업용수 : 37엔/ 입방미터

67. 노동여건

1. 고용계약

일본에서도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이 있으나 고용계약에 의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용주와 노동자간에 합의 되고 관련 정부부처에서 승인한 취업규칙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노동의 평등성 및 기업의 취업에 대한 통일성, 균질성 유지를 위함이다.

동 취업규칙은 노동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하여 지는데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주요사항은 임금규정, 표창규정, 복리 후생규정, 해고규정 등이다.

[참고]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내용(노동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의무적 기재사항 >

- . 1일간의 노동시간
- . 휴식시간
- . 휴일
- . 임금(상여금등 제외)에 관한 결정, 계산방법, 지불방법, 지불시기
- . 승급 및 임금동결
- . 규칙적용범위

< 임의적 기재사항 >

- . 퇴직 및 퇴직수당
- . 임시임금 및 최저임금
- . 안전위생, 취업훈련
- . 재해보상 및 상병부조
- . 표창 제재등

2)휴가제도 : 전항에서 설명하는 취업규칙에 의함

3)노동보험

- 노재보험
 - . 근거법 :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법
 - . 관할부처 : 노동성
 - . 적용범위
 - .. 노동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 사무소
 - .. 공무원및 선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선원은 적용대상 아님
 - . 보험가입주체 : 사업주
 - . 벌칙
 - .. 불가입시 및 허위신청시
 - / 사업주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 / 총무 또는 인사담당자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
 - .. 법률시행과 관련된 검사의 거부 또는 기피
 - / 불가입시 및 허위신청시와 동일
 - . 보험료 : 피고용자의 전소득(중식대, 통근수당, 상여등 피고용자가 고용주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소득) X 6/1000. 보험료는 전액고용주가 부담하며 피고용자의 부담분은 없음
 - . 보험급부: 업무상 부상, 질병, 장애, 사망등의 경우 당해 노동자나 혹은 그 유족에 대해 보험료 급부
- 고용보험
 - . 근거법 : 고용보험법

- . 관할부처 : 노동성
- . 적용범위
 - .. 노동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 사무소
 - ..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 주당 22간 이내 노동자
 - / 연간 수입 90만엔 이하의 노동계약
 - / 공무원 및 선원
- . 보험가입주체 : 사업주
- . 벌칙
 - / 불가입시 및 허위신청시
 - // 사업주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 // 총무 또는 인사담당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
 - / 법률시행과 관련된 검사의 거부 또는 기피
 - // 불가입시 및 허위신청시와 동일
- . 보험료: 피고용자의 전소득(중식대, 통근수당, 상여등 피고용자가 고용주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소득) X 11.5/1000. 고용주 및 피고용자가 나누어 보험료 부담
- . 보험급부 : 실업시 1년간 실업보험료 급부

4)급여기준

임금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 기본급< 본인(속인적)급 + 직무직능(능력)급> + 제수당
- 기능수당 + 개근수당 + 통근수당 + 가족수당(배우자+ 60세이상의 부모 + 22세 미만의 자녀) + 주택수당. 기타 벽지수당, 단신부임수당 등 케이스 바이케이스로 다수의 수당이 있음) + 상여금 + 퇴직금

최근의 일본의 임금체계의 경향으로 기본급의 병존형(속인급 + 능력급) 체계가 증가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50%이상, 중견기업(종업원 100 - 1,000명)의 경우 20% 전후, 중소기업의 경우 10% 전후의 비율로 이러한 체계에 의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50세 전후(기업에 따라서는 45세) 부터 기본급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이 되면 상승을 정지시키거나 삭감시키는 기업도 있다. 전체적으로 임금에서 차지하는 제수당의 비율 증가하고 있으며 참고로 중견기업의 평균적인 제수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참고]중견기업 평균제수당 내역

- 직책수당: 30,000엔, 기술수당 : 10,000엔, 장려수당 : 7,000엔,
- 가족수당: 16,000엔, 주택수상 : 11,000엔

[참고] 임금인상체계

- 정기승급(년1회) + 베이스인상(년1회) + 승급(격) 가산인상(년1회) 승급(격) 인상은 개개인의 근속년수와 능력에 따르며 일률적으로 전원 이 오르는 것은 아님

[참고] 일반적인 급여 구성 내역

- 총급여 : 100
- . 정기급여 : 74
 - / 소정내 급여(기본급, 제수당) : 67
 - / 소정외 급여 : 7
- . 특별급여 : 26
 - / 일시급여 : 상여금
 - / 기본급 인상액 차액의 소급지불등

5)초과근무 수당

노동기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 경우 8시간 이상 노동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근무의 임금 할증율은 25% 또는 25% 이상임(상한은 없음). 한편 시간외 근무가 오후 10시 - 오전 5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할증율 50% 이상이다. 또한 휴일근무시 할증율은 25%이며 오후 10시-오전 5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50%를 적용 받는다.

6)해고절차와 조건 : 고용절차 부분 참조

7)노조 결성 : 아무런 제한 없이 결성 가능하다

8)노조활동 보장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단체행동권등이 헌법이나 노동관련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측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고용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 황견계약(黃犬契約)
- 단체교섭의 거부
- 지배개입등

9)임금이외의 비용(FRINGE BENEFIT)

- 의무적 사항
 - 9-5에 명기된 각종 보험
 - 후생연금제도
- 관행적 사항
 - 휴직수당
 - 경조금
 - 기업연금제도
 - 저리융자제도
 - 재해위문금제도
 - 주택론의 이자지급제도

- 사원주택의 제공
- 자녀학자금보조

한편 프린지 베니피트의 총 임금지불에 대한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생산성 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프린지베니피트의 총급여에 대한 비율은 90년 약 15%정도이다. 이러한 프린지 베니피트는 기업간, 산업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일수록 프린지 베니피트지불이 많으며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 광업등의 분야에서 많으며 금융 보험업 역시 많다. 반면 도매 소매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의 프린지 베니피트는 전산업 평균에 비해 훨씬 적다.

10) 노동조합실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은 대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직도 협약체결비율이 낮은 상태에 있다.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85년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2003년 기준 노동조합원수는 10,531천명(총조합수는 63,955개), 조직율은 19.6%(1985년 28.9%, 1995년 23.8%)까지 떨어지고 있다.

최대 노동조합은 87년 단위노조를 통합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일본어로 렌고우)로 92년 기준 전체노조원의 60.9%가 가입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노동조합의 90% 이상은 기업별 조합이며 기업별 조합이 조합원의 80%를 수용하고 있다.

화이트칼라가 많은금융보험, 공공기업등의 조직율은 높은 반면 중소기업이 중심인 서비스업의 조직율은 높지 않다.

기업의 정규 종업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퇴직과 함께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점,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기업내에 근무하고 있으면 동일조합에 소속되고 조합의 간부도 동일기업 소속인점, 기업별 조합이 조직, 운영, 교섭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산별이나 상부단체가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나 조합의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점, 조합의 의사결정에 많은 조합원이 참가하고 조합간부의 관료적 의사결정이 드문점 등이 일본의 노동조합 활동의 특징이다

11) 노동 생산성

노동생산성은 투입된 노동량에 대해 어느정도 산출이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노동투입량으로는 취업자수, 노동시간등이, 산출에는 생산량, 부가가치액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경제생산성본부는 생산지수를 연노동자투입량(사용고용자수X 총실노동 시간 지수)로 나누어 노동생산성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경제성장, 임금인상의 원동력이 되며 노동생산성의 시계열.국제간의 비교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효하다. 2001년현재(2004년 국제통계기준)일본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12) 기타사항

장기적인 불황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경향이 지속되어왔으나 2002년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오면서 2003년이후는 임금수준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기업의 2005년 봄(춘투)의 평균 임금인상율은 1.86%(2003년1.54%)로 노사간에 합의 되었다.

68.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개요

1)소득보장제도

소득보장은 연금제도와 생활보호제도에 의해 이루어 진다.

연금제도는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과 농림어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2대 제도가 있고 이외에 선원보험,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공공기업체직원공제조합, 농림어업 단체 직원 공제 조합,사립학교 교직원 공제조합 등이 있다.

동 제도는 모두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운영되는데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일정한 보험급부가 지급된다. 생활보험제도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생활비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여 피보험자의 연령, 성, 세대구성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2)사회복지

노약자, 심신장애자, 아동등에 대한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과거 최저생활 보장을 최대목표로 하고 자립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에 수용하고 그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의 정비와 운영에 주력했으나 핵가족화, 경제 성장, 전반적인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최근에는 봉사원의 파견, 생활에 관련된 각종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선행정기관과 각종 사회복지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노약자, 심신장애자등 생활 능력이 없는자를 발견하여 보호하고 있다.

3) 사회보장제도 체계

가) 사회보험과 관계제도

- 의료보험 : 건강보험, 선원보험, 각종 공제조합, 국민건강보험
- 연금보험 :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각종공제조합
- 기 타 : 개호보험, 고용보험,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공무원재해보상, 아동수당, 은급,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 원조

나) 공적부조 : 생활보호

다) 공적서비스 :

- 사회복지 : 아동복지, 모자및 과부복지, 신체장애자복지, 정신박약자복지, 노인복지

- 공중위생.의료 : 노인보건, 건강증진대책, 난병전염병대책, 보건소서비스, 의료기관 의료 종사자 정비, 의약품 제조판매보관 사용규제, 약해대책
- 환경대책 : 생활환경정비, 공해대책, 자연보호 등

최근의 동향으로서는 고이즈미개혁 즉, 우정사업민영화, 사회보험개혁, 3위일체 개혁, 금융.산업재생 등의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사회보험을 의료, 개호(간병)보험을 포함하는 일체화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오고 있고 또한 이 같은 사회보험개혁의 일환으로서 소비세를 증세하는 방안의 적부성 여부도 포함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69. 현지 생활여건

1. 현지 생활 여건

○ 치안은 양호

치안은 양호한 편으로, 웬만한 곳은 여자가 혼자 밤거리를 거닐 수 있을 정도이다. 범죄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극히 낮다. 특히 뺑소니차의 검거율은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 건수도 적다.

○ 주거 여건은 취약

일본의 집은 맨션(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목조) 등의 집합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나, 대부분의 집 면적은 40-70s/m에 불과, 우리나라에 비해 좁다.

전세제도는 없으며, 월세가 대부분이고 임차보증금등 초기 소요 비용은 지방에 따라 상이하다.

* 집의 기준 : 1K, 1DK, 2K, 2DK, 2LDK, 3K, 3DK, 3LDK, 4LDK 등
(아라비아 숫자는 방의 수, L=Living Room, D=Dining Room, K=Kitchen)

관리비, 전기, 가스요금, 전화요금은 월별로 청구되며, 수도 및 TV수신료(NHK가 징수)는 2개월에 한 번 청구된다. 은행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 의생활과 식생활

전혀 문제가 없다. 식료품도 슈퍼마켓에서 김치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이며, 대도시에는 한국 산 식재를 살 수 있는 시장(동경의 경우, 신죽구 쇼칸도리)도 있다.일반 가정용 식품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며, 생활 필수품 가격도 저렴한 것이 많다.

○ 서비스 요금

서비스 요금은 극히 높다. 예를 들어 택시의 기본요금은 660엔(약6,600원) 정도이며, 온천지의 여관의 요금(1박 2식)은 1인당 150,000-300,000원 정도이다. 철도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기차로 4인 가족이 2박 3일 간 국내 여행하면 200-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호텔 요금은 방(룸)기준이 아니라, 인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점에 주의한다.

○ 자녀 취학문제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자녀 취학문제에는 어려움이 없다. 현지학교의 입학도 가능하다. 한국 학교도 초등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으며, 미국계, 영국계등의 학교도 있다. 다만, 외국계학교의 취학시는 수업료 등이 고가이다.

○ 차량문제

차량의 소지하는데는 별반 어려움이 없으며,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 주차장을 별도로 준비하여야 가능하다. (도심지의 주차장 이용시는 월 70,000-80,000 엔, 주택지의 경우는 25,000엔에서 50,000엔대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

○ 빈번한 지진

한국에서는 잘 느끼지 못한 지진발생으로, 일본 생활를 처음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지진은 두려운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형 직하형 지진이 아니고 중소규모의 빈발하는 지진인 경우 점차 익숙해지면 큰 문제는 없지만, '95년 고베대지진, 2004년 10월의 니이가타현 츠에츠 지진, 2005년의 후쿠오카지진을 비롯하여 유럽 등 여타 지역에서도 대지진이 빈발(예 : 2005년초의 동남아 대지진 등)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관동지역에서의 대형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지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지진발생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필요한 실정이다.(끝)

70.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1. 집 구하기

일본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외국인등록, 국민건강보험부보, 은행구좌개설, 은행대출 등이 불가능하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희망지역의 부동산업자(복덕방)을 접촉하여 물건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도일하기 직전에 인터넷으로 해당지역의 임대물건을 물색해 보거나, 최소한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업자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그밖에 임지에 사무실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아파만(아파트맨션)정보' 등의 주간지를 보고 부동산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집의 도면 등을 팩스로 받아 본 다음, 현지를 방문하는 편이 한 번에 많은 물건을 볼 수 있어 좋다.

부동산업소에 비치된 물건 내역을 보면, 임대조건, 가장 가까운 역으로부터의 도보 소요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도보소요시간은 실제 걸어보면 2-5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통상 00역 도보 3분과 00역 도보 13분은 동일한 물건의 경우도 월

임차료가 5,000-10,000엔 정도 차이가 있다.

집을 고르는 요령은 사람에 따라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 도로나 철로 인근의 경우, 의외로 소음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특히 야간) 유의해야 하며, 다이에, 이토요카도, 자스코, 세이유 등 대형슈퍼가 인근에 있는 경우가 물가가 저렴하며,
- 부근에 유흥가가 있을 경우 소란하고, 사고도 많다.
- 건축연수가 오래된 경우, 임대료는 싸지만 입주 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차고증명이 있어야 하나, 아파트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업자에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주차장도 별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도쿄는 월30,000-50,000엔전후, 기타 지역은 월 25,000-35,000엔 정도이다. 자동차등록 시 차고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고증명을 차고지(주차장)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별도로 수수료를 50,000엔 정도 지불하여야 하며, 주차장에 대한복비(통상 1개월치)도 지불해야 한다.

임대조건 중 보증금은 네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에어컨이 방마다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월 5,000엔 정도 임차료를 올려주고 1대를 추가로 달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점(거주기간을 감안, 직접 구입하는 것과 어느 쪽이 이익인지 고려해 보아야 함) 등을 감안하여 네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주인이 종종 있으므로, 미리 부동산업자에게 그런 집은 보여주지 않도록 지시해 두고, 회사계약 (법인계약이라고도 하며,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되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통보해 주면 집 구하기가 수월하다. 일본인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실 현지직원의 양해를 얻어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대비도 필요하다.

통상 부동산업자만 만나고 집 주인과 대면할 기회가 없으므로, 집을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업자에게 연락을 해 두어야 하며, 퇴거시 원상복구비를 물어야 하므로(오사카의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정액으로 공제되므로 큰 문제는 없음), 못구멍, 벽의 흠집, 창이 알루미늄샷시의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2. 행정절차

집을 구하고 나면,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2매)이 필요하다. 외국인등록 후 외국인등록증발급까지는 2주-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외국인 등록 신청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시청(구청) 내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담당창구로 가서 건강보험신청을 하게 되는데, 월말에 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일할 계산하지 않고 1개월치 보험료를 전액 징수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전화신청

전임자의 것을 인수하거나, 가까운 전화국에서 신청하면 되나, 인계절차는 까다로우므로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신규신청은 70,000엔 정도 소요된다. 휴대전화는 10,000엔 정도, 간이휴대전화(PHS)는 무료로 가입가능하다.

4. 구좌개설

우선 집세 자동이체를 위한 구좌개설이 필요하다. 구좌를 개설할 때, 집세 외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해 두면 편리하다. 구좌는 지정망이 확충되어 있는 산와, 다이이치칸교, 수미토모, 후지, 도쿄미츠비시, 사쿠라 은행 등 큰 은행에 개설하는 것이 좋다.

5. 비품 구입

일본의 경우, 집을 구할 때 아무런 집기나 비품도 없으므로 구입해야 할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물가를 감안하여 이삿짐으로 부칠 물건과 현지에서 구입할 물건을 사전에 면밀히 체크해 두어야 한다. 물론 현지인 또는 먼저 부임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가전제품 : 가전제품 양판점 또는 디스카운터 스토어 이용이 일반적임.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도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갖고 천천히 구입할 것을 권한다. 어디서 구입해도 신품의 경우 A/S에 문제는 없다. 물건에 따라서는 수출용으로 제작 되어 220V 겸용(일본은 100V)인 것도 있으므로 귀국후 사용하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가구 : 할인판매점에서 구입함. 이 때 책방에서 무료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통신판매 카탈로그 등을 보고 가격 비교를 면밀히 해 두는 것이 경제적임. 가전제품보다도 더욱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구입하는 것이 좋음.
- 기타집기 : 할인점이나 집 근처 대형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6. 현지차량 운행

- 차량의 구입가격은 별반 문제가 없으나, 유지비(주차료가 시내중심가 월80,000엔)과 주택의 차량 주차비 월 50,000엔이 소요된다.
- 교통위반에 대한 벌과금도 높은편이다. 주차위반은 80,000엔, 속도위반시 100,000엔 등이다.

71. 자녀 교육여건

1. 교육행정

교육의 수준과 내용, 재정지원에 대해 중앙부처인 문부성이 모든 교육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문부성의 통제와 개입은 일본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때로는 교육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정치 문제화하기도 하다.

교육경비는 국세, 지방세, 수업료, 학부모기부금등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지방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초등 및 중등 의무교육과정에는 소요 비용의 1/3정도를 지급하나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액은 크지 않다.

일본의 총교육비의 국민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율은 6% 정도이다.

2.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 취학전 교육 및 의무교육

- 취학전 교육기관인 보육원과 유치원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오고 있으나 타선진국에 비해 취학전 교육수준은 낮은 실정
-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각각 6년, 3년인데 진학률은 100%임

○ 고등학교, 기술학교

- 고등학교는 일반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교육과정이 전체의 60% 이상임. 교육기간은 3년이며 진학률은 94% 정도임

○ 대학교 등 고등교육

- 대학교등의 고등교육은 대중화되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고등교육기관을 운영 하고 있음. 대학진학률은 80년대 초까지는 상승하여 왔으나 이후 정체 혹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사회교육

- 일본의 사회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회관, 도서관, 박물관등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져오고 있음
- 이들 기관은 전국각지에 조직적으로 다수 설립되어 있어, 강연, 직업적 모임, 영화 상연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지는 성인교육의 중심기구가 됨

3. 외국인 학교 입학

- 도쿄지역의 경우 외국인학교 (미국계학교)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학교 과정은 입학금을 포함한 1년 수업료는 230만엔정도의 학비가 소요됨.

72. 진출기업/도쿄지역 한국진출기업 리스트

■ Geosan Japan Co., Ltd. 거산 저팬

City : Tokyo

Add : Rm. 301, Shiratori Haitzu, 23-23, Ikebukuro 2-Chome, Toshima-Ku, Tokyo

Tel : (81-3) 3988-9333

Fax : (81-3) 3988-8660

Pres : 이 순배

1) 무역업 2) 자동차용 내장재, 섬유제품, 일용잡화

3) 현지법인 4) 1997 5) 1 : 2 6) 15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거산섬유(주)

Add : 서울 광진구 능동 247-15 거산빌딩

Tel : (02) 444-7141

Fax : (02) 453-3123

Pres : 김양호

■ Kyobo Information & Commnication Co., Ltd. 교보정보통신

City : Tokyo

Add : J.H Sophia 1-30-4 Miyoshicho Fuchu-Shi, Tokyo, 183-0045

Tel : (81-42) 333-7695

Fax : (81-42) 333-4824

Pres : 조윤장

1) 정보서비스업 2) 소프트웨어 개발 3) 지사

4) 1983 5) 27 : 7 7) 360백만 $\yen$

8) 協榮生命 (90:10)

Ar Economic Holding Ltd. (60 : 40)

* 국내 모기업 : 교보정보통신(주)

Add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223

Tel : (02) 708-6700

Fax : (02) 708-6767

Pres : 유건

■ Kookmin Bank 국민은행

City : Tokyo

Add : Yurakucho Denki Bldg-N, 14F, 1-1, Yurakucho, Chiyoda-Ku, Tokyo 100-0006

Tel : (81-3) 3201-3411

Fax : (81-3) 3201-3410

Pres : 임재현

1) 금융업 3) 지법 4) 1992 5) 5 : 13

7) 4,590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국민은행

Add :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Tel : (02) 317-2114

Pres : 송달호

■ International Infomotion Center Japan & Korea Planning Ltd. 국제인포메이션센터 일한기획

City : Tokyo

Add : 902, 3-32-5. Hongo, Bunkyo-Ku, Tokyo

Tel : (81-3) 3818-4344

Fax : (81-3) 3818-4647

Pres : 박덕수

- 1) 무역업 2) 한국상품전반(100엔 이하상품 위주)
3) 현지법인 4) 1988 5) 0 : 5 6) 5백만 $\yen$
7) 280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한일맨파워(주)

Add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0-1

Tel : (02) 579-0411

Fax : (02) 579-0415

Pres : 박정부

■ Kungang Chemical Co., Ltd. 금강화학

City : Tokyo

Add : 8th. Floor, Norh Wing, Yurakucho Denki Bldg., 1-7-1, Yuraku-Cho, Chiyoda-Ku, Tokyo

Tel : (81-3) 3211-2339

Fax : (81-3) 3211-1634

Pres : 홍청

- 1) 제조업 2) 건축재료, 세라민, Float Glass
3) 연락사무소 4) 1992 5) 0 : 2

* 국내 모기업 : 금강(주)

Add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4

Tel : (02) 3480-5000

Fax : (02) 3480-5418

Pres : 정중순

■ Kumho Tire Japan, Inc. 금호타이어 저팬

City : Tokyo

Add : Inoue Bldg., 2F, 7-18, Hamamatsucho 2-Chome, Minato-Ku, Tokyo

Tel : (81-3) 3578-8641

Fax : (81-3) 3578-8672

Pres : 정현철

- 1) 무역업 2) 타이어, 화학공업약품
3) 현지법인 4) 1977 5) 2 : 3
6) 20백만 $\yen$ 7) 2,500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금호타이어(주)

Add :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10-1 아시안빌딩

Tel : (02) 758-1114

Fax : (02) 758-1516

Pres : 신형인

■ **Kia Japan Co, Ltd.** **기아 저팬**

City : Tokyo

Add : No.32 Mori Bldg., 4-30, 3-Chome, Shibakoen, Minato-Ku, Tokyo

Tel : (81-3) 3432-3611

Fax : (81-3) 3433-3966

Pres : 신명식

1) 무역업 2) 완성차, 자동차관련부품, 기계및설비

3) 현지법인 4) 1974 5) 11 : 14

6) 1,490백만¥ 7) 23,000백만¥

* 국내 모기업 : 기아자동차(주)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Tel : (02) 788-1514

Fax : (02) 788-1128

Pres : 유종열

■ **Nong Shim Co., Ltd.** **농심**

City : Tokyo

Add : Toranomon Jitsgyo Kaikan Bldg., 4F, 1-1-20, Toranomon, Minato-Ku, Tokyo

Tel : (81-3) 3595-0880

Fax : (81-3) 3595-0864

Pres : 김대하

1) 제조업, 무역업 2) 라면, 스낵 3) 연락사무소

4) 1981 5) 3 : 2

* 국내 모기업 : 농심(주)

Add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70

Tel : (02) 820-7114

Fax : (02) 820-7528

Pres : 이상윤

■ **Daelim Motor Co., Ltd.** **대림자동차공업**

City : Tokyo

Add : Tranomon 11 Mori Bldg., 3F, 2-6-4, Toranomon, Minato-Ku, Tokyo, 105-0004

Tel : (81-3) 3595-2414

Fax : (81-3) 3595-2415

Pres : 임영식

1) 제조업 2) Motorcycle 및 관련제품

3) 연락사무소 4) 1980 5) 1 : 0

* 국내 모기업 : 대림자동차공업(주)

Add : 서울 중구 필동 2가 16-6

Tel : (02) 267-6111

Fax : (02) 273-1993

Pres : 배명진

■ Daesang Japan Inc. 대상 저팬

City : Tokyo

Add : 1-11, Shinbashi 3-Chome, Minato-Ku, Tokyo, 105-0004

Tel : (81-3) 3580-8880

Fax : (81-3) 3580-8885

Pres : 성종현

- 1) 무역업 2) 조미료(Msg), 핵산, 감미료, 농수
산물, 한국식품, 의약품, 화성품 3) 현지법인
4) 1979 5) 4 : 8 6) 40백만 $\yen$
7) 9,600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대상(주)

Add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6-48

Tel : (02) 2209-500

Fax : (02) 236-8021

Pres : 고두모

■ Daishin Securities Co., Ltd. 대신증권

City : Tokyo

Add : Inamura Bldg., 1-9-2, Kayabacho, Nihonbashi, Chuo-Ku, Tokyo, 103-0025

Tel : (81-3) 3639-3787

Fax : (81-3) 3667-2723

Pres : 한영균

- 1) 금융업 3) 지점 4) 1996 5) 2 : 5
7) 1,000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대신증권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Tel : (02) 769-2000

Fax : (02) 769-2332

Pres : 김대송

■ Daewoo Electronics japan Co. Ltd. 대우전자

City : Tokyo

Add : Toranomom Mitsui Bldg., 9F, 3-8-1, Kasmigaseki, Chiyuda-Ku, Tokyo, 100-0013

Tel : (81-3) 3834-3177

Fax : (81-3) 3834-3188

Pres : 최규철

- 1) 건설업 2) 토목, 건설 3) 지점 4) 1988
5) 3 : 1 7) 40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주)대우

Add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Tel : (02) 259-3114

Fax : (02) 259-3113

Pres : 한용호

■ Daewoo Int'l Japan Corp. 대우 저팬

City : Tokyo

Add : Rm.906 Toranomom Mitsui Bldg., 3-8-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Tel : (81-3) 3224-7120/1

Fax : (81-3) 3224-7169

Pres : 황양연

- 1) 무역업 2) 철강, 가전, 식품전반, 기계 및 부품,
의류, 자동차, 전자부품, 화학 3) 현지법인
4) 1974 5) 31 : 69 6) 2,350백만
7) 282,700백만[₩]

* 국내 모기업 : (주)대우

Add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Tel : (02) 757-2114

Fax : (02) 753-9489

Pres : 장병수

■ Korea Travel Bureau 대한여행사

City : Tokyo

Add : Kotau Tower 6F, 1-6-8, Yurakucho, Chiyoda-Ku, Tokyo

Tel : (81-3) 3508-0225

Fax : (81-3) 3508-0227

Pres : 강윤구

- 1) 여행업 3) 연락사무소 4) 1970 5) 1 : 2

* 국내 모기업 : 대한여행사(주)

Add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5-11

Tel : (02) 585-4464

Fax : (02) 586-3567

Pres : 설영기

■ Korean Reinsurance Co. 대한재보험

City : Tokyo

Add : Aiu Bldg., 14F, 1-1-3, Marunouchi, Chiyoda-Ku, Tokyo

Tel : (81-3) 3201-1673

Fax : (81-3) 3215-5585

Pres : 심현호

- 1) 금융업 2) 보험 3) 연락사무소 4) 1969
5) 1 : 1

* 국내 모기업 : 대한재보험(주)

Add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Tel : (02) 37(02) 6000

Fax : (02) 739-3754

Pres : 박중원

■ **Korea Airline Co.,Ltd.** **대한항공 일본지역본부**

City : Tokyo

Add : Tokyo KAL Bldg., 6F, 4-15, Shiba 3-Chome, Minato-Ku, Tokyo, 105-0014

Tel : (81-3) 5443-3301

Fax : (81-3) 5443-3332

Pres : 김정익

1) 항공운송업 3) 지점 (일본내 26개소)

4) 1969 5) 38 : 470 6) 2,600백만 ¥

7) 33,800백만 ¥

* 국내 모기업 : 대한항공

Add : 서울 강서구 공항동 351

Tel : (02) 656-7114

Fax : (02) 656-7799

Pres : 조양호

■ **Donbo Travel Service Inc.** **동보여행사**

City : Tokyo

Add : 3-4-7, Mita, Minato-Ku, Tokyo

Tel : (81-3) 3457-0337

Fax : (81-3) 3457-0578

Pres : 이주현

1) 여행업 3) 지사 4) 1986 5) 1 : 1

7) 20백만 ¥

* 국내 모기업 : 동보여행사(주)

Add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8 기린빌딩

Tel : (02) 518-1671

Fax : (02) 517-3303

Pres : 이석형

■ **Dongyang Tinplate Japan Corp.** **동양석판 저팬**

City : Tokyo

Add : Lumine-Nihonbashi #1002, 16 11, Nihonbashi Hakozaiki-Cho, Chuo-Ku, Tokyo, 103-0015

Tel : (81-3) 3669-0651

Fax : (81-3) 3669-0653

Pres : 이동준

1) 무역업 2) Tinplate, Tinfree Steel, Copper-
Plated Steel 3) 현지법인 4) 1977

5) 1 : 1 6) 50백만 ¥ 7) 100백만 ¥

국내 모기업 : 동양석판(주)

Add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93

Tel : (02) 633-3311

Fax : (02) 676-7006

Pres : 손봉락

■ Dongwon Yang Securities. 동원증권

City : Tokyo

Add : Leorock Bldg., 6F, 2-10-10, Kayabacho, Nihonbashi, Chuo-Ku, Tokyo, 103-0025

Tel : (81-3) 5640-0125

Fax : (81-3) 5640-5405

Pres : 신상근

1) 금융업 3) 연락사무소 4) 1993 5) 1 : 1

* 국내 모기업 : 동원증권(주)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Tel : (02) 768-5000

Fax : (02) 768-5341

Pres : 김정태

■ Doosan Japan Co., Ltd. 두산 저팬

City : Tokyo

Add : No.11 Mori Bldg., 6F, 2-6-4, Toranomom, Minato-Ku, Tokyo

Tel : (81-3) 3508-2125

Fax : (81-3) 3508-2128

Pres : 김병구

1) 무역업 2) 소주, 김치, 맥주, 포장재, 동박적
총판, 식품관련기계, 자전제품 3) 현지법인

4) 1980 5) 3 : 5 6) 50백만 $\yen$

7) 7,413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두산상사(주)

Add :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두산빌딩 20층

Tel : (02) 759-6114

Fax : (02) 754-6160

Pres : 한일성

■ Doosan Electro-Materials Co., Ltd. 두산전자

City : Tokyo

Add : 2-6-4, Toranomom, Minato-Ku, Tokyo

Tel : (81-3) 3508-2260

Fax : (81-3) 3508-2128

Pres : 박익순

1) 제조업 2) Copper Clad Laminated Sheets

3) 연락사무소 4) 1992 5) 1 : 0

* 국내 모기업 : 두산전자(주)

Add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Tel : (0342) 780-7080

Fax : (0342) 707-7178

Pres : 이정훈

■ Lotte Confectionery Co. 롯데제과

City : Tokyo

Add : 20-1, Nishi-Shinjuku 3-Chome, Shinjuku-Ku, Tokyo, 160-0023

Tel : (81-3) 5388-5623

Fax : (81-3) 5388-5800

Pres : 김병화

1) 제조업 2) 과자, 아이스크림 3) 연락사무소

4) 1986 5) 3 : 0

국내 모기업 : 롯데제과(주)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가 23

Tel : (02) 670-6114

Fax : (02) 675-6600

Pres : 한수길

■ Medison Japan Co., Ltd. 메디슨 저팬

City : Tokyo

Add : Medison Japan Head Office Bldg., 1-32-4, Shinjuku, Shinjuku-Ku, Tokyo

Tel : (81-3) 3832-7230

Fax : (81-3) 3832-7231

Pres : 김승화

1) 무역업(수입판매) 2) 의료기기 3) 현지법인

4) 1995 5) 0 : 19 6) 42,935백만 ¥

7) 23,000백만 ¥

* 국내 모기업 : (주)메디슨

Add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3

Tel : (02) 556-9200

Fax : (02) 554-3027

Pres : 이민화

■ Pan Ocean Shipping Co., Ltd. 범양상선

City : Tokyo

Add : 3Fl, Izumi-Ochanomizu Bldg., 2-9-2, Hongo, Bunkyo-Ku, Tokyo, 113-0033

Tel : (81-3) 5800-3081

Fax : (81-3) 5800-3090

Pres : 심재윤

1) 해운업 2) 해상운송 3) 연락사무소

4) 1973 5) 3 : 1

* 국내 모기업 : 범양상선(주)

Add : 서울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빌딩 10층

Tel : (02) 316-5114

Fax : (02) 316-5296

Pres : 한기선

■ Samusung Life Insurance Co., Ltd. 삼성생명보험

City : Tokyo

Add : 16F, Hamacho Center Bldg., 2-31-1, Nihombashi-Hamacho, Chuo-Ku, Tokyo 103-0007

Tel : (81-3) 5641-9581

Fax : (81-3) 5641-9580

Pres : 오경석

1) 금융업 3) 연락사무소 4) 1985 5) 2 : 2

* 국내 모기업 : 삼성생명보험(주)

Add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Tel : (02) 751-8000

Fax : (02) 751-8100

Pres : 이수빈

■ Samsung Japan Corporation 삼성 Japan

City : Tokyo

Add : Hamacho Center Bldg., 2-21-1, Nihombashi-Hamacho, Chuo-Ku, Tokyo, Japan

Tel : (81-3) 5641-9820

Fax : (81-3) 5641-9821

Pres : 정준명

1) 무역업 2) 전자부품, 기계설비 등

3) 현지법인 4) 1975 5) 120 : 377

6) 8,000백만¥ 7) 480,000백만¥

* 국내 모기업 : 삼성물산(주)

Add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250

Tel : (02) 751-2114

Fax : (02) 751-2246

Pres : 이건희

■ Samusung Securities Co., Ltd. 삼성증권

City : Tokyo

Add : 16F, Hamacho Center Bldg., 2-31-1, Nihombashi-Hamacho, Chuo-Ku

Tel : (81-3) 5570-8191

Fax : (81-3) 5570-1370

Pres : 임용찬

1) 금융업 3) 연락사무소 4) 1995 5) 1 : 2

* 국내 모기업 : 삼성증권(주)

Add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6

Tel : (02) 726-0114

Fax : (02) 754-6118

Pres : 김현곤

■ Samyang Corporation 삼양사

City : Tokyo

Add : 8th Fl. The Asahi Seimei Hibiya Bldg 5-1 Yurakucho 1-Chome, Chiyoda-Ku

Tel : (81-3) 3501-2371

Fax : (81-3) 3501-0220

Pres : 신도현

- 1) 무역업 2) 화학, 섬유원부자재, Pe, 식품
3) 지점 4) 1972 5) 4 : 3 6) 157백만 $\yen$
7) 8,798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삼양사(주)

Add :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Tel : (02) 740-7114

Fax : (02) 743-7720

Pres : 김윤

■ **Samick Japan Co., Ltd. 삼익악기**

City : Sizuoka

Add : 553-5, Wada-Cho, Hamamatsu-Si, Sizuoka, Japan

Tel : (81-53) 467-0205

Fax : (81-53) 467-0206

Pres : 김형걸

- 1) 판매업 2) 악기(피아노) 3) 지사 4) 1990
5) 2 : 2 7) 85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주)삼익악기

Add : 인천시 부평구 청전2동 424

Tel : (032) 526-3333

Fax : (032) 524-4233

Pres : 안기봉

■ **Sanwa International Co., Ltd. 삼화인터내셔널**

City : Tokyo

Add : Monburan Bldg., 2F 3-5-13 Hishi-Nihonbashi, Chuo-Ku

Tel : (81-3) 3662-2305

Fax : (81-3) 3662-2302

Pres : 오정현

- 1) 무역업 2) 모피, 피혁의류, 일반의류
3) 현지법인 4) 1983 5) 2 : 4 6) 20백만 $\yen$
7) 400백만 $\yen$

■ **Saehan Japan Inc. 새한 저팬**

City : Tokyo

Add : Rm 2322B, Kasumigaseki Bldg., 3-2-5,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Tel : (81-3) 3580-3861

Fax : (81-3) 3580-3684

Pres : 김희수

- 1) 무역업 2) 테이프, Pet Film, Resin, 직물
3) 현지법인 4) 1978 5) 7 : 9 6) 90백만 $\yen$
7) 6,000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주)세한

Add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10

Tel : (02) 3468-7000

Fax : (02) 3468-7062

Pres : 이재관

■ **Seoul Bank** **서울은행**

City : Tokyo

Add : New Nisseki Bldg., 4-2, 3-Chome Marunouchi Chiyoda-Ku, Tokyo

Tel : (81-3) 3213-0901

Fax : (81-3) 3213-0975

Pres : 이태원

1) 금융업 3) 지점 4) 1983 5) 5 : 17

■ **Seah Japan Co., Ltd.** **세아 저팬**

City : Tokyo

Add : Bonfreeman Bldg., 7F 4-8, 3-Chome, Shinbashi, Minato-Ku, Tokyo

Tel : (81-3) 3501-1347

Fax : (81-3) 3501-1387

Pres : 유재섭

1) 무역업 2) 강광, 스테인레스 파이프

3) 현지법인 4) 1995 5) 4 : 3

6) 30백만 $\yen$ 7) 2,983백만 $\yen$

8) The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 Ltd (60 : 40)

* 국내 모기업 : 세아제강(주)

Add :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153

Tel : (02) 709-8600

Fax : (02) 797-2462

Pres : 조재철

■ **Sewon Japan Corp.** **세원 저팬**

City : Tokyo

Add : W203 Togo Bldg., 4-34, Toyo 2-Chome, Koto-Ku, Tokyo

Tel : (81-3) 5690-0571

Fax : (81-3) 5690-0573

Pres : 조환희

1) 무역업 2) 스크랩, 산화철, 입체주차설비, 난방

시스템 3) 현지법인 4) 19920 5) 1 : 41

6) 24백만 $\yen$ 7) 1,680백만 $\yen$

■ **Sindo Ricoh Co., Ltd.** **신도리코**

City : Tokyo

Add : Ginza Sanbankan Ii 3F, 3-11-11, Ginza, Chuo-Ku, Tokyo, 104-0061

Tel : (81-3) 3546-6281

Fax : (81-3) 3546-6288

Pres : 박종경

1) 무역업 2) 복사기, Fax의 부품 및 소모품

3) 지점 4) 1984 5) 2 : 3 6) 5,500백만[₩]

7) 5,052백만[₩]

* 국내 모기업 : (주)신도리코

Add :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22

Tel : (02) 460-1114

Fax : (02) 464-3194

Pres : 우석형

■ The Shilla Hotels & Resorts 신라

City : Tokyo

Add : Hotel Okura 511 10-4, Torano-Mon, 2-Chome, Minato-Ku, Tokyo, 105-8416

Tel : (81-3) 3586-7571

Fax : (81-3) 3586-7360

Pres : 김선창

1) 호텔업 3) 현지법인 4) 1975 5) 1 : 3

* 국내 모기업 : 호텔신라

Add :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2

Tel : (02) 230-3114

Fax : (02) 233-5073

Pres : 이길현

■ Shinsegae Departmnt Store Co., Ltd. 신세계백화점

City : Tokyo

Add : Rm203, Toranomom Laport 16-6, Tpranomom, 1Chome, Minato-Ku, Tokyo 105-0001

Tel : (81-3) 3507-0972

Fax : (81-3) 3507-0973

Pres : 정세원

1) 유통업 3) 연락사무소 4) 1988 5) 1 : 2

* 국내 모기업 : 신세계백화점

Add :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5-5

Tel : (02) 727-1234

Fax : (02) 727-1192

Pres : 지창렬

■ Shinhan Bank 신한은행

City : Tokyo

Add : Shiroyama Jt Mori Bldg., 9F 7-1 Toranomom 4-Chome, Minato-Ku, Tokyo

Tel : (81-3) 3578-9321

Fax : (81-3) 3578-9355

Pres : 이백순

1) 금융업 3) 지점 4) 1989 5) 6 : 13

* 국내 모기업 : 신한은행

Add :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9

Tel : (02) 756-0505

Fax : (02) 776-0569

■ Asiana Airlines 아시아나항공

City : Tokyo

Add : 1-12-32 Ark Mori Bldg., 16F Akasaka, Minatoku-Ku, Tokyo

Tel : (81-3) 5572-7664

Fax : (81-3) 5572-7655

Pres : 현동실

- 1) 항공운송업 2) 여객, 화물 3) 지점
- 4) 1989 5) 24 : 76 6) 350백만 ¥
- 7) 1,400,000백만 ¥

* 국내 모기업 : 아시아나항공

Add : 서울 강서구 오쇠동 47

Tel : (02) 669-8000

Fax : (02) 669-4001

Pres : 박삼구

■ Asiana Airlines 아시아나항공 센다이지점

City : Miyagi

Add : Taiyoseimeisendaiekikita Bldg., 12-30, Honmachi, 1-Chome, Aoba-Ku, Sendai-Shi, Miyagi

Tel : (81-22) 265-0034

Fax : (81-22) 265-0223

Pres : 강태근

- 1) 항공운송업 3) 지점 4) 1990 5) 1 : 9

* 국내 모기업 : 아시아나항공

Add : 서울 강서구 오쇠동 47

Tel : (02) 669-8000

Fax : (02) 669-4001

Pres : 박삼구

■ SK Guoup Japan Co., Ltd. SK그룹 저팬

City : Tokyo

Add : SK Bldg., 2-7-4, Nishi Shinbashi, Minato-Ku, Tokyo

Tel : (81-3) 3591-3231

Fax : (81-3) 3597-7989

Pres : 이상선

- 1) 무역업 2) 석유화학제품, Pe필름, 섬유, 생활
- 용품 3) 현지법인 4) 1969 5) 26 : 53
- 6) 1,500백만 ¥ 7) 152,000백만 ¥

* 국내 모기업 : SK상사

Add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36-1

Tel : (02) 758-2114

Fax : (02) 754-9414

Pres : 김승정

■ STC Japan Corporation 에스티시 저팬

City : Tokyo

Add : Nax Bldg., 4F, 3-2, Shinagawa 1-Chome, Chuo-Ku, Tokyo, 104-0033

Tel : (81-3) 3294-0141

Fax : (81-3) 3297-0147

Pres : 방대복

- 1) 무역업 2) 플라스틱 필름, 포장용 테이프,
 건전지 3) 현지법인 4) 1986 5) 1 : 3
6) 20백만¥ 7) 1,651백만¥

* 국내 모기업 : (주)서통

Add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32

Tel : (02) 6392-500

Fax : (02) 675-1595

Pres : 최좌진

■ LG Industrial Systems Co., Ltd. LG산전

City : Tokyo

Tel : (03) 3582-9128

Fax : (03) 3582-0065

Pres : 백승남

73. 진출기업/오사카지역 한국진출기업 리스트

■ Keibo Japan Ltd. 경방 Japan

City : Osaka

Add : Honmachi Wako Bldg., 10F, 2-1-7 Kita-Kyuhoji-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7

Tel : (81-6) 6261-0301

Fax : (81-6) 6261-0329

Pres : 한홍상

- 1) 제조, 무역 2) 면사, 면직물 수출 / 섬유기계
 수입 3) 현지법인 4) 1972 5) 1 : 3
6) 50백만¥ 7) 150백만¥

* 국내 모기업 : (주)경방

Add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Tel : (02) 639-6000

Fax : (02) 639-6399

Pres : 백남진

■ Daewoo Int'l Japan Corp. 대우 Japan 大阪지점

City : Osaka

Add : Nihonseimei Yodoyabasi Bldg., 8F, 3-5-29 Kitahama, Chuo-ku, Osaka, Japan 540-0041

Tel : (81-6) 6222-0848

Fax : (81-6) 6222-0865

Pres : 이경하

-
- 1) 무역 2) 철강, 의료, 화학제품 수출 / 철강,
전자제품 수입 3) 현지법인 지점 4) 1974
5) 6 : 7 6) 2,350백만¥ 7) 282,700백만¥

* 국내 모기업 : (주)대우

Add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Tel : (02) 759-2114

Fax : (02) 753-9489

Pres : 김우중

■ **Korean Air Lines Co., Ltd. 대한항공 大阪여객지점**

City : Osaka

Add : Kal Bldg., 2F, 3-1-9 Hon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3

Tel : (81-6) 6263-8601

Fax : (81-6) 6263-8879

Pres : 송영훈

- 1) 운수 2) 항공 3) 지사

* 국내 모기업 : 대한항공

Add : 서울 강서구 공항동 351

Tel : (02) 656-7114

Fax : (02) 656-7799

Pres : 조양호

■ **Tohmei Engineering Co., Ltd. 동명엔지니어링(주)**

Add : Tohon Bldg, 2-26-30 Minamikanda, Suita-shi, Osaka, Japan 564-0044

Tel : (81-6) 6380-3090

Fax : (81-6) 6380-3091

Pres : 전흥배

- 1) 무역 2) 기계 수출 3) 지사

■ **Samsung Japan Corp. 삼성물산 일본 현지법인 大阪支店**

City : Osaka

Add : Cristal Tower Bldg., 6F, 1-2-27

Shiromi, Chuo-Ku, Osaka, Japan 540-6001

Tel : (81-6) 6949-3002

Fax : (81-6) 6949-5133

Pres : 이수영

- 1) 제조 무역 2) 종합무역 3) 현지법인 지점

■ **Soko Trading Co., Ltd. 상호무역**

City : Osaka

Add : Kal Bldg., 3-1-9 Hon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3

Tel : (81-6) 6265-9070

Fax : (81-6) 6271-9960

Pres : 최상호

- 1) 무역 2) 섬유직물 수출입 3) 현지법인
4) 1997 5) 1 : 2 6) 10백만¥ 7) 520백만¥

■ Shinhan Bank 신한은행 大阪支店

City : Osaka

Add : Risona Senba Bldg. 3F, 4-4-21 Minami-Senba, Chuo-Ku, Osaka, Japan 542-0081

Tel : (81-6) 6243-2341

Fax : (81-6) 6243-2346

Pres : 임영진

1) 금융 2) 은행 3) 지점

■ Ssangyong Japan Corp. 쌍용 Japan 大阪支店

City : Osaka

Add : Honmachi Yamamoto Bldg., 8F, 4-1-10 Minami-Hon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4

Tel : (81-6) 6282-1414

Fax : (81-6) 6282-1420

Pres : 서덕근

1) 무역 2) 종합무역 3) 현지법인 지점

4) 1977 5) 6 : 16

* 국내 모기업 : (주)쌍용

Add : 서울 중구 저동 2-24-1

Tel : (02) 270-8114

Fax : (02) 270-8792

Pres : 안종원

■ CJ Japan Corp. 씨제이 코퍼레이션

City : Osaka

Add : Cristal Tower Bldg., 6F, 1-2-27 Shiromi, Chuo-Ku, Osaka, Japan 540-6006

Tel : (81-6) 6949-3563

Fax : (81-6) 6949-3044

Pres : 김찬호

1) 무역 2) 식품첨가물 수출 3) 사무소

4) 1998 5) 1 : 2

* 국내 모기업 : 씨제이 코퍼레이션

Add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00

Tel : (02) 726-8365

Fax : (02) 726-8749

Pres : 천주욱

■ Asiana Air Lines Inc. 아시아나항공 오사카지점

City : Osaka

Add : Epson Bldg., 18F, 3-5-1 Bakuromachi, Chuo-ku, Osaka, Japan

Tel : (81-6) 6282-1883

Fax : (81-6) 6282-1833

Pres : 양형은

1) 운수 2) 항공운송 3) 지사 5) 3 : 15

7) 3,000백만₩

* 국내 모기업 : 아시아나항공(주)

Add : 서울 강서구 오쇠동 47
Tel : (02) 669-8000
Fax : (02) 669-4001
Pres : 박삼구

■ LG Int'l Japan Ltd. LG Japan 大阪支店

City : Osaka
Add : Sakaisuji Honmachi Center Bldg., 13F, 2-1-6 Hon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3
Tel : (81-6) 6263-1621
Fax : (81-6) 6263-1623
Pres : 谷川 敏浩 (Toshihiro Tanagawa)
1) 무역 2) 전자제품, 농산물 수출입
3) 현지법인 지점

■ LG Electronics Japan Inc. LG전자 Japan 大阪營業所

City : Osaka
Add : 4F, 4-5-16 Hon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3
Tel : (81-6) 6267-4045
Fax : (81-6) 6267-4551
Pres : 山脇 伸五 (Shingo Yamawaki)
1) 무역 2) 전화제품 수출 3) 현지법인 지점

■ Kolon Industries Inc. 코오롱 大阪事務所

City : Osaka
Add : 3F, 3-1-11 Bingo-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1
Tel : (81-6) 6204-1007
Fax : (81-6) 6204-1155
Pres : 홍성안
1) 무역 2) 섬유제품, 화학제품 수출 / 원료 수입
3) 사무소 4) 1984
* 국내 모기업 : (주)코오롱
Add : 과천시 별양동 1-23 코오롱타워
Tel : (02) 3677-3114
Fax : (02) 3677-3389
Pres : 구광시

■ Kolon Int'l Corp. 코오롱상사 大阪支店

City : Osaka
Add : 3F, 3-1-11 Bingo-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1
Tel : (81-6) 6204-1007
Fax : (81-6) 6204-1155
Pres : 김경선
1) 무역 2) 섬유제품, 산업자재 수출 / 섬유자재,
화학원료 수입 3) 지사 4) 1971
5) 3 : 6 7) 5,500백만 ¥
* 국내 모기업 : 코오롱상사(주)

Add 서울 중구 무교동 45
Tel : (02) 311-7114
Fax : (02) 754-5314
Pres : 김흥기

■ **Posco Int'l Osaka Inc.**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오사카

City : Osaka
Add : Posco Osaka Bldg., 2F, 2-3-7 Namba, Chuo-Ku, Osaka, Japan 542-0076
Tel : (81-6) 6214-0970
Fax : (81-6) 6214-0971
Pres : 정준양

1) 무역 2) 철강제품 수출입 3) 현지법인

■ **Korea Exchange Bank** 한국외환은행 大阪支店

City : Osaka
Add : Nanba Plaza Bldg, 1-5-7 Moto-cho, Naniwa-ku, Osaka 556-0016
Tel : (81-6) 6630-2600
Fax : (81-6) 6630-2806
Pres : 오항섭

1) 금융 2) 은행 3) 지점 4) 1967

5) 4 : 18

* 국내 모기업 : (주)한국외환은행

Add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Tel : (02) 729-8000
Fax : (02) 776-9502
Pres : 홍세표

■ **Hankook Tire Japan Corp.** 한국타이어 일본법인

City : Osaka
Add : Naniwasuji Chuo Bldg., 7F, 2-2-2 Nishi-Hinmachi, Nishi-Ku, Osaka, Japan 550-0005
Tel : (81-6) 6538-5720
Fax : (81-6) 6538-7766
Pres : 김윤영

1) 무역 2) 타이어, 알로이 휠, бат데리

3) 현지법인 4) 1988 5) 3 : 8 6) 20백만¥

7) 1,000백만¥

* 국내 모기업 : 한국타이어(주)

Add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Tel : (02) 222-1000
Fax : (02) 222-1100
Pres : 조충환

■ **Hanjin Shipping Co., Ltd.** 한진해운 大阪支店

City : Osaka
Add : Kai Bldg., 9F, 3-1-9 Hon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3
Tel : (81-6) 6263-4450

Fax : (81-6) 6263-2230

Pres : 김형수

1) 운수 2) 해운 3) 지사 4) 1988

5) 3 : 40 7) 10,000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주)한진해운

Add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빌딩

Tel : (02) 3770-6114

Fax : (02) 3770-6746

Pres : 조수호

■ Hyundai Japan Co., Ltd. 현대 Japan 大阪支店

City : Osaka

Add : Yuseigojokai Shinsaibashi Bldg., Rm 702, 3-11-18 Minami-Senba,
Chuo-Ku, Osaka, Japan 542-0081

Tel : (81-6) 6251-4921

Fax : (81-6) 6245-7474

Pres : 이상대

1) 무역 2) 철강, 기계, 섬유 수출

3) 현지법인 지점 4) 1985 5) 2 : 6

7) 5,000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현대종합상사(주)

Add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Tel : (02) 746-1114

Fax : (02) 746-1092

Pres : 박세용

■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Co.,Ltd. 현대해상화재보험 大阪支店

City : Osaka

Add : Yuseigojokai Shinsaibashi Bldg., Rm702, 3-11-18 Minami-Senba,
Chuo-Ku, Osaka, Japan 542-0081

Tel : (81-6) 6245-5447

Fax : (81-6) 6245-7893

Pres : 고승문

1) 금융 2) 보험 3) 지사 4) 1979

5) 0 : 7 7) 500백만 $\yen$

* 국내 모기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Add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현대빌딩

Tel : (02) 732-1212

Fax : (02) 732-5687

Pres : 김호일

■ Hotel Lotte Co., Ltd. 호텔롯데 大阪事務所

City : Osaka

Add : Kal Bldg., 6F, 3-1-9 Hon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3

Tel : (81-6) 6263-1071

Fax : (81-6) 6263-2069

Pres : 김상민

- 1) 관광 2) 호텔예약 등 3) 지사

■ Gyosei Bussan Japan K.K. 효성물산일본 大阪支店

City : Osaka

Add : Osaka Kokusai Bldg., 13F, 2-3-13 Azuchi-Machi, Chuo-Ku, Osaka,
Japan 541-0052

Tel : (81-6) 6264-0778

Fax : (81-6) 6261-0884

Pres : 이철주

- 1) 무역 2) 철강, 섬유, 잡화 수출
3) 현지법인 지점

74. 진출기업/후쿠오카지역 한국진출기업 리스트

■ Korean Air Lines Co., Ltd. Fukuoka Branch 대한항공 후쿠오카지점

City : Fukuoka

Add : Hakata Bldg. 1F, Chuo-Gai 8-36, Hakataekimae, Fukuoka-City, Fukuoka 812-0011 Japan

Tel : (81-92) 441-3348

Fax : (81-92) 441-7299

Pres : 최백운

- 1) 항공 2) 여객, 화물 3) 지점 4) 1964
5) 3 : 53

* 국내 모기업 : (주)대한항공

Add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360-1

Tel : (02) 656-7114

Fax : (02) 656-7179

Pres : 조양호

■ Asiana Air Lines Inc. Fukuoka Branch 아시아나항공 후쿠오카지점

City : Fukuoka

Add : 1F Shimazu Hakada Bldg., 4-20 Reisen-cho, Hakada-ku, Fukuoka Japan 812-0013

Tel : (81-92) 283-4029

Fax : (81-92) 283-4044

Pres : 김철민

- 1) 항공 2) 여객, 화물 3) 현지법인의 지점
4) 1990 5) 3 : 18

* 국내 모기업 : (주)아시아나항공

Add :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47

Tel : (02) 669-8000

Fax : (02) 669-4001

Pres : 박삼구

■ Posmetal Co., Ltd. 포스탈 일본 현지법인

City : Kitakyushu

Add : 1-85-7, Hibikimachi, Wakamatsu-Ku, Kitakyushu-City Fukuoka, 808-0021 Japan

Tel : (81-93) 751-6641

Fax : (81-92) 751-6644

Pres : 김광명

1) 제조, 판매 2) 철강(열연, 냉연강판 및 대강)

3) 현지법인 4) 1994 5) 3 : 20

6) US\$ 3백만 8) 95 : 5

* 국내 모기업 : 포스틸(주)

Add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빌딩

Tel : (02) 3469-6001

Fax : (02) 3469-6721

Pres : 권순호

■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Fukuoka Office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City : Fukuoka

Add : 6F, Asahi Bldg., 2-1-1, Hakataekimae, Hakata-Ku, Fukuoka-City, Fukuoka 812-0011 Japan

Tel : (81-92) 471-7174

Fax : (81-92) 474-8015

Pres : 강중석

1) 서비스 2) 관광정보 제공, 홍보 3) 사무소

4) 1976 5) 3 : 2

* 국내 모기업 : 한국관광공사

Add : 서울시 중구 다동 10

Tel : (02) 757-6030

Fax : (02) 757-5997

Pres : 홍두표

■ Shinhan Bank, Fukuoka Branch 한국신한은행 후쿠오카지점

City : Fukuoka

Add : 8F, Tenjin Mitsui Bldg, 2-14-13, Tenjin, Chuo-Ku, Fukuoka-City, Fukuoka 810-0001 Japan

Tel : (81-92) 724-7004

Fax : (81-92) 724-7003

Pres : 김일조

1) 은행 2) 금융 3) 지점 4) 1997 5) 3 : 7

* 국내 모기업 : 한국신한은행

Add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120

Tel : (02) 756-0505

Fax : (02) 774-7013

Pres : 라응찬

75. 진출기업/나고야지역 진출 한국기업 리스트

○ 한국관광공사 나고야지사

- 주소 : 〒461-0005 名古屋市 東区 東桜 2丁目 13-30 トヨペットニッセイビル 2階

2Fl., Toyopet Nissei Bldg, 13-30, 2-Chome, Higashi Sakura, Higashi-Ku,
Nagoya-Shi, 461-0005 JAPAN

- 전화 : 81-52-933-6550
- 팩스 : 81-52-933-6553
- 대표 : 박병남 지사장
- 홈페이지 : <http://japanese.tour2korea.com/nagoya>
- 국내 모기업 : 한국관광공사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 포스코 나고야사무소

- 주소 : 〒450-0002 名古屋市 中村区 名駅 4丁目 11-27 第2豊田ビル東館 407号
407 Daini Toyota Bldg Higashi-Kan, 11-27, 4-Chome, Meieki, Nakamura
-Ku, Nagoya-Shi, 450-0002 JAPAN
- 전화 : 81-52-561-1185
- 팩스 : 81-52-561-1184
- 대표 : 손창환 소장
- 홈페이지 : <http://www.posco.co.kr>
- 국내 모기업 : 포스코 (POSCO)

○ 대우재팬 나고야지점

- 주소 : 〒460-0008 名古屋市 中区 栄 2丁目 3-1 名古屋広小路ビル 6階
6Fl., Nagoya Hirokoji Bldg, 3-1, 2-Chome, Sakae, Naka-Ku, Nagoya-Shi,
460-0008 JAPAN
- 전화 : 81-52-222-3717
- 팩스 : 81-52-222-3719
- 대표 : 윤경택 지점장
- 홈페이지 : <http://www.daewoo.com>
- 국내모기업 : 대우인터네셔널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 대한항공 나고야지점

- 주소 : 〒450-0003 名古屋市 中村区 名駅南 2丁目 14-19 住友生命名古屋ビル 20階
20Fl., Sumitomo Seimei Nagoya Bldg, 14-19, 2-Chome, Meieki Minami,
Nakamura-Ku, Nagoya-Shi, 450-0003 JAPAN
- 전화 : 81-52-586-3323
- 팩스 : 81-52-586-3313
- 대표 : 박제만 지점장
- 홈페이지 : <http://www.koreanair.co.kr>
- 국내모기업 : 대한항공 (Korean Air Lines Co., Ltd)

○ 아시아나항공 나고야지점

- 주소 : 〒460-0003 名古屋市 中区 錦 2丁目 4-3 錦パークビル 12階
12Fl., Nishiki Park Bldg, 4-3, 2-Chome, Nishiki, Naka-Ku, Nagoya-Shi,
460-0003 JAPAN

- 전화 : 81-52-222-7845
- 팩스 : 81-52-222-7922
- 대표 : 조계환 지점장
- 홈페이지 : <http://flyasiana.com>
- 국내모기업 :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 Lines Inc)

76. 주요 경제지표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전망치)
국내총생산(GDP)	501.3 (조엔)	505.1 (조엔)	511.5 (조엔)
국민소득(NI)	367.8 (조엔)	373.0 (조엔)	377.4 (조엔)
노동력인구	6,662 (만명)	6,640 (만명)	6,625 (만명)
취업자총수	6,320 (만명)	6,330 (만명)	6,320 (만명)
완전실업률	5.1 (%)	4.7 (%)	4.6 (%)
광공업생산지수(증감율)	3.5 (%)	4.0 (%)	1.8 (%)
국내기업물가지수(변화율)	-0.5 (%)	1.4 (%)	0.4 (%)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0.2 (%)	-0.1 (%)	0.1 (%)
수출액	53.4 (조엔)	59.4 (조엔)	63.0 (조엔)
수입액	40.1 (조엔)	46.0 (조엔)	50.0 (조엔)
무역수지	13.3 (조엔)	13.4 (조엔)	13.1 (조엔)
경상수지	17.3 (조엔)	18.4 (조엔)	19.9 (조엔)

* 자료원 : 일본은행 (2005.1.26일 발표자료)

77. 대외거래지표/일본의 대외거래 지표

연도	무역(서비스포함)수지	상품	서비스
1999	68,711	122,900	△ 54,189
2000	69,203	116,805	△ 47,602
2001	26,579	70,317	△ 43,738
2002	51,641	93,802	△ 42,161
2003	72,271	106,136	△ 33,865
2004	94,067	132,002	△ 37,935
2002. 1	△ 632	2,549	△ 3,181
2	4,487	6,839	△ 2,352

3	8,388	10,713	△ 2,325
4	3,482	7,569	△ 4,087
5	2,530	5,699	△ 3,169
6	7,878	10,950	△ 3,072
7	3,616	7,576	△ 3,960
8	3,390	6,737	△ 3,347
9	5,683	9,989	△ 4,306
10	3,748	8,677	△ 4,929
11	5,470	8,644	△ 3,174
12	3,601	7,860	△ 4,259
2003. 1	△ 1,436	2,402	△ 3,838
2	6,459	9,104	△ 2,645
3	7,722	9,697	△ 1,975
4	5,370	8,407	△ 3,037
5	5,741	7,025	△ 1,284
6	6,525	8,341	△ 1,816
7	5,987	8,174	△ 2,187
8	5,283	7,995	△ 2,712
9	7,934	10,998	△ 3,064
10	6,546	11,389	△ 4,843
11	8,081	10,645	△ 2,564
12	8,059	11,959	△ 3,900
2004. 1	2,930	6,273	△ 3,343
2	12,455	14,619	△ 2,164
3	10,300	12,229	△ 1,929
4	7,151	11,917	△ 4,766
5	7,842	10,167	△ 2,325
6	8,799	12,084	△ 3,285
7	8,513	12,541	△ 4,028
8	4,795	7,082	△ 2,287
9	9,661	12,910	△ 3,249
10	7,477	12,449	△ 4,972
11	4,557	7,155	△ 2,598
12	9,587	12,576	△ 2,989
2005. 1	△ 330	3,478	△ 3,808
2	10,325	11,837	△ 1,512
3	9,925	11,701	△ 1,776

단위 : US\$100만

자료원 : 재무성, JETRO

78.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주요교역현황(2004년도)

<일본의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미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년	2004 년	증감율
1	미국	115,908	127,102	9.66
2	중국	57,474	73,972	28.7
3	한국	34,828	44,282	27.15
4	대만	31,314	42,053	34.29
5	홍콩	29,913	35,439	18.47
6	태국	16,044	20,294	26.49
7	독일	16,409	18,985	15.7
8	싱가포르	14,846	17,991	21.19
9	영국	13,206	14,999	13.58
10	네덜란드	11,759	13,397	13.93
11	말레이시아	11,256	12,575	11.71
12	오스트레일리아	9,922	11,820	19.13
13	필리핀	9,007	9,608	6.67
14	인도네시아	7,178	9,082	26.53
15	프랑스	7,080	8,370	18.21
16	캐나다	7,371	7,652	3.82
17	벨기에	5,772	7,226	25.19
18	이탈리아	5,496	6,466	17.65
19	파나마	5,435	6,063	11.55
20	멕시코	3,642	5,195	42.64
	전체	471,913	566,191	19.98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일본의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미백만불, %)

순위	국가	2003 년	2004 년	증감율
1	중국	75,579	94,446	24.96
2	미국	58,931	62,563	6.16
3	한국	17,931	22,068	23.07
4	오스트레일리아	15,060	19,466	29.26
5	인도네시아	16,434	18,714	13.87
6	사우디아라비아	14,569	18,509	27.04
7	아랍에미레이트	14,340	18,360	28.03
8	독일	14,228	17,095	20.15
9	대만	14,315	16,701	16.67
10	말레이시아	12,599	14,125	12.12
11	태국	11,896	14,118	18.68
12	캐나다	7,520	8,414	11.89
13	프랑스	7,239	8,359	15.47
14	이란	7,442	8,277	11.22
15	필리핀	7,052	8,253	17.03
16	카타르	6,524	7,898	21.05
17	이탈리아	6,103	6,906	13.16
18	영국	5,850	6,666	13.94
19	싱가포르	5,446	6,295	15.59
20	쿠웨이트	4,564	5,758	26.17
	전체	383,361	455,661	18.86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79.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주요품목별 수출입동향

<주요 품목별 수출입통계 >

(단위: US\$백만)

	품목	2001年	2002年	2003年	2004年
수출	식료품	3,002	2,144	2,304	2,617
	섬유 및 섬유제품	7,566	7,333	7,754	8,606
	화학제품	30,923	33,290	38,944	48,245
	비금속광물제품	4,714	4,513	5,102	6,263
	금속 및 금속제품	23,873	25,765	29,175	37,513
	기계기기	293,956	299,624	338,522	403,629
	-일반기기	84,658	84,558	94,964	116,453
	-전기기기	95,469	95,282	110,836	132,708
	-수송용기기	92,075	103,665	114,135	130,360
	-정밀기기	21,754	16,119	18,588	24,108
	-기타	41,120	43,192	48,061	58,167
	합계	405,155	415,862	469,862	565,039
수입	식료품	43,394	42,105	43,915	48,994
	원료품	21,404	20,108	22,833	28,429
	광물성연료	70,574	65,284	80,273	98,636
	화학제품	25,673	25,853	29,737	35,245
	섬유제품	23,911	21,989	24,242	27,062
	비금속광물제품	4,470	4,368	4,738	5,466
	금속 및 금속제품	15,058	13,585	16,481	23,370
	기계기기	109,465	107,102	120,323	142,183
	기타	37,149	36,436	38,986	45,284
	합계	351,098	336,832	381,528	454,669

자료원 : 재무성, JETRO

80.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동향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04		2005(1월~0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385,062	15.2	807,895	4.1
1	85	전기기기	689,263	7.2	197,805	-16.4
2	84	보일러, 기계류	366,584	21.8	126,009	-0.1
3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314,885	8.6	118,609	12.1
4	72	철강	176,086	60.9	81,258	49.1
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83,137	8.8	31,614	21.6
6	00	기타	64,762	49.3	26,607	73.8
7	29	유기화합물	80,987	59.8	23,897	23.2
8	73	철강제품	54,084	17.7	20,598	26.9
9	03	어패류	66,227	6.2	18,940	-11.4
10	90	광학, 의료, 정밀기기	35,054	16.2	12,154	4.2

단위 : 백만엔, %

자료원 : KOTIS

81.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우리나라의 대일 수입 동향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04		2005(1월~0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785,617	19.0	1,600,964	1.6
1	85	전기기기	1,148,247	8.3	332,173	-17.2
2	84	보일러, 기계류	906,780	22.9	276,676	-7.1
3	72	철강	595,183	35.1	216,859	17.6
4	90	광학, 의료, 정밀기기	492,401	23.1	174,320	4.7
5	29	유기화합물	241,920	29.4	96,963	32.1
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11,492	31.3	78,007	13.8
7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135,139	20.3	60,106	39.6
8	00	기타	172,282	19.7	56,022	2.3
9	87	일반차량	109,623	2.5	38,354	11.9
10	70	유리	80,560	33.1	32,190	22.3

단위 : 백만엔, %

자료원 : KOTIS

82. 대외 투자진출 통계/대외직접투자실적추이

(단위 : 건, 억엔)

연 도	주식, 지분취득		대부		지점설치, 확장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6년	1,228	40,517	1,254	12,430	19	1,149	2,501	54,095
1997년	1,032	50,348	1,452	15,183	11	705	2,495	66,236
1998년	523	33,004	1,108	19,319	6	457	1,637	52,780
1999년	617	63,600	1,121	11,463	6	229	1,744	75,292
2000년	646	46,347	1,068	7,569	3	277	1,717	54,193
2001년	633	30,712	1,147	9,346	6	355	1,786	40,413
2002년	710	35,919	1,447	8,634	7	377	2,164	44,930
2003년	705	31,189	1,700	9,326	6	280	2,411	40,795
2003년 상반기	355	20,444	922	4,583	4	257	1,281	25,284
2004년 상반기	366	14,889	990	4,603	-	718	1,356	20,211

자료원 : 재무성

83.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외국인 투자유치통계(국별)

□ 주요국·지역별 외국인투자유치실적

(단위 : 건, 억엔, %)

구분	2002 년도		2003 년도		2004 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구성비
합계	1,465	21,863	1,431	21,161	745	22,308	100.0
미국	440	5,944	372	3,492	253	15,292	68.6
캐나다	6	614	12	908	-	-	-
케이만군도	324	2,037	322	2,923	94	177	0.8
싱가폴	34	228	44	1,486	25	231	1.0
홍콩	22	174	30	65	30	28	0.1
한국	40	31	41	38	11	208	0.9
대만	15	18	22	21	9	1	0.0
중국	29	3	20	3	10	4	0.0
말레이시아	1	0	3	0	1	1	0.0
네덜란드	60	3,926	61	3,164	29	2,851	12.8
독일	47	1,195	46	1,326	20	54	0.2
아일랜드	3	0	10	1,018	4	36	0.2
룩셈부르크	9	667	19	469	20	99	0.4
영국	45	314	28	260	7	12	0.1
벨기에	7	101	15	252	16	130	0.6
프랑스	39	110	35	218	16	22	0.1
스위스	19	644	17	103	10	71	0.3
스페인	5	3	3	82	5	108	0.5
이탈리아	14	56	10	8	6	5	0.0

84.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대일투자 동향 (요점)

1. 일본의 대한 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US\$백만,%)

연도별	투자유치 총 액	일본투자	
		금액	비율(%)
91	1,396	226	16.2
92	894	155	17.3
93	1,044	286	27.4
94	1,317	428	32.5
95	1,947	424	21.8
96	3,203	255	8.0
97	6,971	265	3.8
98	8,852	504	5.7
99	15,542	1,750	11.3
00	15,697	2,448	15.6
01	11,870	772	6.5
02	9,101	1,404	15.4
03	6,468	541	8.4
04	12,785	2,258	17.7
05.1-3	3,122	169	5.4

자료 : 산업자원부(2005년 6월 발표)

2.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현황 :

- 2004년 : 총 552건, 2,258백만불
 - 2005. 1-3월 누계 : 총 138건 169백만불
 - 1962년-2005.1/4분기 총누계실적(일본의 대한국투자)
 - 건수 : 총 8,412건
 - 금액 : 총 15,687백만불
- (2005. 6. 10 현재, 산업자원부 발표)

85. 물가금융 지표

연도	국내기업물가 (전년동기비,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평균환율 (엔/달러)	국내은행대출잔고 (억엔)
2002	-2.0	-0.9	124.64	4,316,425
2003	-0.8	-0.3	115.93	4,138,534
2004	1.3	0.0	108.18	4,040,009

2005.2	1.3	-0.3	104.88	4,004,578
--------	-----	------	--------	-----------

자료원 : Japan Economic Monthly (2005.5월호), JETRO

86. 노동통계/노동지표

연도	노동력인구 (만명)	취업자총수 (만명)	완전실업율 (%)	월간노동시간 (30명이상 제조업)
2002	6,689	6,330	5.4	163.8
2003	6,666	6,316	5.3	165.6
2004	6,642	6,329	4.7	167.7
2005.3	6,573	6,260	4.5	168.3

자료원 : Japan Economic Monthly (2005.5월호), JETRO

87. 지방자치구역동향/일본 주요기관 현황

□ 상공경제관련단체

○ (사)경제단체연합회

- 東京都千代田區大手町1-9-4
- 전화:03-3279-1411

○ 일본상공회의소

- 東京都千代田區丸の内3-2-2
- 전화 : 03-3283-7823

○ 동경상공회의소

- 東京都千代田區丸の内
- 전화 : 03-3283-7500

○ (사)경제동우회

- 東京都千代田區丸の内1-1-1
- 전화 : 03-3211-1271

○ 전국중소기업단체연합회

- 東京都港區赤坂1-9-3
- 전화 : 03-3586-2627

○ (사)관서경제연합회(關經連)

- 大阪市北區中之島6-2-27
- 전화 : 06-6441-0101

○ 관서경제동우회

- 大阪市北區中之島6-2-27
- 전화 : 06-6441-1031

□ 무역·국제경제관련 단체

○ 일본재외기업협회

- 東京都中央区京橋3-13-10
- 전화 : 03-3567-9271

○ 국제협력사업단

- 東京都澁谷區代 木2-1-1
- 전화 : 03-5352-5311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東京都港区虎ノ門2-2-5
- 전화 : 03-3582-5511

○ JETRO 비즈니스서포트센터

- 東京都港区赤坂2-17-22
- 전화 : 03-5562-3131

○ (사)일본무역회

- 東京都港区浜松町2-4-1
- 전화 : 03-3435-5952